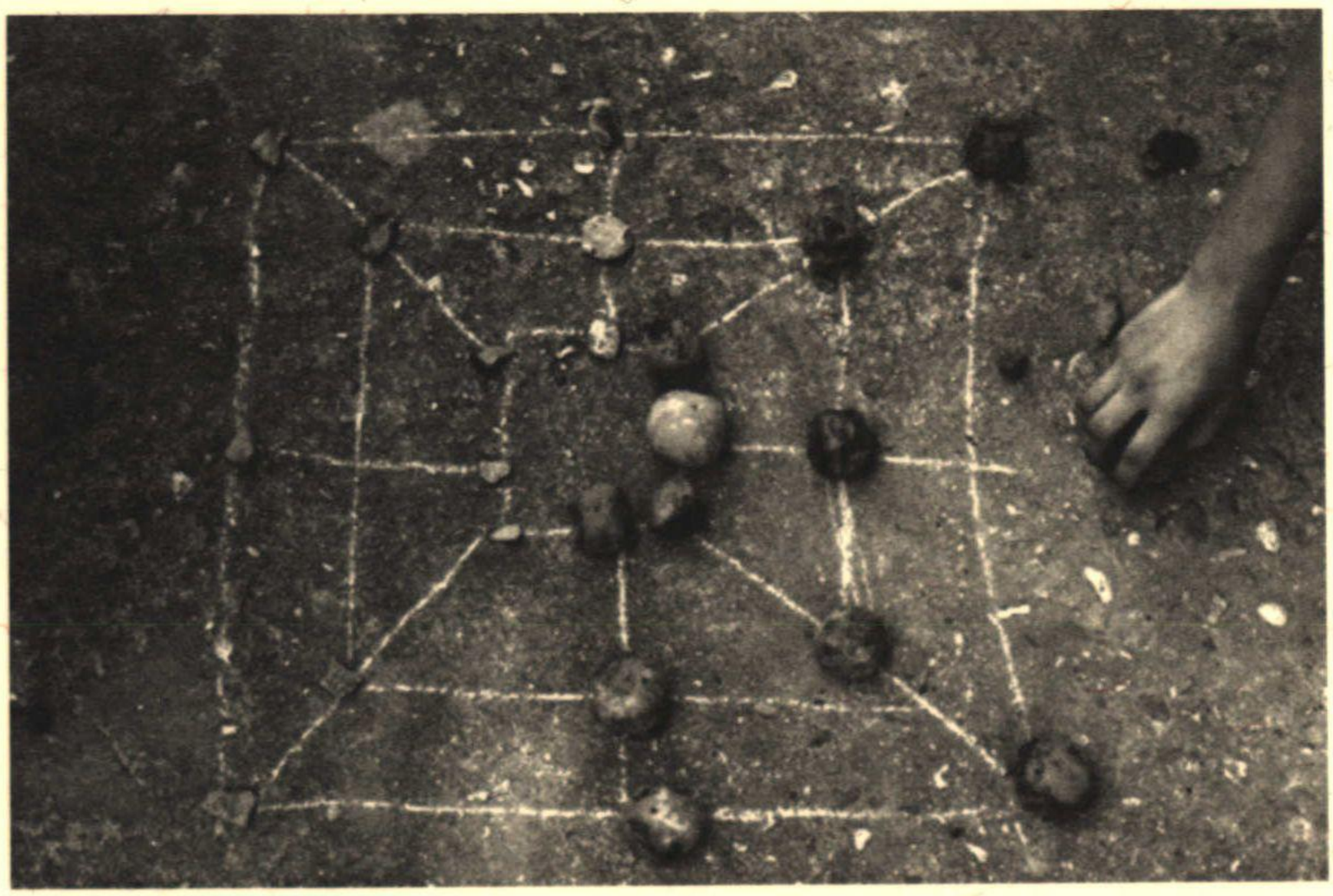
청양의 전통오락과 놀이문화

임동권·정형호·임장혁 공편



青陽文化院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한국세시풍속연구』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저서『양주별산대놀이』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외 다수

※ 앞표지 사진 : 매산리의 곤질고니
뒤표지 사진 : 아가사방

청양의 전통오락과 놀이문화

임동권·정형호·임장혁 공편



青陽文化院

발간사



청양문화원장 정재권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 온 전통문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날이 사라지고 있다.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의 생활사, 우리의 문화가 잠겨 있는데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전통문화를 소중히 가꾸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명감에서 우리 청양문화원에서는 해마다 계획을 세워 향토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흥미 있는 오락, 놀이를 하며 즐겼다. 남녀에 따라, 공간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혼자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즐기고, 내기를 하여 우열을 가리고 득과 손실을 보는 놀이들이 있었다. 여하튼 오락이나 놀이는 늘 즐거웠고, 흥미가 있어 때로는 어른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몰래 하는 일도 있었다. 오락과 놀이는 그만큼 흥미 있어 즐거웠던 것이다.

우리 청양은 농사를 지어 살아온 곳이지만 또한 중앙에 칠갑산이 솟아 있어 산악문하도 겸하고 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지역문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놀이문화는 어린이들의 학교교육이 변화와 놀이기구의 생산판매 등으로 새로운 놀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조상들이 남겨놓은 전통문화를 기록보존하자는 생각에서 여기에 "청양의 전통 오락과 놀이"를 내어 놓는다.

이번 조사도 예년처럼 이 고장 출신 임동권 박사와 중앙대학교 민속학과의 정형호, 임장혁 교수와 학생들이 수고를 해주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서 문

임 동 권

오락과 놀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놀이의 "놀"은 재미있고 흥겨운 것을 말하나 "놀"에서 동작이 있는 것은 "놀이"가 되고 소리 내어 즐기는 것은 "노래"가 된다. 즉 놀이와 노래는 사람을 흥겹게 하고 즐거운 "놀"에서 분화한 것이다. 오락(娛樂)도 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오락과 놀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이전에는 농경사회였고, 약 2000년 동안의 농경사회에서는 생활에 알맞은 오락과 놀이가 전승되어 왔다. 성(性)의 차에 따라 남녀의 놀이가 있고, 연령에 따라 소년놀이, 소녀놀이, 성인의 놀이가 있고, 작업(作業)에 따라 농경(農耕)놀이, 나무꾼놀이, 어부놀이, 수렵놀이, 특수 상황에 딸, 상여놀이, 가마꾼놀이, 보부상놀이, 각설이 놀이 등이 전승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새로운 분류법을 시도했다. 즉 놀이와 오락이 주는 생활에의 영향과 두뇌발달, 신체훈련, 승부내기 등을 고려해서 분류했다.

청양은 지리적으로 오지(奧地)에 속한다. 칠갑산(七甲山) 자락이 워낙 넓어 평야보다는 산촌이 많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이 청양의 놀이문화도 영향을 받았다.

학교 교육과 산업사회에 들면서 전래의 놀이문화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교과과정에 따라 서구의 놀이가 혼합되고, 집단적으로 전수되어 전래의 놀이보다는 전파된 놀이가 전수되고, 또 공업의 발달로 새로운 놀이도구를 생산하여 판매함에 따라 아이들이 손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놀이문화도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래의 놀이문화는 이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나 장차는 더 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놀이문화는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멸에 앞서 기록 보존하는 일은 민족문화 계승 보존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중앙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참가 담당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조 사 자 임동권(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형호(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임장혁(중앙대학교 부교수)

조사보조원 이덕우(중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과정)
김진영(중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과정)
오수지(중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과정)
김승유(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이지아(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심효윤(중앙대학교 민속학과 3학년)
김민우(중앙대학교 민속학과 1학년)
이연주(중앙대학교 민속학과 1학년)

목 차



발간사 / 5
서 문 / 7

Ⅰ. 청양의 '전통 오락과 놀이문화'의 특징 / 13

1. 놀이와 오락의 일반적 특징 ……14
2. 청양의 놀이와 오락의 유형 분류 ……24
3. 청양의 놀이문화와 오락의 특징 ……33

Ⅱ. 청양의 '전통오락과 놀이문화'의 실제 / 51

1. 기원적 놀이 ……52

(1) 꼬댁각시놀이 | 52
(2) 성춘향놀이 | 62
(3) 범놀이 | 70
(4) 다리밟기 | 73
(5) 오곡밥 훔쳐 먹기 | 74
(6) 멍석말이 | 79
(7) 상여놀이 | 81
(8) 기세배놀이 | 84
(9) 강다리놀이 | 85
(10) 더위팔기 | 88
(11) 연날리기 | 87
(12) 바람개비놀이 | 90
(13) 불넘기놀이 | 91



2. 생산유발형 놀이 ……92

(1) 걸립하기 | 92
(2) 쥐불놀이 | 96
(3) 줄다리기 | 107
(4) 길쌈놀이 | 108
(5) 노적봉세우기 | 109
(6) 가래질놀이 | 111
(7) 풀쌈놀이 | 111
(8) 지게풍장 | 112
(9) 봉답수답 | 112
(10) 자리개질놀이 | 114

3. 두뇌개발형 놀이 ……116

(1) 고니 | 116
(2) 땅따먹기 | 125
(3) 공기놀이 | 131
(4) 윷놀이 | 136
(5) 수건돌리기 | 147
(6) 종지돌리기 | 150
(7) 풀각시놀이 | 151
(8) 손바닥치기 | 154
(9) 소꿉놀이 | 155
(10) 실뜨기 | 158
(11) 연극놀이 | 160
(12) 거북이놀이 | 162
(13) 장기 | 163
(14) 차차차 | 163
(15) 호뜨기불기 | 164
(16) 보리풍년내기 | 164
(17) 잎새따기 | 165
(18) 쟁경도놀이 | 166
(19) 글자찾기 | 167
(20) 두꺼비집짓기 | 168
(21) 나무동무 | 168
(22) 방아개비놀이 | 169



(23) 선생님놀이 | 170
(24) 잠자리잡기 | 171
(25) 다리세기 | 172
(26) 손뼉치기 | 173
(27)유리보기놀이 | 174
(28) 눈(目)싸움 | 175

4. 신체단련형 놀이 ·····176
(1) 널뛰기 | 176
(2) 줄넘기 | 178
(3) 썰매타기 | 181
(4) 고무줄놀이 | 184
(5) 숨바꼭질 | 186
(6) 여우잡기 | 191
(7) 돌절구들기 | 192
(8) 그네뛰기 | 192
(9) 마부놀이 | 198
(10) 다리걸고놀기 | 198
(11) 제기차기 | 199
(12) 꼬리잡기 | 203
(13) 오재미 | 203
(14) 얼음치기 | 204

5. 겨루기형 놀이 ·····205
(1) 공치기 | 205
(2) 공차기 | 214
(3) 목자치기 | 216
(4) 비석치기 | 223
(5) 진돌이 | 225
(6) 씨름 | 232
(7) 말타기 | 235
(8) 호무랑 | 238



(9) 눈(雪)싸움 | 241
(10) 돌팔매 | 241
(11) 닭싸움 | 242
(12) 기마전 | 243
(13) 팽이치기 | 243
(14) 그림자밟기놀이 | 246
(15) 물총놀이 | 246
(16) 자치기 | 247
(17) 발자치기 | 254
(18) 잠수시합 | 255
(19) 고생박기 | 255
(20) 동화놀이 | 256
(21) 물치기놀이 | 257
(22) 풀베기놀이 | 258
(23) 발씨름 | 258
(24) 가마타기 | 259

6. 내기성 놀이 261

(1) 돈치기 | 261
(2) 딱지치기 | 263
(3) 못치기 | 268
(4) 상수리따먹기 | 270
(5) 고리먹기 | 271
(6) 구슬치기 | 273
(7) 총깍지놀이 | 276
(8) 갈퀴치기 | 277
(9) 낫치기 | 278
(10) 투전 | 280
(11) 골패 | 283
(12) 화투치기 | 283
(13) 엿치기 | 293
(14) 목침(화로)빼앗기 | 296
(15) 성냥치기 | 297
(16) 호미놀이 | 298
(17) 국수가닥늘리기 | 299



7. 오락과 여가 ……300

(1) 서리|300
(2) 고기잡이|305
(3) 새잡기|310
(4) 사냥하기|313
(5) 십자수|315
(6) 화류놀이|316
(7) 백중놀이|319
(8) 서울구경놀이|321
(9) 호드기불기|322
(10) 역마싸움|322
(11) 읍내 서커스|323
(12) 운동회|323
(13) 굴 속 아지트놀이|325

■ '청양의 전통 오락과 놀이문화' 제보자명단 / 327

Ⅰ. 청양의 '전통 오락과 놀이문화'의 특징



1. 놀이와 오락의 일반적 특징

현대 사회에 와서 놀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는 놀이를 일이나 신앙과 분리시켜, 비생산적인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놀이는 과연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가? 우리의 전통문화에는 '~놀이', '~논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풍물, 굿, 탈춤, 민요, 판소리, 동제, 집단놀이 등도 모두 '논다'고 표현한다.

우리 민족은 고대 원시종합예술에서부터 제의와 놀이를 밀접하게 연결시켰으며, 우리 문화는 여기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놀이는 놀이 자체가 아니라, 생산이나 신앙과 복합적인 관련을 지니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놀이는 원초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놀이 연구가인 프랑스의 까이요와는 놀이가 인류의 문명을 이룬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놀이는 비일상적인 시공간 속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의 집단놀이는 편싸움이 많기 때문에 경쟁 욕구를 자극하면서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적당한 긴장이 유발되나, 이것은 일시적인 유쾌한 긴장이

다. 한편 놀이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모방 본능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놀이공간에서는 신분이나 강자·약자의 차이가 없이 모두 평등하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간의 갈등도 해소한다. 이런 대규모 놀이에 참여하면서 그 자체로 재미를 느끼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된 일의 피로에서 벗어나 삶을 재충전하고 생산의욕을 높이며, 공동체적 삶을 확인한다.

마을간, 또는 고을 간에 이루어지는 집단 편놀이는 승패가 있기 때문에 매우 격렬하며 경우에 따라 패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놀이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놀이는 설정된 시·공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놀이의 승패는 그 자체로 끝나며, 그 승패의 감정이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는 승패를 풍요와 연결 짓는 경향이 있는데, 각 지역의 줄당기기, 차전놀이, 고싸움, 석전, 횃불싸움을 보면, 이긴 마을에 풍년이 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놀이를 규정이 없고 승패만이 존재하는 싸움과 구별하는 요소이다.

집단놀이는 지역민 다수가 참여하는 세시적, 축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놀이에는 풍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과거에는 상층의 놀이와 기층의 놀이가 구분되었으나, 근래에는 이런 구분이 희미해졌다.

우리의 경우, 놀이는 일이나 현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일을 하면서 악기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놀이가 비일상

적인 시공에서 행해지기 보다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실과 무관한 가상의 놀이라기보다는 현실과 밀접한 놀이 형태임을 나타낸다.

또한 놀이는 마을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을 동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두레(농악)나 줄다리기, 달집태우기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 마을신앙이 유교적으로 격식화된 의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개 놀이와 춤과 노래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전라도 당산제의 경우, 줄을 엮어서 줄을 당기는 놀이를 한 다음에, 마을 수호신인 당산신(나무 형태)에게 입힌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물을 차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 따라서 놀이가 마을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연결선상에 있다.

놀이에는 춤과 노래, 재담이 신명을 돋운다. 놀이에 흥겨운 춤과 지역의 민요가 다양하게 삽입되며, 이를 통해 집단은 하나가 된다.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구성원간의 다양한 갈등은 놀이 공간에서는 풀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신명풀이는 현실의 억눌린 삶의 아픔을 풀어버리고 긍정적 삶의 태도로 전환하는 전환의 기능을 한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 또한 이것은 집단적 일체감 속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며, 역동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이런 신명은 집단놀이·무속 풍물·탈춤·민요 등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집단놀이는 지역 축제의 바탕이 된다. 춤, 노래, 몸짓,

연극, 장단이 포함된 놀이는 지역의 신앙을 바탕으로 대동놀이화 하여, 집단의 신명을 풀고, 공동체적 삶을 형성시켜 주었다.

집단놀이는 축제화되는 과정에서 일상적 삶과 현실의 규범을 벗어나며, 어느 정도 일탈이 허용된다. 따라서 억압된 현실에 대한 풍자와 해학, 상·하 간 및 강자·약자 간 뒤집기를 통해 지배층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이 속에서 기층 민중은 삶의 희망을 찾는다. 곧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면서,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건강함을 확인한다.

한편 개인놀이는 대부분을 어린이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는 매우 다양하며, 속성상 자연친화적이고, 창조적이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삶의 원리를 터득하게 한다.

어린이놀이는 노는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놀이 도구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우선 놀이의 주체를 보면, 크게 소년놀이와 소녀놀이로 구분되지만, 남녀 공용의 놀이 도 나타난다. 대체로 소녀놀이는 소년놀이에 비해 적은 편이다. 민속학자 김광언은 소녀놀이는 소년놀이의 1/6 정도에 머문다고 보았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성인놀이에서는 남녀가 어울리는 놀이가 1/4에 불과한 데 비해, 어린이놀이는 약 40퍼센트가 소년, 소녀들이 같이 어울리는 놀이라는 점에서 어린이놀이가 훨씬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소년놀이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는 자치기·석전·횃불싸움·장

치기·팽이치기·말타기·닭싸움·제기차기·죽마타기·공차기·딱지치기·못치기·쥐불놀이·오징어놀이·진빼앗기·썰매타기 등이 있다. 대표적인 여성놀이로는 공기놀이·각시놀이·널뛰기·그네뛰기·손뼉치기·소꿉놀이·고무줄놀이·인형놀이·수건돌리기·춘향이놀이 등이 있다.

대부분 소녀들이 노는 놀이지만, 널뛰기나 그네뛰기, 춘향이놀이 등은 소녀와 부녀자들이 같이 노는 놀이 형태이다. 한편 남녀 어린이가 공용으로 노는 놀이로는 술래잡기·실뜨기·두껍놀이·집짓기·줄넘기·꼬리따기·손뼉치기·대장놀이·비석치기 등이 있다.

놀이는 노는 숫자에 따라 혼자 즐기는 개인놀이, 서넛이 편을 나누어 노는 상대놀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어울리는 집단놀이로 구분하는데, 개인놀이와 상대놀이의 대부분은 어린이놀이라고 할 수 있다.

놀이공간과 놀이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린이놀이는 대개 지상에서 행해지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이감을 도구로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물이나 산, 마을과 같은 주변공간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도구를 이용하는 어린이놀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치기·팽이치기·썰매타기·죽마놀이·장치기·널뛰기·산가지놀이 등이 있다. 한편 주변의 돌을 이용하는 경우는 비석치기·돌싸움(석전)·공기놀이·땅재먹기 등이 있다.

땅이나 흙을 이용하는 경우에 고누·집짓기·두껍놀이·땅따먹기 등이 있고, 종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딱지치기·연날리기·인형놀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실뜨기·연날리기 등이 있다. 그 외에 고무(고무줄놀이), 줄(줄넘기, 그네뛰기), 수건(수건돌리기), 못(못치기), 홰(횃불놀이), 공(공차기), 유리(구술치기), 쇠(굴렁쇠굴리기, 못치기), 깡통(깡통차기), 버들(버들피리불기, 호드기불기), 눈(눈싸움), 돈(돈치기), 얼음(썰매타기, 얼음지치기), 엿(엿치기), 장대(장대타기), 주사위(주사위놀이), 팔랑개비(팔랑개비돌리기), 풀(풀각시놀이), 지형지물(술래잡기), 해(그림자밟기), 달(달맞이), 물(물놀이, 고기잡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모두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대상이거나, 자연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놀이감들은 가능하면 어른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어린이 스스로 제작한다. 따라서 현대의 아이들처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도구가 필요 없는 놀이도 많다. 주로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두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는 손뼉치기·대장놀이·꼬리따기·오징어놀이·진빼앗기·말타기·닭싸움·고사리꺾기·깨금발싸움·눈[眼]싸움·대문열기·달팽이집놀이·등빼앗기·끝말잇기·씨름·수박치기·십자놀이·여우놀이·팔씨름 등이 있다.

이러한 어린이놀이는 단순히 노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놀이는 삶의 축소판으로 집단구성원들이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가, 또는 살면서 부닥치는 다양한 문제와 서로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터득하게 한다.

놀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이것은 전승주체인 다수의 어린이들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승부놀이에서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놀이는 단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걸쳐 놀다보면 싫증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놀이는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 놀이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나 다른 종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종목결정은 모두 아이들 자체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항상 다수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며, 일방적인 아집이나 고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놀이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불어 노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놀이의 방식도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석치기의 경우, 둥글고 납작한 돌을 이용하여 일정한 거리에 있는 상대의 돌 과녁을 맞히는 방식인데, 신체의 다양한 부위와 움직임을 이용해 맞히기 때문에 집단의 합의가 있으면 놀이방식을 쉽게 바꿀 수가 있다. 어린이놀이에서는 이런 즉흥적인 창조성이 허용된다.

한편 어린이놀이는 편을 갈라서 노는 승부놀이가 많다. 집단 편놀이나 상대 편놀이의 경우에는 승패가 있기 때문에 같은 편끼리 힘을 합쳐야 하며, 승리하기 위해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신체놀이의 경우에는 강한 감투정신과 용맹성으로 상대와 싸워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정이나 일시적 어려움은 소속된 집단을 위해 참고 무시해야 한다.

그리고 편은 수시로 갈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 같은 편이 되기

도 하고, 서로 상대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로 어울려 사는 삶의 원리를 터득하며, 일상에서 서로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도 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도 한다.

한편 아이들 놀이는 대부분 자연 속에서 놀이감을 얻고, 자연의 법칙을 통해 놀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이를 하다보면, 일찍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법칙을 터득하게 된다.

결국 아이들은 놀이의 과정에서 서로 어울려 사는 공동체 의식,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성, 힘든 과정을 참고 견디는 인내성, 정해진 규칙을 존중하는 준법성,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의 법칙, 갈등을 풀어가는 조화로운 심성 등을 터득하게 된다.

집단놀이나 개인놀이는 놀이 종목에 따라 개인의 일생 동안 최소 한번 이상은 경험하게 된다. 이런 놀이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전승되었으나, 현대에 와서 생업과 공간이 바뀌면서 놀이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 와서 놀이의 부정적 인식은 산업화에 의해 놀이를 일과 분리시켜, 비생산적인 행위로 규정짓기 때문이다. 놀이의 부정적 인식은 놀이를 삶에 무의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경쟁체재와 물질적 욕구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놀이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놀이를 통해서 집단이 하나가 되고, 놀이를 통해서 일은 즐거움으로 전환되며, 놀이를 통해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빌고,

놀이를 통해 현실의 갈등을 풀어버린다. 따라서 기층 집단은 모두 지역에서 전승되는 놀이문화의 직접적인 전승자였다고 볼 수 있다.

세시풍속과 놀이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놀이 중에서 세시놀이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지닌다. 세시풍속은 일 년을 단위로 하여 자연의 변화, 생산 활동, 각종 의례와 놀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시대에 따른 생업이나 일상적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세시풍속도 바뀌고 있다.

이것은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한 천체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할 경우에는 태양력, 달을 중심으로 하는 태음력이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절충하는 지혜로움을 지녔다. 곧 오랫동안 태음력을 사용했지만 농사와 관련된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도 고려하였다.

우리의 세시풍속은 농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농경세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년 열두달의 세시풍속은 농사의 시기, 풍요에 대한 예측, 풍요 기원의식, 수확에 대한 감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전통놀이의 약화와 함께 오락과 여가생활이 형성되었다. 곧 생산적인, 또는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근래 마을의 노년층의 증가와 급격한 생업의 변화로 인해 농사일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많아

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시골마을에서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오락과 여가생활은 비교적 단순하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화투와 음주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와 바둑, 노인층끼리의 담화가 주를 이룬다. 한편 정초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할머니들의 윷놀이가 전통 놀이를 가장 활발하게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봄가을의 나들이, 주기적인 회식 자리에서 춤과 노래가 생활의 단순함을 극복해준다. 그 외에 일반적인 여가생활인 TV시청, 라디오 청취, 낮잠 등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특별히 게이트볼, 등산, 헬스, 또한 노인대학을 통한 다양한 취미활동도 나타나지만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이런 오락과 여가생활의 다양성은 단조로운 농촌 노인들의 삶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청양의 놀이와 오락의 유형 분류

민속놀이는 전승집단의 규모와 성별, 놀이의 시기,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놀이에 대한 유형 분류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분류법이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승집단의 규모에 따라 집단놀이와 개인놀이로 구분할 수 있다. 집단놀이는 인원이 명확하지 않으나, 보통 놀이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이 십수명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대 개인으로 편을 갈라 행하는 놀이는 개인놀이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개인놀이와 집단놀이의 중간 형태로 소수의 인원이 편을 갈라 노는 놀이를 상대놀이로 설정하기도 한다.

집단놀이의 경우, 마을과 마을 사이의 대결로 나타나기도 하고, 줄다리기와 같이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대결하는 형태도 있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집단놀이는 남성 집단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루기의 형식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 해의 풍요를 비는 농경세시놀이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특별한 구분 없이 집단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동놀이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랜 역사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참여하는 전승집단의 성별에 따라 나누면 남성놀이, 여성놀이, 남녀 혼성놀이, 아동놀이로 구분된다. 남성의 놀이는 싸움 형식의 겨루기가 많다. 따라서 명칭도 '~치기', '~싸움' 등의 이름이 많이 사용된다. 여성의 놀이는 주로 춤과 노래가 많이 삽입되며, 놀이의 종류가 남성에 비해 적은 편이다. 또한 여성들에게 일의 반복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 형태도 있다.

어린이(아동)놀이는 사내아이놀이와 계집아이놀이로 구분되며, 대개 놀이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뉜다. 대개 지상에서 행해지며, 자연 속의 나무나 돌, 나무, 종이, 실 등을 이용해서 노는 경우가 많고, 필요에 따라 지형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세시풍속과 관련지어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놀이가 이루어지는 세시놀이가 있고, 계절에 관계없이 행해지는 비세시놀이도 있다. 특히 정초부터 정월 보름 사이에 많은 세시놀이가 집중되어 있고, 단오·백중·추석과 농한기인 겨울철에 놀이가 많이 나타난다.

승부 여부에 따라 승부(겨루기)놀이, 비승부놀이로 구분되며, 이것도 다시 개인이나 집단이냐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이런 승부는 놀이에 적당한 긴장감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기능을 뽐내는 개인놀이보다는 집단적인 편놀이의 형태가 많다.

따라서 승패에 좌우되기 때문에 강한 승부욕을 자극해서 놀이 자체가 역동성을 지니게 된다.

청양의 놀이와 오락에 대한 실제 분류는 위의 기준으로 한다면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면 다양한 형태로 나뉘며, 이럴 경우 하나의 놀이가 여러 유형에 중복 편성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기존 여러 분류법을 혼용할 경우에 분류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놀이의 전반적 성격을 두루 고려하여, 기원적 놀이, 생산유발형 놀이, 두뇌개별형 놀이, 신체단련형 놀이, 겨루기형 놀이, 내기성 놀이, 오락과 여가 등 7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첫째, 기원적(祈願的) 놀이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축귀, 정화, 기원의 의식을 통해 마을이나 개인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라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주로 정초나 정월보름에 많이 나타난다.

청양의 기원적 놀이는 꼬댁각시놀이·성춘향놀이·범놀이·다리밟기·오곡밥 훔쳐먹기·멍석말이·상여놀이·기세배놀이·강다리놀이·더위팔기·연날리기·바람개비놀이·불넘기놀이 등이 있다.

꼬댁각시나 성춘향놀이는 미혼 여성들의 혼인과 시집살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춘향의 영혼과 삶으로 집단 최면과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해 집단 이입시켜, 현실적 삶의 고난을 이상적인 삶으로 전환하고 극복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범놀이는 정월 보름에 호랑이 형상의 가장을 통해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려는 욕구를 반영한 놀이이다. 멍석말이는 강강술래 형태로 보름달에 부녀자들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귀적 의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더위팔기는 더위 예방, 오곡밥 훔쳐먹기는 풍요로운 식생활에 대한 기대, 기세배놀이는 한 해의 풍요, 강다리놀이는 종이를 태워 액땜을 하는 축귀 의식이며, 연날리기는 호연지기와 액운의 방지, 불넘기놀이도 부정을 막고 정화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상여놀이는 망자를 저승에 무사히 보내기 위한 의례이며, 바람개비놀이는 도는 상태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놀이 형태이다.

둘째, 생산유발형 놀이는 놀이 형태가 마을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며, 또한 풍흉을 점치는 놀이 형태라 할 수 있다. 주로 집단놀이가 많고, 정초나 1~2월에 몰려 있다.

이에는 걸립, 쥐불놀이(횃불싸움), 줄다리기, 길쌈놀이, 보리풍년내기, 노적봉세우기, 가래질놀이, 풀쌈놀이, 지게풍장, 봉답수답, 농악, 두레놀이, 자리개질놀이 등이 있다.

정초의 걸립은 지신을 밟아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위한 것으로 주로 풍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월 대보름의 쥐불놀이는 불이 지닌 생명력과 정화의 상징성을 통해 한 해가 불처럼 강하게 일어나서 풍요로운 생산성을 기원하는 놀이이고, 멍석말이를 하면서 달맞이를 하는데, 이는 첫 번째 만월의 시기에 한 해가

달처럼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놀이이다. 줄다리기는 암수의 결합을 통해 생산의 증대를 유도하는 놀이이다. 그리고 보리풍년내기는 윷을 이용해 보리농사를 재현하면서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며, 봉답수답은 윷놀이로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또한 노적봉세우기는 2월 초하루에 소나무와 짚으로 볏가리를 봉우리 형태로 세워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이다. 가래질놀이는 가래질 형태를 사람에게 적용해 팔다리를 잡고 재현하는 놀이이며, 풀쌈놀이도 풀베기 작업의 재현 형태의 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농사짓는 일을 모방하는 놀이이다. 지게풍장은 지게를 지고 풍장 흉내를 내며 나무하는 일의 고달픔을 잊게 하려는 의도에서 형성된 놀이이다. 그리고 두레놀이는 직접적인 생산활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놀이이고, 두레의 작업 과정에 농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자리개질놀이는 타작 시기의 공동 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두뇌개발형 놀이는 신체적 움직임이 많지 않고, 대체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정적인 놀이 형태이다. 주로 두뇌개발과 정서 함양, 인성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인놀이가 많고 유희적 성격이 나타나며, 어린이놀이에 많이 나타난다.

이에는 고니·땅따먹기(튕기발이)·공기놀이·윷놀이· 수건돌리기(풍금놀이)·종지돌리기·풀각시놀이(각시풀)·손바닥치기·소꿉놀이(소꿉장난·분쌈놀이)·실뜨기·연극놀이·구슬치기(다마치기)·장기·차차·호뜨기불기·보리풍년내기·잎새따기(잎따내기)·쟁경도놀이·글자찾기·두꺼비집짓기·나무동무·방아개비놀이·선생님놀이·잠자

리잡기·다리세기·손뼉치기·유리보기놀이·눈[目]싸움 등이 있다.

이 놀이는 놀이도구로 돌·나무·수건·종지·풀·신체·실·유리·잎·종이·흙 등이 사용되며, 놀이공간도 마당·방안·들판·길가·정자나무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넷째, 신체단련형 놀이는 신체의 균형감·지구력·유연성·순발력·근력 등을 길러주는 놀이 형태이다. 역시 어린이 놀이가 많으며, 야외에서 놀이도구를 사용한 동적인 놀이가 많다. 놀이도구로는 줄·썰매·고무줄·널·깡통·들돌·제기·콩주머니 등이 사용된다.

이에는 널뛰기·줄넘기·썰매타기·고무줄놀이·숨바꼭질·여우잡기·돌절구들기·여우잡기·마부놀이·다리걸고놀기·제기차기·꼬리잡기·오재미·얼음치기 등이 있다.

숨바꼭질·여우잡기·꼬리잡기·줄넘기는 순발력과 지구력, 널뛰기와 고무줄놀이·다리걸고 돌기·제기차기·오재미는 균형감각과 유연성, 돌절구들기·얼음치기·말타기는 강한 근력을 길러 준다.

다섯째, 겨루기형 놀이는 신체단련형 놀이 중에서 편을 갈라서 행해지는데,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격렬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겨루기 놀이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며, 편을 갈라서 한다. 놀이 도구로 공·나무·돌·유리·막대와 천·물총·물·콩주머니·풀 등이 쓰인다.

이에는 공치기·공차기·목자치기·비석치기·구슬치기·진돌이·씨름·말타기·호무랑·눈[雪]싸움·돌팔매·닭싸움·기마전·팽이치기·그림자밟기놀이·물총놀이·자치기·발자치기·잠수시합·고생박기·동

화놀이·물치기놀이·풀베기놀이·발씨름 등이 있다.

편을 가를 때에는 대부분 비슷한 놀이 능력을 가진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편을 가른다. 그리고 이긴 편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고, 진편이 수비를 하는 형태를 지닌다. 놀이는 같은 형태가 반복되어 점수화하기도 하고, 승패의 횟수로 그 날의 놀이를 평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놀이 단계를 점차로 올려가면서 상승시키기도 한다.

특이하게 동화놀이는 꼬리잡기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데, 노래를 부르며 가위바위보나 흥정으로 꼬리를 떼어주는 형태의 놀이이다. 이것은 달집태우기 형태인 동홰놀이와는 다른 형태의 놀이라 할 수 있다. 겨루기놀이 중에서 호무랑은 호무령이라고도 하는데, 야구의 홈런을 길게 발음하여 호무랑이라 한 것으로, 야구놀이의 형태이다.

여섯째, 내기성 놀이는 겨루기 형의 놀이 중에서 노름이나 내기성이 강한 것으로, 주로 남성들에 의해 전승되는 놀이이다. 승패에 의해 상대방의 물건이나 돈을 취득하는 형태를 이에 분류했다. 주로 내기 형태는 돈·딱지·못·상수리·구슬·총알(총깍지)·나무단·술·엿·목침·성냥·풀·쑥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내기형 놀이는 돈치기·딱지치기(빳지치기 포함), 못치기·상수리따먹기·고리먹기(고리미끼·고리땡 포함)·구슬치기·총깍지놀이·갈퀴치기·낫치기·투전·골패·화투치기(빠가살이 포함)·엿치기·목침(화로)빼앗기·성냥치기·호미놀이·국수가닥늘리기 등이 있다.

대개 놀이감을 서로 뺏고 빼앗기는 놀이 형태가 많다. 예를

들어 딱지치기·못치기·상수리따먹기·구슬치기·총깍지놀이·엿치기·성냥치기는 놀이감 자체를 걸고 승부를 정한다. 한편 돈치기, 고리먹기나, 목침화로 빼앗기, 화투치기, 투전, 골패는 돈이나 술 내기 형태가 많으며, 낫치기, 갈퀴치기, 호미놀이는 대개 나무단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 국수가닥 늘리기는 승패에 의해 진편이 이긴 편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방식이다. 특히 고리먹기는 내기가 풀·쑥·나무로 다양화된다.

일곱째, 오락과 여가는 근대화 이후에 형성된 것이 많으며, 편을 갈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승패가 없고 격렬한 대립이 없다. 따라서 유희적이고, 대체로 정적이며, 재미 위주이다. 앞의 6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기원이나 생산, 두뇌개발, 신체단련, 승패, 내기와 무관한 것들이다.

이에는 서리·고기잡이(물고기잡이·참게잡이·조개잡기·천렵)·새잡기·사냥하기(사냥가기·살가지잡기·멧돼지사냥·매사냥)·십자수·화류놀이(삼짇날놀이)·백중놀이(호미씻이)·서울구경놀이·자리개질놀이·호드기불기·역마싸움·읍내 서커스 구경·운동회·굴속 아지트놀이 등이 있다.

위의 청양의 놀이와 오락문화는 청양의 자연적 환경, 생업적 특징, 역사적 삶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삶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신분적 억압이나 현실적 결핍에서 벗어나 일시적 즐거움과 신명을 불러일으켜준다. 따라서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 삶의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또한 놀이의 과정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청양의 놀이문화와 오락의 특징

청양의 놀이와 오락의 특징은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이 지역에만 나타나는 고유성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두루 나타나는 일반적 성격도 나타난다. 이 지역의 놀이문화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양의 놀이와 오락은 지형이나 생업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논농사 중심의 줄다리기나 대형 두레놀이와 같은 집단놀이가 미약한 대신, 산악 지대에서 성행하는 공치기(장치기) 놀이, 광산 지역과 베틀 짜는 지역을 중심으로 꼬댁각시놀이와 같은 여성놀이가 성행하고, 신앙성 놀이가 강하게 전승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청양은 산악지대와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동화제, 장승제, 산제, 용왕제, 거리제 등의 신앙성 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것은 놀이적 성격보다는 풍요와 안녕 기원의 신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놀이의 분류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농사나 농촌 작업의 재현 형태의 놀이도 나타난다. 청양은 중심에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형성되어 있고, 주위에

밭농사가 널리 행해진다. 그리고 청남면이나 장평면의 금강 가를 중심으로 널리 논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에 면 단위로 부분적인 논농사 지역이 있다. 그런 점에서 논농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줄다리기가 이곳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대치면 광금리에서 일제시대에 아래윗마을 사이의 줄다리기가 있었다는 증언만 들을 수 있었고, 칠갑산의 오지마을이며 피난골인 천장리에서 운동회와 마을 공간에서 간헐적인 줄다리기가 있었다는 구술만 들었다. 두 마을 모두 산악지역이란 점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특이한 현상이다.

남양면 중심으로 미혼 여성들이 힘든 베틀과 물레에 매달려 길쌈작업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한편 남양면, 장평면을 중심으로 금광과 중석광산이 널리 퍼져있어 젊은 남성들이 광산의 진폐로 고통을 겪고, 폐병과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인해 여성들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 지역적 배경에다 이 지역의 처녀들은 시집살이라는 미래의 고통스런 과정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시대적으로 일제 말기의 식민통지, 전후의 혼란, 6·25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힘든 생활상을 꼬대각시놀이나 성춘향놀이에 담아내게 된다.

한편 이 지역은 밭농사가 중심이고 논농사 중심이 적기 때문에 두레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그런 점에서 농악이나 두레놀이도 소규모이며, 후대의 전승력도 약해서 대부분 1940~1950년대에 소멸되고 일부만 1960~1970년대까지 전승된다. 현존 농악의 전승은 극히 일부에 머무른다.

한편 농경을 통해 풍흉을 점치거나 농사일을 재현하는 놀이도 전승된다. 윷놀이를 통한 풍흉을 점치는 봉답수답이 특이하며, 타작이라는 공동 작업을 통해 일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자리개질 놀이와 가래질놀이도 주목된다.

둘째, 청양의 놀이를 보면, 대규모 집단놀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특색있는 것은 남성 집단놀이로 공치기, 농악, 두레놀이가 있고, 여성놀이로는 꼬댁각시놀이, 성춘향놀이가 전승된다. 그런데 이런 집단놀이는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대표적인 집단놀이는 꼬댁각시놀이나 성춘향놀이라 할 수 있다. 꼬댁각시놀이가 청남면 인양리, 장평면 미당리에 전승되며, 이 놀이가 처녀들의 놀이란 점에서 시집오기 전의 친정 지역인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부여군 남면 상룡리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남양면 온암리, 매곡리, 구룡리에도 이 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점에서 꼬댁각시놀이의 분포는 대체로 청양의 남쪽 지방이다. 그에 비해 꼬댁각시와 유사한 성춘향놀이는 운곡면 위라리, 신대리, 비봉면 관산리, 갈마동 지역에 전승되고 있다. 이런 놀이는 인근 홍성 지역에서도 전승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꼬댁각시놀이나 성춘향놀이는 공주, 부여, 홍성의 인근 지역까지 전승지역이 확대된다. 이 놀이는 주로 1940년대까지 전승되었으며, 전쟁 이후에 쇠퇴하지만, 일부 1960년대까지 전승된 지역도 있다.

청양에서 남성들의 대표적인 집단놀이는 공치기라 할 수 있

다. 이것은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주로 나무하러 가는 10대의 남자 아이들이 산에서 많이 놀았던 놀이 형태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장치기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공치기라고 하며, 딱공차기, 공놀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조사 지역에 따른 분포를 보면, 주로 정산면과 장평면에 집중되어 있다. 정산면은 마치리, 역촌리, 송학리, 천장리, 남천리, 덕성리 지역에서, 장평면은 화산리, 구룡리, 낙지리, 분향1리, 미당리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그 외에 청남면 상장리, 목면 안심리, 대치면 탄정리, 운곡면 위라리, 후덕리, 화성면 용당리 등에도 공치기가 전승된다.

주로 4~5명에서 7~8명씩 각각 편을 나누며, 심지어 15명까지 한 편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놀이의 참여 인원은 일정하지 않다. 시기는 주로 2~4월의 봄철로 나타난다. 놀이에 참여한 나이 대는 10대 초반에서부터 20살 정도까지 나타나며, 주로 산에 나무하러 가서 놀이가 이루어진다. 놀이도구를 보면, 공은 소나무 옹이나 짚뭉치를 둥근 공 모양으로 만들아 사용하였으며, 때에 따라 칡줄기를 뭉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공을 치는 채는 나무를 하키 채 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지게작대기를 사용하였다.

이런 공치기가 전승되었던 시기는 주로 해방 전이나 직후까지이며, 6·25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다. 놀이가 이루어진 공간을 보면, 주로 산등성이가 많으며, 묘자리 주위의 평지, 고개 근처, 동네의 바깥마당이나 들판, 강변에서도 놀이가 이루어졌다. 격

렬한 운동이라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한 경우 눈이 빠진 적도 있다고 한다. 놀이공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데, 하송 위솔티 공마당(정산면 송학리), 정혜사가 있는 절산과 화산(장평면 화산리), 황덕굴(정산면 남천리), 안장고개 근처(장평면 낙지리), 망월산 평평한 곳(장편면 분향1리)과 같이 구체적인 지명으로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보아 놀이 공간이 일정하고, 주기적으로 그곳에서 놀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목면 안심리에서는 놀이에서 내기가 이루어져 진편이 이긴 편에게 나무를 대신 해주거나, 나무짐을 날라주는 벌칙을 부여받기도 했다.

청양의 농악은 대체로 풍장, 풀물, 농악 등의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2년도에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농악은 전 지역에 두루 나타난다. 당시 청남면 인양리, 왕진리1구, 상장1리, 정산면 송학리, 용두리, 남천리, 장평면 미당리, 낙지리, 청양읍 적누리, 목면 본의 1리, 남양면 매곡리 1구, 비봉면 신월리 1구, 녹평리, 대치면 대치리, 탄정리, 화성면 용당리, 장계리, 운곡면 후덕리 등의 농악이 조사되었다. 그 외에 범놀이의 장평면 도림리, 노적봉 세우기의 비봉면 녹평리, 기세배놀이의 운곡면 모곡리, 안심리, 청양읍 상대리 등도 모두 농악이 전승되며, 실제로는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당시 두레놀이로는 청남면 인양리, 천내리, 정산면 송학리, 남천리, 대박리, 덕성리,장평면 미당리, 청양읍 적누리, 송방리, 목면 본의 1리, 본의 2리, 남양면 매곡 1리, 대치면 대치리, 탄정리, 화성면 용당리 등이 조사되었다. 대체로 농악의 전승지역과

두레놀이의 전승 지역은 상호 겹치는 지역이 많다.

한편 범놀이는 장평면 도림리 마제마을에만 전승되는 정월대보름의 놀이로, 지역적 편중성을 지닌다. 호랑이 형상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초 축귀적인 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호랑이와 관련된 놀이가 드문 상태에서 이 마을의 범놀이는 그 희귀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소놀이나 거북놀이가 중부지방에 널리 퍼져있지만, 범놀이는 오직 이 마을에서만 조사되었다. 다만 현재 전승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안타깝다.

노적봉세우기는 비봉면 녹평리에만 전승되며 농악대가 중심이 된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 지신밟기를 하면서 약 20호 정도의 마당에 노적봉을 세워주고 2월 1일에 다시 방문하여 풀어준다. 노적봉은 긴 대나무 대 위에 짚으로 사람 머리 형상을 만들어 세우며, 이것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노적가리 형태로 세운다. 이 놀이는 대체로 충남 서북쪽 지역에 널리 전승되지만 청양 지역에서는 희귀한 편이다.

기세배놀이는 용대기라고도 하는데, 정월대보름에 농악대 사이에 농기 또는 용기로 윗마을, 어른마을에 세배를 드리며 노는 놀이 형태이다. 이에는 운곡면 모곡리, 이웃 연양리, 운곡면 안심리, 청양읍 상대리 등에서 전승되며, 역시 지역적 편중성을 지닌다.

정초의 걸립은 농악이 전승하는 곳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주로 정월 12~14일 경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종의 지

신밟기 형태로, 마을의 각 집을 다니며 지신을 위하면서 일년 동안 집안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적인 기원형 놀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청양의 놀이의 도구와 공간을 보면, 도구는 인간의 신체를 주로 활용하면서 놀이감을 자연에서 취득했으며, 공간은 야외의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놀이가 이루어졌다.

놀이감은 주로 자연에서 얻는데 돌, 나무, 수건, 종지, 풀, 잎, 종이, 흙, 모래, 짚에서 얻으며, 자연의 산물인 고무, 실, 유리구슬, 줄도 사용된다. 그 외에 자연을 이용한 썰매, 널, 깡통, 들돌, 제기, 장기 등도 쓰인다. 때에 따라 농기구나 생활 용구인 지게, 낫, 갈퀴, 호미 등도 놀이감으로 사용된다.

놀이공간을 보면 마당, 들판, 길가, 정자나무, 냇가와 같은 야외 공간이 대다수 이며, 간혹 방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야외의 공간은 마을 길, 뒷산 언덕, 집 안의 마당, 논가, 냇가와 강가, 얼음판, 과수원, 학교 운동장 등 다양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논이나 밭이 놀이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한편 지역에 따라 산 속의 묘 자리가 좋은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곳은 주로 나무를 하러 가는 초동들의 공치기 장소로 사용되었다. 한편 봄철 나들이 장소로 절 근처의 한적한 장소도 사용되었다.

넷째, 청양의 놀이를 보면, 편놀이 형태가 많으며, 이에 의해 내기 형태의 놀이도 많이 나타난다. 내기의 대상은 주로 음식, 자연물, 인공물, 생산물, 돈으로 다양하다. 우선 노름성이 강한

투전이나 골패, 화투놀이인 빠가살이와 고스톱은 이곳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노름성 놀이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성인들의 내기를 보면, 어린이는 놀이감이나 생산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들은 돈이나 술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다. 내기를 위한 교환물은 딱지, 못, 상수리, 구슬, 총알(총깍지), 나무단, 술, 엿, 목침, 성냥, 풀, 쑥 등으로 다양하다. 대개 놀이감을 서로 뺏고 빼앗기는 놀이 형태를 지닌다. 예를 들어 딱지치기, 못치기, 상수리따먹기, 구슬치기, 총깍지놀이, 엿치기, 성냥치기는 어린이 놀이로 놀이감 자체를 걸고 승부를 정한다. 한편 고리먹기나, 목침화로 빼앗기, 화투치기, 투전, 골패는 성인놀이로 대개 돈이나 술 내기 형태가 많으며, 낫치기, 갈퀴치기, 호미놀이는 대개 나무단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 국수가닥늘리기는 승패에 의해 진편이 이긴 편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방식이고, 고리먹기는 내기 대상이 풀, 쑥, 나무로 다양화된다.

다섯째, 청양의 경우, 남성놀이가 주를 이루지만, 예상외로 여성놀이가 많이 전승된다. 꼬댁각시놀이, 성춘향놀이는 처녀들이 집단최면을 통해 춘향의 영혼을 감정이입을 시켜 바람직한 삶을 기원하는 놀이 형태도 있다.

그리고 멍석말이나 보름달밟기는 강강술래 유형인데, 전라도 지역의 강강술래와 같이 노래에 의해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성들이 손을 맞잡거나, 옆 사람의 어깨에 얹고 원무를

돌면서 춤을 추는 형태이다.

한편 여성들에게 생산성을 고취시키는 놀이 형태도 나타난다. 길쌈놀이는 여성들이 집단으로 분업화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놀이화된 것이다. 화류놀이는 일종의 봄철 꽃놀이로, 삼짇날 또는 3월의 개나리 진달래 꽃 피는 시절에 이루어진다. 이 날 음식을 준비하고 춤과 노래로서 하루를 즐긴다. 그 외에 성인 여성들의 놀이로, 그네뛰기와 널뛰기가 있으며, 여가로 십자수 등이 있다.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지역에도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놀이가 있는데, 주로 여자 아이들이 노는 놀이형태이다. 수건돌리기와 풍금놀이, 윷놀이, 공기놀이, 풀각시놀이, 손바닥치기, 소꿉놀이, 실뜨기, 잎새따기, 글자찾기, 손뼉치기, 유리보기놀이, 줄넘기, 고무줄놀이, 숨바꼭질, 꼬리잡기, 동화놀이(꼬리잡기 형태), 오재미놀이, 목자치기, 비석치기, 눈싸움, 그림자밟기놀이, 물치기, 호드기불기, 자리개질놀이 등이 있다.

여섯째, 청양지역의 서리는 일종의 오락으로, 주로 남자 아이들이 주도한다. 서리에는 참외, 수박, 고구마, 콩, 감자, 닭, 토끼, 땅콩, 대추, 옥수수, 토마토, 밥으로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과일이나 밭작물이 많지만, 닭과 토끼처럼 소형 가축도 서리의 대상이다.

서리는 주로 여름과 가을에 이루어지는데, 여름에는 참외, 수박, 토마토, 감자 등이 서리의 대상이며, 가을에는 콩, 고구마, 옥수수, 대추 등이다. 한편 닭서리는 계절에 관계없이 행해진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닭서리를 10월 상달에 하는 안택고사의 시끄러운 시기를 골라 하는 경우도 있다.

서리는 아이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하기 때문에 발각되어도 크게 혼을 내지 않으며, 대개 어른들이 묵인하다. 만약 들킨다 하더라도 야단을 맞는 정도에 그친다. 한편 제기차기나 일반 편놀이를 해서 진편이 이긴 편의 요구에 의해 서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서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다. 여름철 과일 서리를 할 때에는 원두막에 오줌통을 놓아두어 주인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들키지 않기 위해 평상시 입는 흰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서리를 하기도 한다.

대체로 서리할 때에는 주인집 아들이 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만약 들키더라도 크게 야단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한편 감자 서리할 때에 감자 진이 손에 묻어 들킨 사례도 나타난다. 대추서리의 경우, 머리에 바가지를 쓰고 대추를 털었을 때에 머리에 떨어지는 충격을 완화한다. 서리한 것은 남자들은 바지 속에 넣어 운반하며, 여자들은 치마를 사용한다. 서리한 음식은 아이들이 어른이 없는 사랑방이나 동네 느티나무, 동네 굴속 등과 같이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처리한다.

일곱째, 청양에는 여성들의 집단놀이 형태로 꼬대각시놀이, 성춘향놀이가 있다.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놀이와 달리 놀이에 주술성, 신통력, 놀이성, 여성의식

이 두루 나타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춘향이놀이라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전승되지만, 청양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는 꼬대각시(꼬댁각시)놀이로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 놀이는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조사한 사례에 의하면, 전국의 125곳에서 놀이가 전승되고 있다는 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 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서부 지역에서 전승되지만, 지역 분포는 전국적이다. 전국 125곳 중에서, 춘향이놀이 63곳(전남북 53곳, 경남북 10곳, 충북6, 기타 4곳), 춘향아씨놀리기 22곳(경북 10곳, 충남6, 기타 6), 꼬대각시놀이(충남 4, 경남 4곳, 경남 2) 10곳, 꼬대(기)각시놀리기 5곳(충남3, 경남2), (나막골)춘향이놀리기 4곳, 춘향아씨놀이 4곳, 기타 춘향이살이 2곳, 나막골춘향아씨놀리기 2곳, 만만지놀이 2곳, 기타 춘향각시놀이, 꼭두각시놀이(충남) 등으로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춘향이놀이가 가장 일반적이고, 춘향아씨놀리기, 성춘향놀이, 꼬대각시놀이의 순서로 나타난다.

놀이의 유형도 초기에 미혼 여성들이 춘향 관련 주문을 통해 특정인에게 신기를 불어넣어서 모은 손이 벌어지거나 반지를 쥔 손이 벌어지게 하는 신통력 확인 방식에서 출발하여, 점차 신내림대의 사용, 집단 신명의 가무, 서사민요 가창, 강강술래, 수건찾기 등의 놀이가 가미되었다.

종교적 특징을 보면, 짤막한 주문은 3~4음절에 2보격·4보격을 지니며, 신격의 주체가 춘향이고, 서술은 '놀아라', '춤춰라', '벌어져라' 식의 명령형이 가장 많다. 그리고 신내림이 오는 현

상은 굿에서의 빙의 현상과 유사하며, 내림대와 반지가 주술적 매개물로 작용한다.

놀이적 성격은, 민간의 젊은 여성들이 정초에 특정인을 술래로 지정하여 진행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부분 주술적인 주문이 집단의 노래로 불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원무의 형태를 지닌 집단적인 신명풀이가 이루어진다. 한편 신통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손수건 돌리기 형태의 놀이도 첨가된다.

미혼 여성들은 혼인의 시기, 대상자, 혼인 이후의 시집살이, 자식 출산 등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며, 이런 이유로 미래의 길흉에 대한 예조에 관심을 갖는다.

청양지방에서 전승되는 꼬대각시놀이, 성춘향이놀이는 미혼 여성들이 전승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기층 집단의 여성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오히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특히 혼인 이후에 겪게 될 시집살이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미혼의 여성들은 춘향의 영혼을 이입시켜 신통한 능력을 시험하지만, 이것은 춘향이라는 인물의 이상적 삶에 대한 기대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천한 신분으로서 이도령이라는 양반과 결합하여 신분상승을 이루고, 사랑하는 대상과 결합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춘향의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최면과 노래를 통해 춘향의 영혼을 이입시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심리적 억압 구조를 탈피하려고 시도하였다. 곧 복합적 놀이를 통해 혼인과 시집살이에 대한 두려움을 선험적인

행위를 통해 사전에 해소하려는 시도를 한다. 신분적으로 억압받고 사랑의 고통을 받았던 춘향을 통해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맛보려고 하였다.

충남 청양 지방에 전승되는 꼬대각시노래는 춘향이놀이에 시집살이노래가 가미된 형태를 지니면서, 미혼 여성들의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꼬대(꼬댁)각시의 일대기가 서사민요의 성격을 지니며 구연된다. 이 내용을 보면, 꼬대각시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 밑에서 구박을 받고, 헐벗고 굶주린다. 성장해서 가난한 집안의 성적 불구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는 비극적인 내용이다.

다른 유형을 보면, 가난한 집에서 불구인 시부모로부터 봉양을 소홀히 한다고 설움을 받다가 슬픔 속에 물에 빠져 죽는다는 내용이 첨가된다. 충남 예산 지방에서 전승된 꼬대각시노래는 꼬대각시가 조실부모하고 고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내용이 동일하고,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결국 연못에 빠져죽어 그 눈물이 서글픈 비가 되어 내린다는 내용이 첨가된다. 아산지방의 꼬대각시노래는 조실부모하고 5살에 가난한 집에 민며느리로 들어가 온갖 집안일을 하며 시부모로부터 구박을 당한다는 내용이다.

비록 사설에 춘향이가 등장하지 않지만, 주문에는 "춘향아 춘향아, 이팔청춘 성춘향아"를 구연하고 신내림, 반지와 수건 사용, 신명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춘향이놀이와 같은 유형이다.

이 놀이에 왜 춘향 관련 주문을 외면서, 서글픈 꼬대각시의 삶을 구연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부분의 춘향 관련 설화

나 판소리 및 관련 소설에는 춘향이 행복한 결말로 나타난다. 춘향은 천한 신분으로서, 고을 수령 변학도에 당당히 맞서, 양반 자제 이도령과 사랑을 성취하며, 신분상승을 이룬다.

고소설 '꼭두각시전'은 '노처녀곽독(郭禿)각씨전'이라고도 하는데, 지체가 낮고 못생긴 꼭두각시가 행복한 삶을 사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인기 있었던 서민가사 노처녀가를 기반으로 개작한 단편소설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전라도 무주의 꼭두각시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이 가난하고 얼굴도 못생겨서 늦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애를 태운다. 어느 날 골생원의 집에서 구혼을 받았으나, 혼인날을 받지 못하고 2년이 경과하자, 매파가 윤좌수의 후처로 가라는 제안을 한다. 꼭두각시는 이것을 거부하고 골생원 집에 찾아 가지만, 가난에다 불구자인 골생원을 보고서도 당당히 혼인을 한다. 그리고 예의범절을 지키며 동네 주민을 감동시키다가, 우연히 뒷동산에서 금덩이를 얻어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내용상 꼬대각시노래와 비교하면, 꼭두각시가 조실부모하여 고생하고, 시집을 제대로 가지 못하다가, 결국 가난하고 불구인 남편에게 시집간다는 점이 유사하다. 다만 꼬대각시는 혼인 후에 시부모로부터 구박을 당하거나 고통 속에 자결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지만, 꼭두각시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혼인하여 오히려 보상을 받아 부자가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꼭두각시의 결말 부분은 오히려 춘향전과 유사하다. 어찌 보면 구전되는 꼬대각시의 불행한 삶을 고소설 꼭두각시전은 행

복한 삶으로 전환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결말 부분에 뒷산에서 금을 발견해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매우 인위적이며, 꼭두각시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의 성격이 짙게 나타난다.

춘향이나 꼭두각시의 삶은 현실 속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고, 권력의 힘에 맞서며,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설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차라리 꼬대각시의 불행한 삶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조실부모하여 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고자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다가 자결하는 꼬대각시는 춘향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꼬대각시의 삶이 현실적인 삶이라면, 춘향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다.

기층 집단의 여성들은 춘향보다는 꼬대각시의 삶이 현실 속에서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런 현실 속의 비극적 삶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내재해 있다. 따라서 춘향의 영혼을 불러, 꼬대각시의 영혼을 달래는 방식을 취했다고도 볼 수 있다. 강제적이고 집단 최면적인 성격을 통해 현실적 삶의 고난을 이상적인 삶으로 극복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충남 청양 지역에서는 1950년대에 젊은 여성들의 삶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 놀이가 성행한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와 온암리 마을은 칠갑산 주변의 산촌 지역이다. 온암리 이암동에는 인근 금광인 구봉광산에서 막장일을 하던 동네 젊은이들이 이 병에 걸리면서 마을에 폐결핵이 퍼지게 되었다. 1950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미혼의 마을 젊은 남녀 몇 명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결핵에 걸린 처녀가 꼬댁각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폐결핵에 걸린 처녀가 꼬대(꼬댁)각시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이 신내림의 주역이었다는 것은 이 놀이의 현실적 기능을 말해 준다. 놀이에서 불려지는 꼬대각시노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꼬대각시의 삶이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질병의 고통을 겪었던 젊은 처녀가 자신의 삶을 꼬대각시의 삶에 대입시켜 노래 부르면서 심리적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금광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지만, 역으로 지역민들에게 고통도 안겨주었다. 온암리 인근 연곶 지역에는 일제시대부터 개발된 금광이 있었으며, 열악한 탄광은 항상 질병과 사고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주변의 남양면 구룡리 3구 비끄미에 있는 구봉광산은 금광으로 규모가 컸으나 예전에 큰 탄광사고가 난 곳이며, 인근 정산면 화산리 꾀꼴봉에는 큰 중석광산이 있어서 청양 인근의 많은 광부들이 진폐에 걸려 희생되었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예전부터 젊은이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죽었으며, 이런 지역적 배경이 춘향이놀이와 꼬대각시놀이가 더욱 활발히 전승되는 바탕이 되었다.

여성들의 집단놀이문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춘향이놀이나 꼬대각시놀이는 여성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시대에 미혼 여성들의 집단적인 놀이는 제한적이다. 이런 점에서 전국적으로 전

승되는 이 놀이는 여성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 놀이는 여성들에게 한 맺힌 부정적 현실을 부각시켜 긍정적 삶의 자세로 전환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한은 부정적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현실적 삶의 태도는 달라진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할 수가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동년배 집단의 최면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절대적인 외부의 힘에 의지하여, 심리적으로 공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단의 노래, 원무가 병행되어온 현실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결국 이 놀이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미혼 여성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이들은 시집살이, 가난, 병마 등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극적 여성인 꼬대각시의 삶에 더 현실성을 느낀다. 따라서 이 놀이를 통해 춘향의 영혼과 삶을 집단 최면과 노래를 통해 이입시켜, 현실적 삶의 고난을 이상적인 삶으로 전환하고 극복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II. 청양의 '전통오락과 놀이문화'의 실제



1. 기원적 놀이

(1) 꼬댁각시놀이

(가) 남양면 온암리의 꼬댁각시놀이

꼬댁각시는 보편적으로 '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놀이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노래'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원통하게 죽은 꼬댁각시를 달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성춘향을 놀린다(논다)'라고 하는데, 이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성춘향의 구구한 운명을 달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16세 전후의 시집 안 간 젊은 동네 처녀들이 한 방에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며 합창한다. 어느 때나 상관없이 했고, 심심한 처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노래를 부르던 중, 한 처자가 성춘향의 혼이 담겨서 신이 들리게 된다. 그는 주위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집 가장 빨리 갈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그 중 한 사람을 지목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꼬댁각시는 제보자 정일순씨가 온암리로 이주하여 9살 때부터 봤던 놀이로 없어진지 60년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1940년대까지 이런 놀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온암리 주민인 옥분이(여, 74세)씨는 홍성에서 온암리로 시집을 왔는데, 홍성지방에서도 꼬댁각시를 부르며 놀았다고 한다. 노래는 성춘향 노래, 타향살이, 거북선 노래 등을 불렀다.

〈꼬댁각시 노래〉

꼬댁 꼬댁 꼬댁 각시
한살 먹어 어멈 죽고
두살 먹어 아범 죽어
세살 먹어 걸음 되고
네살 먹어 말을 베어
삼촌 집에 찾아가니
삼촌 숙모 밥하다가
부줏깽이 날라오네
삼촌한테 찾아가니
서당에서 글을 읽다
천둥같이 호령하네
아이고 담당 설움지고
다섯 살이 먹었을 때
짚만 남은 삼베 적삼
말만 남은 베치마에

꺼끄리고 이집저집
문전걸식 다니다가
여섯살이 먹었네요
시집이라고 가고 보니
고자낭군 얻었노라
아이고 담당 설움지고
이내 신세 어찌 하리
불상하고 가련하니
꼬댁 꼬댁 꼬댁각시

〈28청춘 성춘향이〉

이팔청춘 성춘향이
18세 어린나이에
염라대왕 가고보니
한숨이 철이 나네
한이 되고 원이 되어
이 가정에 들어왔으니

〈베짜기 놀이〉 (베를 짜면서 여자들이 부르던 놀이이다)

엄말도 하심심하기에
베트는 노래나 불러보세
에헤야 데헤야아~

낮에 짜이면은 일본단이요
밤에 짜면은 월광단이라
에헤야 대헤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수심 노래나 불러보세
에헤야 댜해야~
아이야라난다 대해라야
이것도 내 사랑이로다

〈달은 밝고 명랑한데〉

달을 밝고 명랑한데 산보를 가니
어여쁜 여자 하나 오똑 섰구랴
골목을 마주잡고 악수 하니
너는 여자 나는 남자 연분이로다

이 노래는 동무들끼리 놀 때 부르던 놀이이다.

(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나) 정산면 마치리의 꼬댁각시놀이

꼬댁각시놀이는 시집오기 전의 처녀 시절에 즐겨하던 놀이다. 해방 전이나 후에 많이 했고, 전쟁이 나고 나서는 이 놀이를 하지 않았다.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3구에서 시집 온 이복형(여, 70세)는 처

녀 적에 이 놀이를 했다. 가운데에 꼬댁각시가 앉고 주위에 동네 처녀들이 둘러앉는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다음의 노래를 불렀다.

춘향아 춘향아 나이는 스물이요
생일은 사월 초파일
경치 좋고 놀기 좋은데
놀다 가자 놀다 가자.

이런 주문을 반복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신기가 들어 두 손이 벌어지며 춤추고 놀게 된다. 꼬댁각시는 몸이 떨리고 두 손이 벌어진다. 그리고 신들린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일어나 춤을 추며, 펄펄 뛰기도 한다. 나중에 정신을 잃을 정도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같이 뛴다.

대개 꼬댁각시는 본인이 자원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신 내림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 내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가운데에 앉혀놓고 놀이를 시작했다.

놀이를 하는 시기는 대략 정월 20일 정도이며, 이 때에는 여자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거나 꼬댁각시놀이를 했다. 그리고 꼬댁각시가 아니더라도 '청춘가'나 '놀자놀자~'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놀기도 했다.

장평면 미당리에서 시집 온 이옥지(여, 74세)도 그 곳에서 이런 꼬댁각시놀이를 했다. 그러나 청양읍에서 나중에 시집 온 최

복순(여, 57세)은 이런 놀이를 본 적이 없다.(정산면 마치1리, 이복형, 이옥지, 최복순)

(다) 청남면 상장리의 꼬댁각시놀이

꼬댁각시 놀이는 정월 보름 경에 처녀와 부녀자 30~40명이 아래 윗방에 모여 앉아 했다. 청남면 인양리에서 시집 온 진재순(여, 75세)은 이 놀이를 처녀 시절에 직접 경험했다. 정월 보름 경에 누구네 집에 모이자고 연락이 되면 그 집의 안방에 모이게 된다. 이 놀이는 제보자가 30세가 되는 1972년 새마을사업 이후에 없어졌다. 시기로 보아 정월 초순에는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이를 하지 않았다.

이 놀이는 한 명을 가운데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운데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가사의 대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꼬댁각시 꼬댁각시, 1살 먹어 어멈 죽고, 꼬댁각시, 꼬댁각시, 2살 먹어 아범 죽고, 불쌍하다, 불쌍하다~"로 이어진다.

노래를 부른 지 얼마 후 가운데 사람에게 강(신)이 내린다. 강(신)이 내린 사람은 몸을 흔들며 벌떡 일어나서 모은 두 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뛰면서 중얼거린다. 자기 소망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이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한다.

대개 이 놀이를 잘 노는 사람이 있고 잘 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광숙이 모친이 이 놀이를 잘 하다가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세상을 떠난 부친을 찾으러 간다고 일어나서 민막골로 혼자 막 간 적이 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무서워서 이 놀이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그때 놀래가지고, 광숙이 어머니, 그 양반이 미쳐서. 겁나더라고. 가다말고 멈추더라고."

규암리에서는 이 놀이를 하다 자빠져서 버리둥거리다가 미친 사람도 있었다. 아산리 먹골에서 시집 온 송갑순(여, 74세)은 부친이 엄격해서 꼬댁각시놀이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놀리는 것을 본 적은 있다.(청남면 상장2리, 진재순, 송갑순)

(라) 대치면 이화리의 꼬댁각시놀이

꼬댁각시놀이는 15~16세의 여성들이 실내에서 했던 놀이이다. 아래의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데, 놀이의 방법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꼬댁 꼬댁 꼬댁 각시
한 살 먹어 어멈 죽고
두 살 먹어 아범 죽어 ……

또한 꼬댁각시노래가 아닌 다른 사설을 부르면서 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 노래는 올케 때문에 고생한 시누이의 애환을 담고 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꼬댁각시놀이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진행하였다.

무하 목파 연자시
올케 년이 죽일 년여
무하 목파 연자시
올케 년이 죽일 년여. (대치면 이화리, 김금순)

(마) 운곡면 위라리의 꼬대각시 놀이

꼬댁각시놀이는 여자들이 하는 놀이로, 한 사람이 신장을 잡고서, "꼬대각시 불쌍하다~, 한 살 먹어 어멍 죽고, 두 살 먹어 아범 죽고, 세 살 먹어 거름배고 ~"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대가 놀기도 하고, 신장을 잡은 아이는 일어나서 춤추고 정신을 잃기도 했다. 이 놀이는 6·25 한국 전쟁 전까지 행해졌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바) 장평면 미당리의 꼬댁각시 놀이 일화

미당리에 사는 손분열(여, 84세)은 부여 남면 삼룡리 출신으로, 20살 때 미당리로 시집 와서 살았다. 그는 시집 오기 전에 부여의 삼룡리에서 꼬댁각시놀이를 한 경험이 있다.

14살 적에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나무를 꺾어가지고 와서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놀이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친구가 제보자에게 대를 잡게 한 다음에 '꼬댁 꼬댁 각시 한살 먹어 어멈 죽고, 두 살 먹어 아빠 죽고~'로 시작하는 노래를 불렀다. 구체적인 구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거 한번은 놀랬네. 같은 반 애가 우리 집에 놀러왔대. 저 끝에가 참나무 가지 울타리 밑이였는데. 꼬댁각시 놀이라고. 한 가지를 꺾어다가. 공부하다가 책을 요렇게 옮겨 놓고 나더러 붙잡으라고 그래서 붙잡았지. 그건 허사가 아니여.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건 몇 살 때요? 두 분이서 하신 거에요?"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맞춰가지고 했지. 얘도 한 반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랑 둘이서 한 거에요? 그거는?"

"응. 근데, 그 친구가 약어. 나보다 두 살 더 먹었는데. 내가 꼬댁각시 놀릴게 붙잡고 있으라고, 장난삼아서 했어. 그렇게 노는 줄 알았으면 무서워서 못 잡어. 이렇게 씨부렁대는 얼굴을 쳐다보는데. 아 이넘의, 느닷없이 막 이러더라고. '아이고 사람살리라'고. 무서워서 대문까지. 벌건 대낮에 뛰어나가서 그랬지"

"그 거는 어떻게 한거에요? 학교에서 한거에요"

"집에서 엄마가. 예전에 모시꿰는 거 있잖어. 모시를 꿰다가 아이고 저년 꼬댁각시 놀이하다가 저러면 못 쓰는데 저런다고"

"아,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걸 꼬댁각시놀이라고 하셨죠? 춘향이놀이라고도 불렀어요?"

"응. 꼬댁각시놀이라고 불렀지. 근디 내가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미신도 안 믿고. 내가 14살 먹어서 느닷없이 그

것이 흔들렸다고."

"아, 14살에요?"

"응. 이게 뭔가가 있기는 있는 거 같어."

"믿지는 않으셔도 뭔가가 있기는 있는가보다 하셨어요?"

"응."

"그럼 그거 할 때 노래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주문을 거는 거에요?"

"아니, 그냥 하대. '꼬댁 꼬댁 각시 한살 먹어 어멈 죽고, 두 살 먹어 아빠 죽고.' 처량하게 외더라고."

"기억나시면 끝까지 좀. 한번 이렇게 좀 불러보세요. 꼬댁꼬댁 꼬댁 각시 한살 먹어 어멈 죽어"

"근데 난 외우지를 못해."

"생각나는 대로만 해주세요."

"처음에만 좀 알지. 꼬댁꼬댁 꼬댁각시 한 살 먹어 엄마 죽어 두 살 먹어 아빠 죽고. 그 다음에 모라고 하던가. 이렇게 처량하게 했는데"

"꼬댁각시가 슬퍼요? 내용이?"

"응. 그게 참 이상혀. 팔이 빼쩍지근하지도 않은데 느닷없이 이넘이 막 이러더라고"

"막 팔이 올라간 거에요? 그럼 친구분이랑 대를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고 계셨던 거에요?"

"아니여. 한 가지를"

"그 친구만 잡고 있었던 거에요?"

"아니여. 나만 잡았어"

"어르신만 잡고, 그 친구가 주문을 외웠더니, 이렇게 확 들었어요?"

"응. 내가"

"아, 나는 흔들고 싶지 않은데 흔들렸어요?"

"응."

"아, 그래서 이걸 들고 어르신이 밖에도 막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셨던 거에요?"

"응"

제보자는 본인이 대를 잡았는데,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팔이 뻐근해지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대가 흔들렸다. 그리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했다.(장평면 미당리, 손분열)

(2) 성춘향놀이

(가) 비봉면 갈마동의 성춘향이놀이

갈마동에 사는 이금선(여, 73세)도 성춘향놀이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는 남양면 구룡리 출신으로 21세 때에 이곳 갈마동으로 시집을 왔다. 그는 시집을 오기 전인 17살 때에 구룡리에서 8월 추석에 처녀들이 방안에 모여 앉아서 성춘향놀이를 마지막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꼬댁각시 놀이라고 아세요"

"알지"

"그 거는 몇 살 때 했어요?"

"그 거는 명일 때 그때 그거를 해요. '꼬댁각시 남원 거도 춘향이 나이는 18세' 그러지."

"사월 초파일에 태어나서 그거구나"

"응"

"그거 명절 때 되면 친구들끼리 꼬댁각시 뱅 둘러서 꼬댁각시하고 여기다 수건 놓고서."

"수건을 놓고요? 여기다가 손에다가 수건을 넣었어요?"

"응. 이렇게 수건 넣고, 또 은반지 있으면 은반지 요렇게 쥐고서 꼬댁각시하고. 하나가 그렇게 하고, 여럿이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해요. '꼬댁각시 남원 거도' 춘향이 노래를. 그러면 이게 강이 내려와. 신이 내려와서 막 떨고, 막 이랬어. 그러고 막 춤추고."

"그 거는 어떤 명절 때 많이 했어요?"

"8월 명절 때"

"아, 8월 명절에?"

"응."

"8월달에.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해요?"

"친구네 집에. 친구들 집에서 하지. 놀러가서 집에서 방에서 하지. 이 동네 저 동네 다 모여가지고. 그게 왜 없어졌냐면 은 저 인제 꼬댁각시 놀이 한 사람이 인제, 그런 거 반지나 이런 걸 넣고서 합장치고서 하나가 눈 딱 감고 가운데다가 넣고, 뺑 둘러서서 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강이 오르고 신이

오르고, 그러면 막 미쳤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죽기도 했어."

"아, 죽은 사람도 봤어요?"

"내 친구도 하나 죽었어."

"그거 하다가? 할머니 나이 비슷한 친구?"

"응. 나이 또래 친구. 하나, 저녁에 밤새 놀구선, 그 이튿날 보니까 새벽에 죽었다 그러더라고."

"어머"

"언제 막 신을 풀지 못해서."

"아, 이게 신이 나가야 되는데, 신이 나가지를 못해서?"

"응. 못 나가고 풀지를 못해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그 마을에 하지 말자 그런 거에요? 사람 죽고 그래서?"

"응.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동네 건 그걸 다 했어. 그랬는데 사람 죽고 미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지."

"그 때가 나이가 15~16살 그때에요?"

"아니여. 그때는 더 먹었어. 17 먹었어"

"아, 17살 때에"

"응. 그 때는 철 나서."

"이거는 굴에서는 못 했어요?"

"그거는 굴에서는 못 해. 무서워서. 방에서만 하지. 그리고 여럿이서 해야 되니까."

"그럼 굴이 좀 작았나 봐요?"

"굴이 좁았어."

"굴이 다섯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나 보다."

"응. 그랬지. 그리고 그런 데서는 못 하고 방에서 해야 돼. 이 동네 저 동네 친구들이 다 모여서 했지."

"그 때 몇 명 정도가 모여서 했어요?"

"10명씩, 15명씩 모여서 했지."

"많이 모였네."

"각 동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구룡리 각 동네에서?"

"응."

"그럼 그게 신이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들어오는 사람은 밤새도 안 하고. 그것도 내리는 사람이 있고, 강이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 신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걸 내리는 사람은 그걸 풀지 못해서 그냥 미쳐버리고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더라고. 그러고 죽고."

"할머니 그 노래 할 때요. '꼬댁 꼬댁 각시' 이런 노래였어요? 아니면 춘향이 나오는 노래였어요?"

"음. 남원 거도 춘향이."

"춘향이 나오는 노래였어요?"

"응. '남원 거도 춘향이. 나이는 18세' 잊어버렸네. 그 노래를 잊어버렸네. 하도 그때 한 일이 오래되었으니까. 50~60년이 흘러갔는데."

"태어 난 거는 사월 초파일이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응. 그거요. '남원 거도 춘향이 생일은 사월 초파일' 그거를 해서 남원 거도 춘향이가 올리는 거요."

"춘향이를 올리는 거였어요?"

"응"

"그런데 그걸 춘향이 놀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춘향이 놀이라고 그래."

"춘향이 놀이라고 그랬어요?"

"응"

"아, 춘향이 놀이라고도. 그런데 꼬댁각시 놀이라는 건 뭐에요"

"그거여."

"그게 그거에요? 같은 거에요?"

"응. 같은 거요"

"아, 그러면 노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달라요. 그게 다."

"그럼 꼬댁각시 놀이는 누구한테 배운 거에요? 아니면 친구들이"

"아니 아이들이. 친구들이 알아가지고."

"아, 알아서?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응. 그게 유행이었어. 그때는. 동네마다 어느 동네이든 유행이었어. 사람이 미치고 죽고 하는 바람에 싹 없어진 거지"

"뭔가 있기는 있었나 봐요"

"응. 우리 춘향이가 올린 거요, 말하자면. 그렇게 여럿이 막 밤새, 그것도 여럿이 해야지. 한 둘이 하면 안 되는 거요."

"아, 한 둘이 하면 안 들어와요?"

"응. 여럿이 막 노래를 맞춰서 해요. 박자를 맞춰서. 맞춰가서 하면 이 놈이 막 강이 오르면 막 뜨고. 우리는 무서워서 안 했어 그거는."

"아, 할머니는 무서워서 못 했어요?"

"암. 무서워서. 그 때만 해도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 그거 막 춤추면 우리들이 막 노래해요. 같이 노래를 하고, 막 풀어주면 괜찮은데. 노래를 덜 하고 안 풀어주면"

"아. 올랐을 때 같이 막 놀아줘야지 풀리는구나"

"응. 놀아줘야 풀리는데. 안 놀아주면 그 때 어른들이 야단해서 안 했거든. 하다가. 그랬더니 그게 집에 가서 그게 인제 죽었어."

"아, 안 풀려서."

"응."

"아, 안 풀리고 집에 가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가만히 있다가 죽었구나"

"응. 죽었어 그게."

"그거는 머 저녁에 한 거에요?"

"저녁에 대개 해요."

"그러면 그거는 한밤중까지 하는 거에요?"

"아니여. 조금 하다가 놀지. 밤새 노래하고 놀면 그날로 끝나지."

"아, 명절에 하는 거니까."

"응. 노래 같은 거.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그런 거. 아리랑 노래. 민요를 막 해야 해."

"생각나는 민요 같은 거 있으세요?"

"민요 머. 내가 그걸 남이 하면 다 생각이 나는데. 내가 제목을 당시 그 거를 생각을 못 해."

"생각나는 가락 같은 거"

"오동추야. 찔레꽃. 머 산홍아, 너만 가고 나만 있고 그것도 있고. 머 별거 다 있어. 근데 지금 남이 하면 생각이 나는데 내가 기억이 인제."

"남이 부르면 아아 하고"

"응. 다 알어. 노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알어. 오래 전이라서 지금은 노래도 않고 하니까."

성춘향놀이는 원으로 둘러앉아서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신 내림을 받는다. 노래는 "남원 거도 춘향이, 나이는 18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로 시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은반지를 손수건에 넣고 마주 잡으며, 시간이 지나서 손이 점점 벌어지며 신이 내렸다. 신이 내리는 것을 강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막 뛰면서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면 주위의 여자들도 같이 춤을 추면서 그에게 내린 강을 풀어주어야 한다.

대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처녀들이 모여서 이 놀이를 했다. 한 동네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 처녀들이 모여서 함께 놀이를 했다. 특히 팔월 추석 때에 친구네 방에서 모여 많이 했다.

춘향이 놀이가 없어진 이유는 신이 내리면 주위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서 강이 내린 것을 풀어줘야 하는데,

한번은 신이 내린 상태에서 어른들이 춘향이 놀이를 하던 아이들을 쫓아내서 신이 내린 것을 다 풀어주지 못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튿날 신이 내린 아이가 죽은 적이 있었다. 그 뒤로 소문이 나서 인근 지역에서는 춘향이 놀이를 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 춘향이 놀이를 하게 된 것도 유행처럼 번져 나가면서부터이다. 춘향이 놀이를 할 때는 신이 오는 사람도 있고, 신이 잘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 놀이는 73살의 제보자가 17살 시절에 마지막으로 했다고 한 점으로 보아서, 지금부터 56년 전에 했다. 따라서 1951년에 이 놀이를 했는데, 당시는 전쟁 중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놀이는 미치는 여자 아이도 있고, 심지어 동네의 여자 아이가 강을 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한 사고가 나서 이후에 없어졌다. 제보자는 춘향이놀이와 꼬댁각시 놀이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나) 비봉면 관산리의 성춘향 놀이

관산리에 사는 황은길(남, 66세)이 기억하는 성춘향놀이는 남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놀이를 할 때에는 양손의 손바닥 사이에 동전을 껴 놓고, "춘향아~춘향아~"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손바닥이 벌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이 때는 춘향이의 혼이 찾아온 것이라고 여겼다. 그 때에는 바지가 벗겨져서 성기(性器)가 돌출 되어도 모를 정도로 넋이 나갔다. 다른 지방에서는 여자들만이 놀았던 놀이로

알려졌으나, 이 지역에서는 남자도 했다. 그가 구술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동전을 여기다 끼고서, 누군가를 그거를 하면은, 모라고 모라고 하면서, 손이 벌어지면서 동전이 쏟아지면, 사람 자체가 잘 녹는 거야. 그러면 세워놓고 그러면, 이전 허리까루 뜰르면은 잠지가 나와도 모르는 거야. 당분간은 나 자신도 그거 당하면 몰라, 당분간은."(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다) 운곡면 신대리의 성춘향 놀이

성춘향놀이는 '춘향아~춘향아~나이 먹은 춘향아, 나이는 18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운곡면 신대2리, 최병정, 명제경, 배태순, 노영자, 윤주선)

(라) 운곡면 위라리의 성춘향 놀이

성춘향놀이는 "춘향아~춘향아~ 남원골 춘향아, 여기 경치 좋다, 놀다가세 놀다가세~" 이런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르면, 손바닥 사이에 넣은 동전이 자신도 모르게 땅에 떨어지게 된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3) 범놀이

(가) 장평면 도림리의 범놀이

장평면 도림리 마을에는 범놀이가 전승되는데, 이것은 범의

형태를 만들어 노는 놀이이자, 집안의 액운을 쫓는 신앙의 형태이다.

유래와 역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매우 오래전부터 전해왔다. 다만 밤놀이는 도림의 놀이라기보다는 마제마을에서 전해왔기 때문에 '마제범놀이'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범놀이는 도당리에서 매해 정월보름마다 빠짐없이 했던 놀이이다. 보름이 되기 3~4일 전쯤 시작하여 열 나흗날 밤까지 끝냈다. 보름날 당일은 범놀이를 하지 않았다. 보름날은 조용히 보내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시끄럽게 놀지 않았다. 14일을 보름날로 간주해서 모든 것을 다했고 '자기 집 와주기 바라는 날'로 여길 정도로 범놀이를 많이 했다.

범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한 발 정도 되는 긴 지게작대기 2개를 묶어서 두발이 되게 한다. 그리고 두 장정이 그 작대기를 다리 사이에 끼고 허리를 구부린다. 이어 구부린 장정의 등 위로 맥방석을 뒤집어씌운다. 범의 머리는 짚쑤시미로 만든다.

그리고 짚을 뭉쳐서 얼굴형태를 만들고 창호지를 뒤집어 씌워 눈을 그려 넣는다. 이때에 짚은 썩지 않고 묵은 짚을 사용한다. 여기서 눈이나 범 무늬 등의 문양은 짚을 태워서 그 재를 먹과 같이 갈아 만든 물감으로 칠한다. 범 엉덩이 쪽에는 꼬리도 만들어 끼우는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다 만들어진 범은 실제 호랑이와 같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다.

진행 순서 및 방법을 보면, 우선 범의 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범의 모양을 완성시킨다. 이때 들어가는 사람은 힘이 좋은

장정이라야 했는데, 그 이유는 2~3일간 온 동네를 돌며 많은 힘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놀이를 관장하는 사람을 '호장'이라고 하는데 범놀이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호장이 "입을 벌려라" 라고 호령하면 범은 그대로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호장은 주민을 이끌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으로 엄선하여 뽑는다.

호장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으로 범이 선다. 그 뒤로는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마지막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따라붙는다. 여기서 풍물을 치는 악기잽이들의 구성은 깽매이(쇠) 2명, 북, 장구, 징 각각 1명씩이다.

집집마다 빠짐없이 들어가 노는데 만약 빠뜨리는 가구가 있으면 그 집에 액운이 따른다 하여 매우 불길하게 여겼다. 따라서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범놀이패가 오면, 집주인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환대한다. 도착한 범놀이 패는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제당 앞에서 고사를 지낸다.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상을 피고 쌀 1말을 사발에 받아놓고 가운데 초를 하나 꽂아둔다. 그리고 정수물을 한 그릇 받아 놓는다.

상 위의 제물은 모두 범놀이 하는 사람이 갖게 된다. 돈은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고사를 지낸 다음 풍물을 치며 그 집의 장광으로 들어가 "이 집의 운수대통을 빕니다" 하고 장광제를 지낸다. 그 다음으로 부엌으로 가서 소도방(솥뚜껑)을 열어놓고 조왕신을 위한다.

놀다가 점심 때 쯤이 되면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마을에서 부유한 집을 방문한다. 가면 자연스럽게 마을잔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다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만들어졌다.

호별로 도는 순서는 마을의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을의 위쪽부터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였다. 범을 만든 집에서 가장 먼저 범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놀이가 끝나면 범을 모두 해체를 시킨다. 지게 작대기는 주인이 도로 가져가고, 짚도 귀했기 때문에 따로 챙겼다.

범놀이는 한 해라도 빼놓으면 큰일이 난다고 하여 계속 했지만 6·25를 전후로 하여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쇠퇴하여 갔다. 이것이 없어진지는 약 30년 정도 되었다.(장평면 도림리, 강영순)

(4) 다리밟기

(가) 정산면 마치리의 다리밟기

정월 열나흘 밤에 남녀가 어우러져 다리를 밟았다. 징검다리식으로 나무판자를 2개 놓고 그 위를 건넜다. 나이만큼 건넜는데, 예를 들어 10살이면 왕복 10번을 왔다 갔다 했다. 이는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행한 것이다.

청양 읍내에서 살다가 이곳 마치리로 25살에 시집을 온 최복순(여, 57세)은 어릴 적에 읍내에서 다리밟기를 했다. 정월 14일에 읍내리에 있는 읍내다리에 남녀가 모여서 나이 수대로 다리를

건넜다. 10살이면 왕복 10번을 건넜다. 다리를 건넜던 시기가 20살 이전으로 약 37년 전이다. 그 이후에 읍내리 다리밟기는 없어졌다. 그래서 다리밟기 풍습은 대략 1970년까지 있었다. 이 놀이는 건강하게 크라는 뜻에서 하는 놀이이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 김제삼, 이옥지, 최복순)

(나) 정산면 대박리의 노두돌 건너기

징검다리의 돌인 '노두돌'을 밟는 놀이를 말한다. 주로 부녀자들이 정월 14일에 노두돌로 만든 징검다리를 여러 번 밟으며 오갔다. 이 놀이를 하면 무좀이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다.(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다) 비봉면 녹평리의 다리밟기

정월보름날 저녁에 이 놀이를 하면 다리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어릴 때 어머니와 같이 다리를 오가며 건넜다.(비봉면 녹평리, 강만근)

(5) 오곡밥 훔쳐 먹기

(가) 대치면 장곡리의 오곡밥 훔쳐 먹기

정월 대보름에 저녁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했다. 깜깜해져야 남의 집에 가서 훔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했다. 놀이에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남의 집에 가서 밥을 훔쳐온다.

주로 놀이는 '번호 대기 차차차'를 했는데, 진 팀이 오곡밥을 훔쳐오고, 훔친 것으로 아이들이 나눠먹었다. 두 팀이 섞여 앉아서 놀이를 하는데, 술래가 있는 팀이 지는 것이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나) 정산면 천장리의 오곡밥 훔쳐 먹기

천장리에서는 정월 대보름부터 그 다음날인 16일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남자들이 치마저고리 등 여자 옷을 입고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 먹곤 하였다. 이것은 대보름 때 술 먹고 놀기 위해서 먹을 것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남자들은 부녀자들의 옷을 빌려 입기 때문에, 옷이 작아서 우습게 보이기도 했다. 또 분을 바르고 곤지도 찍는 등 여장까지 하였다.

이 놀이는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할 수 없었고, 40~50대의 중장년들이 많이 했다. 주로 숫기가 있는 남자들이 했으나, 한 번 할 때는 여러 명이 어울려서 집집마다 다녔다.

제보자가 직접 해보진 못하고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본 기억만 있다. 그래서 이 놀이는 60~70년 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밥을 훔쳐가도 여성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날만큼은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여장을 해도 흉을 보거나 놀리지도 않았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다) 정산면 송학리의 오곡밥 훔쳐 먹기

정월 대보름이면 집집마다 밥과 술이 많았다. 밤이면 아이들이 서리하듯이 부엌의 음식을 훔쳐 먹었다. 이를 '오곡밥 훔쳐 먹기'라 한다. 오곡밥 훔쳐 먹는 것은 풍속이므로 어른들이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 또한 아이들이 훔쳐 먹는 것을 알고 일부러 부엌에 오곡밥을 많이 놓아두었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라) 대치면 시전리의 오곡밥 훔쳐 먹기

정월 대보름날이면 집집마다 오곡밥을 해 먹었는데, 대보름날이면 또래끼리 모여 밤늦게까지 놀았기 때문에 밤에 야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보름날 밤만 되면 또래끼리 여러 명이 같이 다니면서 주인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오곡밥을 훔쳐 먹곤 하였다. 주인은 훔쳐 가는 것을 봐도 못 본 척 했으며, 훔쳐가라고 부엌에 밥을 일부러 담아 놓아두기까지 했다.[1](대치면 시전리, 강석구)

(마) 대치면 광금리의 밥 훔쳐 먹기

정월 대보름에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밤에 밥을 훔쳐 먹었다. 정월 대보름에는 훔쳐 먹는 게 풍습이기 때문에 일부러 부엌에 먹을 것을 갖다 놓았고, 훔치다가 걸려도 혼나지 않았다.

---

1) 위의 내용까지는 강석구 제보자나 유재춘 제보자의 제보가 동일하지만 강석구 제보자의 경우는 여자아이들을 비롯한 여자들이 주로 많이 했다고 하며, 유재춘 제보자의 경우는 남자들이 많이 했다는 것에서 다른 점이 나왔다. 하지만 두 제보자가 놀이를 행한 지역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기술하도록 한다.

밥뿐만 아니라 나물 등 좋은 음식은 다 훔쳐 먹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밥을 훔쳤다. 밥 훔쳐 먹는 풍습이 사라진지는 몇 년이 되지 않았다.(대치면 광금리, 김명환)

(바) 대치면 농소리의 오곡밥 훔쳐 먹기

오곡밥 훔쳐 먹기는 정월 대보름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했는데, 주로 여자들이 많이 했던 놀이다. 대보름날 밤에 바가지를 들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 먹었다. 남자들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대치면 농소리, 이병예)

(사) 비봉면 녹평리의 오곡밥 훔쳐 먹기

정월 보름에는 집집마다 오곡밥을 해먹었다. 오곡밥 안에는 수수, 조, 팥, 콩, 쌀 등을 넣어서 만들었다. 열나흘에 아이들끼리 놀다가 "아무개네 가서 밥 좀 훔쳐와 먹자!"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집에 가서 부엌에 덜어놓은 오곡밥을 가져와 나눠 먹었다. 이 날은 당연히 서로 오곡밥을 훔쳐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보름날은 오곡밥 말고도 나물을 많이 해서 먹었는데 아주까리 잎, 시래기, 취나물, 무수나물, 고사리 등을 무쳐서 오곡밥과 함께 먹었다.(비봉면 녹평리, 명제헌·최순길)

(아) 운곡면 위라리의 대보름 음식과 놀이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나무새(나물)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먹는다. 나물은 보통 시래기나물, 취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정도로 3~4가지 준비한다. 아홉 가지 나물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이

날 오곡밥으로 쌀·보리쌀·콩·팥·조를 넣어서 지어먹었다.

부럼은 예전에 밤을 깼으나,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한편 귀밝이술은 예전에 어른들이 아래 사람에게 내렸다.

대보름날에 엿을 먹어야 일 년 동안 밥맛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엿 한 숟갈을 퍼서, "이거 먹고 여름내 밥맛 좋으라"고 말하며 먹여 준다. 이때 엿은 집에서 고운 토종엿을 사용한다.(운곡면 위라리, 윤빈귀)

(자)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오곡밥 얻어먹기

오곡밥에는 찹쌀·보리·팥·콩·조·수수·좁쌀을 넣는다. 나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산나물이다. 이에는 취나물·고사리·콩나물·숙주나물·무나물·고구마순·피마자 등이 있다. 숙주나물은 값이 비싼 편이라 잘 사용하지 못 했다. 그리고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으면 좋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녔다.(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차) 화성면 장계리의 오곡밥 훔쳐 먹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부엌에 오곡밥을 해놓으면, 가져다가 재미로 먹었다.(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카) 비봉면 갈마동의 밥 훔쳐 오기

정월 대보름 때에 15~16살이 된 여자 아이들이 밥을 훔쳐오는 풍습이 있었다. 윷놀이를 해서 지는 편이 벌칙으로 밥을 훔

쳐왔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6) 멍석말이

멍석말이는 정월 대보름에 여성들이 동네에 모여 강강술래를 하면서 만드는 진법 중에 하나이다. 지역에 따라 강강술래를 멍석말이라고 하며, 보름달 밟기라고도 한다.

(가) 대치면 이화리의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12~13세의 여성들이 10~20명씩 모여 놀았던 놀이이다. 60여 년 전 제보자가 살았던 농소리에는 또래 친구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강강술래는 주로 여성들이 했다. 때에 따라선 남자들도 같이 어울려 놀기도 했다. 많게는 15세 때까지도 이 놀이를 하고 놀기도 했으나, 대부분 16세 넘어서는 잘 하지 않았고, 부녀자들도 하지 않았다. 10~20명씩 집단적으로 모여 놀 때는 빠지지 않고 했던 놀이이며, 낮과 밤을 상관하지 않고 실외에서 놀았다. 기본적으로 원형의 대형을 손을 잡고 후 빙빙 돌다가, 한쪽을 풀어 대형을 말기도 하였다. 또한 술래를 정해서 놀기도 하였다. 술래는 원형 가운데 나가서 벌칙으로 노래를 불렀다.(대치면 이화리, 김금순)

(나) 남양면 온암리의 달맞이 놀이

정월 보름에 보름달이 뜨면 아이들이 달을 보러 갔는데, 그때 달맞이 노래를 부르면서 소원을 빌었다.

〈달맞이 노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 달고개
계수 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다) 화성면 장계리의 달맞이놀이

정월 대보름날 밤에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였다.

보름달을 보고 달의 모양이 얇은 쪽 마을은 올해에 가뭄이 심할 것이라고 점을 쳤다. 반대로 달의 모양이 두꺼운 쪽 마을은 풍년이 된다고 믿었다.(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라) 살가지 잡기

살가지 잡는 놀이는 강강술래의 형태와 유사한 놀이이다. 호두나무가 있는 마을의 큰 마당에서 놀았는데 여러 명이 원을 그려 삥 둘러서면 가운데에 '살가지'라고 하여 한 사람이 들어간다. 여기서 살가지라 함은 닭을 잡아먹는 짐승이라 한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손에 손을 잡은 둘레의 사람들이 못

빠져 나가도록 팔을 오므려 막는 놀이이다.

인원은 상관이 없으며 많을수록 좋다. 주로 9살짜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집 안간 여자들까지 13~15명 정도가 함께 모이면 많이 하고 놀았다. 주로 10살 내외의 여자아이들이 노는 놀이이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마) 운곡면 광암리의 멍석말이

강강술래할 때, 손을 붙잡고 원형의 진을 만드는데, 진 모양이 멍석처럼 말린다 하여 멍석말이라고 부른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바) 청양읍 군량리의 보름달 밟기

정월 대보름에 여자들끼리 동네에 모여서, 보름달을 보면서, 강강술래를 할 때, 서로 양손을 앞사람 어깨위에다 얹혀놓고 어깨를 서로 연결시켜서, 그 위로 작은 아이를 올려 걸어 다니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청양읍 군량리, 이계복, 김동구)

(7) 상여놀이

(가) 정산면 송학리의 지게놀이·지게상여놀이

① 지게 힘겨루기 :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비슷한 또래의 동무들이 지게에 서로를 태우고 누가 가장 많이 태우나 힘을 겨루는 놀이이다. 지게의 양 옆과 위에 3명 이상의 사람을 지면 힘이

센 장정이라고 하였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② 지게 상여놀이 : 산에 나무를 하러간 동무들끼리 주로 노는 놀이이다.

지게를 두 개 엎어서 잇고, 이것을 상여라고 친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위에 타게 되고 진 사람들이 상여를 진다. 지게상여를 양어깨에 메고 지게 가운데에 사람을 태운다. 상여를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올라간다. 실제 상여소리처럼 메기고 받는 소리를 한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나) 운곡면 위라리의 지게상여놀이

지게상여놀이는 주로 나무하러 가서 심심할 적에 놀았다. 지게 두 개를 서로 묶고, 그 지게의 끈을 둘이서 매고 움직이면 마치 상여 나르는 것처럼 하면서 놀았다. 마치 어른들 상여 나르는 흉내를 하면서 노는 것을 지게상여라고 했다. 직접 요령잽이를 뽑아서 상여 소리를 흉내 내기도 했다.

상여 나르는 것은 조사(弔事)인데, 그 흉내를 낸다고 하여 이 놀이를 하다가 어른들께 많이 혼났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다) 비봉면 관산리의 상여 흐르기

이곳에서는 상여를 가지고 노는 것을 '상여 흐른다'고 한다. 발인 전날 저녁에, 상여에 주검을 태운 것처럼 여기고, 묘지까지 나르는 모의 의식을 말한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라) 정산면 천장리의 상여 흐르기

상여가 나가기 전날 밤 상여 나가는 것을 미리 연습하기 위해 작은 빈상여를 준비해서 그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상여소리를 하는데 이를 '상여 흐른다'고 한다. 이것은 주로 부잣집에서 상이 났을 때 하였으며, 중·장년층의 남자들이 하였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마) 장평면 낙지리의 지게놀이

여러 명이 지게를 이어서 상여를 만든 후에 어깨에 메고 다니며 상여소리를 하면서 놀던 놀이이다. 이것은 주로 나무하러 갈 때에 많이 놀았다. 제보자는 17살까지 논 기억이 있다.

지게를 엮으면 상여모양인지라 영정공포(수건을 풀어서 지게에 걸고)처럼 들고도 다니며 놀았다.(장평면 낙지리, 윤갑중·심윤섭)

(바) 장평면 분향1리의 지게놀이

나무하러 갈 때 주로 했는데, 4~6명이 많이 하나, 짝수만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게상여를 어깨에 메고 놀았다. 상여소리는 '어허야~' 하고 부른다. (장평면 분향1리, 김완수)

(사) 화성면 용당리의 지게상여놀이

지게를 눕혀 2~3개를 엮는다. 엮은 지게를 4~5명이 가마를 지듯이 양옆으로 어깨에 진다. 상여소리를 하면서 다니는데 '상여를 흘른다'라고 한다.

실제로 상여놀이는 상여가 나가기 전날에 부유한 집에서 했는데, 실제로 상여가 나가기 전에 한번 꾸며 보는 것이다. 요령잽이가 상에 타고 북치는 사람이 따라 붙는다.(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8) 기세배놀이

(가) 운곡면 안심리의 용대기

마을의 기끼리 인사를 하는 것을 '용대기'라고 한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보통 보름 때에 많이 한다. 여름에 두레할 때도 용대기를 한다.(운곡면 안심리, 윤광희·이계준·양진석)

(나) 청양지방의 기세배

정초 14일부터 마을 농부들은 농악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돈과 곡식을 얻는 걸립을 하여 경비를 마련해서 14일 밤이 되면 마을 당산에서 농기에 대한 제사를 올린다.

상원날 아침에 여러 마을의 농기가 한곳에 모여들고, 농기의 수만큼 농악대도 모여 제각기 방위를 맞춰 정렬한 다음 대장기에 대해서 차례로 기를 숙여 세배를 한다.

이때에 상대리(上大里)의 농기가 대장기가 되며, 나머지들은 만들어진 순서대로 형제관계를 정한다. 기세배 때에는 서로 먼저 절을 받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세배할 것을 다투다가 때로는 싸움이 벌어져 서로 농기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때

에 농기 뺏기가 벌어진다.

농기 뺏기는 상대편 농기 꼭대기에 올라가 위에 꽂힌 꿩으로 만든 기를 뺏으면 승리하는 것이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9) 강다리놀이

(가) 장평면 미당리의 강다리놀이

이 놀이는 미당리에서 전해진다. 강다리놀이는 밀용지라는 얇은 종이로 봉투를 만들어서 말린다. 봉투의 양 옆에 대를 세워 고정시키고 가운데 송방망이를 만들어 단다. 정월보름날 저녁때 달이 떠오르면, 가운데 있는 송방망이에 불을 붙인다. 이때에 송방망이가 그 봉투를 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면 연기를 팡팡 피우며 높이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하였다. 이때 봉투에는 마을 이름과 액땜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귀를 적었다. 그 외에 모양을 칠하는 일은 없었다. 이를 '강다리 놀이'라고 하였고 '등 올린다'라고도 하였다.

다른 마을에서는 이 놀이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고 연기군에서 살다가 내직리로 들어온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하였다고 한다. 제보자가 내직리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소년시절에 많이 하고 놀던 놀이이다. 이 놀이는 내직리 이외의 마을에서는 하지 않았다.(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10) 더위팔기

(가) 정산면 마치리의 더위팔기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처음 보는 친구에서 아무개 이름을 부르고 "내 더위 사가라~, 내 더위 사가라~"라고 말하며 더위를 팔았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김제삼·이옥지·최복순)

(나) 대치면 장곡리의 더위팔기

정월 보름에 "아무개야 내 더위 사라" 하면서 더위를 팔았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더위를 많이 팔아야 그 해 여름에 더위를 안 먹는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다) 정산면 송학리의 더위팔기

정월 대보름에 아이들이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를 부른 후 "내 더위 사라"를 외치며 더위팔기를 했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라) 비봉면 녹평리의 더위팔기

보름날 해가 뜨기 전부터 더위를 팔아야 한다. 더위를 팔 집 앞에 찾아가서 "○○야~" 하고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 하고 도망쳤다. 그러면 더위를 판 사람은 한 해 동안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최순길)

(마) 화성면 화암리의 더위팔기

정월 보름날 아침에 해뜨기 전 아침 먹기 전에 "내 더위 내 더위 먼저 더위" 하면서 더위를 팔았다. 보통 아침 일찍 불러서 대답을 하면 더위를 팔 수 있었다.(화성면 화암리, 송요선·송필현·조병철·최종기)

(11) 연날리기

(가) 청양읍 읍내리의 연날리기

연날리기에 사용하는 실은 좋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주로 명주실, 인주실(누에)를 사용했다. 실은 어머니들이 준 실을 썼다. 연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실을 끊으려면, 자신의 실이 세야 한다. 그래서 벌 통 안의 찌꺼기 뭉치를 실에 많이 발라서 실을 질기게 했다. 이런 방식은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연에는 개구리 연, 가오리 연, 방패 연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오리연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청양읍, 이택범)

(나) 운곡면 위라리의 연날리기

연은 집 뒤에 있는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꺾어 활을 다섯 개 만들어 네모 모양의 방패연을 만들었다. 종이는 창호지를 사용했다. 연의 실은 얇고 가벼운 것으로 해야 잘 난다. 실이 귀했기 때문에 논나끈(논자리 매는 끈)을 주워서 했다. 하지만 논나끈은 무거웠기 때문에 연이 잘 날 수 없었다. 상대방의 연을 끊어

먹는 식의 연 싸움은 하지 않았고, 주로 멀리 또는 높게 날려 보내는 승부를 했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다) 정산면 송학리의 연날리기

연은 주로 방패연과 가오리연만 만들었다. 음력 섣달에 만들어서 날리기 시작하여 정월 대보름에 잘라서 띄워 보냈다. 멀리 날아 갈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였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라) 장평면 미당리의 연날리기

겨울 내내 연을 날리다가, 정월 14일에 연을 띄워 보내며 이것을 액막이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월 보름부터는 연날리기를 하지 않으며, 만약 연을 날리면 못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연은 산에 올라가서 날리거나, 나무가 없는 둑방이나, 들판에서 날리기도 했다.

연날리기는 상대방의 연줄을 끊는 연싸움과 가장 높이 띄우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놀이는 제보자가 10살 정도에 많이 했다. 연은 어른들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기도 했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마) 청양읍 적누리 1구의 연날리기

겨울철에 연을 날렸다. 실패는 나무로 직접 만들었으며, 실은 명주를 사용했다. 연은 정월부터 2월 사이에 날렸으나, 주로 정월에 날렸다. 보름에 액을 날려 보내기 위해 연을 하늘에 날리는 것은 이곳에 없었으며, 다른 마을에서 한다는 말은 들었다.

연줄에 사금파리를 먹여서 연싸움도 하지 않았다.(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바) 정산면 송학리의 연날리기

연은 정월 초하루부터 만들어서 보름까지 날리며 논다. 연의 종류는 방패연과 홍어연(세모꼴)이 있었는데, 문구나 장식을 하지 않은 백연이었다. 연의 밑둥에는 꼬리 3개를 꼭 달았으며, 이 같은 연들은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놀라고 직접 만들어 선물하였다.

보름 때까지 연을 다 놀고 나면 보름날 연을 띄워 줄을 끊는다. 그렇게 하면 액운이 떨어져 나간다고 믿었다. 연줄 싸움도 하였는데, 사기그릇 깨진 것을 잘게 빻아서 연줄에 묻히면 까끌까끌해서 다른 연줄을 쉽게 끊을 수 있었다. 연은 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이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사) 정산면 서정리의 액연날리기

연날리기는 놀이의 성격도 있지만, 민간신앙에 바탕을 두고 액을 떨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날리기도 있다. 정월 보름날 저녁에 연을 띄어 보내면, 그 이후 연날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액연날리기는 연에 액막이 글귀 '액(厄)', '송액(送厄)', '송액영복(送厄迎福)'을 써서 높이 띄운 후, 실을 끊어 멀리 날려보내기도 하고, 창호지에 액막이 글귀를 써서 연줄에 매달고 불을 붙여, 저절로 실이 끊어지게 하여 날리기도 한다.(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아) 장평면 미당리의 연날리기

정초 보름 때에 넓은 논에 나가서 소년들이 연을 날렸다. 연의 형태는 방패연을 주로 만들어 놀았다. 연에 부락 이름을 써서 날렸는데, 그러면 액땜이 된다고 믿었다.(장평면 미당리, 서기복)

(자) 남양면 온암리의 연날리기

연의 종류로는 가오리연, 방패연 등이 있다. 정월 보름날 액떨어지라고 줄을 끊어서 하늘로 올리는데, 이 연이 산까지 올라간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12) 바람개비놀이

(가) 대치면 탄정리의 바람개비 놀이

바람을 이용하여 노는 어린이 놀이로 지방에 따라 '풍차', '팔랑개비', '빵돌이', '도르래'라고도 한다. 바람이 세게 불면 빨리 돌아서 팔랑개비는 보이지 않고, 무지개 빛의 원이 도는 것 같이 보여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한다.

정월 보름에 이 바람개비를 화간(낟가리대)에 달아 잘 돌아야 길(吉)하고 잘 돌지 않으면 불길하게 여기는 지방도 있다. 그 이유는 정초부터 맹조나 흉조의 접근은 나쁘기 때문에 잘 돌면 솔개나 까마귀들의 날짐승들이 날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놀이 방법은 빳빳한 종이나 색종이를 여러 가지 갈래로 자르고 그 귀를 구부리어 한데 모아서 성긴 톱니바퀴처럼 만들어 중심점에 수수깡이나 대나무에 성냥개비나 못으로 꽂아서 돌린다.

이것을 바람받이에 마주 세우면 바람을 잘 받아서 바람개비는 잘 돌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아 아이들은 힘껏 달려서 바람을 일으켜 바람개비를 돌린다, 간혹 무궁화 꽃을 이용하여 바람개비를 만들어 돌리기도 한다.(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13) 불넘기놀이

(가) 화성면 화강리의 불넘기

동네의 빈터나 논과 밭에 통나무와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 "넘자 넘자 불 넘자"라고 합창을 하며 뛰어 넘는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불을 넘었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즐겨 하였다. 이때 자기 나이 수대로 넘으면서 소원을 빌었다.(화성면 화강리, 이두순)

(나) 운곡면 신대리의 불넘기놀이

불넘기 놀이에 참가하는 부녀자들은 대개 한복을 입었는데, 저고리와 동정을 뜯어서 불 속에 던져 태우기도 하였다. 이처럼 불놀이를 하면 그 해의 액막이를 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2. 생산유발형 놀이

(1) 걸립하기

(가) 대치면 장곡리의 걸립

대치면 장곡리의 걸립은 정월 초이튿날이나 보름에 많이 하였다. 그 중 보름 때가 걸립을 더 많이 하였다. 걸립은 위의 사례처럼 마을의 기구를 마련하거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안택 고사를 지내는 것을 걸립한다고 하였다. 걸립 때에는 각각의 집에 돌아다니며 지신을 밟는 것으로, 1년 동안 그 집안에 행운과 평안을 기원해 주었다. 이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집집마다 구경하였다. 또한 꼬마아이들이 따라 다녔으며, 10살 이상이 된 여자는 걸립을 할 때 낄 수 없었다. 걸립은 보름 이외에 추석과 추수하기 직전에도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나) 정산면 마치리의 걸립하기

정산면 마치1리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집집마다 걸립을 하였다. 그 목적은 마을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주로 상여를 장만하거나 악기를 교체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걸립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집주인은 스스럼없이 농사지은 소량의 쌀을 내놓곤 했다. 이런 걸립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루어졌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김제삼·이옥지·최복순)

(다)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걸립

정초에 부락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걸립을 한다. 2개의 영기를 앞세우는데, 농기는 두레할 때에만 들고 나간다.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여 있다. 영기는 테두리가 파란색이고, 가운데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슘'이라고 쓴다. 영기 뒤에는 '날날이'를 부는 사람이 따른다. 다음에 상쇠, 부쇠와 징, 장고, 북잽이가 따른다. 법고가 있는데,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면 단위 대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아이를 어깨에 메고서 다니며 무동을 타기도 한다. 이것을 꽃내비라고 한다.

걸립은 길면 5일 동안 실시한다. 부락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걷힐 때까지 계속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필요하면, 이 돈이 다 걷힐 때까지 걸립을 한다. 풍장은 동네사람들이 치며, 모든 집을 다 방문한다. 이곳에서는 본의실과 같이 걸립을 했다.(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라) 청남면 인양리의 걸립

걸립은 1월 12일~13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곳은 동네가 크기 때문에 2일에 나누어 실시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한 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따라서 한 집에 대략 20~30분씩 머무르며, 마당 - 부엌 - 장광(장독대) - 샘 - 마당의 순서로 이동하며 친다. 부엌에서는 조왕을 위하고, 장광에는 당산을 위하며, 샘에서는 샘제를 지낸다. 제보자는 샘제의 가락이 보통 가락과 다르다고 하며, 다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엌과 장광(장독대)에서 하는 가락은 동일하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는 돈과 쌀을 내 놓으며, 이것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청남면 인양리, 김명하)

(마) 대치면 대치리의 걸립

정초에 걸립 할 때에도 풍물을 쳤다. 보통 1월 3일에 치며, 이 때에 각 집에서는 보통 1말 정도의 쌀을 내 놓는다. 이렇게 모은 쌀은 자루에 넣어서 화주 집으로 옮긴다.(대치면 대치리, 염태섭)

(바) 청양읍 적누리 1구의 걸립

정초에 걸립을 할 때에 각 집집마다 다니며 풍장을 친다.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쌀을 1말, 또는 5되를 내놓는다. 제보자는 걸립의 경험은 없고, 20대 초반까지 걸립을 구경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정초의 걸립은 40여 년 전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사) 남양면 매곡리 1구의 걸립

정월 보름과 16일 날에 풍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녔다. 이때 각 집안에서는 쌀 1말을 '불받이'(촛불받이 쌀)로 담아서 내 놓았다. 이것을 걷어서 동네 기금으로 사용했다.(남양면 매곡리 1구, 최창호)

(아) 청남면 상장리 1구의 걸립

걸립은 간혹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 사정이 어렵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다.(청남면 상장리 1구, 우성림)

(자) 대치면 광금리의 걸립

대치면 광금리에서는 정월 열나흘 밤에 산제를 지내고, 그 다음날인 정월 대보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립을 했다.(대치면 광금리, 김명환)

(차) 청남면 동강리의 걸립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산제당에 올라가서 다음 날 새벽에 닭이 운 다음에 내려온다. 그리고 풍물을 치면서 동네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한다. 이때 쌀을 성의껏 받아 동네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소지는 마을의 남자만 올려준다.(청남면 동강리, 한호분·윤치순·김방순)

(2) 쥐불놀이

(가) 장평면 화산리의 쥐불놀이

쥐불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밤에 마을사람들이 들판에 모여서 이웃마을과 싸웠던 놀이이다. 화평마을은 2개반이고, 양지마을은 3개반으로 70호 이상의 큰 마을이었다. 이 놀이는 보름을 즈음해서 2~3일간 계속되었다.

쥐불놀이를 할 때에는 돌을 던지고, 불덩이를 돌려서 던지기도 했으며, 몽둥이로 상대방을 패기도 했다. 따라서 매우 심하게 싸웠다. 이 마을은 대명광산이 한참 흥청거릴 때에는 3~4천명이 일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삼거리부터 양화동 사이에 야시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당시 아이들은 화산국민학교를 다녔으며, 아이들이 쥐불놀이에 참여했다.(장평면 화산리, 김기돈, 박원생, 김순환)

(나) 청양읍 군량리의 쥐불싸움

청양읍에서는 군량리와 벽천리 사이에 쥐불싸움을 60년 전까지 했다. 정월 보름 전후가 되면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이웃 마을과 싸움을 하는데, 쥐불뿐만 아니라, 대빗자루를 태워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싸우기도 하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격렬하게 힘자랑을 하기도 했다.(청양읍 군량리, 이계복, 김동구)

벽천리와 군량리 마을은 냇가를 사이에 두고, 정월 보름에 힘겨루기를 했다. 미군부대에서 나온 군용 깡통에 광솔과 송진을 따서 넣고 불을 붙인다. 그리고 이것을 돌리면서 집단으로 쥐불

싸움을 했다. 이 놀이는 대략 40년 전에 자취를 감췄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다) 대치면 장곡리의 쥐불놀이

쥐불놀이는 정월 14일에 깡통을 이용해 불을 붙이며 노는 놀이이다. 깡통 끝에 철사로 길게 연결하고, 그 속에 강술뿌리를 넣고 불을 붙여서 돌린다. 깡통 구멍은 망치를 이용해서 못으로 뚫었다. 깡통이 귀했기 때문에 철사로 깡통처럼 망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다. 철사로 만든 경우에는 크기가 커서 남자아이들이 돌렸다. 여자아이들은 크기가 작은 깡통을 돌렸다. 쥐불놀이는 남녀 가리지 않고 아이들끼리만 놀았다. 어른들은 불이 날까봐 애들이 못하게 말렸다. 이 마을에서는 편을 갈라서 싸우지는 않았다.

쥐불놀이를 할 때는 논두렁도 태웠다. 이것은 논에 있는 해충을 다 태워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라) 청남면 동강리의 쥐불싸움

동강리의 쥐불싸움은 정월 대보름날 밤에 냇물을 경계로 마주한 중산리와 매년 맞붙어 싸웠다. 두 마을은 냇물을 경계로 마주 하고 있다. 이때에는 소나무 광술을 넣은 깡통과 빗자루를 던지며 싸웠다.

쥐불싸움은 대보름날 밤에 가장 크게 놀았으며, 이 놀이는 남자들만 참여하였다. 많이 참여할 때는 20~30명 이상이 참여하기

도 했다.

남자들은 대보름 전에 쥐불싸움을 위해 산에서 소나무 광술을 따서 최대한 많이 모은다. 모을 때는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광술을 구분해서 보관한다. 그런데 싸우러 갈 때는 모든 광술을 합치게 된다. 그런 후 구멍을 여러 개 뚫은 깡통을 한 사람에 2~3개씩 만든다. 또 철사로 자루를 길게 매어서 깡통을 돌리거나 던지기 쉽게 만든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모이라는 신호가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린다. 신호는 마을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미리 냇가로 숨어 들어가서 상대방의 동태를 살핀 후, 때에 맞춰서 깡통을 하늘 높이 던지든가, 빗자루를 던진다. 그러면 모두 준비물을 들고 정해진 장소로 모여서 싸움을 시작한다.

싸우는 방법은 깡통 안에 광술을 넣어 불을 붙여서 힘껏 돌리다가 상대방에게 던진다. 던지게 되면 깡통 안에 광술이 흩어져서 상대방 진영에 골고루 떨어진다. 또 빗자루도 불에 붙여서 던졌는데, 이것은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냇가를 경계로 상대방의 진영에 침범하지 않고 싸우다가, 상대가 도망을 가서 승기를 잡았다 싶으면, 냇가를 건너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 상대를 쫓으며 싸웠다. 쥐불싸움은 마을 청년들에게 있어서 대보름날 가장 재미있었던 놀이이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흥)

(마) 장평면 미당리의 쥐불싸움(쥐불놀이)

열 나흗날 저녁에 하는 주로 옆 마을인 지곡리와 강가를 경계

로 쥐불싸움을 했다. 주로 10~20대의 남자들이 참여했다. 지곡리와 할 경우, 많을 때는 50명 이상 참여하기도 했으며, 한 동네 내에서도 냇가를 경계로 편을 나눠서 쥐불을 던지면서 쥐불싸움을 하기도 했다. 쥐불싸움은 쥐불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짚, 나무 등도 태워서 던졌으며, 지곡리 마을에 들어가서 직접 상대방과 맞부딪치며 때리기도 해서, 많이 다치기도 했다.

미당리가 지곡리에 비해서 2배 이상 컸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항상 미당리가 이겼다. 쥐불싸움은 직접 하는 사람 외에도 따라다니며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다.

쥐불은 주로 깡통과 철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나무는 집에서 사용하는 땔감용 나무를 사용했다. 어른들이 쥐불을 만들어 주기도 하며,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드는 걸 보고 따라 배우기도 했다. 깡통의 구멍은 못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서 뚫었다. 끈은 철사를 길게 연결해서 사용했다. 쥐불싸움은 40년 전에 사라졌으며, 이 마을에는 돌싸움은 없었다. (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바) 청양읍 적누리의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에 아이들이 '쥐불놀이 하자'고 하면, 깡통을 이용해 쥐불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깡통이 흔치 않았다. 다만 제보자는 홰를 돌리는 일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제보자가 20세 미만의 시절에 이웃 동네와 심하게 쥐불놀이 싸움을 한 적이 있다. 이곳 적누리는 인근의 정좌리, 금용리와 서로 맞붙었다. 쥐불놀이 싸움은 매우 격렬해서 부상을 입

는 경우도 많았다. 밤에 맞붙을 때에는 막대기도 휘두르고, 돌과 흙을 던지면서 심하게 싸웠다. 이때 공비토벌을 하듯이 산으로 기어 올라가 상대를 몰은 적도 있다. 이곳의 지형이 약간 높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다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것으로 인해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식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을 던지거나 몸에 대지 않기 때문에 옷에 불이 붙는 경우는 없었다. 때로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놀이는 어두울 때에 시작해서 약 3~4시간 정도 지속되었으며, 늦어도 12시 경에는 끝이 났다.

한편 이곳은 넓은 들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지만, 예전부터 줄다리기는 실시하지 않았다.(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

(사) 정산면 마치리의 쥐불싸움

쥐불싸움은 정월 열나흘 밤에 했다. 마치 1구(마티마을)은 이웃마을인 마치 2구와 쥐불싸움을 했다. 마치 2구는 점송골과 한티로 되어 있다.

깡통에 구멍을 뚫어 그 속에 솔나무 광솔을 넣어 불을 붙인다. 그리고 깡통에 철사를 꿰달아 돌리면서 던진다. 왜정 말기에도 간쓰메 통이 있었으며 거기에 구멍을 뚫어 사용했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김제삼·이옥지·최복순)

(아) 정산면 천장리의 쥐불놀이

매년 정월 열 나흗날 밤에는 논밭을 태워서 해충이나 들쥐들을 없애야만 그 해 농사가 잘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깡통에 광술 뿌리를 넣어 태우고 돌렸다. 이것이 6·25 이후에 깡통이 나오면서 하기 시작하였다. 쥐불놀이의 경우 횃불싸움과 달리 동네 사람들끼리 마을 안에서 하였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자) 남양면 매곡리의 쥐불이 싸움

쥐불이싸움(쥐불놀이)은 정월 대보름에 깡통에 불을 붙이고 돌리거나, 빗자루 형태의 횃대에 불을 붙이고 돌리면서, 이웃 동네와 서로 싸우는 놀이이다. 이 마을에서는 인근 매곡 2리와 서로 맞붙었다.

이 놀이는 45~46년 전까지 하였으며, 이후는 조금씩 바뀌다가 95년 12월 5일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차츰 없어졌다. 특히 근래에 아이들이 없다보니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남양면 매곡리 김기창, 이향각, 최창호)

(차) 청남면 상장리의 쥐불싸움

이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에 이웃의 아산리하고 쥐불싸움을 했다. 논두렁에 불을 놓고, 돌을 던지거나, 깡통을 던지면서 싸웠다. 이것은 옛날부터 하던 놀이로, 한 편이 20~30명씩 편을 지어 이웃 마을과 크게 싸웠다. 동네의 김인수씨 집안의 장광(장독)이 다 부서진 적도 있다. 한 쪽이 도망가면 지는 것으로, 쫓

아가는 편이 이기게 된다. 남자 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놀이이다.(청남면 상장 1리, 우성림)

(카) 정산면 송학리의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날에 하는 놀이이다. 논두렁에 풀이 우거지면 병충해를 방지할 겸 불을 놓아 태운다. 이때 쥐불놀이도 같이 하게 된다. 짚푸라기, 닭똥, 소금 등을 깡통에 넣고 불을 놓는다. 그러면 닭똥이 호도독호도독 소리를 내며 튄다. 아이들은 깡통을 돌리면서 노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송학리에서는 해남리 쪽으로 해남리에서는 송학리 쪽으로 모여들어 경계선까지 서로 막으며 계속 깡통을 돌리면서 신경전을 벌인다. 논에 쥐불놀이 한 것이 다 타게 되면 동화제를 시작한다.

정월 14일에 송학리에서는 동화제를 하는데 동화제 때 쥐불놀이를 하였다.

옛날에는 몽당 빗자루를 돌렸는데 요즘에 깡통으로 변했다. 대를 가지 쳐서 빗자루를 만든다. 달이 떠오르면 돌리면서 놀다가 불을 피운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이덕종)

(파) 정산면 천장리의 횃불싸움

횃불싸움은 마을의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참여한 놀이이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열 나흗날 저녁에 옆 마을인 신덕리와 주로 싸움을 벌였으며, 장소는 신덕리와 천장리의 경계 지점인 논밭에서 했다. 싸움 방법은 횃불을



〈그림〉 송학리의 쥐불놀이

던지면서 싸웠는데, 광술 뿌리를 태워서 던지기도 하였다. 싸움이 격해지면 사람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싸웠다. 횃불은 쑥을 바짝 말려서 이것을 칡 줄기로 묶어서 만들었으며, 한 번 불을 붙이면 온종일 불 탈 정도로 오래 갔다. 횃불싸움은 마을끼리 승패를 겨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쥐불놀이처럼 논밭을 태워 해충이나 들쥐를 없애는 목적에서 많이 하였다.

이것은 전쟁 전까지 많이 하였으며, 6·25 이후에는 깡통이 많이 생겨나면서 깡통을 이용해서 쥐불놀이를 많이 했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하) 기타 지역의 쥐불놀이

• 운곡면 위라리의 쥐불놀이

홰에다 짚(새끼)을 싸서 횃불을 만드는데, 이것을 '홰 맨다'고 한다. 숯을 잘 말려놓으면 3~4시간 동안 불씨가 산다. 보름 때 쥐불놀이를 하면서 논두렁을 태우는데, 그렇게 해야 논의 벌레가 죽어서 한 해 농사가 잘된다고 한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 대치면 광금리의 쥐불놀이

예전에 쥐불놀이로 인한 싸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며, 제보자가 자랄 때는 쥐불놀이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대치면 광금리, 김명환)

• 화성면 매산리의 쥐불싸움

화성면에서는 매산리와 광평리 사이에 주로 쥐불싸움을 했다. 정월 보름 저녁에 동네에 사람들이 홰를 들고 돌아다니면, 쥐불싸움을 하러 모이는 줄 알고, 으레 모인다. 그래서 이웃 마을로 가서 쥐불싸움을 하였다. (화성면 매산리, 윤경희)

• 비봉면 신월리의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날에는 깡통을 매고 하는 '쥐불여'라고 했다. 이웃 동네인 목맹이, 안부동 아랫동네 애들과 싸웠다. 보름날의 쥐불싸움은 있었으나, 이 마을에서 논매기할 때에 두레싸움은 없었다.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 청남면 천내리의 쥐불놀이

정월 보름날 아이들이 둑에 모여서 쥐불놀이를 했다. 이것은

횃불놀이, 혹은 충 태우기라고 하는데, 쥐나 해로운 벌레 등을 태워버리는 의미가 있다. 제보자(현재 85세)가 어렸을 적까지는 했으나, 요즘엔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하지 않는다.(청남면 천내리 전철규)

• 화성면 용당리의 쥐불싸움

정월 보름날 밤에 짚으로 만든 홰에 불을 붙여서 돌리면서 논다. 논둑과 들에 모두 불을 놓았다. 옆마을인 방한리에서도 놀러 오곤 하였는데 상대방의 화력이 세면 도망가고 쫓아가고 하면서 놀았다. 쥐불놀이와 쥐불싸움은 6·25 때 이후로 많이 쇠퇴하였다.(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 비봉면 녹평리의 쥐불싸움

정월 대보름날에 쥐불싸움을 했다. 옆마을인 강정리와 싸움이 붙었는데 17~20세 되는 소년들이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상대마을로 횃불을 들고 쳐들어갔다. 깡통에 소나무 꺾은 것들을 넣고 불을 피웠는데 마구 돌리면서 놀았다. 이 놀이는 6·25 직전까지 행해지다가 소멸되었다.(비봉면 녹평리, 명제헌·최순길)

• 화성면 장계리의 쥐불싸움

솔나무 광솔을 따다가 깡통에 넣은 뒤 불을 붙여 돌리고 놀았다. 돌리면서 놀다가 이 동네, 저 동네에 싸움을 하러 다녔는데 이 곳 장계리에서는 합천동네인 화강리와 싸움을 많이 했다. 쥐불싸움은 약 30년 전까지 했지만 현재는 소멸되었다.(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해싸움

정월 대보름에 하는 놀이이다. 홰는 솔가루(소나무 잎새를 빻은 것)를 넣고 짚을 여러 번 묶어서 1m 정도의 길이로 만든다. 홰를 빙빙 돌리면서 놀게 되는데 이 놀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락간의 대결로 번지게 된다. 이때 싸우다가 상대 부락의 불씨를 뺏어오게 되면 그 뺏어온 마을에서는 풍년이 들고 뺏긴 마을에서는 흉년이 든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소년, 청년들은 꼭 이기기 위하여 애썼다. 1950~ 60년대까지 행했던 놀이이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효식)

• 비봉면 녹평리의 쥐불놀이

쥐불의 크기에 따라 다음해의 흉, 풍년을 가늠하므로 가능하면 크게 지르나 다른 마을에서 붙인 불은 자기 마을에 넘어오면 나쁘다하여 마을의 둘레를 경계하면서 쥐불놀이를 하였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비봉면 녹평리, 유향준)

• 정산면 백곡리의 쥐불놀이

이 지역에서는 여자의 경우에 밥을 할 때 앞치마, 치마 자락을 태우지 않고 남자는 담뱃불로 옷을 태우지 않는다고 하여 쥐불놀이를 하였다.(정산면 백곡리, 유동조)

• 운곡면 신대리의 깡통싸움

남자는 일찍 아침밥을 먹고 나무 아홉 짐을 하고 저녁을 일찍 먹기 시작해서 아홉 사발을 먹고 그 후 쥐불놀이를 한다. 세군데에 불을 지르고 "쥐불여, 쥐불여" 하면서 놀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쥐불꾼과 만나 깡통을 던져가며 깡통싸움이 벌어진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 대치면 대치리의 쥐불놀이

쥐불놀이는 남자아이들이 정월 보름에 놀던 불놀이이다.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3) 줄다리기

(가) 대치면 광금리의 줄다리기

광금리에는 제보자의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줄다리기가 있었다. 일제시대 때 옛 도로가 있었는데, 이 마을과 윗마을은 1반, 2반으로 나뉘어서 줄다리기를 했으며, 진편이 술을 냈다.

당시 줄은 짚으로 새끼를 꽈서 한 줄로 된 줄을 만들어 당겼다. 줄은 마을 안에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앞에서 만들었다.

줄은 볏짚으로 엮었고, 줄의 굵기는 지름이 7센티 정도였다.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했다. 현재는 줄다리기가 없어졌다. 직접 줄다리기를 보지는 못했고, 할아버지 대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 대에 와서는 하지 않았다.

마을 느티나무에는 그네를 매달기도 했는데, 줄을 달아서 반별로 누가 멀리 그네를 뛰는가를 겨루기도 했다. 제보자는 3대에 걸쳐 광금리에 거주하고 있다.(대치면 광금리, 김명환)

편을 나눌 때에는 남, 여를 골고루 섞어서 나눈다. 줄의 굵기는 어른 팔뚝만한 정도이며, 길이는 참여하는 사람 수에 따라

좌우되는데, 사람이 많을 때에는 줄도 그만큼 길어진다. 몸 건강하게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당겼다. 줄을 당겼던 장소는 동네의 큰 도로변이다.(대치면 광금리, 노광호)

(나) 정산면 천장리의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주로 학교 운동장이나 마을 부자 집의 바깥마당에서 했다. 일 년 중 봄·여름에 수시로 하였으며, 10~20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았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4) 길쌈놀이

(가) 대치면 이화리의 길쌈놀이(놀이 분류 검토 대상)

여자아이들은 15~16살이 되면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으면서, 집안에서 본격적으로 베틀을 짜거나, 명잡기(물레잡기), 삼 삼기 목화치기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러한 것들은 먼저 배운 친구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하곤 했다. 특히 겨울에는 틈날 때마다 이렇게 길쌈을 해서 가족들의 옷이나 본인이 시집갈 때 해갈 혼수용품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또래 친구들과 한 겨울에 방안에 모여 길쌈을 하다가 지루할 때면 같이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웠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쌈놀이를 하곤 했다.(대치면 이화리, 김금순)

(나) 비봉면 갈마동의 길쌈

길쌈은 여자 아이들이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굴 안 모여서 했다. 제보자 이금선(여, 73세)는 남양면 구룡리 출신으로, 21세 때에 갈마동으로 시집을 왔다. 친정어머니가 길쌈을 잘 해서, 그 수입으로 논을 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어머니는 삼베, 모시, 명주, 명지 길쌈 등 네 가지를 했다. 길쌈을 잘 한다고 해서 동네에서는 어머니를 '길쌈호랑이'라고 했다.

어머니에게 길쌈을 배워서 또래보다 실력이 월등했으며, 지금도 길쌈을 한다. 예전에는 길쌈을 하루에 25자를 짜기도 했으며, 이틀이면 40자 한 필을 다 짰다.

길쌈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길쌈 시합은 하지 않았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5) 노적봉세우기

(가) 비봉면 녹평리의 노적봉 세우기

정월 열나흘부터 보름날까지 양일간 행해지는 행사이다. 정월 열나흘 아침에 노적봉을 세울 사람들과 풍물잽이들이 모두 모인다.

마을 가구 중에서 웬만큼 사는 집을 골라서 가게 되는데 100호 정도의 마을이면 20호 정도를 들어간다.

풍장을 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우물 주위로 가서 삥 둘러서서 우물굿을 지낸다. 그 다음 부엌으로 가서 한바탕 놀면

서 성주를 위한다. 그리고 뒤 곁으로 가서 장광에 도착하여 "장맛 좋아져라" 하며 삥 돌면서 친다. 이어 마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주인이 차려놓은 상 앞으로 가서 한바탕 굿을 한다. 그 다음 노적봉을 마당에 세운다.

노적봉의 길이는 약 10m 정도의 높이이고, 장대는 소나무를 주로 썼다. 소나무 장대의 윗부분에 짚을 동그랗게 싸매는데, 한번 꺾은 다음, 줄로 두 번 정도를 단단히 묶는다. 그러면 마치 사람의 머리와 같은 모양이 된다.

그리고 이 노적봉을 세우기 위하여 새끼줄을 이용하여 삼발을 세우게 되는데, 가운데와 양 옆쪽의 3군데를 잘 묶어 땅에 묶으면 똑바로 선다.

이러한 노적봉을 정월에 세우는 의미는 "정월 초하루에 이것을 세워 신나게 논 다음, 다음 달인 2월 초하루 때에도 또 와서 먹고 놀겠다"는 뜻을 지닌다.

예로부터 녹평리에서는 음력 2월 초하루는 매우 큰 명절로 쳤다. 그런 이유로 노적봉을 정월 14~15일간 세워놓고 2월 초하루 때, 노적봉이 세워진 집을 다시 한 번 방문하여 신나게 놀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웬만큼 살만한 집만 선별하여 들어가는 이유는 "당신은 먹고 살만 하니까, 다 같이 술 좀 먹자. 2월 초하루 때도 먹자!" 라는 뜻을 지닌다.

2월 초하루 노적봉이 세워진 집을 방문하여 다 놀은 후에는 세웠던 노적봉을 태우거나 부셔서 없애 버린다. 이 노적봉은 매

년 새로 만들었다. 이 놀이는 6·25 이후로 점점 쇠퇴하여 사라져 갔다.(비봉면 녹평리, 명제헌·최순길)

(6) 가래질놀이

(가) 정산면 서정리의 아이들 가래질놀이

1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한다. 술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술래의 양다리와 양팔을 잡고 노래에 맞추어 앞뒤로 가면서 흔들다가, 노래가 끝나면 내려놓는다. 그리고 50m 전방에 표시한 지점까지 달려갔다 오면서, 술래의 집을 거쳐 처음의 자리인 가래질터까지 되돌아온다.

술래는 술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되돌아오는 사람을 처음의 자리로 가기 전에 챈다. 잡아 채인 사람은 술래가 되며, 술래가 많을 경우에는 가위 바위 보로 정한다. 또한 가래질 놀이의 동작을 여러 놀이의 벌칙으로 내리기도 한다.(정산면 서정리, 윤홍수)

(7) 풀쌈놀이

(가) 운곡면 광암리의 풀쌈놀이

풀쌈놀이는 풀 뜯기 시합을 말한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풀을 꺾어 와서, 뜯은 풀들을 서로 비교해 가며, 풀 종류의 짝을 맞

춰서 짝이 없는 풀을 많이 뜯어 온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8) 지게풍장

(가) 장평면 미당리의 지게풍장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면서 지게대로 지게를 치면서 산에 올라갔다. 경우에 따라선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모두 다 부르는 것은 아니다.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은 무겁기 때문에 지게 풍장을 하지 않았다. 나무를 하러 간 여러 명이 같이 한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나) 정산면 송학리의 지게풍장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 갈 때, 지게막대기로 지게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9) 봉답수답

(가) 정산면 천장리의 봉답수답

정초부터 대보름 사이에 마을의 남자들이 모여서 윷을 놀았다. 놀이의 승패를 통해 그 해의 풍흉을 점치곤 하였다. 이를 봉답수답이라고 불렀는데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긴 나뭇가지와 짧은 나뭇가지를 여러 개 준비하고 섞은

다음에 구분이 안 가도록 한 사람이 손에 움켜쥔다. 그런 후 편을 나누는데, 그 나뭇가지들 중에 긴 것을 뽑으면 봉답, 짧은 것을 뽑으면 수답이 된다. 그런 후 본격적으로 윷을 노는데 3판을 해서 2판을 먼저 이기는 편이 최종 승자가 된다. 봉답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하고, 수답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마을회관에서 봉답수답처럼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의 성격보다는 노인들이 점심 내기로 하는 일상적인 놀이로 많이 하고 있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나) 정산면 서정리의 봉답수답

윷놀이를 할 때,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나뉘어 편을 짜서 했다. 예부터 이기는 동네가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지금은 저수지가 있어서 물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만, 예전에는 논이 마른갈이와 물갈이가 있었다. 물이 항상 차 있는 곳은 물갈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모를 심을 수 있는 마른 곳은 마른갈이라고 하였다.

봉답, 수답으로 팀을 뽑아서 윷놀이를 하였는데, 봉답이 이기면 마른갈이도 물을 잘 먹어서 풍년이 든다고 했고, 수답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예전에는 대보름부터 윷놀이를 했는데, 봉답수답은 대보름날에 윷놀이를 해서 그 해의 운을 점치는 것이다.(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10) 자리개질놀이

(가) 대치면 탄정리 자리개질놀이

농촌 마을의 벼 수확 철이 되면 품앗이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타작을 하게 된다. 하루 종일 볏단의 이삭을 떨어내는 일이 쉽지 않고 지루한 노동이므로 공동작업의 놀이 성격을 띄우며 재미있게 놀이를 하였다. 이 놀이를 '자리개질놀이'라고 한다.

놀이방법은 보통 8명에서 10명이 타작(바심)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가운데에 큰 통나무, 도구통에 볏단의 이삭을 때려 구성진 노래를 부르며 타작을 한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후창을 하게 된다.

"어려 옛" 하면 모든 사람들은 볏단을 꼭 잡고 위로 쳐든다. "에야헤(선창)" , "에야헤"(후창) "저 건너 산에 에야헤(선창)". "에야헤(후창)", "비가 들어온다 에야 헤(선창)", "에야 해(후창)", "어허 에야호 어허 디어라 나가세(선창)" "어허 디어라 나가세(후창)"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타작을 한다. 볏단을 개상 위에 때려서 노래에 맞추어 한번 부르면 한 단이 떨어지게 된다. 계속 반복하여 개상에 볏단을 내리쳐 타작을 하게 된다.

타작이 다 끝나가면 노래는 바뀌게 된다. "이번 참에는 에야해(선창)" "애야헤(후창)". "긴 놈 잡아다 개상제 지내자 에야해(선창)", "에야해(후창)", "닭 잡고 술 먹자 애야헤(선창)" "애야헤(후창)"라고 노래를 부른 후 집주인을 묶어 개상에 붙잡아 매고 "너 닭을 몇 마리 잡을래", "술은 몇 통을 가져 올래" 라고 주인에게

물으면 주인의 대답에 따라 놀이는 끝나고 피로를 잊는 술자리가 펼쳐진다.(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3. 두뇌개발형 놀이

(1) 고니

(가) 장평면 구룡리의 고니

고니는 주로 남자들이 했던 놀이다. 고니의 종류에는 강고니, 사발고니, 곤질고니, 장수고니가 있다.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시작한다. 사발고니는 가운데에 작은 원을 그리고 안에 열십자를 그린다. 그리고 그 열십자 한쪽 끝에서 양쪽으로 각각 선을 그어, 90도 각도 작은 선을 두 개씩 더 긋는다. 그리고 선이 만나는 모든 곳과 선의 끝에 각각 점을 찍는다. 가장 끝에 3개의 점을 찍고 이곳에 말 3개씩 세로로 놓고 양쪽에서 시작한다.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으며 갈 곳이 없게 되면 죽는다.

강고니는 둥근 원에 가운데에 열십자를 그리며, 원의 한쪽을 강으로 만든다. 곤질고니는 큰 사각형 안에 작은 정사각형을 두 개를 더 만들고 십자와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 놀이를 한다. 대개 나무, 돌, 사금파리를 이용해서 놀이를 했다. 이것은 약 60여

년 전에 놀았으며, 없어진 지는 40년 이상 되었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나) 청남면 상장리의 고니

고니는 남자 2명이 즐겨 했던 놀이이다. 고니의 종류에는 강고니, 사발고니, 곤질고니가 있다. 말로 돌이나 나뭇가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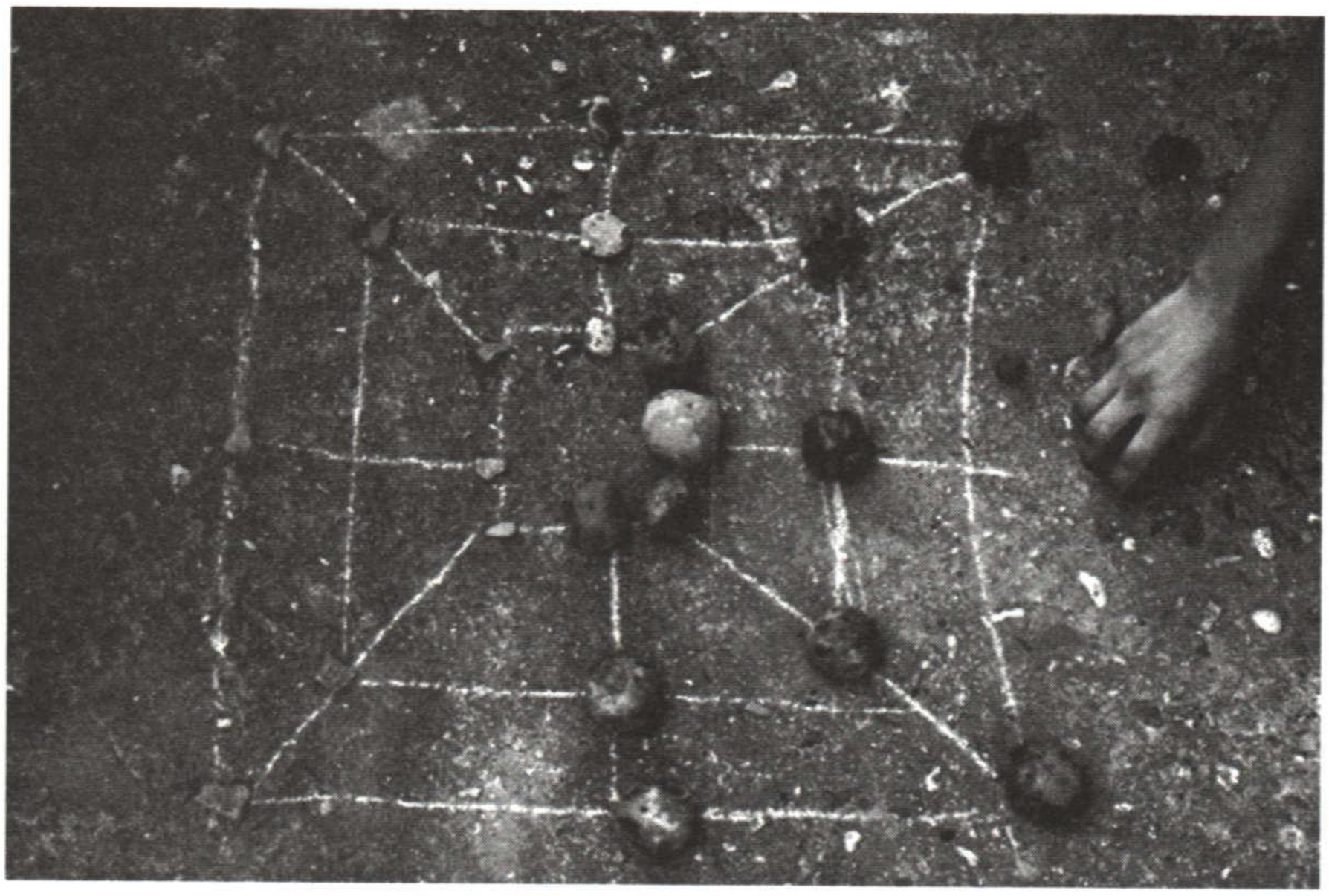
강고니는 원을 그리고 원 안에 대각선으로 2개의 선을 긋는다. 그리고 원과 만나는 곳에 점을 찍는다. 그리고 왼쪽 한쪽을 강으로 정해서 못 가게 한다. 각자 1개씩 총 2개의 말을 두고 시작하며 갈 데가 없어서 막히게 되면 지게 된다. 사발고니와 곤질고니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다.

예전에 한문을 가르키는 글방선생님(이고익 선생)께서 '고니 두자'고 해서 고니를 자주 두었다. 당시 크는 아이들이 땅에 그려서 고니를 자주 둔 적이 있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다) 화성면 매산리의 곤질고니

위와 같은 곤질고니 판에, 처음 시작할 때 각자의 돌을 다 올려놓고, 순서를 정해서 놀이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적색 돌이 먼저 시작하면,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 자신의 돌을 한 개 빼낸다. 그리고 나머지 돌을 움직여서 고니를 만든다.

고니를 만든다는 것은, 사선이나 직선 중 3개의 돌이 모두 차



〈그림 12〉 매산리의 곤질고니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의 돌들은 모두 고니를 이룬 상태이다. 그러나 시작하고 나서 한 개의 돌을 빼므로, 각자의 진영은 흩어지게 된다. 자신의 차례가 오면 무조건 돌을 한 칸씩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니를 만들면 상대방의 돌을 한 개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돌을 모두 없애게 되면 이기는 놀이이다.(화성면 매산리, 윤경희)

(라) 정산면 역촌리의 곤질고니

곤질고니 판에, 순서를 정해서, 돌을 한 개씩 넣어서 3줄의 고니를 만든다. 상대방은 고니 만드는 것을 수비하거나 자신의 고니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서로 고니를 많이 만든 사람이

이기게 된다. 그리고 돌은 한 번 그 자리에 두면 움직일 수 없다.(정산면 역촌리, 표연목, 이덕봉)

(마) 운곡면 위라리의 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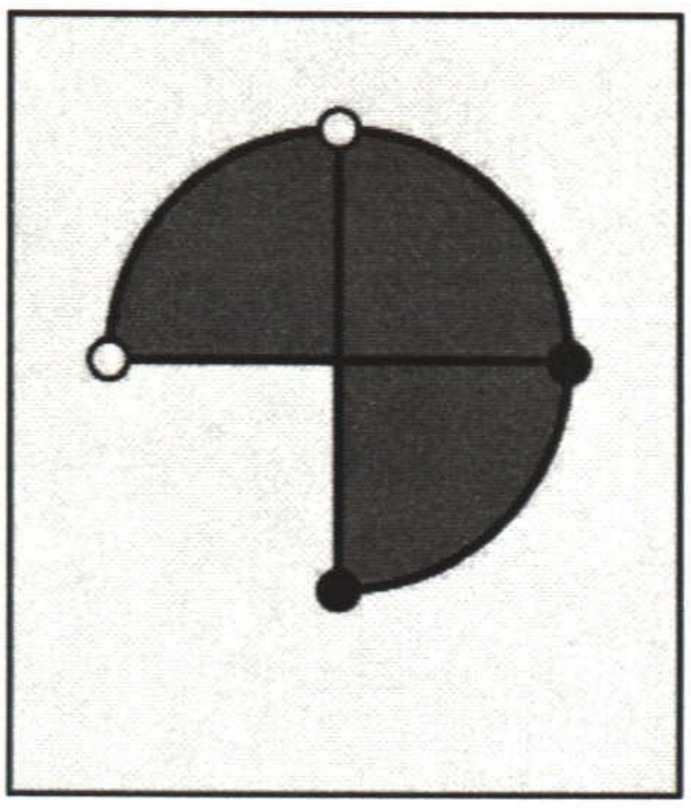
고니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마당에서 하는 놀이이다. 인원수는 두 명으로 한정되고, 사발고니와 곤질고니 두 가지를 주로 많이 했다. 어른들이 두는 장기와 비슷한데, 장기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워 그 전 단계로 고니를 놀았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능력을 가늠할 때, 장기를 둘 줄 아는지 먼저 물어보고, 장기를 둘 줄 모르면 그 다음에서야 고누는 둘 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마당 바닥에 돌로 고누판을 그린다. 그리고 상대방의 돌과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이 다른 돌을 구하거나, 크기가 다른 돌들을 구한다. 따로 이기기 위한 전술은 없지만, 먼저 두는 사람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서로 먼저 하려고 했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바) 정산면 송학리의 고니

고니는 말판에 정해진 숫자의 말을 놓고 서로의 말을 따 먹는 놀이이다. 고니는 아이들이 주로 하며, 땅바닥에 판을 그려서 한다. 고니를 하는 방법에는 사발고니, 강고니, 곤질고니 등 3가지가 있다.

사발고니는 각자 말을 3개씩 놓고 시작한다. 선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한다. 말은 한 번에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다. 서로 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면



〈그림 13〉 강고니

지게 되는 것이다.

강고니는 각자 말을 2개씩 놓고 시작한다. 선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한다. 강고니는 한 쪽이 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강을 가로지를 수 없다. 상대방의 말이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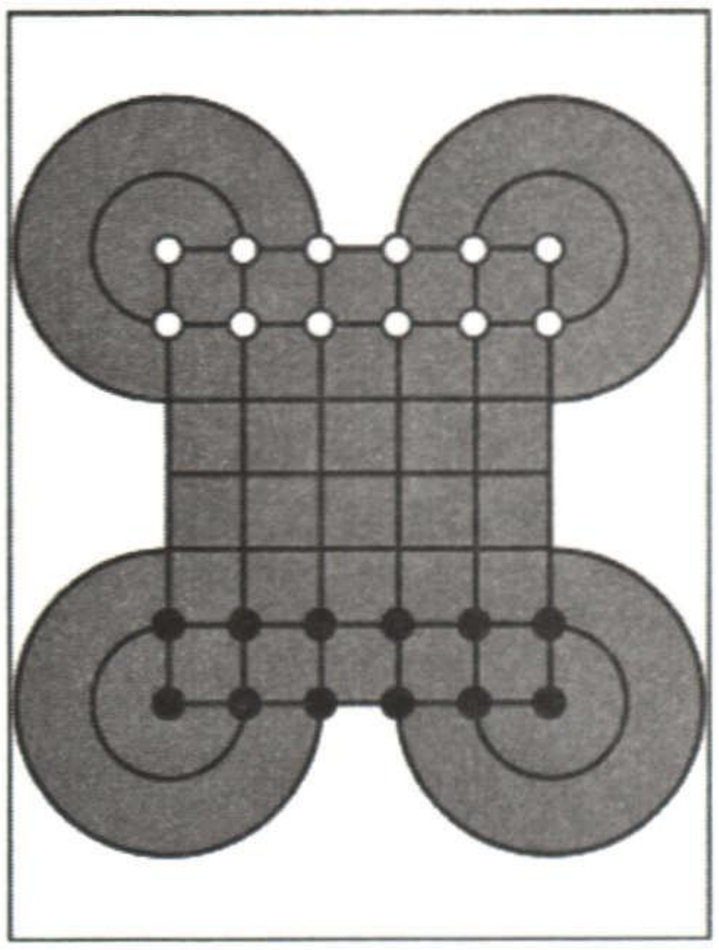
곤질고니는 말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선을 정한 뒤, 번갈아 말을 하나씩 놓는다. 3개의 말을 가로, 세로, 대각선 중 어느 한 방향으로 놓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하나 먹을 수 있다. 3개의 말을 나란히 놓인 것을 '고니'라고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자기 땅으로 표시를 한다. 표시된 지역에는 상대편이 말을 놓을 수 없다. 고니는 두뇌 싸움으로, 장기, 바둑 두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놀이이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사) 정산면 서정리의 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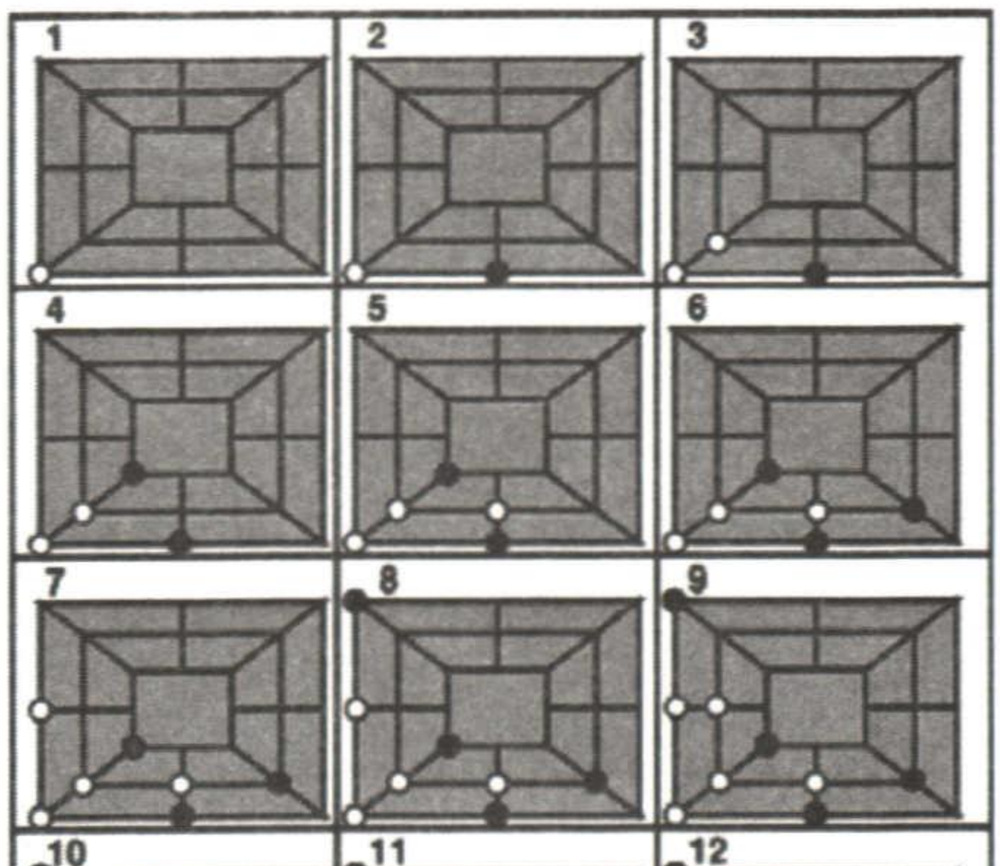
서정리에는 말이 12개가 있는 바쿠고니와 3개로 시작하는 사발고니가 있다.

바쿠고니는 동그랗게 놓는다는 의미에서 불린 이름이다. 바퀴를 막으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상대편의 말을 먹는다. 한 번에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다.

2명이서 각각 12개의 말로 하는데, 최종 2개 남는 사람이 진



〈그림 14〉 서정리의 바쿠고니



〈그림 15〉 곤질고니 두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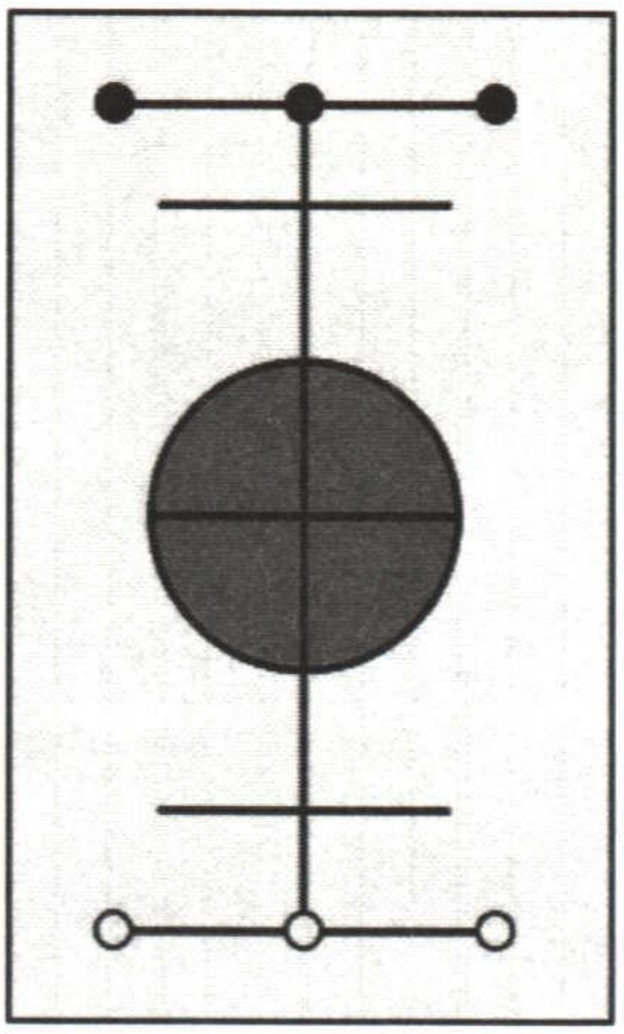
다.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기억나지 않는다. 요즘은 고니를 하지 않는다.

사발고니는 각자 말을 3개씩 놓고 시작한다. 선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한다. 말은 한 번에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다. 서로 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면 지게 되는 것이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아) 청남면 동강리의 고니

동강리에서 고니는 주로 사발고니와 강고니를 많이 했다. 사발고니는 다른 지역의 방식도 동일하다.

강고니 역시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놀이의 경우는 첫 수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라 여겨, 그렇게 두지 못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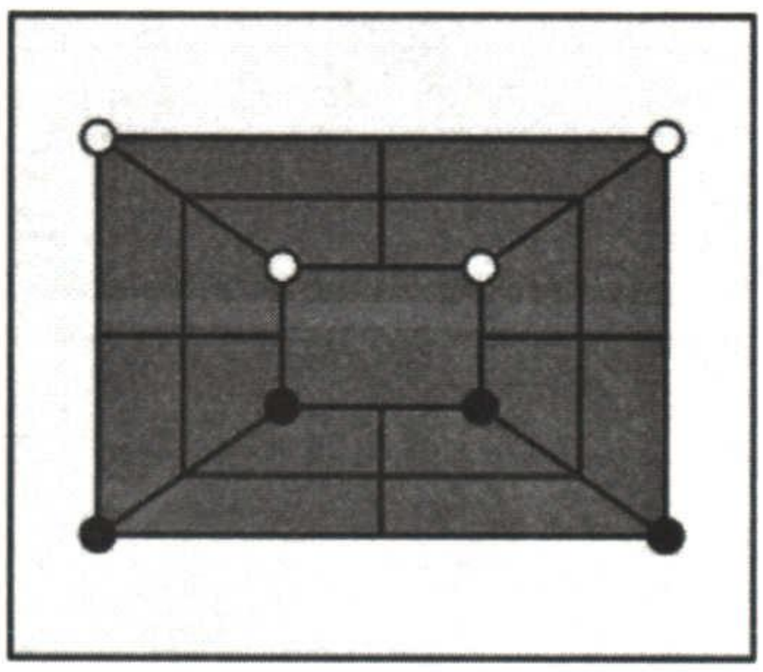


〈그림 16〉서정리의 사발고니

고니를 할 때는 주로 막걸리와 같은 술내기를 많이 했다. 고니는 장기보다 더 속전속결로 판이 진행되고, 한 수 한 수가 판의 승패를 금방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주변의 훈수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흥)

(자) 장평면 미당리의 고니

제보자는 고니를 10살 때 많이 했으며,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이 놀이를 많이 했다. 고니는 땅바닥에 그려서 했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수시로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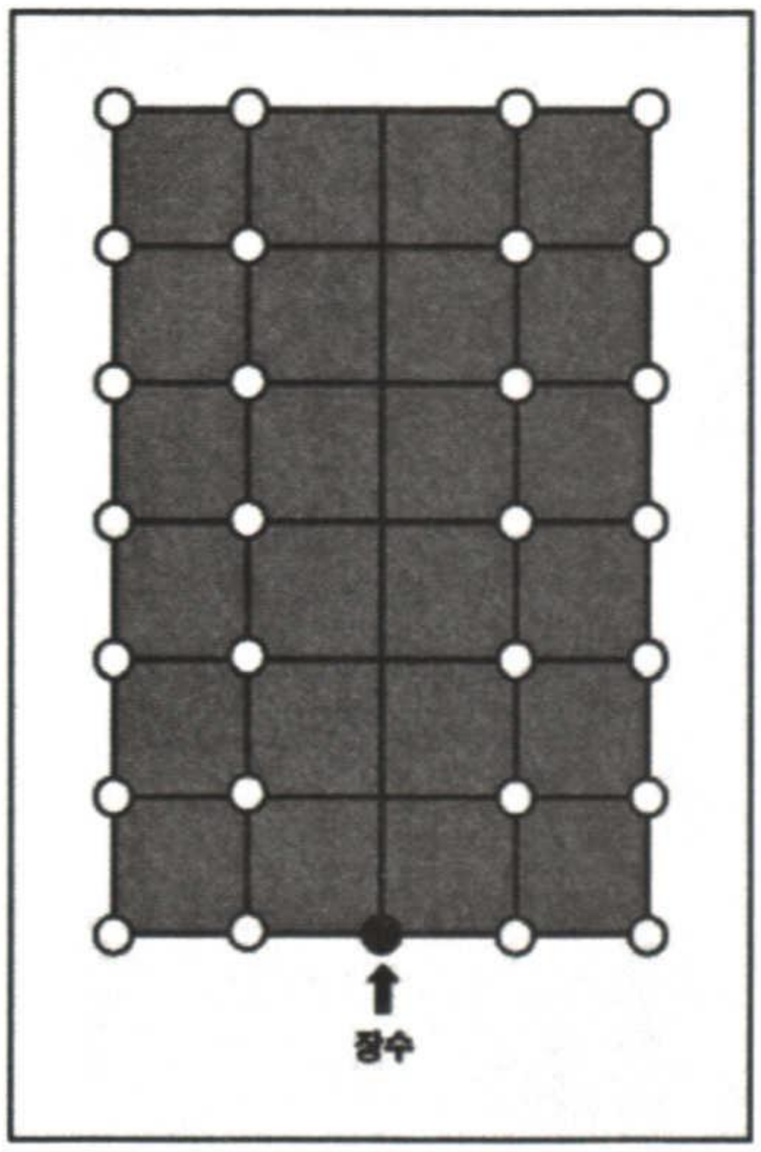


〈그림 17〉 미당리의 곤질고니

곤질고니는 2명이 하는 놀이이다. 각자 말 4개를 놓고 시작한다. 앞으로만 한 칸씩 나아갈 수 있고, 막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지게 되는 것이다.

장수고니 역시 2명이 하는 놀이이다. 말 24개를 놓고 시작한다. 처음 장수를 둔 사람이 말 2개를 갖는다. 장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상대편은 말을 옮기면서 장수를 막는다. 장수가 움직일 수 없게 갇혀버리면 지는 것이고, 장수가 말을 다 먹게 되면 이기는 것이다.



〈그림 18〉 미당리의 장수고니

사발고니는 2명이 말 3개씩을 가지고 한다. 전진, 후진 모두 가능하며, 갈 데 없이 막히게 되면 진다.

강고니는 2명이서 말 2개를 가지고 한다. 강고니는 누가 먼저 두느냐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된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먼저 두게 된다. 갈 데가 없어서 막히게 되면 진다. 강고니는 승부가 금방 난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차) 장평면 낙지리의 고니

곤질고니라는 놀이가 있다. 칸을 그린 후 말 3개를 자기가 놓고 싶은데 놓고 옮기면서 노는 놀이로, 자기 땅에는 ×표시를 한다.(장평면 낙지리 윤갑중, 심윤섭)

(카) 정산면 송학리의 고니

고니놀이를 '고니둔다'고 하였다. 땅바닥에 백묵으로 판을 그

러서 놀았다.



〈그림 19〉 동강리의 사발고니 하는 모습

고니는 사발고니와 네모난 고니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고니 놀이가 탄생하였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놀이의 순서를 정한다. 그려진 모양 틀대로 말을 한 칸씩 밖에 움직일 수 없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상대편 말에게 막히면 지는 놀이이다. 말은 앞으로 옆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뒤로는 가지 못한다. 예부터 고니를 잘 두는 사람은 바둑도 잘 둔다고 할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는 놀이이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타)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고니

사발고니는 위 아래로 흙 토(土)모양을 크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원을 그리는데, 원 안에 십(十)자로 선을 긋는다. 양쪽의 끝부분에 말을 3개씩 놓고 상대방 쪽으로 말을 이동시키며 노는 놀이이다. 상대방의 말로 양쪽이 포위되면 그 사람은 지게 된다.(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명효식·명제빈)

(파) 정산면 마치리의 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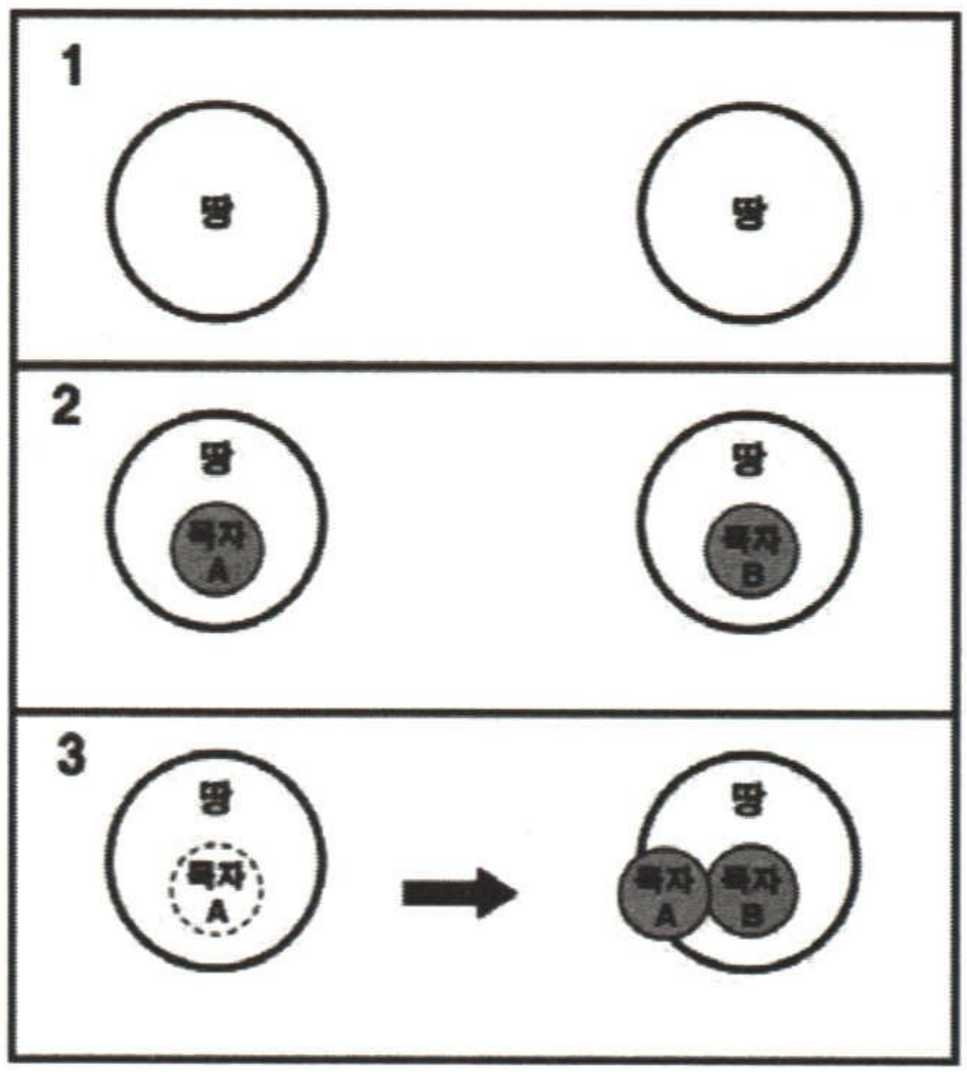
고니의 종류에는 강고니, 사발고니가 있다. 제보자는 사발고니를 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 각각 말 3개를 가로로 일렬에 놓고 놀이를 시작한다. 한 칸 씩 이동할 수 있으며 갈 곳이 없게 되면 죽는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김제삼·이옥지·최복순)

(2) 땅따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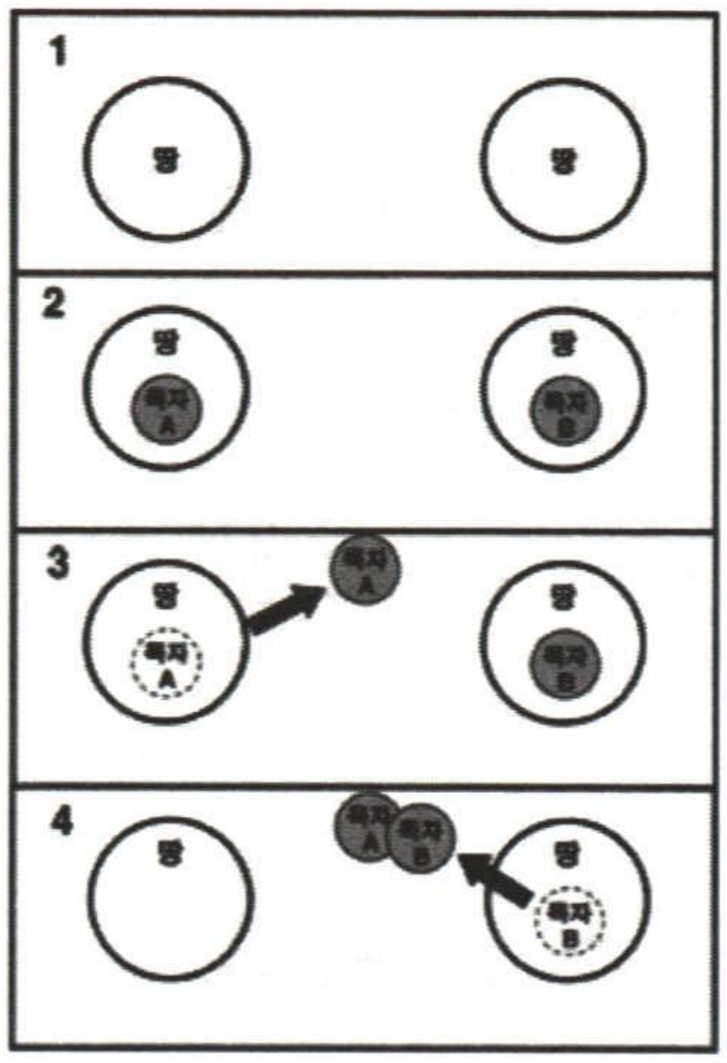
땅따먹기는 땅에 일정한 그림을 그리거나 목자나 돌멩이를 이용하여 선을 그려 정해진 횟수 안에 튕겨 들어오는 놀이이다. 지역에 따라 땅뺏기, 튕기바리, 튕기발이, 튕겨발이, 땅뺏어먹기 등 다양한 명칭이 나타난다.

(가) 정산면 학암리의 땅뺏기

정선면 학암리의 땅뺏기는 우선 각자 자신의 집을 짓는다. 그



〈그림 17〉 땅뺏기 A 성공의 경우



〈그림 18〉 땅뺏기 B 성공의 경우

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을 정한다. 먼저 선이 자신의 땅에 있는 목자를 튕겨서 상대편 땅에 있는 목자를 맞추려고 한다. 못 맞출 경우, 상대편으로 기회가 넘어간다. 먼저 상대편 땅에 있는 목자를 맞추는 사람이 상대편의 땅을 가지게 되어 이긴다. 목자는 새금바리(사기그릇이 깨진 것)를 사용했다.(학암리 그림) (정산면 학암리, 김만배)

(나) 운곡면 위라리의 튕기발이

튕기발이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이다. 크게 정해진 땅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손 뼘으로 둥글게 그려놓는다. 그리고 상대방 진영으로 자신의 돌을 튕겨서, 한 번에 들어가게 하면 3뼘의 땅을 확보하고, 두 번만에 들어가게 되면 2뼘을 확

보하고, 세 번만에 들어가게 되면 1뼘을 먹는다. 땅은 자신의 손 뼘으로 돌려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손 큰 사람이 유리했다고 한다. 상대방의 땅을 다 빼앗을 때까지 하는 놀이이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다) 운곡면 광암리의 땅따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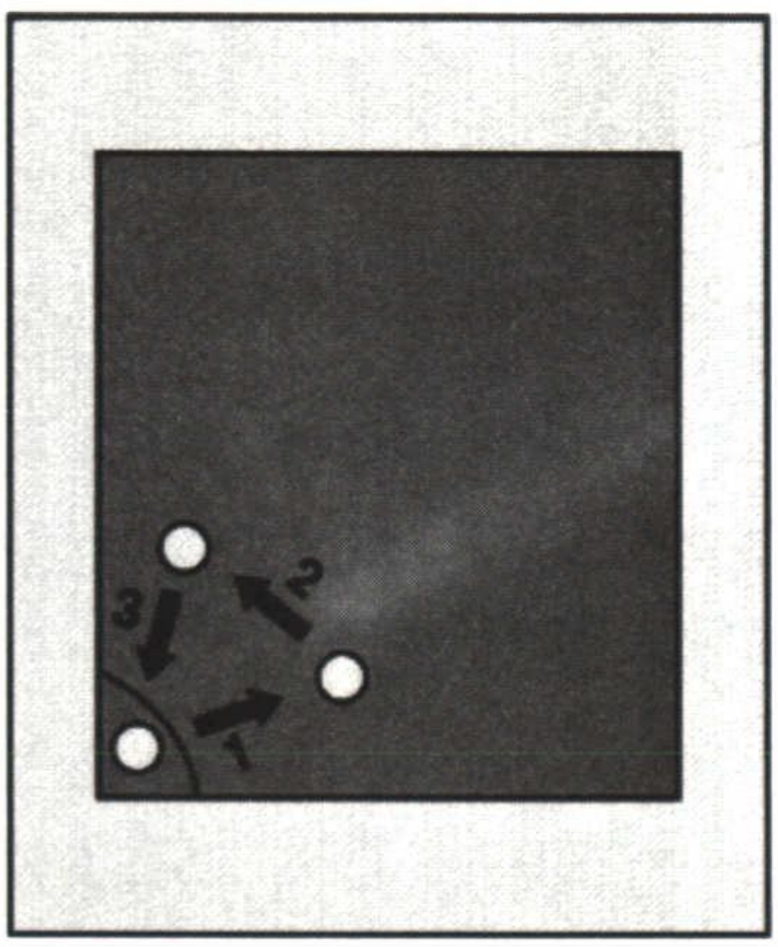
땅따먹기는 정해진 땅 안에서, 각자의 원을 그려서 우선 집을 만든다. 그리고 돌을 튕겨서 상대방의 진영으로 세 번 만에 들어가면, 한 뼘의 땅을 먹고, 두 번 만에 들어가면 두 뼘, 한 번 만에 들어가면 세 뼘 크기의 땅을 먹는다. 자신의 뼘으로 넓히기 때문에 손 큰 사람이 유리했다. 상대방의 땅까지 다 빼앗으면 이기는 놀이이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라) 대치면 장곡리의 땅따먹기

땅따먹기는 두 명 혹은 네 명이 한다. 네 명이서 할 때는 편을 두 편으로 가른다. 각자 자신의 땅이 있는데, 맨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한 뼘을 이동한다.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사람만 한 뼘씩 땅을 이동해서 땅을 차지한다. 더 이상 땅을 이동 할 수 없을 때 많은 땅을 차지한 팀이 이기게 된다. 땅따먹기는 마당에 땅을 그려놓고 한다. 땅따먹기는 가장 쉬운 놀이로 아주 어린아이부터 할 수 있다. 국민학교(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가장 많이 하던 놀이였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목자치기(사방치기), 공기놀이, 줄넘기 놀이를 배웠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마) 비봉면 갈마동의 땅뺏기

땅뺏기는 먼저 지름 1미터의 원을 그린다. 이후 가위 바위 보로 선을 정한 후 목자 하나를 원 안으로 던진다. 그 목자를 엄지손가락에 대고, 중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린다. 그 땅이 자신의 첫 번째 땅이다. 놀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처음 시작할 수 있다. 이 원 안에서 목자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튕긴다. 그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원을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한 후 다시 처음의 원으로 목자를 튕겨야만 그 모든 구역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처음의 원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원 밖으로 나가면 상대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 최종적으로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땅뺏기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 같이 했던 놀이이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그림 21〉 송학리의 튕겨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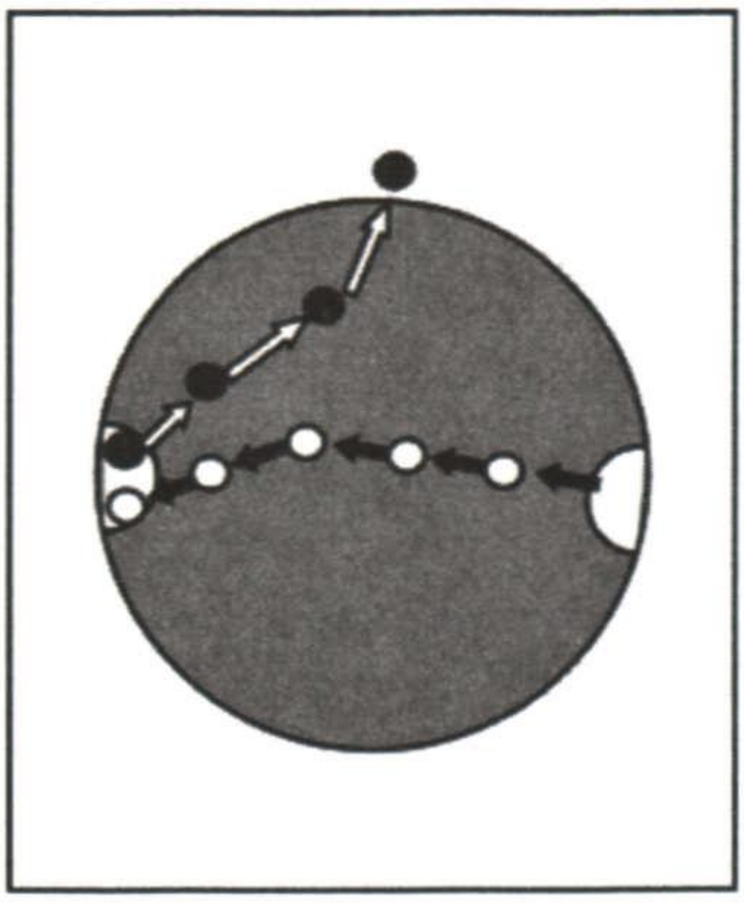
(바) 정산면 송학리의 튕겨바리

튕겨바리는 2~4명이 할 수 있는 놀이이다. 4각형을 땅에 그리고 각 모퉁이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그런 후 작은 돌을 이용하여 돌을 세 번 손가락으로 튕겨서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삼각형 모양이 자신의 땅이 되는 놀이이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 이긴다. 세 번 안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사각형 밖으로 나가면 상대방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사) 장평면 미당리의 땅따먹기

미당리에서는 땅따먹기 혹은 돌치기라고 불렀다. 먼저 크게 원을 그린다. 각자 원의 한쪽 구석에 자신의 구역을 그린다. 처음에 시작할 때 5번 만에 상대편 구역에 갈 것인지, 10번 만에 상대편 구역에 갈 것인지를 정한다. 돌을 가지고 손으로 튕겨서 상대편의 구역에 들어가면 이기는 것이다. 서로 번갈아서 돌을 튕기는데, 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게 된다. 똑같은 횟수로 상대방의 구역에 들어가면 비기게 된다. 예전에는 벌칙으로 이마 때리기, 팔 때리기 등을 했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그림 22〉 미당리의 땅따먹기

(아) 장평면 분향 1리의 튕기바리

땅에 일정한 크기를 그려놓는다. 주로 원을 그리며, 사각형을 그리기도 한다. 각각 마주보게 하여 서로의 집을 정한다. 쇠금파리(튕길만한 것)를 돌멩이나 쇳덩이나 어느 것을 정해서 튕길 것을 정한다.

집에서 출발해서 3번을 치는데, 3번 만에 집에 들어와야 그만큼의 땅을 먹는다. 이것을 '끊어 먹는다'라고 표현한다. 튕길 때에는 원 안에서만 가능하며, 원 밖으로 나가거나, 3번만에 못 들어오게 되면 무효로 친다. 계속해서 땅을 따낸 위치에서 시작하며,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긴다.(장평면 분향1리, 김완수)

(자) 정산면 천장리의 땅뺏기

놀이 방법은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땅뺏기와 동일하다. 주로 바깥마당에서 많이 하였으며, 특별한 내기보다는 꿀밤 때리기와 같은 벌칙을 정해두고 놀이를 많이 했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차) 장평면 구룡리의 땅뺏어먹기

땅뺏어먹기는 '튕기바리'라고 불렀다.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손으로 재가며 땅을 차지하는 놀이다. (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카) 남양면 온암리의 땅뺏기

두 명이 마주 앉아 하는 놀이이다. 돌을 쳐서 그 돌이 이동한 자리만큼 손으로 동그렇게 구획을 잡아, 원 형태로 땅을 차지한다. 끝에 가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3) 공기놀이

(가) 청양읍 군량리의 공기

공기놀이는 여자들이 돌 5개를 가지고 하던 놀이이다. 주로 가위 바위 보로 편을 나눠서 놀이를 하는데, 개인이 혼자서도 한다.

공기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번에 공기를 손등 위로 올린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시작을 하지 않는데, 이것을 '체받기'라고 한다. 그 다음 공기 하나를 손에 쥐고, 나머지 네 개는 바닥에 뿌린 후 하나씩 집는다. 반복해서 첫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개씩 집고, 다음번에는 세 개씩 집는다. 그 다음엔 하나를 공중으로 던지고, 빨리 네 개를 내려놓은 후 던진 하나를 다시 잡는다. 이것을 '막치기'라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돌 4개를 손에 쥐고 하나를 공중으로 던진 후 검지손가락으로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던진 하나를 잡는다. 이것을 '고추장 찍기'라고 한다.(청양읍 군량리, 복임순)

(나) 정산면 송학리의 공기

송학리에서 공기는 돌 5개를 가지고 했다. 공기를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번에 공기를 손등 위로 올린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시작을 하지 않는데, 이것을 '체받기'라고 한다. 그 다음 공기 하나를 손에 쥐고, 나머지 네 개는 바닥에 뿌린 후 하나씩 집는다. 반복해서 첫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개씩 집고 다음번에는 세 개씩 집는다. 그 다음엔 하나를 공중으로 던

지고 빨리 네 개를 내려놓은 후 던진 하나를 다시 잡는다. 이것을 '막치기'라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돌 4개를 손에 쥐고 하나를 공중으로 던진 후 검지손가락으로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던진 하나를 잡는다. 이것을 '고추장 찍기'라고 한다.

공기는 개인이 혼자 하기도 했으나, 주로 가위 바위 보로 편을 갈라서 했다. 국민학교(초등학교) 시절 여자들이 많이 했다.(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다) 운곡면 광암리 공기

처음 시작할 때 공기 다섯 개 알을 땅에 굴린다. 알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다른 알을 건들게 되므로, 상황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알들이 붙어있는 것을 '운다'라고 말한다. 또한 꺽기를 '비치기공기'라고 불렀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라) 비봉면 관산리의 공기

일반적으로 공기놀이는 다섯 개의 공기알을 두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막공기'라 하여, 공기알을 50개 정도로 바닥에 깔아 놓고 하는 놀이 방식이 있다. 막공기는 공기알을 많이 놓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보통의 공기알 먹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한 개의 알을 먹고(1단), 그 다음에는 한 번에 두 개의 알을(2단), 그 다음에는 세 개의 알을(3단), 그 다음에는 4개의 알을 먹는다.(4단) 4개를 먹은 후에는 평소의 공기는 '꺾기'로 들어가지만, 막공기에서는 다시

1단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가 실수를 해서 알을 건드리거나 떨어뜨리면 죽게 된다. 죽을 때까지 먹은 알의 개수를 비교하여 승패를 가루는 놀이이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마) 비봉면 갈마동의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공기알 5개를 가지고 했다. 이 놀이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같이 했다. 오늘날 공기놀이처럼 1개, 2개, 3개, 4개를 순서대로 집고, 마지막으로 손등에 공기알을 올린 다음에 잡는 것이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바) 대치면 시전리의 공기놀이

일반적으로 하는 5알 공기와 10알 공기가 있다. 10알 공기의 경우는 1→2→3→4→5단 순서로 넘어가고, 이를 모두 성공하면 마지막에 손바닥 꺾기를 하여 손등에 공기알을 많이 올려서 잡으면 이기는 놀이이다. 공기놀이는 주로 2~3명이 모여서 놀았으며, 7~13세 정도까지 많이 하였다.(대치면 시전리, 강석구)

(사) 대치면 장곡리의 공기놀이

길가나 냇가에서 돌을 주워서 사용했다. 10살 정도까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구네 집 앞마당에서 했다. 5알 혹은 여러 알을 가지고 했다. 5개를 가지고 할 때는 1개, 2개, 3개, 4개를 순서대로 한 다음에 체받기를 해서 공기알을 먹으면 이기는 것이다. 몇 년을 걸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체받기까지 성공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50개 정도를 할 때에는, 10개 혹은 5개를 정해서 다 잡은 다음에 그걸 손위에 올려서 모두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10개 잡자라고 정했을 경우에 10개씩 공기알을 집어서 모두 잡은 다음에, 10개를 손 위에 한꺼번에 올려서 이것을 다 잡아야 이기는 것이다. 다 잡지 못하면 상대편에게 기회가 넘어 간다. 먼저 10개를 손 위에 올려서 10개를 다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 알을 가지고 하는 공기의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알을 다 잡는 것도 있다. 한 알을 집은 상태서 나머지 남은 알들을 한 손에 다 잡는 것이다. 여러 알을 가지고 하는 공기는 처음에 공기알을 멀리 퍼지지 않게 잘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알이 돌이기 때문에 손 위에 잘 올라가는 것으로 골라서 놀이를 한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아) 정산면 학암리의 많이공

많이공은 일대일 또는 2대 2로 편을 짜서 50개 정도의 공기알을 가지고 공기를 하는 것이다. 공기알은 길가나 개울가에 있는 돌을 주워서 사용한다. 처음 시작할 때 공기알을 땅에 뿌리면서 손 위에 공기알을 몇 알을 올려둔다. 손 위에 올려놓은 공기알의 숫자만큼 공기알을 먹는다. 보통 손 위에 3알 이상이면 공기를 따먹기 어렵기 때문에 1알 내지 2알만을 올려둔다. 만약 손 위에 올려놓은 알이 1알이면 1알씩 먹고, 2알이면 2알씩 먹는다. 바닥에 뿌려진 다른 공기알을 건드리지 않고 따먹어야 된다.

공기를 한손으로 1알 혹은 2알씩 먹은 다음에, 먹은 공기알들은 나머지 한 손 혹은 바닥에 두고 계속해서 공기알을 따먹었다. 나중에 따먹은 공기알의 개수를 세서 많이 따먹는 쪽이 이기게 된다. 한 번에 모든 알을 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정산면 학암리, 김만배)

(자) 정산면 학암리의 공기

학암리의 공기는 일반적으로 하는 5알씩 공기와 유사하다. 1알, 2알, 3알, 4알씩 집고, 마지막에 손에 올리는 것을 꺾기라고 한다.(정산면 학암리, 김만배)

(차) 정산면 서정리의 공기

서정리의 공기는 많이 따먹기와 5개로 하는 공기놀이의 2가지 방식이 있다.

많이 따먹기는 50개 정도의 공기알을 놓고 먼저 절반 이상(25개)을 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5개로 하는 공기 놀이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1개, 2개, 3개, 4개를 순서대로 집고, 4개 집기 다음에 곤지찍기를 하고나서 체받기(오늘날 꺾기에 해당)를 한다. 체받기에 성공한 공기의 개수만큼 숫자가 올라간다. (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카) 대치면 대치리의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둘이서 5알의 공기를 가지고 꺾기를 해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공기알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이다.(대

치면 대치리, 강재금)

(타) 남양면 온암리의 공기놀이

여자아이들이 작은 돌 5개로 땅바닥에서 주로 하는 놀이였다. 5개의 돌 중 4개를 뿌리고 1알만 잡으면서 시작한다. 그 뒤로 2알, 3알, 4알, 5알의 순서대로 잡으면서 논다.

여자아이들은 흙 땅에서 공기놀이를 많이 해서 손이 모두 까져 있을 정도였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파) 화성면 장계리의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공기돌 5개를 가지고 손에 얹으며 노는 놀이이다. 이때 꺾기를 할 때 '옥 받는다'라고 하며, 꺾어서 받지 않고 손등과 손바닥만 움직일 때 이를 '자세 받는다'라고 한다.

공기돌은 조그만 돌을 주워서 했는데, 돌을 많이 주워 손에 올린 후 꺾어서 많은 돌을 받은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4) 윷놀이

(가) 대치면 이화리의 여자 윷

여자 윷은 10살 안팎의 여자아이들끼리 실내에서 하는 놀이이다. 기존의 29개의 원형 또는 사각형의 말판이 그려진 윷놀이와는 다른 방식의 놀이이다. 이 놀이는 남자들은 전혀 하지 않고

10대 소녀들만 하기 때문에 여자 윷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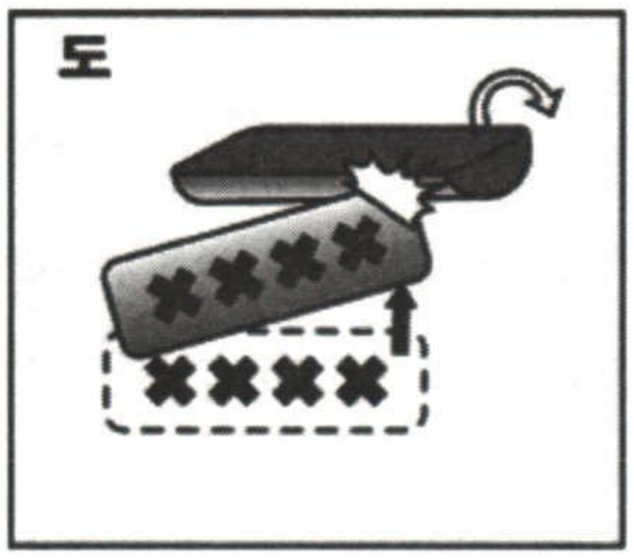
보통 큰 사랑방이나 안방과 같은 실내에 모여 놀았으며, 시간에 저녁을 먹고 나서 밤에 모여서 놀았다. 워낙 놀이의 승패가 결정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놀이는 밤새도록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이 놀이는 평상시에는 자주 할 수 없었고, 대보름이나 추석과 같이 밤새도록 놀기 좋은 명절 때 많이 놀았다.

놀이를 하기 위해선 먼저 10명 정도가 모여서 두 편으로 가른다. 먼저 공격을 정한 다음에 자리 배치를 하는데 원형으로 해서 앉는데, 양쪽 편이 서로 교대로 앉는다. 그리고 앉은 순서대로 차례로 돌아가며 놀이를 진행한다. 이 놀이는 제시된 일련의 과정을 편 대항으로 하며, 참여하는 사람이 순서대로 한다. 마지막에 먼저 통과하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제보자 김금순씨가 기억하는 구체적인 놀이 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윷가락을 한 손에 한 개씩 쥔 상태에서 팔을 대각선으로 한 채 바닥에 윷가락을 세운다. 그런 후 동시에 손을 떼고 세워진 윷가락이 쓰러지기 전에 반대편 손으로 반대편의 윷가락을 재빨리 잡아야만 한다. 윷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면 실패하는 것이다. 같은 과정을 10번 연속해서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 앞의 1번과 같은 방법이지만, 한 손에 두개를 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두 개를 쥐기 때문에 앞의 것

보다 더 어렵다. 역시 10번을 연속해서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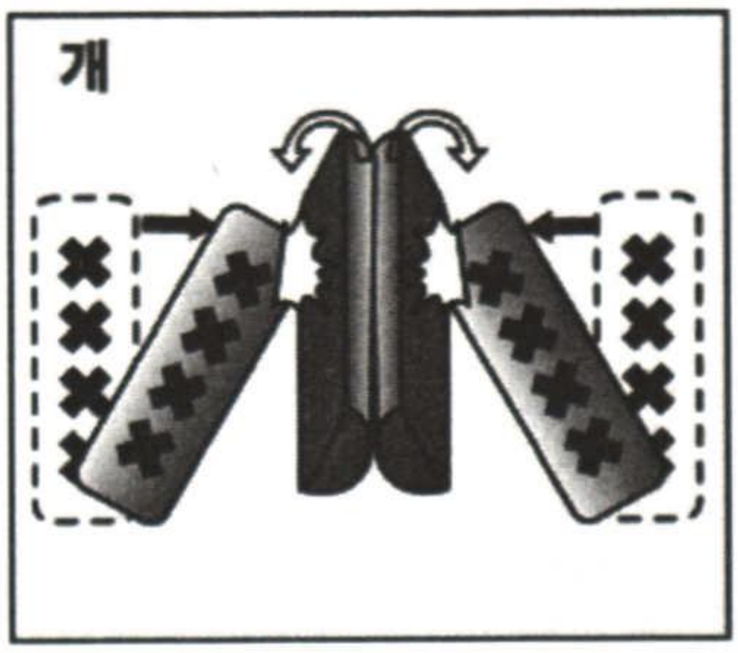
3. 여기서부터 본 놀이에 해당된다. 먼저 윷을 던져 도가 나와야 한다. 다른 패가 나오면 기회는 상대편에게 넘어가게 된다. 도가 나오면 엎어져 있는(등이 보이는) 윷가락 한 개를 이용해서 뒤집어져 있는(배가 보이는) 패의 옆 부분을 쳐서 엎어지게 해야 한다.[2] 이것을 통과하면 '닭 모가지 비틀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윷을 바닥에 세우고 손등으로 윷이 쓰러지지 않게 받히고 있다가, 손을 비틀어 윷을 손에서 떼지 않고 손바닥으로 잡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윷을 채는 모습이 닭 모가지를 비트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에서는 1개의 윷을 사용해서 하며, 10번을 연속해서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림 23〉 '도' 젖히기

2)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패를 엎어지게 하는 것은 '도·개·걸·윷' 등 뒤집어져 있는 패가 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하는 방법은 다르게 나타난다. '도'에서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은 제보자가 기억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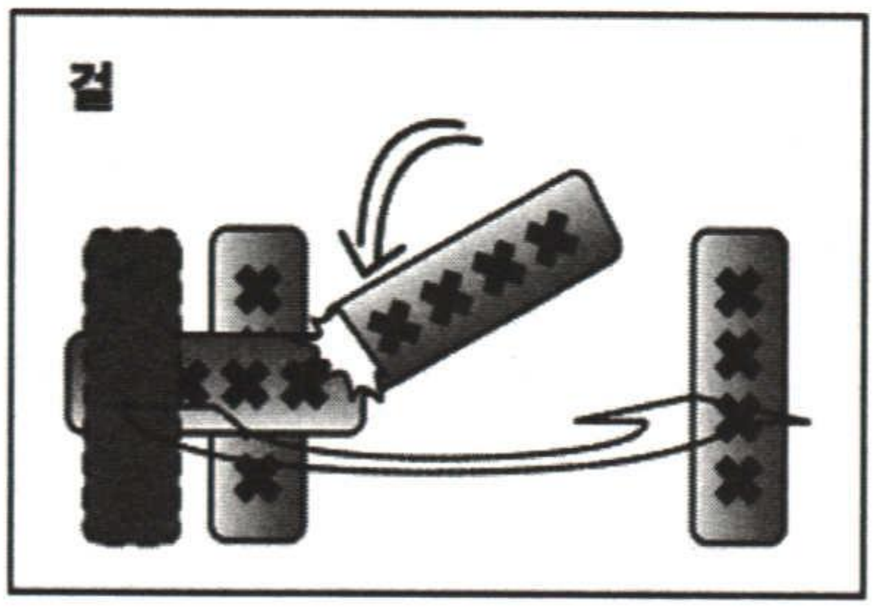
4. 앞의 3번과 유사하지만 중간에 뒤집어져 있는 패를 넘기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윷을 던져 개가 나온다. 그런 후 뒤집어져 있는 두개의 패를 등이 마주보게 붙여둔다. 다른 두 패를 이용해서 붙인 패의 양 옆을 친다. 쳐서 두 패가 엎어져야 성공하게 된다. 이것을 '배가르기'라고 한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한번 '닭 모가지 비틀기'를 해야 한다. 이때는 2개의 윷을 사용하며, 역시 10번을 연속해서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그림 24〉 배가르기

5. 윷을 던져 걸이 나오면 '장작패기'를 해야 한다. 이것은 두 개의 윷을 등이 보이게 십자 모양으로 겹쳐 놓은 후, 위에 올라간 윷 위에 아래 윷과 평행하게 다른 윷 한 개를 배가 보이게 올려놓는다. 그렇게 되면 널과 비슷하게 중간의 윷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반대편이 뜨게 된다. 이렇게 모양을 만든 후 나머지 한 개의 윷으로 올라가 있는 윷을 내리치게 되면 배가 보이는 윷이 공중에 뜨게 된다.

그 윷이 땅에 떨어졌을 때 등이 보이면 성공하게 된다. '장작패기' 이후에는 다시 3개의 윷을 사용하여 '닭 모가지 비틀기'를 해야 하며, 10번을 연속해서 성공시키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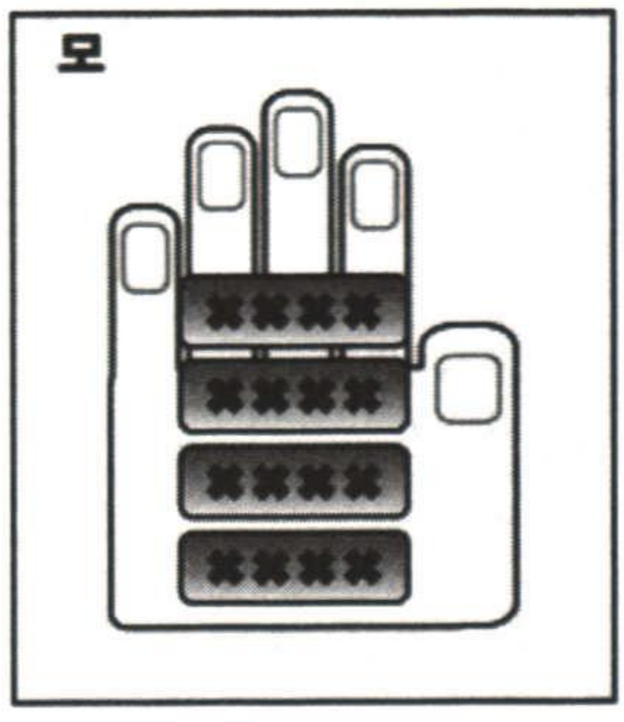
〈그림 25〉 장작패기

6. 윷을 던져 사윷(윷)이 나오면 '칼치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세 개의 윷을 배가 보이게 나란히 붙여놓고, 나머지 한 개의 윷을 이용해서 붙여 있는 윷의 옆을 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친 윷이 모두 등이 보이게 뒤집혀야 한다. 성공하게 되면 '닭 모가지 비틀기'로 넘어가며, 이때는 4개의 윷을 이용해서 10번을 연속해서 성공시켜야 한다.



〈그림 26〉 칼치기

7. 도·개·걸·윷 단계를 모두 성공시키면 마지막으로 모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모는 '닭 모가지 비틀기'나 뒤집어져 있는 윷을 엎어지게 하는 단계 없이 '체 받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다. '체 받기'는 공기놀이에서 마지막에 꺾기를 하듯 윷 4개를 손등에 올려놓고 한 번에 윷을 모두 잡아내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그림 27〉 체 받기

8. 다음으로는 '꾸리감기'를 한다. 이것은 베 짜기에서 실을 감을 때 하는 꾸리감기의 모습을 윷을 이용해서 흉내를 내어 따라한 것이다. 윷 네 개를 한 손에 쥔 후, 동시에 위로 던진다. 이때 윷이 반 바퀴 정도 회전하면서 떨어지도록 던지는데, 던진 손으로 네 개의 윷을 모두 잡아야한다. 위와 같은 동작을 10번 연속해서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9. 앞의 '꾸리감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베를 짜듯이 여성 윷에서도 꾸리감기 다음으로 '베 짜기'를 한다. 이것 역시

실제로 베를 짜는 모습을 비슷하게 따라한 것으로 네 개의 윷을 한 손에 쥐고 회전시키지 않고 공중에 던졌다가 잡는데, 한번은 세로로 던져서 옆으로 잡고, 한번은 가로로 던져서 위에서 아래로 잡아야 한다. 역시 총 10번을 연속해서 성공시켜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10. 마지막 단계를 먼저 성공시키는 편이 놀이의 최종 승자가 된다. 먼저 윷 하나를 이마 위에 올려놓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윷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개를 젖혀서 윷이 떨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다. 그런 후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윷을 천천히 입 쪽으로 이동시켜서 입으로만 윷을 받아내면 승리하는 놀이이다.[3)]

놀이를 하다가 틀리면 그 순서의 시작부터 같은 편의 다음 사람이 다시 시작한다. 승패가 결정되면 지는 편은 벌칙으로 다 같이 노래를 불러야만 한다. 또는 먹을 것을 집에서 가져와서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한다. 윷가락의 재료는 싸리 막대를 주로 썼으며, 크기는 장작윷 보다는 작은 10cm 정도의 길이이다. 제보자 김금순씨는 이 놀이를 하면서 컸지만, 첫째 딸(현재 나이 55세)이 소녀 시절에는 이 놀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1950년대까지 이 놀이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대치면 이화리, 김금순)

---

3) 제보자는 이 단계의 명칭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정산면 서정리의 이옥순 제보자가 구술한 보리풍년내기의 소여물 먹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정산면 서정리의 윷놀이

정산장에서는 10년 전까지 시장 뒷골목에서 돈 내기 윷놀이가 성행했다. 기존의 윷판을 이용해서 하는 윷놀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정한 선을 그어 놓고 그 선을 기준으로 4~5미터 떨어진 곳에 직경 1~2미터 정도의 원을 그려 놓는다. 놀이에 참여한 이들은 정해진 금액을 걸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 선에서 원 안으로 윷을 던진다. 윷의 패가 가장 높은 한 사람이 돈을 따는 것으로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을 가려가며 계속 던지게 한다. 윷이 원 밖으로 나가던지, 금에 걸치면 그것은 낙방으로 처리되어 실격이 되기 때문에, 원 안으로 윷을 잘 던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하는 인원은 제한이 없었으며, 놀이가 진행될수록 정해진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 놀이판이 많이 과열돼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정산면 서정리, 박오상)

(다) 정산면 서정리의 척사대회

요즘은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윷놀이를 한다. 대동제 때 부녀회와 청년회가 윷놀이 시합을 한다. 상품은 설탕, 세제 등이다. 이기는 팀과 진 팀 모두 선물을 주는데, 이기는 팀에게 좀 더 비싼 상품을 준다.

서정1리 마을회관은 부녀회와 노인회가 사용하는 방이 완전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남녀가 함께 놀지 않는다. 부녀회와 노인회가 군에 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서, 지원금도 따로 받는

다.(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라) 대치면 광금리의 윷놀이

척사대회라고도 한다. 산제가 끝나면 마을로 내려와서 윷놀이를 하며 놀았다. 편을 나눌 때에는 남, 여를 골고루 섞어서 나누는데, 이때 각 편의 이름을 수답과 봉답이라고 부른다.

수답이 이기면 물이 많아서 비가 잘 안 오게 되고, 그 해 농사는 가물어서 망치게 된다. 만약 봉답이 이기면 풍년이 된다고 하면서 한 해 농사를 점쳤다.

이는 마른갈이에 비가 자주 와서 골고루 물이 내려와야 이긴다고 생각했다. 이 동네는 물이 적어서 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풍년이 들라고 일부러 봉답이 이기게 하지는 않는다.

윷은 밤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어른 손 한 뼘 정도이며, 굵기는 손가락 두 개 정도이다. 뒷토는 없으며 지금도 산제사 지내고 난 뒤에 즐기는 놀이이다.(대치면 광금리 노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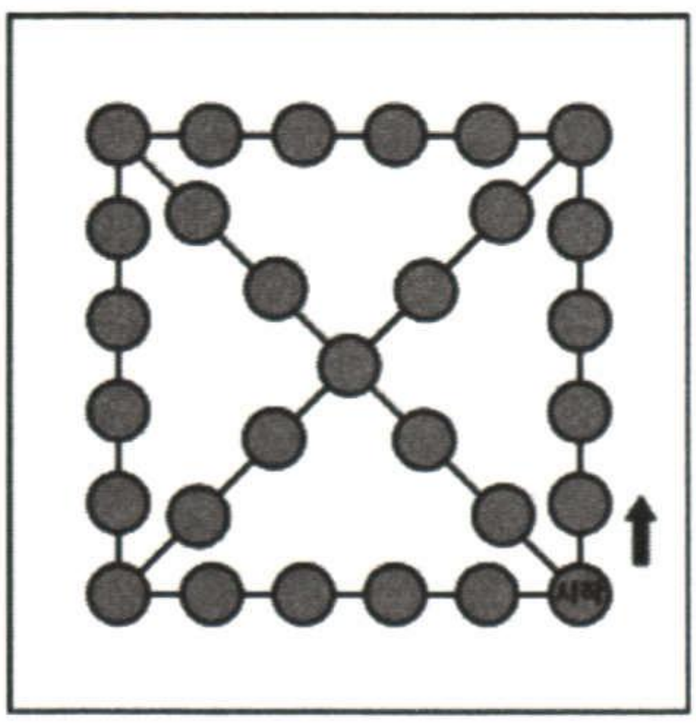
(마) 비봉면 갈마동의 윷놀이

시집 온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동네에서는 남녀가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윷놀이를 많이 했다. 말판을 제보자가 주로 그렸다. 한 팀에 말을 네 개씩 놓고 한다. 내기를 하는데 진편과 이긴 편이 3:2의 비율로 점심값 내기를 한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바) 대치면 장곡리의 윷놀이

윷놀이는 제보자가 어렸을 때 또래 아이들은 하지 않았고, 어

른들이 하는 걸 봤다. 여자들은 정초에 밖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정월 보름부터 윷놀이를 했다. 보름은 여자 보름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여자들이 놀았다. 걸립도 보름 때부터 쫓아다닐 수 있었다. 어른들은 막걸리 내기를 많이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그림 28〉 윷 판

(사) 장평면 미당리의 윷놀이

주로 정월 대보름에 넓은 공터에서 윷놀이를 했다. 정월 대보름에 마당에 말을 놓는 판을 그려서 놓고, 여러 패로 나누어 놀이를 했다. 여자들은 원래 하는 윷놀이 외에 다른 윷놀이도 있는데, 어떤 형태였는지는 정확히 모른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아) 정산면 서정리의 자릿날세기

예전에는 윷말을 놓는 판이 없었기 때문에 왕골자리의 줄을 따라서 말을 놓았다. 먼저 왕골자리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도는 1개, 개는 2개, 걸은 3개, 윷은 4개, 모는 5개로 위로 이동하였다.(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자) 운곡면 위라리의 척사대회

정월 보름에 동네의 큰 집 사랑방에서 모여서 윷놀이를 했다. 척사대회를 하면 상품은 주로 술이었는데, 운곡양조장이 먼 곳에 위치해 있고, 그 당시에는 지게로 져서 술을 사야 해서 매우 술이 귀했다. 윷은 밤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운곡면 위라 2리, 명연순)

(차) 정산면 광생리의 윷놀이

윷은 한 뼘 정도 되는 크기이며, 밤나무로 만든다. 윷판은 세로와 가로가 있는 사각형의 형태이다. 말은 편을 나눠서 짝수로 맞춰서 놀았다.(정산면 광생리, 오세형)

(카) 화성면 화암리의 윷놀이

새해에 대표적 놀이로 윷놀이를 했다. 윷을 만드는 나무는 대개 밤나무나 참나무를 썼고, 길이는 20센티미터 정도였다. 새해에서 보름까지만 윷놀이를 했다. 만약 보름이 지나서 윷놀이를 하면 보리흉년이 든다고 한다.(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타)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윷놀이

정초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공터나 마당에서 윷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보통 정월에만 하였으며, 지금은 척사대회를 참가하거나 가족끼리 가끔 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윷점을 치면서 한해의 운을 따지기도 하였다고 한다.(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파) 정산면 서정리의 윷놀이

윷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정사각형과 원형인 29개의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정사각형 윷판(말판, 넉 동판)을 사용하였으며, 자리 하나하나에 명칭이 있다. 그런 이유로 윷판을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말판을 써서 놀았고 6·25전쟁 이후부터 윷판을 그려 윷놀이를 하였다.(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5) 수건돌리기

(가) 청남면 상장리의 수건돌리기

수건돌리기를 할 때는 작은 손수건이나 수세미를 사용했다. 놀이를 하는데 인원 제한은 없었으나 대개 15명 정도가 모여 놀았다.

수건을 돌리는 방법은 방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랐다. 방 안에서 할 때는 수건을 찾는 사람(술래)이 가운데에 앉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치마를 입고 둥그렇게 원을 지어 무릎을 세우고 앉는다. 그 다음 무릎 밑으로 수건을 돌리는데,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밖에서 할 때는 술래는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둥그렇게 원을 지어 앉는다. 술래는 원을 지어 앉은 사람들의 뒤를 돌며 앉아 있는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몰래 뒤에 수건을 놓고 돈다. 술래가 한 바퀴를 돌 때까지 자신의 뒤에 수건이 있는 것

을 눈치 채지 못한 사람이 술래가 된다.

당시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찔레꽃---'으로 시작하는 노래나, 애국가인 '동해물과---'를 부른 기억만 남아 있다. 수건돌리기는 여자들이 모여 겨울철에 많이 놀았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나) 정산면 학암리의 수건돌리기

수건돌리기는 아이들이 빙 둘러 앉아서 하는 놀이이다. 우선, 가위바위보를 통하여 술래를 정한다. 그러면 술래는 수건을 들고 나머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둘러앉은 원 밖을 빙빙 돈다. 아이들이 노래를 다 끝마치기 전에 술래가 한 아이의 등 뒤에 수건을 놓는다. 술래가 다시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수건이 놓여 있는 아이의 등을 친다. 술래가 등을 칠 때까지 자신의 등 뒤에 수건이 있는지를 눈치를 못 채면, 술래가 된다.(정산면 학암리, 김만배)

(다) 정산면 서정리의 수건돌리기

수건돌리기는 아이들이 빙 둘러 앉아서 하는 놀이이다. 우선, 가위바위보를 통하여 술래를 정한다. 그러면 술래는 수건을 들고 나머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아이들이 둘러앉은 원 밖을 빙빙 돈다. 아이들이 노래를 다 끝마치기 전에 술래가 한 아이의 등 뒤에 수건을 놓는다. 술래가 다시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수건이 놓여 있는 아이의 등을 친다. 술래가 등을 칠 때까

지 자신의 등 뒤에 수건이 있는지를 눈치 채지 못하면, 술래가 된다.(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라) 비봉면 갈마동의 수건돌리기

10명에서 15명이 방이나 마당에서 빙 둘러 앉아서 수건돌리기를 했다. 정월 대보름 때는 수건을 돌려서 술래가 밥을 훔쳐오도록 했다. 이것은 시집가기 전까지 했던 놀이이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마) 대치면 시전리의 깍두기 벗기

깍두기 벗기는 손수건 돌리기와 유사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20명 이상이 모이는 집단놀이이다. 정월 대보름날 마을의 10대 또래 여자 아이들이 모여 놀기 좋은 한 집의 방으로 모인다. 그들은 방안에 둥그렇게 앉아서 손수건 돌리기를 시작한다. 술래로 걸리면 벌칙으로 옷을 하나씩 벗는데, 술래에 자주 걸려 팬티만 남겨둔 채 다 벗게 되면, 술래는 모두를 향해 코를 집고 절을 해야만 한다. 그 모습이 매우 우습고 창피스럽기 때문에 이 놀이를 하러 갈 때는 옷을 최대한 많이 껴입고 가며, 심지어 버선도 많이 신고 갔다.(대치면 시전리, 강석구)

(바) 정산면 서정리의 풍금놀이

풍금놀이는 여자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놀이이다. 술래가 여자아이들의 치마 속에 '풍금'이라고 외치며, 손수건을 쥔 손을 넣다가 빼는 동작을 돌아가며 반복한다. 그 중에 실제로 치마에

손수건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손수건이 자신의 치마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치마를 오므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치마에 손수건이 있는 줄을 모른다. 수건돌리기와 비슷하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사) 운곡면 광암리의 풍감돌리기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모여 앉아서, '풍감~풍감~풍감~'노래를 부르면서, 반지를 돌려가며 숨긴다. 치마를 입어서 치마 속에도 넣어서 감추기도 하는데, 술래는 노래가 끝나면 감춰진 반지를 찾아야 한다. 술래가 찾으면 숨긴 것을 걸린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되는 놀이이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6) 종지돌리기

(가) 운곡면 신대리의 종지돌리기

종지를 찾아내는 놀이인데,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한 다음에, 술레를 가운데 앉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세우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술래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종지를 계속해서 돌리다가 멈춘다.

이 때 술래는 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노래, 춤 등의 벌칙을 받게 되고, 술래가 된다.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종지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 술래를 해야 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7) 풀각시놀이

(가) 청양읍 군량리의 각시풀놀이

각시풀놀이는 여자만 했던 놀이이다. 각시풀을 비벼 막대기에 감아 머리 형상을 만들며 놀았다.(청양읍 군량리, 복임순)

(나) 비봉면 장재리의 각시풀 놀이

각시풀놀이는 각시풀로 머리를 땋고, 색동으로 저고리를 해 입히는 인형놀이이다. "고돌바위 장가가고 무릇각시 연지곤지 찍고 시집간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비봉면 장재리 3반, 명노숙, 김종목, 윤금모, 명순화)

(다) 운곡면 신대리의 각시풀 놀이

각시풀로 머리를 땋아서 인형처럼 만들어 놀았다. 낭자를 만들어서 머리에 쪽을 짓는데, 쪽진 것은 결혼했다는 뜻이고, 댕기를 트는 것은 색시를 의미한다. 남자는 상투를 틀면서 놀았다.(운곡면 신대2리, 최병정, 명제경, 배태순, 노영자, 윤주선)

(라) 운곡면 광암리의 각시풀 장난

각시풀을 뜯어서 인형을 만들고, 성냥개비를 비녀 삼아 꽂았다. 그리고 종이로 치마와 저고리 만들었다. 이 각시풀 장난은 10살 안팎의 여자 아이들이 하던 놀이이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마) 비봉면 갈마동의 풀각시놀이

길에 있는 풀을 뽑아서 댕기머리를 따서 각시를 만들어서 놀았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여자아이들만 모여서 많이 했다. 이 시기에는 여자아이들끼리 모여서 소꿉놀이, 풀각시놀이와 같이 만드는 놀이를 위주로 하다가, 3학년 이후에는 딱지치기, 땅따먹기 등을 남자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남녀가 같이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바) 대치면 시전리의 풀각시놀이

풀각시놀이는 일종의 인형놀이로, 인형이 없던 시절에 직접 각시 풀로 머리 모양을 땋아서 각시의 인형을 만들어 놀았다. 혼례와 같은 것을 흉내 내며 놀았다.(대치면 시전리, 강석구)

(사) 정산면 학암리의 풀각시놀이

풀각시놀이는 여자 아이들이 할미꽃으로 각시 인형을 만들어서 하는 놀이이다. 각시 인형은 할미꽃을 꺾어서 족두리 모양으로 머리 부분을 만들어서 신랑, 각시를 만든다. 그 다음에 길에 피는 풀의 막대 부분을 꺾어서 할미꽃 밑에 잎으로 말아서 막대를 끼웠다. 할미꽃을 그냥 세우면 쓰러지기 때문에 막대기를 꽂아서 세웠다.

풀각시놀이는 각시 인형을 가지고 결혼하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이었다. 할미꽃은 4월에 피는데, 풀각시놀이는 할미꽃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이 꽃이 피는 시기에만 놀이를 했다.(정산면 학암

리, 김만배)

(아) 정산면 송학리의 풀각시놀이

풀각시놀이는 여자아이들이 할미꽃으로 각시 인형을 만들어서 노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할미꽃을 꺾은 다음, 족두리 모양으로 접어서 각시를 만들었다. 실로 족두리 부분을 묶은 다음에 댕기머리를 하듯이 실로 땋았다. 그리고 밑에는 대를 끼워서 고정시켰다. 풀각시놀이를 하다가 동티가 난 이야기도 있다.

"풀각시하다가 대롱에다가 넣어서 어디다 걸어놨는데 그게 동티가 나가지고"

"동티가 나요?"

"그 여자가. 있잖어. 그 여자가 죽게 생겼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머가 분명하다고. 대롱서 매달아 놓은 각시가 혼이 되가지고 귀신이 되서. 그런 소리도 있었어"

"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응."

"각시를 대롱에 매달아놨더니 정말로 각시혼이 들어갔다고요?"

"응. 그려. 풀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송학리에서 예전에 그 얘기를 들으셨던 거에요?"

"아니. 우리 클 때는 그런 걸 하고 놀았는디.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모셔 놓으면. 사람이 신이라는게. 단지를 어디다 갖다 놓고. 그거를 하잖어. 믿음이 되는 식으로. 그것도 그렇게 됐었다는 얘기지."(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자) 운곡면 신대리의 각시풀놀이

각시풀을 실로 묶어 나뭇가지 끝에 매고, 옥수수 수염으로 만든 머리를 땋아서 소녀의 댕기처럼 만든다. 치마와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기도 하고, 할미꽃으로 족두리를 씌워 각시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시집을 보낸다고 하여 신랑을 만들고 병풍·이불·요·베개 등으로 신방까지 꾸며 놓고 재미있게 놀이를 한다. (운곡면 신대리, 이영자)

(차) 남양면 온암리의 풀각시놀이

풀을 접어서 인형을 만들어 논다. 이것을 "풀각시 만든다"고 하였는데 여자인형, 남자인형을 만들어서 소꿉장난을 하였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카) 화성면 장계리의 각시풀 인형

여자아이들이 동산에 놀러가서 풀로 각시인형을 만들어서 인형놀이를 하였다.(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8) 손바닥치기

(가) 비봉면 장재리의 손바닥 놀이

다리를 서로 모아 놓고 노래 박자에 맞춰 손바닥으로 다리를 짚는다. 노래의 마지막에 걸린 사람의 다리를 하나씩 뺀다. 마지

막까지 남은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한다. 노래는 "까그매 까 ,어디가네? 강남간다, 모하러 가네? 새끼치러 간다, 몇 배쳤네? 두 배 쳤다, 나한대나고 낳고 못 주겄다. 지져먹고 볶아먹고 똥기땡!"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비봉면 장재리 3반, 명노숙, 김종목, 윤금모, 명순화)

(나) 운곡면 신대리의 손바닥 장난

손바닥 장난은 서로 손을 마주치면서 "아침바람 찬 바람에, 울고가는 저기저기, 엽서 한장 써 주세요, 구리구리구리~"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운곡면 신대2리, 최병정, 명제경, 배태순, 노영자, 윤주선)

(9) 소꿉놀이

(가) 비봉면 장재리의 소꿉장난

소꿉장난은 주로 7~11세의 여자 아이들이 어른들의 집안일을 모방해서 노는 놀이이다.

사발을 엎어서 솥이라고 걸어놓고, 뚝배기를 냄비라고 걸어놓는다. 또 황토로 부뚜막을 만들어서 솥단지를 걸고, 솔잎 주워서 불을 떼면서 부엌일을 꾸미는 놀이를 한다.

부엌 놀이에 그치지 않고, 옷을 해 입는다면서, 갈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개금잎새로 저고리를 만들어서 입었다.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배울 수 있었다.(비봉면 장재리 3반, 명

노숙, 김종목, 윤금모, 명순화)

(나) 대치면 장곡리의 소꿉놀이

소꿉장난을 할 때에 각시풀(수수깡)을 엮어서 머리를 만들었다. 네잎클로버로 팔찌, 목걸이를 만들었다. 뽕잎 대를 꺾어 말아서,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다. 뽕잎대로 여러 번 말아서 한참 지나면 머리가 꼬불꼬불해졌다. 파마한 것처럼 구불구불해지는데 하루 정도 유지가 되었다. 남자들도 소꿉놀이에 끼고 싶으면 끼는데 머리를 마는 것은 하지 않았고, 호박에 말뚝을 박아서 동물을 만들었다. 남자아이들은 감을 주워서 동물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에도 남자, 여자 섞어서 아빠, 엄마 역할을 정해서 했다.

당시에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새금파리로 밥그릇, 솥 등으로 이름을 지어서 소꿉놀이를 했다. 여자아이들은 음식 만드는 시늉을 하고, 남자아이들은 솥을 걸어놓고 나무를 해온다는 말 등을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다) 비봉면 갈마동의 소꿉놀이

마당에서 여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역할을 맡아서 소꿉놀이를 했다. 그릇 깨진 것을 주워서 솥이라고 하면서 밥 짓는 시늉을 했다. 여자 아이들 5명 정도 모여서 했으며, 초등학교 1~2학년 때에 많이 했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라) 대치면 시전리의 소꿉놀이

여자 아이들이 집 마당에서 5~6명씩 모여서 소꿉놀이를 했다. 주로 굽 달린 쇠금바리를 깨서 도구로 사용했다. 밥상을 차리고 아빠, 엄마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놀았으며, 주로 10살 때까지 소꿉놀이를 했다.(대치면 시전리, 강석구)

(마) 대치면 농소리의 소꿉놀이

여자아이들이 길거리에 삼삼오오 모여서 놀았다. 주로 쇠금팽이(쇠금바리)를 깨서 도구로 사용했다. 밥상을 차리고 아빠, 엄마로 역할을 나누어서 놀았다.(대치면 농소리, 이병예)

(바) 운곡면 신대리의 소꿉장난

깨진 그릇을 갖다놓고, 풀을 뜯어서 밥이랑 찬이라고 생각하고, 모래와 진흙으로 고추장 간장이라고 차려놓고 놀이를 했다. (운곡면 신대2리, 최병정, 명제경, 배태순, 노영자, 윤주선)

(사) 정산면 서정리의 소꿉놀이

새금바리(그릇깨진 것)를 올려놓고, 솥, 밥그릇이라고 하면서 놀았다. 예전에는 아빠, 엄마라고 역할을 정하지 않았다. 남녀가 내외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만 소꿉놀이를 했으며 다른 집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호칭을 쓰지 않았다.(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아) 운곡면 신대리의 소꿉장난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사금파리나 얇은 돌, 또는 조개껍질을 이용해 소꿉장난을 한다. 이런 것을 주워서 솥을 걸고, 밥그릇과 반찬그릇으로 삼고, 모래나 흙으로 밥을 짓는다. 그리고 풀잎과 나뭇잎을 따다가 반찬을 만들어 살림살이 흉내를 낸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하고, 손님까지 초청하여 접대하는 놀이까지 하였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자) 대치면 대치리의 소꿉장난

소꿉장난은 주로 여자들이 하는 놀이로 풀을 뜯어서 각시를 만들며 노는 놀이이다. 곧 풀을 뜯어서 각시를 만들어, 머리도 땋고, 낭자도 꽂으며 놀았다.(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차) 비봉면 관산리의 분쌈놀이

분쌈놀이는 밀을 털어서 분을 만든 다음에 얼굴에 찍어 바르며 노는 여자 아이들의 놀이이다. 어릴 때에 화장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어른 흉내를 내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10) 실뜨기

(가) 운곡면 신대리의 실뜨기

옛날부터 소녀들이 바느질하는 어머니 옆에서 남은 실을 가지

고 놀이를 하던 것이 발전하여 방안에서 즐기는 놀이가 된 것 같다. 실을 한 발 가량 끊어서 양 끝에 매고 양손으로 팽팽하게 당긴 후 실을 한 번씩 감아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뜨기를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모양에 따라 명칭이 있으며 그 변화에 따라 흥미롭게 엮어간다.

① 장구 : 한사람이 실을 두 손에 한번 감아서 걸고 다시 두 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감은 실을 걸어 뜬 뒤에 상대편에게 차례를 넘긴다.

② 쟁반 : 실 양쪽의 가위처럼 벌어진 부분을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끌어 쥐고, 아랫줄 밖으로 둘러서 위쪽 가운데로 올려 뜬다.

③ 젓가락 :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바둑판 가운데의 줄이 교차한 두 각을 걸어 쥐고, 바깥 줄을 밖으로 빼었다가 위쪽 가운데로 올려 뜬다.

④ 절구통 : 두 새끼손가락으로 가운데 두 줄을 걸었다가, 서로 반대쪽으로 당겨서 늘린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바깥 줄을 걸어서 아래로부터 가운데로 올려 뜬다.

⑤ 쟁반 : 엄지와 검지로 절구통의 양쪽 각을 걸어 쥐고 밖으로 빼었다가 이번에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뜬다.

⑥ 비행기 : 쟁반을 젓가락으로 만들 때처럼 위로 떠올린다. 그러면 가운데가 마름모꼴이 된다.

⑦ 톱질 : 먼저 장구를 만들어 가위 줄 밑으로 가로 걸린 한

쪽 줄을 잡고, 반대쪽의 가로 걸린 한쪽 줄을 입으로 물고, 가운데 손가락에 걸린 줄이 벗겨지지 않도록 안으로 내려 뽑는다. 이것을 서로 이리저리 당기면 마치 톱질을 할 때와 같이 실이 엇갈려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나) 대치면 장곡리의 실뜨기

겨울에 방안에서 여자아이들끼리만 모여서 실뜨기를 했다. 두 명이서 하는데 실이 엉키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오늘날 실뜨기 방식과 유사하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다) 남양면 온암리의 실뜨기

2명이 실을 잡고 주고받는 놀이이다. 실을 양쪽 손에 감고 모양을 낸다. 그러면 상대방이 다른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내기로 서로 시합한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모양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지게 된다. 하지만 실뜨기는 승패를 가리는 놀이라기보다는 재미를 위한 즐기기 놀이였다. 실뜨기는 여자아이들과 남자 아이들 모두 함께 놀았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11) 연극놀이

(가) 정산면 송학리의 연극

송학리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길 가의 정자나무 밑에서 연극

을 했다. 정자나무 밑에는 개울이 있었으며, 가뭄 때에는 물이 많지 않아서 주위의 자갈밭에서 놀기 좋았다.

연극은 장화홍련, 심청이와 심봉사, 이수일과 심순애과 같은 내용을 단막극으로 꾸며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 심청전의 경우, 심봉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하얀 잠방이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았으며, 심청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었다. 특히 유구에 살고 있는 이동우가 심봉사 역을 가장 잘 했으며, 이동우의 여동생이 심청이 역할을 맡았다. 제보자는 어린 마음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이런 연극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옛날 얘기 책을 많이 읽었고, 읍내에 활동사진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연극을 하는 어떤 특별한 날은 없었지만, '언제하자~'하고 약속을 정해서 했다. 공연을 하기 전에 미래 며칠 전부터 연습을 했다.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정자나무 밑에 천을 치고 판자대기로 무대를 꾸몄다. 한 막이 넘어갈 때마다 천을 쳤다가 걷었다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극이 진행됐다.

그리고 구경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당시 구경꾼이 꽤 많았는데, 어른들도 좋아했다. 사람이 많아서 겨우 비집고 들어가 구경할 정도였다. 당시 대박리, 새남리, 남천리에서도 와서 구경했다. 연극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략 60대에서 70대 초반의 사람들이다.(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나) 대치면 장곡리의 연극

겨울철 농한기 때,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연극을 했다. 연극의 내용은 콩쥐팥쥐나 계모가 아이들을 구박하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 연극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껴서 함께 했는데 연극을 잘하는 사람이 주동을 했다. 연극을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며, 학예회와 비슷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12) 거북이놀이

(가) 정산면 천장리의 거북이놀이

기존의 알려진 거북놀이와는 다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소재로 연극 놀이를 했다. 삼삼오오 모여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며 노는 것이다. 때문에 승패는 겨루지 않는다. 이 놀이는 주로 집안의 사랑방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하였다. 역할은 그 배역에 적당히 어울리는 사람한테 맡긴다. 거북이는 엎드린 상태에서 위에 한명을 태우고 목을 거북이 목처럼 넣었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하며, 엉금엉금 기어 다니고 토끼는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출발선과 도착선을 정해 두고 토끼와 거북이가 동시에 출발하지만, 거북이는 한 명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토끼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토끼는 중간쯤에 자는 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북이가 먼저 도착선에 도착하면서 끝나게 되는 놀이이다. 주로 소학교(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하였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13) 장기

(가) 정산면 천장리의 장기

장기는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남자들이 많이 즐겼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두루 즐기는 놀이다. 요즘에는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주로 노는데, 내기를 걸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누군가가 훈수를 두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나) 비봉면 관산리의 장기

장기알은 주로 느티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로 만들었고, 장기판은 은행나무로 만들었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14) 차차차

(가) 대치면 장곡리의 차차차

차차차는 '번호 대기 차차차', '산 대기 차차차'가 있으며, 번호나 이름, 산 이름을 대면서 노는 놀이이다. 제 때에 명칭을 대지 못하거나 틀리면 술래가 된다. 주로 여자들이 모여서 놀았는데, 남자들은 되도록이면 안 끼워준다. 그 집 주인 아들인 경우에만 같이 놀았다. 예전에는 남자, 여자 같이 어울리면 연애 한다고 소문이 날까봐 잘 안 끼워주었다.

때에 따라서 남녀가 둥그렇게 섞여 앉아서 놀기도 했다. 그

당시에 또래 아이들이 남자 여자 합쳐서 50명 정도 되었는데, 차차차는 대개 10명 내지 15명이 모여서 놀았다.

이 놀이는 13~14살의 사춘기 때에 주로 사랑방에서 모여서 했다. 술래는 벌칙으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고, 또한 엉덩이로 이름 쓰기도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15) 호뜨기불기

(가) 비봉면 관산리의 호뜨기 불기

버드나무 잎새를 돌려서 풀피리를 만들어 소리를 내면 피리 소리가 난다. 또는 후등이라는 풀로 풀피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 소리가 버들피리보다 더 좋았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나) 청남면 인양리의 호뜨기불기

호뜨기불기는 버드나무를 잘라서 조그맣게 만든 후에 입에 대고 불었다.(청남면 인양리, 한익희)

(16) 보리풍년내기

(가) 정산면 서정리의 보리풍년내기

보리풍년내기는 윷놀이의 한 종류이다. 보리풍년내기에 사용되는 윷은 싸리나무나 밤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다. 말판은 특별히 없었다. 보리풍년내기의 순서는 장작뽀개기 → 소여물먹기

→ 똥숫간(화장실)짓기 → 벼 짜기 → 보리풍년내기의 순서로 한다. 각각의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작뽀개기'는 윷을 십자로 놓고 장작을 패는 듯이 때려서 치는 것이다. '소여물 먹기'는 콧잔등에 윷 네 개를 올려놓고 흔들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손바닥에 윷을 받는 것이다.

'똥숫간 짓기'는 윷 세 개를 이용하여 세 개를 꼭짓점을 중심으로 쓰러지지 않게 세우는 것이다. 세운 다음에 나머지 남은 한 개의 윷으로 똥숫간을 쓰러뜨린다. '벼 짜기'는 윷가락 네 개를 던져서 네 개를 한 손에 잡는 것이다.

'보리풍년내기'는 제보자가 아주 어렸을 때 하던 것이다. 원래는 벼를 심고 성장하고 수확하는 과정으로 된 것이다. 앞에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과정이 있었으나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든 과정을 지나야만 이긴다.(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17) 잎새따기

(가) 청양읍 군량리의 잎새따기

잎새따기는 잎새를 하나씩 툭툭 쳐서 떨어지게 하는 놀이이다.(청양읍 군량리, 복임순)

(나) 화성면 장계리의 잎새따기

아카시아 꽃줄기를 뜯어서 동무와 함께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서로 이긴 사람이 잎새를 하나씩 뜯는다. 잎새를 빨리 모두 뜯

어 낸 사람이 이긴다.(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18) 쟁경도놀이

(가) 정산면 대박리의 쟁경도놀이

이 지역의 쟁경도(爭卿圖)놀이는 '승경도 놀이'라고도 한다. 10년 전까지 집안 식구들과 어울려 실시를 하였다고 한다.

이 놀이의 판은 보관을 위해 기름칠을 한다. 이 판은 유학에서부터 입문해서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조선조의 관직이 총망라하여 그리기도 하지만, 만드는 사람에 따라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관직의 수도 증감하여 적기도 한다.

조선시대 후기 서울과 지방의 관직이 촘촘히 적혀있고, 관직 밑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혀있어 숫자에 따라 승진하거나 사임, 혹은 파직 당할 수도 있다. 관직 외의 '만고의 소임', '간신배'같은 항목을 넣어 놀이의 재미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나) 정산면 서정리의 종경도놀이

종경도 판은 장방형의 마분지나 창호지의 전지 한 장에 대략 가로 10행, 세로 14행으로 칸으로 나누어, 써넣고자 하는 관직의 수를 적는다. 전국 고을 360개와 지방의 관직까지, 그리고 귀양지인 진도, 흑산도, 제주도 등이 기록되어 있어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놀이 방법은 개인 또는 4~10명이 편을 나누어 순서를 정하고 주사위를 던져 중앙의 영의정이 먼저 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또한 문과와 무과를 정하여, 문과로 출발한 사람은 영의정을 거쳐 사궤장(賜机杖)에 도착한 사람이, 무과로 출발한 사람은 도원수를 거쳐 70세 이상이 되어 봉조하(奉朝賀)로 퇴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이 놀이를 할 때 주사위를 가지고 놀았으며, 말판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정산면 서정리, 윤홍수)

(19) 글자찾기

(가) 정산면 덕성리의 글자 알아맞히기

가위 바위 보로 이긴 사람이 먼저 상대가 보이지 않게 뒤로 돌아서 땅바닥에 나무막대나 못을 이용하여 자기가 쓰고 싶은 글자를 새긴다. 그리고 모래로 글자를 덮어놓고 두들기든지, 또는 발로 밟아서 다지기도 한다. 상대방은 모래를 헤쳐가면서 글자를 알아맞히게 된다. 알아맞히면 교대를 하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다시 하게 된다. 이때 정한 규칙에 따라 벌칙을 내리기도 한다.(정산면 덕성리, 장광현)

(나) 청양읍 송방리의 글자 찾기

주로 실내에서 글자 찾기를 하였으며 서당에 다니는 학동들 사이에서 즐겨했다. 한문으로 된 책자는 가로 세로가 일정하고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 글자 찾기가 무척 힘들다. 글자를 배우는 학동들이 글자가 신기하여 글자 찾기를 재미있어 했는데, 둘이나 여러 명이 놀이를 한다. 순서를 정하여 한 사람이 글자를 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찾는다. 찾으면 다음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찾지 못할 경우는 글자를 알려주기도 한다.(청양읍 송방리, 이서동)

(20) 두꺼비집짓기

(가) 대치면 장곡리의 두꺼비집짓기

진천댐 밑에 모래가 쌓인 곳에서 모래 위에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를 부르면서 성을 쌓으면서 놀았다. 이것을 두꺼비집짓기 놀이라 한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나) 정산면 송학리의 두꺼비집짓기

개울가에 모래가 쌓인 곳에 손을 집어넣고 "두껍아, 두껍아" 하면서 모래를 쌓았다. 두꺼비놀이는 남자나 여자 모두 했으며, 혼자 하는 놀이였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21) 나무동무

(가) 정산면 송학리의 나무동무놀이

이 놀이는 동무들끼리 문답형식으로 빠르게 말을 주고 받으며

노는 놀이의 일종이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문) 나무동무! 나무하러 가세!
(답) 배 아파 못 가겠네
(문) 무슨 배인가?
(답) 자루배일세.
(문) 무슨 자루?
(답) 어업자루.
(문) 무슨 어업?
(답) 진주어업.
(문) 무슨 진주?
(답) 고월진주.
(문) 무슨 골?
(답) 샛골.
(문) 무슨 새?
(답) 할매새.
(문) 무슨 할매?
(답) 니 할매.

(22) 방아개비놀이

(가) 목면 안심리의 방아개비놀이

여름과 겨울철에 아이들이 풀밭에서 방아개비를 잡아 스스로 깡충깡충 뛰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마치 방앗간에서 발로

디디어 찧는 디딜방아처럼 방아를 찧듯이 계속해서 흔들고 있어 이를 보고 방아찧기를 한다고 하고 이 놀이를 '방아개비 놀이', '땅개비놀이' 라고도 부른다.(목면 안심리, 김재복)

(나) 비봉면 녹평리의 방아개비놀이

방아개비를 잡아 두 개의 긴 뒷다리를 잡고 흔들면 방아개비는 스스로 깡충깡충 뛴다. 이 때 아이들은 방아개비가 방아찧기를 할 때 "아침거리를 찧어라 저녁거리를 찧어라 콩콩 찧어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방아개비가 이 노래에 맞춰 깡충깡충 계속해서 뛰는 것을 보고 신기한 듯 재미있어 한다.(비봉면 녹평리, 지유순)

(23) 선생님놀이

(가) 운곡면 신대리의 선생님놀이

이 놀이는 소녀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을 돌볼 때 마주 앉아 노래와 동작을 같이 하면서 즐기는 놀이이다. 본 지역에서는 '선생님', '구리구리 가위바위보'. '아침 바람 하자' 놀이라고 한다.

놀이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뉜다.

① 쎄쎄쎄- 쎄쎄쎄 : 양손 끝을 아래위로 서로 걸어서 아래위로 세 네 번 흔든다.

② "아침바람 찬바람에" : 자기 손뼉을 치고 앞사람의 오른손

손바닥과 마주치고 자기 손뼉을 치고 앞사람과 왼손바닥 마주치기 동작을 2회 실시한다.

③ "울고 가는" : 양손으로 얼굴의 눈물을 닦는 동작을 취한다.

④ "저 기러기" : 오른 손으로 들어 하늘에 날고 있는 기러기를 가리키는 동작을 취한다.

⑤ "우리 선생" : 오른팔로 가슴 앞에 대고 왼팔로 가로 댄다.

⑥ "계신 곳에" : 팔짱을 낀 채로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⑦ "엽서 한 장 써주세요" : 왼손바닥에 오른 손으로 글씨 쓰는 시늉을 한다.

⑧ "구리 구리" : 두 주먹을 바깥쪽으로 굴린다.

⑨ "가위 바위 보" : 그 후 진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이긴 사람은 어느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누르고 "어느 손" 하며 손가락을 내밀면 진 사람이 고개를 들고 그 손가락을 맞추게 된다. 맞추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맞출 때까지 계속하게 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24) 잠자리잡기

(가) 대치면 탄정리의 잠자리 잡기

"잠자리 꽁꽁 앉은 자리 앉아라, 멀리멀리 가면 똥물 먹고 죽는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금살금 가까이 간다. 이 때 잠자

리는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날아가지 않고 고개머리만 흔들면서 앉아 있다. 이럴 때 천천히 이동하면서 살며시 잠자리의 꼬리를 잡는다.

낚싯대 끝에 파리를 달아 매달아 흔들면 잠자리가 파리를 물게 될 때 잠자리를 잽싸게 잡는다.

꽃잎이 작은 줄기를 꺾어 잠자리 앞에서 돌리면 잠자리는 꽃을 물게 되는데 이때 잠자리를 잡는다.(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나) 남양면 구룡리의 잠자리 시집 보내기

잠자리를 잡아 개구쟁이 아이들이 꼬리를 끊어 버리고 그 안에 가늘고 짧은 나무토막을 넣어 날려 보낸다. 이때 아이들은 잠자리를 '시집 보낸다' 혹은 '장가 보낸다'라고 한다.(남양면 구룡리, 김동만)

(25) 다리세기

주로 추운 겨울철에 방안에서 많이 하는 놀이로, 남녀어린이들이 두 줄로 마주 앉아, 서로 다리를 엇갈리게 뻗고, 다리를 세어 가면서 놀이를 한다. 이 놀이를 '발헤기', '다리셈놀이'라 하고, 제일 늦게까지 다리가 남는 사람을 도둑이라 하여, 이 놀이를 '도둑놈놀이'라고도 한다.

보통 5~6명의 아이들이 서로 마주 앉아 서로 다리를 엇갈리게 뻗고서 노래에 맞추어 손바닥으로 한 번씩 짚으면서 세어간

다. 이렇게 세어 가다가 "땡", "꿍"에 해당하면 다리를 오므리며, 또 노래를 부르고 몇 번이고 거듭하는 사이에 두 다리를 먼저 오므린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그를 '장수, 또는 순경'이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므린 사람을 '닭'이라 하고, 그 다음을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가 남게 된 사람을 '도둑'이라 한다. 도둑이 된 어린이에게는 정한 벌칙을 주게 된다.(정산면 덕성리, 조재순) 이 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인사 만사 주머니끈
똘똘 말아 장두칼
제비줄에 허리빠, 요땡.(정산면 용두리, 최웅매)

(26) 손뼉치기

(가) 운곡면 광암리의 손뼉치기

지명이름이나 산 이름, 끝말잇기, 숫자 등을 미리 정해서 상대방과 손뼉을 치면서 오래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나) 대치면 이화리의 손뼉치기

손뼉치기는 11~12세의 또래 여자 아이 2명이 주로 실내에서 마주 앉아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서로 마주치면서 하는 놀이이다. 노래의 박자에 맞추어 손뼉을 치는데, 제보자는 전래동요로

손뼉치기를 하지 않고,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손뼉 치기를 했다.

아레미 미에루와
자스미데 나이까
똔똔똔
(노래 가사 중 1절)

제보자는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 부르면서 배웠기 때문에 노래 가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이 노래는 3절까지 부르면서 손뼉 치기를 했지만, 지금은 1절만 기억하고 있다.(대치면 이화리, 김금순)

(27) 유리보기놀이

(가) 운곡면 신대리

4~7명의 여자아이들은 깨진 유리조각을 가지고 모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놓고 놀이를 시작한다. 각자 10cm 정도 깊이로 땅을 파고 흙을 적당히 깔고 그 위에 분꽃, 복숭아 꽃, 채송화 등의 꽃과 잎으로 장식을 한다. 그런 후 그 위에 유리를 깔고 흙으로 덮는다.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흙으로 덮인 것을 천천히 헤쳐 유리를 통하여 본 모양을 서로 비교한다. 멋있고 화려한 정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서로 멋있다고 자랑을 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28) 눈(目)싸움

(가) 운곡면 신대리의 눈(目)싸움

둘 중 한사람이 '시작'이라 하면,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쳐다본다. 깜빡이지 않아야하며, 먼저 깜빡거리는 사람이 지게 된다. 이 때 상대편에 깜빡이도록 손을 내두르기도 하고, 얼굴 짓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눈앞 언저리를 닿지 않게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놀이 중에 눈물을 흘리며 이기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버텨서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 타협에 의해 비기기도 한다. 지는 사람에게는 미리 약속한 대로 벌칙을 받는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4. 신체단련형 놀이

(1) 널뛰기

(가) 운곡면 신대리의 널뛰기

마당에 가마니나 멍석을 둘둘 만 다음에 그 위에 큰 나무토막을 놓아서 널을 만들었다. 주로 설날에 설빔을 입고 댕기를 하고 올라가서 널을 뛰었다. 떨어지지 않고 오래 뛰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운곡면 신대2리 , 최병정, 명제경, 배태순, 노영자, 윤주선)

(나) 비봉면 갈마동의 널뛰기

8월에 널뛰기를 많이 했다. 널판이 집 마당에 있었다. 여자아이들이 널뛰기를 하고, 남자아이들은 팽이치기, 자치기 등을 했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다) 대치면 농소리의 널뛰기

주로 집안의 마당에 널을 두고 여자들이 많이 뛰었다. 널뛰기는 일상적인 놀이라기보다 대보름이나 추석 때만 하는 놀이이

다.(대치면 농소리, 이병예)

(라) 대치면 장곡리의 널뛰기

정월 대보름부터 널뛰기를 했다. 동네 친구 아버지가 목수여서 널판을 깎아서 그 집 마당에 매달아 놨다. 지붕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높이 뛰었다. 주로 14~15살 정도에 널뛰기를 많이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마) 정산면 학암리의 널뛰기

예전에는 널뛰기를 많이 뛰었으나, 최근에는 뛰지 않는다. 널빤지는 아무 집에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몇 집에만 있었다. 그래서 널뛰기는 주로 널이 있는 집 마당에서 뛰었다. 지금은 호석이네만 있는데, 그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집이 비어서 널빤지를 볼 수가 없다.

널빤지의 크기는 보통 가로 2미터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였다. 널뛰기는 양쪽에서 두 사람이 번갈아 뛰며 가운데는 사람이 앉아서 균형을 잡았다. 널뛰기 가운데에 짚단을 둥글게 해서 짚투메를 놓는다.

널뛰기는 정월 보름부터 뛰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과 관련한 금기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보름 때부터 여자 명절이라고 하였다. 정월 보름 전에 여자가 나서면 욕을 먹었다. 또한 2월 초하루에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의 가축이 잘 안 된다는 속신이 있었다. 즉, 가

축이 잘 죽거나 성장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다. 정월 초부터 열흘까지는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안 된다. 열흘 넘어서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말이 없었다.

남자들은 자치기, 제기차기를 많이 하고, 널뛰기는 하지 않았다.(정산면 학암리, 김만배)

(바) 화성면 장계리의 널뛰기

설날에는 넓은 마당에 널을 깔고, 많은 여자들이 뛰면서 놀았다.(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2) 줄넘기

(가) 운곡면 위라리의 줄넘기(나와도비)

동아줄을 틀어서 줄을 만든 다음에, 단체로 줄넘기를 하는 놀이로 '나와도비'라고도 불렀다. '나와도비'는 일본말이며, 이 놀이는 누가 많이 줄을 넘느냐에 따라 승패를 정하였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나) 비봉면 갈마동의 줄넘기

'꼬마야 꼬마야'를 부르면서 순서대로 줄에 들어가서 뛰어넘는 놀이를 했다. 줄을 밟거나 걸려 넘어지면 상대편으로 기회가 넘어간다. '꼬마야 꼬마야'라는 노래 한 곡을 다 마칠 때까지 줄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줄넘기를 하면 이기는 놀이이다.(비봉면 갈마

동, 이금선)

(다) 대치면 장곡리의 줄넘기

혼자서 뛰는 줄넘기도 있고, 여러 명이 들어가는 줄넘기도 있다. 줄은 새끼줄이었으며, 노래 부르지 않고 그냥 놀았다. 줄넘기는 여자아이들끼리만 두 편으로 나눠서 놀았다. 특별한 벌칙은 없었다. 하교를 하고 집에 도착한 다음에 학교운동장이나 골목길로 나와서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라) 정산면 학암리의 새끼줄넘기

새끼줄넘기는 양쪽에 두 사람이 동아줄로 된 줄을 잡고 있고,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줄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놀이를 할 때 '새끼줄 잡고 팔딱 팔딱 뛰자'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고무줄이 귀했기 때문에 새끼줄로 많이 했다. 일제시대에는 고무줄이 없었고, 해방된 이후에 고무줄이 생겼다. 일제시대에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으며, 줄의 높이를 점점 올리면서 했다.(정산면 학암리, 김만배)

(마) 운곡면 신대리의 줄넘기

여럿이 하는 줄넘기는 주로 여자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이다.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두 사람은 6~7m정도 되는 새끼줄을 양쪽에서 잡고, 큰 원을 그리게 하여 땅에 닿게 줄을 돌린다.

다른 사람들은 순서를 정하여 뛰어 들어가 줄을 뛰어 넘는다.

일렬로 서서 차례로 뛰는데 놀이 중간에 줄을 밟거나 줄에 걸린 사람은 돌리는 사람과 교대를 한다. 하나, 둘, 셋, 넷 등으로 박자를 맞추어 한 사람씩 뛰어 들어가는 경우와 2~3명이 동시에 뛰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노래 가사에 맞추어 간단한 동작을 취하게 되고, 노래의 가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지역에서 불리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줄 안에 들어오면 줄을 잡은 사람이 요구하는 노래의 가사에 따라 뛰면서 동작을 취한다.

영희야 영희야. (동작을 취하지 않는다)
인사를 하거라. (전부 다 인사를 한다.)
영희야 영희야, 뒤로 돌아라. (뒤로 돈다.)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땅을 짚는다.)
그리고, 그리고, 만세를 불러라. (만세를 부른다.)
영희야 영희야, 잘가거라. (줄 밖으로 나간다.)

(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3) 썰매타기

(가) 청남면 상장리의 썰매타기

썰매는 겨울철에 논에 물을 대어 얼린 후 그 위에서 탔다. 썰매 밑의 날은 철사를 이용해 달았으며, 양손에 쥐고 썰매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썰매송곳'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반팔 길이의 소나무 막대를 T자 형태로 만들고, 대못의 머리 부분을 없앤 다음에 도끼나 자구리로 찍어서 나무에 두들겨 박았다. 썰매는 주로 앉아서 탔으나, 서서 타는 방법도 있었다. 서서 타는 방법은 '발썰매'라고 불렀으며 잘 타는 사람만 이 방법으로 탔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나) 청양읍 읍내리의 지게 썰매타기

지게를 엎어뜨리고, 작대기로 밀면서 썰매 대용으로 많이 탔다. 썰매 못지않게 잘 나가서 많이 타고 다녔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다) 비봉면 관산리의 썰매타기

겨울철에 논이 얼면, 그 얼음판에 썰매를 탔다. 썰매는 대개 형이나 아버지들이 만들었다. 합판과 편목으로 썰매의 기본 형태를 만들고, 편목 밑에 막대기 두 개를 대고 그 막대기에 철사를 대서 썰매 날을 만든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라) 대치면 장곡리의 썰매타기

예전에는 어른들이 소나무로 썰매를 만들어줬다. 나무판에 구멍을 뚫어서 짚으로 끈을 매달았다. 철사가 귀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철사를 주면 그걸 썰매판 밑에 대고 탔는데, 매우 성능이 좋았다. 남자아이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을 뒤에서 밀어주곤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마) 정산면 천장리의 썰매타기

겨울이 되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막았던 보가 얼게 된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썰매를 타며 많이 놀았다. 썰매는 나무에다가 철사를 붙여서 날을 만들었는데, 보통 어른들이 만들어 준다. 경우에 따라선 자신이 만드는 법을 배워서 직접 만들어 타기도 했다. 출발선과 반환점을 정하여 누가 먼저 돌아오는가로 승패를 결정하는 놀이이다. 혼자 타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신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태우면서 놀기도 하였다. 살얼음 위를 썰매를 타면서 지나다가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10살을 전후하여 남녀 구분 없이 어린 아이들이 즐겨 놀았던 겨울철 놀이이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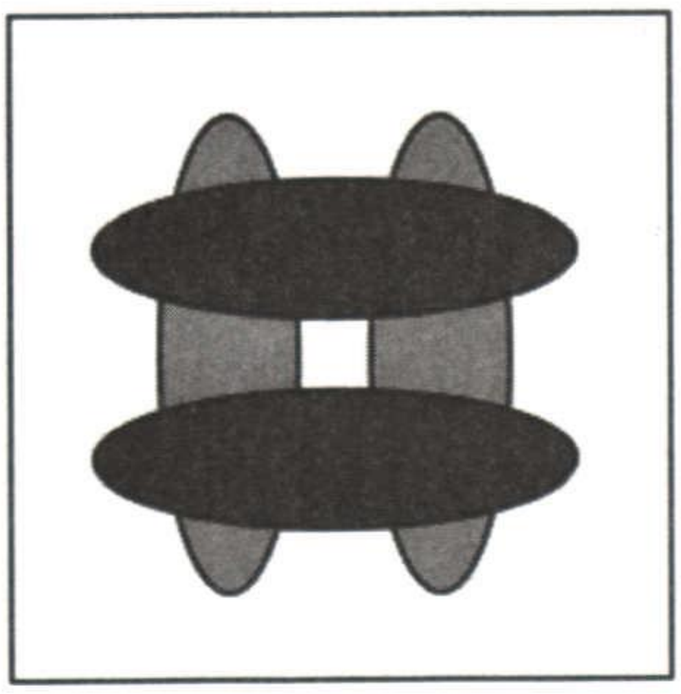
(바) 정산면 송학리의 썰매타기

썰매타기는 남자 아이들이 겨울철에 저수지에서 했던 놀이이다. 예전에 송학리에는 저수지가 있어서 남자아이들이 썰매를 산에서 타지 않고 저수지에서 탔다. 썰매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

거나, 어른들이 썰매를 만들어 주었다. 썰매는 솔나무 가지를 깎아서 만들었다. 썰매는 한 자 정도의 장방형 널빤지 밑에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좁아서 각이 진 직경 5cm, 길이 30cm되는 막대를 대었다. 막대 밑, 각진 부분에는 철사를 대었는데, 철사는 담배농사를 지을 때 말리기 위해 지지대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했다. 저수지가 없어지면서 썰매를 탈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점차 마을에서 썰매를 타는 모습이 사라졌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사) 장평면 미당리의 썰매타기

겨울에 논에 얼음이 언 곳에서 썰매를 주로 탔다. 소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날은 철사를 몸통 밑에 대서 만들었다. 막대기 4개를 깎아서 썰매 몸통을 만들었다. 막대기 2개를 이용해서 양손에 쥐고 썰매를 탔다. 대부분 어른들(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이 제작하였으나, 좀 크면 본인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릴 때부터 썰매를 타기 시작해서 15살까지 탔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그림 29〉 썰매

(4) 고무줄놀이

(가) 정산면 송학리의 고무줄뛰기

고무줄뛰기의 순서는 무릎에서 시작해서 허리 → 배꼽 → 앞가슴 → 어깨 → 귀 → 머리 → 만세까지 이어진다. 만세를 부르기는 거의 어렵다. 고무줄뛰기를 할 때는 주로 동요를 불렀는데, '임금님에 생일날--'로 시작하거나,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칭찬'이란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 여자들이 고무줄을 하면 남자 아이들은 고무줄을 끊어가고, 줄을 감아서 감추기도 한다. 오빠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극성스럽게 고무줄을 끊었으며, 주로 학교 남자들이 많이 줄을 끊었다.(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나) 비봉면 갈마동의 고무줄뛰기

학교 다닐 때 검정 고무줄이 나와서 고무줄놀이를 했다. 졸업하고 나서는 하지 않았다. 학교 다닐 때 더러 남자아이들도 함께 했다. 남자 아이들 중에는 칼로 고무줄을 끊는 장난을 하기도 했다. 양 끝에 두 명이 고무줄을 잡고 한 줄로 서서 했으며, 무릎을 시작으로 허리, 옆구리, 머리까지 점점 높이가 올라갔다.

14세까지 남녀가 함께 놀았다. 초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아이와 성인을 구분했다. 졸업을 하면 처녀 총각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 내외를 했다.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얘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다) 청양읍 군량리의 고무줄놀이

줄뛰기에 사용되는 줄은 새끼를 꼬아 만든다. 크게 원모양으로 줄을 돌리면, 상대방은 애국가를 부르며 줄을 뛰어 넘었다.(청양읍 군량리, 복임순)

(라) 대치면 대치리의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는 주로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갖고 노는 놀이이다. 고무줄을 양쪽에서 한 사람씩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고무줄을 뛰어넘는 방식이다. 높이는 위아래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높이 뛰어넘으면 이기는 방식도 있다.(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마) 남양면 온암리의 고무줄놀이

① 잇생도까 : 다같이 '잇생도까 조생징구'라는 노래를 부르며 양쪽에서 한 줄로 된 고무줄을 붙잡고 가운데에서 발로 노는 놀이이다.

② 사까다찌 : 양쪽의 동무들이 고무줄을 붙잡으면, 손을 땅에 짚고 다리를 올려서 물구나무를 서서 한 줄 고무줄을 넘는 놀이이다. 고무줄놀이를 할 때는 일본노래를 주로 불렀다. 우리말 노래는 거의 없었다. 놀이 용어도 모두 일본어였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바) 화성면 장계리의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는 처음에는 발목 높이부터 시작하여, 점차 높이를 높이는데, 높을수록 재주를 넘듯이 한다. 한 단계씩 높이며 노

는데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이긴다.

고무줄넘기(줄넘기)는 2명이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고 돌리면, 한 명 또는 두 명이 가운데에 들어가서 '폴짝' 넘는다. 이 때 고무줄이 아니고 새끼줄로 넘는 경우도 있었다.(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5) 숨바꼭질

(가) 정산면 송학리의 숨기장난

송학리의 숨기장난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숨바꼭질'이다. 10명 이상의 남녀가 모여 이 놀이를 했다. 놀이는 가위 바위 보로 정해서 진 사람은 술래가 되어 곳곳에 숨은 나머지 사람들을 찾는다. 숨는 사람들은 주로 헛간이나 담장, 똥뒷간에 숨거나 대문 뒤에 숨기도 했다. 때에 따라 큰 자루를 뒤집어쓰고 숨기도 하였다.

숨기장난을 할 때 술래가 부르는 노래는 대략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잠자리 꽁꽁, 앉을 자리 앉아라. 먼데 가면, 꽃 따먹고 죽는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반복하기도 한다. 또한 1부터 10까지 수를 세기도 했다. 이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먼데까지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나) 정산면 송학리의 숨바꼭질

숨바꼭질은 술래가 눈을 감는 사이에 다른 아이들이 숨는 놀

이로, 술래가 숨은 아이를 찾아내면 그 아이가 술래가 된다. 숨바꼭질은 동네 어귀에서 했으며, 아이들이 남의 집에 가서 숨었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다) 장평면 미당리의 숨바꼭질

술래가 숫자를 세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몰래 집에 들어가서 숨는다. 술래가 못 찾으면 지고, 찾으면 이기게 된다. 장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바꼭질을 못했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라) 비봉면 관산리의 감추기 놀이

감추기 놀이는 현대의 숨바꼭질 놀이이다. 술래를 정해서 술래가 정해진 수를 세는 동안에 숨는다. 술래는 숨은 아이들을 찾는 놀이이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마) 대치면 대치리의 숨바꼭질

여자들은 주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 술래-이 용어는 이곳에서 사용하지 않았음 - 를 정해서 눈을 감게 한다. 이 때 나머지는 적당히 숨는데, 만약에 들키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바) 남양면 온암리의 숨바꼭질

숨바꼭질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한 밤에 많이 하였다.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라고 노래를 몇 번 부르면, 다른 아이들은 곳곳에 흩어져 숨는다.

그리고 숨은 사람이 술래가 있는 기둥에 발각되지 않고 먼저 손을 치게 되면, 술래는 바뀌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을의 변소, 개울가 할 것 없이 별의별 곳에 다 숨는다. 찾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매우 재미난 놀이였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사) 운곡면 신대리의 장님술래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한 뒤 수건으로 술래의 눈을 가린다. 다른 사람들은 술래 주위에서 "나 잡아 봐라" 하고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불러, 자기의 위치를 알려준다. 그러면 소리에 따라 눈을 가린 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을 잡으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또 잡은 후에 누구인지 이름을 알아맞히면 술래를 면하게 되고, 잡힌 사람이 술래가 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아) 운곡면 신대리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이 놀이는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고 뒤를 보는 순간, 움직이는 것이 발견되면 잡힌다. 잡힌 사람은 술래 뒤에 줄줄이 늘어서 있다가, 그 중에서 나중에 술래를 정한다. 이 놀이는 아이들의 순발력과 재치를 키워주는 놀이이다.

놀이의 방법은 전봇대나 벽의 목표물로부터 10m 되는 거리에 선을 그어 놓고 술래를 정한다. 술래는 벽에 기대어 뒤돌아서서 눈을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재빨리 뒤를 돌아본다. 술래가 외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걸음을 술래 쪽으로 옮긴다. 되돌아보았을 때 움직이는 것이 발견되면 술래 뒤에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늘어선다. 다른 아이들이 술래 가까이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연결된 것을 끊으면 늘어선 사람들은 재빨리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때 술래는 달려가서 다른 아이들을 손으로 쳐야 하는데, 손이 닿은 사람이 술래가 된다. 만약 술래 뒤에 늘어선 사람이 없으면 술래 등을 치고 출발선으로 돌아온다, 이때에도 치면 술래가 되고, 움직이는 것이 들켜서 모두 다 늘어서게 되면 가위바위보를 하여 다음 놀이의 술래를 정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자) 정산면 서정리의 깡통차기

깡통차기는 술래잡기의 일종으로, 10대 초반의 남자 아이들 10여명이 모여서 했던 놀이이다. 숨을 곳이 많았던 집 근처에서 많이 놀았다.

놀이 방법은 먼저 직경 40~50cm 정도의 원을 그린 후, 그 안에 깡통을 두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술래를 정한다. 그 후 술래가 아닌 한 사람이 깡통을 멀리 차고, 그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이 숨기 시작한다. 술래는 깡통을 찾아 다시 원 안으로 갖다 둔 후, 본격적으로 숨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다.

숨은 사람을 찾게 되면 술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재빨리 원으로 돌아와 깡통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숨은 사람을 모두 찾으면 술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끼리 다시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고 놀게 된다.

하지만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았어도, 숨은 사람이 먼저 원으

로 와서 깡통을 원 밖으로 차면, 술래가 그 깡통을 본래 위치로 돌려놓는 사이에 다시 숨을 수 있다. 또 이 때 잡혀 있던 사람들도 다시 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 술래 몰래 깡통을 차도 같은 기회가 부여된다. 때문에 원 안에 있는 깡통을 잘 지키며 숨은 사람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술래가 어리바리한 경우에는 해가 지도록 술래가 바뀌지 않고, 계속 놀았다. (정산면 서정리, 박오상)

(차) 운곡면 신대리의 깡통차기

먼저 직경 50cm 정도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깡통을 놓고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정한다. 그 후 나머지 한 사람이 숨기 위해 한 번 깡통을 차고 숨는다. 술래는 차서 멀리 가 있는 깡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숨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숨은 사람을 찾을 경우에는 찾은 사람의 이름을 대고 돌아와 원 안에 있는 깡통을 밟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숨은 사람을 다 찾으면, 잡힌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새로운 술래를 정한다.

그러나 찾았어도 술래보다 먼저 와서 깡통을 원 밖으로 차면 다시 숨을 수 있고, 이 때 차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술래가 찾은 사람이 많아도 숨어있는 한 사람이 술래보다 먼저 또는 술래 몰래 깡통을 차면, 잡혔던 사람도 다시 숨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놀이가 진행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6) 여우잡기

(가) 운곡면 신대리의 여우잡기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인 여우를 정한다. 술래는 작은 원 안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쪼그려 앉는다. 다른 아이들은 앉기도 하고 서서 놀이를 한다. 서서 손에 손을 잡고 술래와 문답식으로 노래를 주고받는다.

(다른 아이들)	(여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세수한다
멋쟁이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또는 죽었다)

여우가 "죽었다"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 다시 "죽었니? 살았니?" 하고 묻는데 이때 "죽었다"라고 하면 몇 번이고 다시 묻는다. 만일 여우가 갑자기 "살았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달아나고 여우는 도망가는 아이들을 쫓아가 손으로 친다. 그러면 치인 아이는 여우(술래)가 되고 놀이는 계속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7) 돌절구들기

(가) 정산면 송학리의 돌절구들기

돌절구 들기는 마을 머슴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소에게 여물을 주기 위해 풀을 베러 갈 때에, 간혹 장성집에서 쉬면서 하는 놀이이다. 머슴들이 쉬면서 때때로 힘겨루기를 했는데 그 곳에 있는 돌절구(화뚝)를 들어서 힘을 겨루었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8) 그네뛰기

단오가 되면 마을에서 여자들이 그네를 탄다. 그네는 주로 단오 며칠 전에 마을 청년들이 새끼줄을 꼬아 마을의 정자나무나 큰 나무에 매단다. 그네를 매달아 타는 것을 그네타기, 그네뛰기라고 하며, 그네타기의 종류는 혼자서 타는 방법, 쌍으로 타는 방법이 있다. 청양의 지역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산면 마치리의 그네타기

그네는 주로 마을의 정자나무에 매단다. 그네를 타는 방법으로는 혼자 타거나 쌍그네(둘이서 타는 그네)를 타는 방법이 있었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 김제삼, 이옥지, 최복순)

(나) 청남면 상장리의 그네뛰기

부여 귀암면 수목리에서 시집온 이봉수(여, 72세)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그네뛰기 방법이 2가지가 있었다. 그네를 타며 입으로 잎새를 따는 '입따기'와 그네를 타며 발로 잎새를 맞추는 '발로 맞추기'가 있었다. 한편 아산리에서 시집온 송갑순(여, 74세)은 처녀 때에 그네를 뛰면서 발로 차서 순위를 가렸다. 그리고 시집온 다음에는 시집살이에 일이 많아 그네를 뛰지 못했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다) 정산면 송학리의 그네타기

단오날 정자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탔다. 70년대 초반까지는 그네 타는 풍습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그네를 탈 때 따로 한복은 입지 않는다. 그네를 타는 방법에는 잎새따기(그네를 타면서 입으로 잎을 따는 것)와 쌍그네(그네를 두 명이서 같이 타는 것)가 있다. 잎새따기 할 때 부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이겨라~이겨라~
잎새 잘따와~잘따와~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라) 운곡면 위라리의 그네뛰기

둘이서 그네를 타면서 '아가배야~ 청소배야~'라고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간혹 그네를 타면서, 서로의 팔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네 줄을 타고 올라가기도 했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마) 비봉면 관산리의 그네타기

단오 때가 되면 남자들이 동네의 큰 나무에 새끼로 동아줄을 엮어서 그네를 달아 주면, 동네 여자들이 그네를 탔다.

"석구네 집 앞에 정자나무 있던 거, 거기다 메주고, 남자들이 메주면, 저녁이면 동네 처녀들이 와서 뛰고, 남자들은 맨들어 줬지, 뭐. 동아주름, 바로 틀어야지."

특히 2명이 같이 타는 그네를 '배그니'라고 부른다. 서로 마주서서 양발을 겹치지 않게 포개고 배를 마주보고 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

그네를 타면서 서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네를 높이 올려서 나뭇잎을 입으로 따기도 했다. 그네 줄은 자동적으로 닳아서 못쓰게 되면 없애며, 특별히 그네 줄을 끊는 날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바) 대치면 농소리의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단오 때 가장 많이 뛰었다. 남자들이 매년 단오 때마다 튼튼한 소나무에 바꿔 달아주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이 그네를 뛰었지만, 특히 여자들이 많이 놀았다. 남자들의 경우는 둘이서 뛰는 경우가 많았다.(대치면 농소리, 이병예)

(사) 대치면 장곡리의 그네뛰기

단오에 여자아이들만 그네를 뛰었다. 단오가 지나면 노인들이

그네 줄을 끊어버려서 단오에만 뛸 수 있었다. 여자아이들이 치마를 펄럭거리면서 뛰는 것이 보기 싫다면서 노인들이 그네 줄을 끊었다.

그네는 동네 느티나무에 매달았다. 제일 높이 뛰는 사람한테 특별히 상을 주는 것은 없고 다만 박수를 쳐 주었다. 예전에는 줄자가 없었기 때문에 새끼줄을 꽈서 그네에 매달았는데, 새끼줄이 가장 많이 풀린 사람이 가장 멀리 나간 것이다. 도르래가 말려 올라가듯이, 그네가 올라가는 만큼 줄이 말려 올라가게 된다. 처음 할 때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밀어주는데, 잘 뛰는 사람은 밀어주는 사람이 없이도 잘 뛴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아) 정산면 학암리의 그네뛰기

학암리 마을에서는 예전에 정자나무에서 그네를 매고 탔다. 그네 줄은 짚으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짚이 썩기 때문에 매년 갈아 주어야 한다. 재작년에 그네 줄을 철물점에서 쇠심이든 나일론 끈으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마을에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아 그네를 만드는 일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재작년에는 나일론으로 그네를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하여, 비가 오더라도 썩지 않았다.

예전에 짚으로 만든 그네는 썩기 시작하면 흘러내리면서 저절로 없어졌다. 그네가 썩어 내리기 전에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알아서 타지 않았다. 또한 그네가 썩기 시작하면 미리 줄을 끊기도 했다.

그네는 단오에 주로 타며, 단오가 지나면 어른들은 많이 타지 않았으나, 아이들은 추운 한겨울을 제외하고 4계절 내내 탔다.

단오에 마을 사람들이 '너도 한번 나도 한번 타자' 하면서 정자나무 앞에서 먹고 즐기면서 그네를 탔다. 단오라서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자나무에서 먹고 즐기며 그네를 타기도 한다. 여름에 정자나무 밑에서 쉬면 시원하기 때문에 요즘도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쉬며 논다. 이 마을에서 그네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뛴다.(정산면 학암리, 김만배)

(자) 정산면 서정리의 그네뛰기

정산면 서정리의 그네뛰기는 5월 단오에 여자들이 정주나무 밑에서 한다. 상송(윗마을)에 가면 늙은 정주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그네가 있었다. 예전에는 정주나무 아래가 논이어서 그네 타기가 좋았다. 그네는 가지가 평탄한 것보다, 기울어져 있어야 잘 나간다. 그네를 잘 뛰는 사람은 정자나무의 잎새를 따기도 했다. 둘이 타는 쌍그네를 배그네라고 하며, 배를 맞대고 타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차) 청남면 동강리의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단오 때 가장 많이 뛰었으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이 놀았다. 현재 마을회관 앞에 있는 큰 정자나무에 그네를 매달았으며, 1년마다 교체했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홍)

(카) 정산면 송학리의 그네뛰기

5월 단오 때에 그네를 뛰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등나무에 그네를 매달았다. 여자들은 물론이고 남자들도 뛰었으며 두 명이 마주보고 그네를 뛰기도 하였다. 단오가 오기 전부터 그네연습을 하였으며, 단오에는 대회를 열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기도 하였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타) 남양면 온암리의 그네뛰기

단오에 마을의 큰 팽나무에 그네를 매달고 탔다. 5월 단오와 나흗날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타고 놀았다. 그네를 탈 때는 한 명씩 탔으며, 그네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손뼉을 치며 칭찬하였다. 그네의 줄은 동아줄을 엮어 사용했으며, 발을 놓는 발판 부분을 "받이"라고 하여, 줄을 꼬아서 손으로 직접 만들어 연결하였다. 마을에서 대회는 열리지 않았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파) 비봉면 녹평리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단오놀이로, 이 마을에서는 그네를 녹평리와 강정리의 마을 경계지점에 있는 버드나무에 매달아 놀았다. 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합을 벌이는 일이 많았다.(비봉면 녹평리, 명제헌·최순길)

(9) 마부놀이

(가) 정산면 대박리의 마부놀이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마부와 말을 정한다. 마부는 말을 오른쪽 옆구리에 머리를 대고, 오른손으로 말의 눈을 가리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마부가 말을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은 재빨리 말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타려는 시늉으로 장난을 치기도 한다.

그 후 올라탄 기수가 뛰어 내릴 때 말의 뒷발질로 차이는 사람은 말이 되고, 말이 되었던 사람은 마부가 된다. 또는 올라타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뒷발질로 차이면, 그 사람이 말이 되고 말이 되었던 사람은 마부가 된다. 이렇게 말, 마부, 기수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교대하면서 말 타는 놀이가 계속된다.(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10) 다리걸고놀기

(가) 화성면 산정리의 다리걸고놀기

5~8명의 어린이들이 원을 만들어 다리를 건다. 균형을 잡기 위하여 깡충 깡충 뛰면서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논다. "찌지 빠바 스스매 노고가고가 센세이 와"라는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했다.(화성면 산정리, 이태근)

(11) 제기차기

(가) 정산면 마치리의 제기차기

제기는 질그릇으로 쓰는 사금파리에 모시나 명주와 같이 얇은 헝겊을 묶어서 만들었다. 나중에는 비닐이 나와 이것으로 묶었다. 제기를 차는 방법에는 앞차기(한발을 이용해 안쪽으로 차기), 옆차기(한발로 옆쪽으로 차기), 양발차기(양발로 차기), 뒤차기(한발을 사용해 뒤꿈치로 차기)가 있다. 제기를 잘 차는 아이들은 차면서 운동장 1바퀴 도는 경우도 있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 김제삼, 이옥지, 최복순)

(나) 장평면 화산리의 제기차기

제기는 헝겊이나 창호지로 엽전이나 돌을 싸서 만들었다. 헝겊이나 창호지를 잘게 찢어서 수술을 만든다. 수술의 길이는 약 10cm 정도이고 두께는 5mm 정도이다. 제기차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발차기, 양발차기, 발 안대고 차기이다. 한발차기는 한쪽 발의 안쪽을 이용해 제기를 차는 방식이다. 양발차기는 양 발을 사용해 제기를 차는 방식이고, 발 들고 차기는 한발 차기를 하되 제기를 차는 발은 땅에 대지 않는 방식이다. 그리고 양발 번갈아 가며 차는 방식도 있다.(장평면 화산리, 김기돈, 박원생, 김순환)

(다) 장평면 구룡리의 제기차기

제기는 문종이로 쓰는 창호지를 사금파리를 둥글게 실로 묶어

서 만들어 사용했다. 그런데 예전에는 창호지가 귀한 편이었다. 나중에는 습자지가 나와서 창호지 대신에 이것으로 만들었으며, 사금파리 대신에 구멍 뚫린 엽전을 묶어서 만들었다.

제기를 차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양발차기(양 발을 사용해 제기차기), 한발차기(한쪽 발만을 사용해 제기차기), 발 띠고 차기(한발차기를 하되 제기를 차는 발은 땅에 대지 않기), 멀리차기(제기를 한번만 차서 멀리 보내기)이다. 보통 2사람이 편을 가위바위보로 갈라서 놀았다.

제기를 차다보면 고무신 안에 제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고무신에 두꺼운 종이로 된 각대기를 끼어 넣어 제기가 신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라) 정산면 역촌리의 제기차기

제기는 주로 엽전으로 만들었다. 엽전의 구멍 사이에 창호지를 말아 넣어서 뺀 다음에, 숱을 만들었다. 제기차기는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며, 종류로는 양발로 차는 양발차기, 한발로 차는 외발차기, 뒷발로 차는 옆차기가 있었다.(정산면 역촌리, 표연목, 이덕봉)

(마) 대치면 장곡리의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남녀가 함께 하였다. 여자아이들 중에는 남자아이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기는 엽전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엽전이 귀했기 때문에, 창호지로 동그랗게 새끼를 꽈서 엽전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으로 돌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다. 구들장으로 사용되는 작은 돌은 구멍이 잘 뚫렸다. 비닐이 없었기 때문에 창호지로 만들었다. 제기를 차면서 내기를 걸기도 하는데, 내기에서 진편이 감자, 밥, 오곡 등의 서리를 하기도 하였다. 서리는 힘이 들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할 수 있었다. 남자는 서리를 하고, 여자는 훔쳐온 것을 쪘는데, 주로 겨울에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바) 정산면 송학리의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아이들이 제기를 발로 차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많이 차는 것으로 겨룬다. 제기는 창호지와 엽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사) 장평면 미당리의 제기차기

제기는 엽전 구멍에 실로 꿰거나 종이로 만들었다. 엽전이 흔치 않았지만, 제기를 갖고 놀던 11살-13살 때는 엽전이 있었다. 실로 꿰는 경우에는 이불, 옷 등을 꿰매는 굵은 실을 사용했다. 제기차기는 2명이 주고받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같이 어울려 차기도 했다. 주고받기는 두 명이 마주 보고 서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차는 것을 말하며, 양발차기는 제기차기를 할 때 양발을 모두 사용해서 차는 것이다. 외발차기는 한쪽 발로만 차

는 것을 말한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아) 정산면 송학리의 제기차기

엽전에 창호지를 씌워서 직접 손으로 제기를 만들어 놀았다. 발기술로는 다리 안으로 차기, 밖으로 차기 등이 있다. 주로 남자 아이들이 많이 놀았고, 여자 아이들은 하지 않았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자) 운곡면 신대리의 동네제기차기

동네제기차기를 '돌려차기'라고도 한다.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제기를 차게 되는데, 주위의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기를 계속한다. 제기를 발로 받아 차올리지 못하거나, 차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또는 어떤 사람에게 제기를 보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는 실격처리가 된다.

실격자는 다른 사람 모두에게 벌칙으로 '놓어주기'를 한다. 진 편이 이긴 편에게 벌칙으로 '넣어주기'를 한다. 차기 좋게 넣어주어서 이긴 자가 찬 제기를 수비자가 받으면 실격이 되고, 받지 못하면 계속한다. 편을 갈라서 할 때에는 공격을 하는 편이 모두 실격이 되어야 끝이 나고, 다시 놀이를 하려면 많이 차기부터 다시 시작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12) 꼬리잡기

(가) 비봉면 갈마동의 꼬리잡기

꼬리잡기는 여러 명이 편 없이 도중에 끊어지는 사람이 술래가 되는 놀이 방식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두 편으로 나누어 상대방의 꼬리를 끊는 놀이 방식이 있었다. 이 놀이는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주로 달이 뜨는 밝은 밤에 많이 했다. 제보자는 초등학교 5~6학년 때 많이 한 기억이 있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나) 남양면 온암리의 진도리

진도리놀이는 꼬리잡기 놀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 명이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상대편의 꼬리를 끊는 놀이 형태이다. 인원은 상관이 없고 많을수록 좋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13) 오재미

(가) 운곡면 광암리의 오재미

오재미는 주로 헝겊 안에 모레나 콩, 팥을 넣고 꾀어서 만들었는데, 두 개의 오재미를 양손에 올려놓고 돌리는 묘기 놀이이다. 잘하는 사람은 세 개로도 재주를 부렸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나) 비봉면 녹평리의 콩주머니피구놀이

피구와 유사하게 실시하는데, 차이점은 공 대신 콩주머니를 사용한다. 먼저 편을 갈라 공격과 수비를 정한다. 이때 공격은 안에, 수비는 밖에 위치한다. 수비는 인원을 반으로 나누어 양쪽에 배치한다.

밖에 있는 수비 편은 안에 있는 공격 편을 콩주머니로 던져서 맞춘다. 맞은 사람은 실격이 되어 밖으로 나간다. 수비편이 던진 콩 주머니를 공격자가 받아서 던져서, 수비 편을 맞히면 죽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실격된 사람이 없으면 점수로 계산할 수 있다. 공격자가 모두 콩주머니에 맞아 실격이 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여, 놀이를 계속한다.(비봉면 녹평리, 이한숙)

(14) 얼음치기

(가) 정산면 서정리의 얼음치기

얼음치기는 겨울철 논이나 못에서 부모님이나 자신이 직접 나무와 철사를 이용해서 만든 썰매를 타면서 놀았던 놀이 중 하나이다. 단단하게 얼음이 언 부분을 골라 얼음에 일정한 크기로 홈을 판 후 썰매를 타는 아이들이 모여 그 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통과하는 놀이이다. 경우에 따라선 썰매가 좋지 않거나 타는 사람이 썰매에 익숙하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면 홈에 빠져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정산면 서정리, 박오상)

5. 겨루기형 놀이

(1) 공치기

(가) 정산면 마치리의 공치기

공치기는 5~6명씩 서로 편을 가르지만, 숫자에 상관없이 있는 대로 가르기도 했다. 편을 가르는 방식은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하고, 짚을 긴 것 5개와 짧은 것 5개를 섞어서 이것을 끝이 보이지 않게 하여 서로 뽑아서 편을 갈랐다.

제보자의 선배들은 주로 묘 마당에서 모여 공치기를 했다. 예전부터 묘마당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사용했다. 76세의 제보자(14살에 해방, 19살에 전쟁)는 공치기를 한 적이 없으며, 3-4살 위의 선배들이 공치기를 했다.

공치기에 사용되는 공은 솔나무의 공이 부분을 깎아서 만들었다. 공의 크기는 주먹 크기보다 작았다. 예전에는 새끼를 꼬아서 둥그렇게 만들어 놀기도 했다.

놀이방법은 양쪽에 선을 그어놓고 공을 지게 작대기로 쳐서 선 안에 공을 들어가게끔 하는 방식이다. 놀이에서 지는 편이

상대편의 나무를 한 짐씩 해 주는 방식으로 내기를 했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 김제삼, 이옥지, 최복순)

(나) 장평면 화산리의 공치기

공치기는 주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했던 놀이다. 주로 15-20살 정도의 남자들이 놀았다. 따라서 현재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젊은 시절에 놀았던 놀이이다. 놀이에 참여한 인원은 보통 7~8명 정도인데 나무하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놀이에 사용되는 공은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둘둘 말아 만들었고, 공을 치는 것은 나무하러 갈 때 사용하는 지게작대기를 사용하거나, 산에서 즉석으로 나무를 구해서 만들었다. 지게작대기는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 양쪽에 금을 긋고 넘어가면 점수가 나는 방식이다. 화산리 사람들은 인근의 정혜사가 있는 '절산'이나 화산에서 공치기를 많이 했다.(장평면 화산리, 김기돈, 박원생, 김순환)

(다) 장평면 구룡리의 공치기

공치기는 해방 전에 성행했으나 해방 후에는 점차 사라져서 6·25 이후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주로 80~83세 정도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놀이를 했으며, 대략 60여 년 전으로 기억한다. 76살 먹은 제보자는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방과 전쟁 이후에는 배가 고파서 뛰어 놀 수

도 없었다.

이 놀이는 아이들이 산에 나무하러 갈 때 했던 놀이이다. 2대 2나 3대 3, 또는 5대 5로 편을 나누어 놀았다. 지게를 받치는 휘어진 지게작대기로 공을 쳤다. 공은 새끼를 뭉쳐서 사용했으며, 크기는 어른 2주먹 정도 되었다. 공을 치는 장소는 바깥마당, 강변, 뫼마당에서 주로 했다. 공을 치다가 작대기에 눈이 빠진 사람도 있었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라) 청남면 상장리의 공치기

봄, 여름에 10명 이상의 남자아이들이 산에 나무 하러 올라갈 때 공치기를 했다. 공치기의 방법은 축구처럼 양쪽에 동그란 원을 그린 후, 상대편이 지키고 있는 원 안에 공을 넣으면 이기게 된다. 따라서 상대편이 공을 넣지 못하게 방해했다. 공치기에 사용되는 공은 소나무를 깎아서 만들며, 공을 치는 작대기는 나무를 골프채 모양처럼 깎아 만들었다. 공은 소나무 공이로 만들며, 2주먹 정도의 크기였다. 나무 지게를 지고 가다가 공과 작대기 금방 만들었다.

공치기를 하던 장소는 넙치고개 쪽에 있으며 '공마당'이라 불렀다. 공치기는 공과 작대기를 사용하는 격한 놀이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작대기에 맞아 다쳤다고 한다.

공놀이는 해방 이전에 놀았으며, 지금 80대 초반의 어른들이 주로 놀았다. 동네에서는 보철노인(남, 83세)이 공놀이를 하는 것

을 보았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마) 정산면 역촌리의 공치기

남자 아이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심심하면 모여서 공치기를 했다. 공치기는 요즘의 하키와 매우 비슷하다.

공은 형겊이나 짚으로 뭉쳐 만들던지, 소나무 괭이를 둥글게 깎아서 만든다. 지게 작대기를 이용해서 같은 편끼리 서로 공을 쳐가며 주고받으면서 상대편 문으로 공을 쳐 넣으면 점수가 난다. 많은 점수를 내는 편이 이기는 놀이이다. 문에는 수비하기 위한 문지기도 있다.

매우 재미있고 인기 있는 놀이였기 때문에, '눈은 빠져도 공은 친다.'라는 말이 있었다. 공이 딱딱하고 이것을 지게 작대기로 후려치기 때문에 많이 다치기도 했다.

산에서 노는 공간이 주로 산소(물마당)자리여서 그곳에서 놀이를 많이 했다.(정산면 역촌리, 표연목, 이덕봉)

(바) 운곡면 위라리의 공치기

공치기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쉬는 시간에 주로 놀았는데, 공은 소나무 마디인 괭이(옹이)로 만들고, 나무 작대기를 사용하여 상대편 문에 넣는 일종의 하키와 비슷한 놀이이다. 큰 돌멩이나 나무 사이로 골문을 양쪽에 표시해 놓고, 서로 상대방의 문에다 공을 집어넣는 놀이이다. 이때 문을 수비하는 문지기도 있다. 공격과 수비를 서로 나누어가며 놀이를 즐겼다.

놀이의 시작은 가운데 양쪽 편에서 각자 한명씩 뒤돌아서서 있다가,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먼저 잽싸게 돌아서서 채가면서 공격이 시작된다.

주로 이 놀이는 열살 또래의 아이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모여서 논다. 편을 나누어 노는 놀이이기 때문에 모아놓은 나무를 따가는 내기를 하기도 했다. 격렬해지기도 하고, 딱딱한 솔괭이를 나무 작대기로 휘두르기 때문에 많이 다치기도 했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사) 정산면 송학리의 공치기

나무를 하는 젊은이들이 주로 산에서 한 놀이이다. 공을 치는 것은 지게 작대기를 이용하였으며, 공은 솔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나다가 만 둥근 부분을 깎아 사용하였다. 이런 부분을 '부엉이가 방귀를 껴서 꺼졌다'고 하였다. 산에 가면 '공바탕(쉼터, 공마당)'이라는 곳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양쪽으로 편을 나눠서 지게 작대기로 공을 치며 놀았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아) 정산면 천장리의 공치기

다른 지역의 공치기(또는 장치기)와는 다르게 공을 나무작대기로 몰거나 쳐서 상대방 골문에 넣음으로써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이다. 때문에 오늘날의 필드하키와 유사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10대의 젊은 남자들이 주로 하였으며, 산에 갈 때나 빈 논, 밭에서 하였다. 공은 새끼줄이나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칡 줄기

로 단단하게 감아서 지름 10cm 정도로 작게 만든다. 또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놀이였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자) 정산면 남천리의 공치기

이곳에서 공치기는 나무를 하러 가는 젊은이들이 주로 황덕굴에서 실시했다. 공을 치는 작대기는 지게 작대기 중에서 구부정한 것을 사용하며, 칠 때에는 작대기를 눕혀서 사용한다. 주로 음력 3~4월의 늦은 봄철에 공을 많이 치며, 대략 15~20명이 편을 나누어 시합을 한다. 공은 소나무를 깎아서 사용하는데, 예부터 소나무는 '부엉이가 방구 낀 나무'라고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 짚으로 만든 짚공을 만들어 치는 경우도 있다.

시합 방법은 중앙선에 공을 놓고 양쪽 선을 넘어가는 편이 점수를 얻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따굴'이라 하여 중앙선에서 양편 대표 선수가 등을 대고 서로 서서 작대기로 서로 3번을 친 다음에 돌아서서 공을 친다. 이때 동작이 빠른 사람이 먼저 공을 치게 된다. 승패는 몇 골을 넣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1골씩 넣으면서 점수가 쌓이고 일정한 시간에 많이 넣는 편이 이긴다. 골을 넣는 시간은 금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0~20분이 되어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합 중에는 작대기로 상대의 몸을 가격할 수 없다.

이 공치기는 제보자가 20세까지 놀았던 기억이 있다. 대략 49년 전까지 놀았으며, 환산하면 6·25전쟁 이전까지 놀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게 위에 올라가 지게걸음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도 있다.(공주시 우성면 보연리, 김원중)

(차) 장평면 낙지리의 공치기

나무를 한 짐씩 해 놓고 두 팀으로 나누어, 지게 작대기로 나무공을 치면서 노는 놀이이다. 공은 소나무를 잘라서 주먹만한 크기로 만든다. 한 패는 내려치고, 한쪽 편은 올려치면서 노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쉽게 끝나지 않아, 밤늦게까지 놀게 된다.

주로 안장고개 근처에, 도랑이 있고 고개가 있는 곳에서 많이 놀았다. 놀이는 가운데에 공을 놓고 반대편을 향해서 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공대에 공을 넣는 편이 이기게 된다. 사람의 수를 봐서 편을 나누고 구멍을 파서 놀이를 한다. 양쪽 끝의 가운데에 금을 그려서 공이 여기를 넘어가면 이기는 놀이이다. 15~17살까지 논 기억이 있다.(장평면 낙지리 윤갑중, 심윤섭)

사람이 지킴			사람이 지킴

(카) 장평면 분향1리의 공치기

두 편으로 갈라서, 둥근 나무공을 생나무로 쳐서 날리며 노는 놀이이다. 상대 골대에 쳐서 상대편이 받으면 죽고, 받지 못하면 한 점씩 먹게 된다. 상대 골대는 중앙에서 약 10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공을 치는 생나무의 길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 공에 맞아서 눈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놀이이다. 이 놀이는 골프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주로 근처 망월산의 평평한 곳에 가서 놀았다. 이기고 지는 것은 어느 편이 공을 더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 놀이는 먹고살기 힘든 일제시대에 놀았기 때문에 내기 같은 것은 없었다. 놀다가 나무를 해 가지고 내려오기도 한다.(장평면 분향1리 조민행)

사람이 지킴	← 간격10m →	← 간격 10m →	사람이 지킴

(타) 장평면 미당리의 공치기

원래 장치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공치기'라고 하였다. 인원은 모인 사람에 따라 바뀌지만 8명이 4:4로 붙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계절에 상관없이 주로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 놀이를 하며 놀았다. 끝이 휜 나무막대를 만들어서 공을 치면서 논다. 공은 소나무를 깎아서 주먹 2개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김평길)

(파) 정산면 송학리의 공치기

정월이나 해가 긴 늦은 봄 때 많이 놀았던 놀이이다. '하송'이라고 하는 윗솔티 마을에 '공바탕'이라고 공치기를 하는 장소가

있었다. 솔나무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공을 만들고 지게막대를 가지고 공을 치며 놀았다. 인원은 대중이 없었지만 대게 4~5명씩 편을 나누어 놀았고 연령대는 소년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하였다.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면 이겼다. 상대편은 공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작대기로 막는다. 이 놀이는 50여 년 전까지 하던 놀이로 6·25 후에는 없어졌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하) 기타지역의 공치기

• 화성면 용당리의 공놀이

날이 좋은 봄에 주로 많이 하였다. 산으로 나무하러 간 소년들이 주로 하는 놀이이다. 편평한 산등성이 공간에서 놀았다. 인원은 대중이 없고 모인 사람끼리 편을 짜게 된다. 짚으로 만든 새끼를 꽁꽁 말아서 주먹만 한 크기로 공을 만든다.

공은 지게 작대기로 치고 놀았는데 한발이 더되는 길이에 끝이 휘어져 있으면 공을 치기 좋다고 하며 공치기 할 때의 이 작대기는 '공채'라고 하였다. 공채로 공을 일정한 선 이상 넘기면 이기는 놀이이다. 6·25 전까지 많이 놀았다.(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 정산면 덕성리의 공치기

놀이 용구로는 소나무 옹이로 만든 주먹만 한 장치기 공, 끝이 골프채와 같이 구부러진 장치기대 아니면 작대기를 사용한다.

놀이의 방법은, 멀리 쳐내는 형태로 힘겨루기의 놀이이다. 소나무를 뽑아서 하키 스틱과 같이 만들어 3자 정도의 크기로 장치기대를 가지고, 깨지지 않는 나무옹이로 만든 장치기공을 쳐

서 누가 멀리 나가게 하는가에 따라 승부를 겨룬다.(정산면 덕성리, 장광형)

• 장평면 낙지리의 공놀이

막대기나 주먹으로 조그만 공을 치며 노는 놀이이다. 3군데에 돌을 가져다 놓고 공을 던지고 돌려 치면서 달린다. 4명이 하기도 하고, 5명이 하기도 한다.

공강아지라고 하여 공을 던지는 심부름꾼을 정한다. 곧 잘 치지도 못하거나 작은 사람을 시킨다. 예전에 15~16세까지 논 기억이 있다.(장평면 낙지리, 윤갑중·심윤섭)

(2) 공차기

(가) 장평면 미당리의 공차기

문방구에서 태극기 모양이 그려진 공을 팔았다. 제보자는 그 공을 가지고 놀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이 그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봤다. 그 당시에 공이 비쌌다.

한편 돼지오줌보에 바람을 넣어서 공으로 사용했다. 손으로 던지거나, 발로 차서 멀리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겨루었다.

골문을 땅바닥에 그려놓고 금에 걸리거나 벗어나지 않고, 골문에 공을 차서 넣는 놀이를 했다. 거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먼데, 10살 넘는 아이들은 2미터 정도였다. 골문은 거리가 가까우면 크게 그리고, 거리가 멀면 작게 그렸다. 작은 경우, 원 지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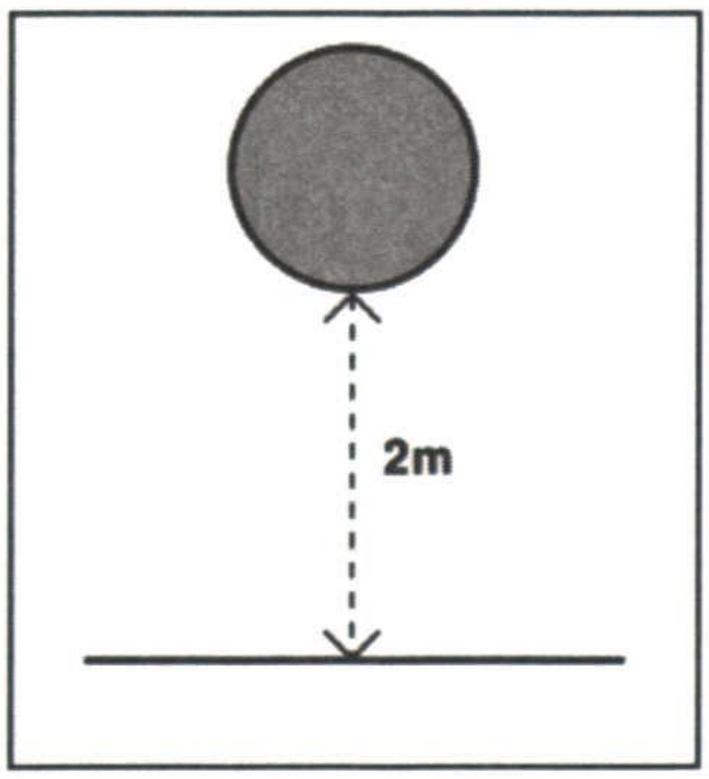
30~40cm 정도였다. 공은 지름이 20cm 정도였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나) 정산면 천장리의 공차기

오늘날의 축구와 유사하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으면 10대의 남자아이들은 돼지 밥통(위)을 주워 다가 그것으로 공을 차고 놀았다. 돼지 오줌보보다는 돼지 밥통이 더 크고 좋아서 주로 이것을 사용하였다. 돼지 밥통에 바람을 넣으면 부풀어 올라 공처럼 변하는데, 바람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묶은 후 발로 차면서 놀았다. 두 편으로 나눠서 상대방 골문에 공을 차 넣어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이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다) 청남면 동강리의 축구놀이

10대 초반의 남자 아이들이 겨울철에 밭에서 돼지오줌보를 발로 차며 축구를 했다. 이 놀이는 가위바위보로 편을 나누고, 한 편에 3~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한다. 골대를 정해서 상대방 골대에 돼지오줌보 공을 발로 차서 많이 넣는 편이 이기는 놀이로, 오늘날의 축구와 비슷하다. 돼지오줌보는 빈속을 짚으로 채워서 사용했으며, 꿀밤 때리기와 같은 내기를 걸기도 했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홍)



〈그림 30〉 공차기

(라) 대치면 장곡리의 공차기

남자아이들만 공차기를 했다. 돼지오줌보나 새끼줄을 꽈서 공으로 만들어서 찼다. 혹은 소 입을 가리는 망을 둥글게 이어서 공으로 만들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마) 비봉면 갈마동의 배구차기(공차기)

발로 공을 차는 것을 배구차기라고 한다. 편을 갈라서 손으로 던져 사람을 맞추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배구라고 했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바) 온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공차기

따뜻한 2~3월 중에 하는 봄놀이이다. 소나무로 만든 공을 가지고 지게 작대기로 그 공을 쳐서 하는 놀이이다. 나무하러 산에 다니는 15~20세 소년들이 주로 하는 놀이였는데 머슴들이 많이 했다.

일정한 선을 긋고 편을 짜서 공을 그 선 밖으로 차는 쪽이 이기는 내기 놀이였다.(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명효식·명제빈)

(3) 목자치기

목자라는 작고 납작한 돌을 땅 바닥에 놓고 깨금발로 쳐가며 땅 위의 그림에서 이동시키는 놀이 형태이다. 이것을 목자치기, 사방치기, 목자놀이, 발치기라고 한다. 주로 마당이나 공터에서

여성들이 편을 나누어 노는 놀이이다. 지역에 따라 목자치기 그림이 다르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정산면 마치리의 목자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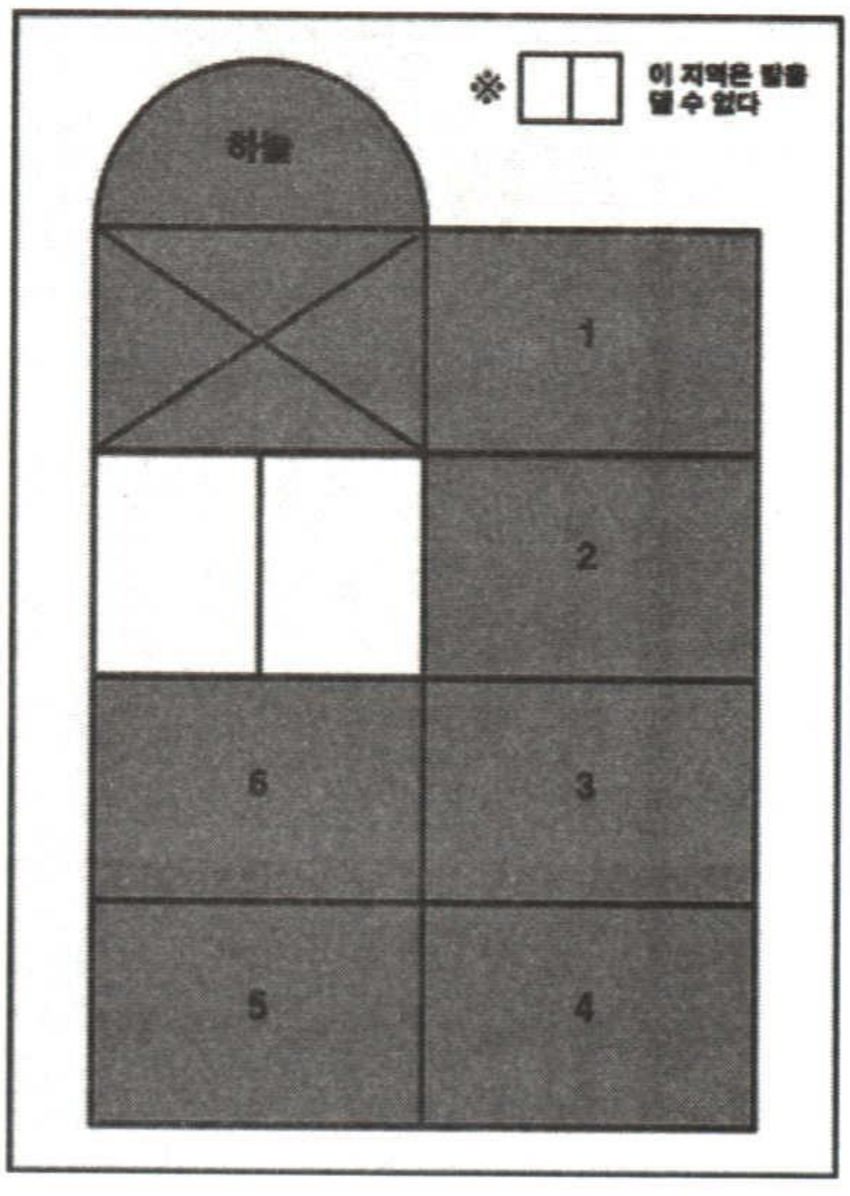
목자치기는 마당에서 하던 놀이다. 방법은 작은 돌을 1번부터 8번까지 차례로 돌을 던져 놓고 깨금발로 돌을 이동시켜 한 바퀴를 돌아 돌을 다시 1번으로 먼저 이동시킨 사람이 이긴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 김제삼, 이옥지, 최복순)

5	← 4
↓6	↑3
↓7	↑2
8 →	1

(나) 정산면 송학리의 목자치기

목자치기는 남자는 하지 않고 여자만 했다. 목자치기에 사용한 돌의 크기는 가로 약 8cm, 세로 약 5cm 정도이다. 공같이 둥근 것은 사용할 수 없고 납작한 돌을 사용한다. 각 칸으로 돌을 이동시킬 때는 돌이 금에 닿지 않아야 한다. 1, 2, 3, 4, 5, 6, 7, 하늘 순으로 이동할 때는 한 발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에서 쉼은 두 발로 디딜 수 있는 곳이다.

편은 주로 2대 2나 3대 3으로 나눠서 했다. 하지만 3대 3으로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2대 2로 편



〈그림 31〉 송학리의 목자치기

을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딸이 27살인데 어릴 적에 외사촌 누나와 함께 목자치기를 하며 놀았으며, 이후에는 목자치기 하는 것을 동네에서 보지 못했다.(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다) 청양읍 군량리의 목자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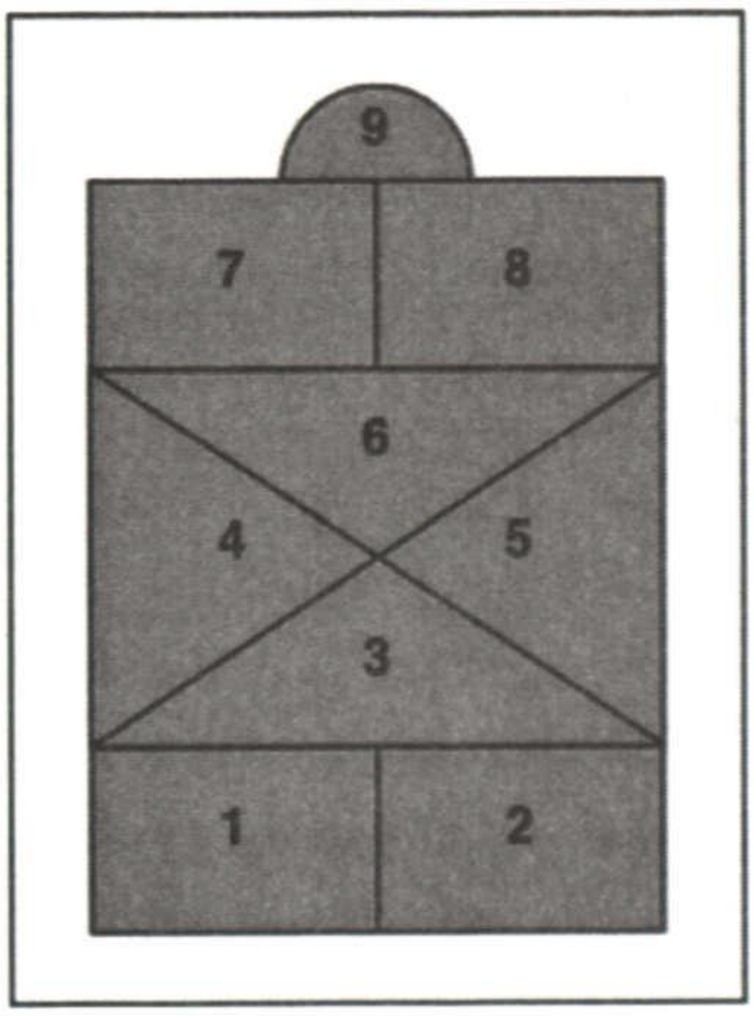
청양읍 군량리의 목자치기는 여자 아이들이 마당에 모여 하였다. 놀이는 여러 명이서 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했다. 방법은 1번부터 차례대로 돌을 이동시킨다. 한 바퀴를 돌아 돌을 다시 1번으로 먼저 이동시킨 사람이 이긴다.(청양읍 군량리, 복임순)

↓3	← 2
4 →	↑1

(라) 대치면 장곡리의 사방치기

대치면 장곡리의 사방치기는 1부터 순서대로 가는데 9까지 한 바퀴를 먼저 도는 사람이 이긴다. 제일 먼저 1 부분에 목자를 손으로 던져 놓는다. 그럼 2를 한쪽발로, 그 다음에 3을 한쪽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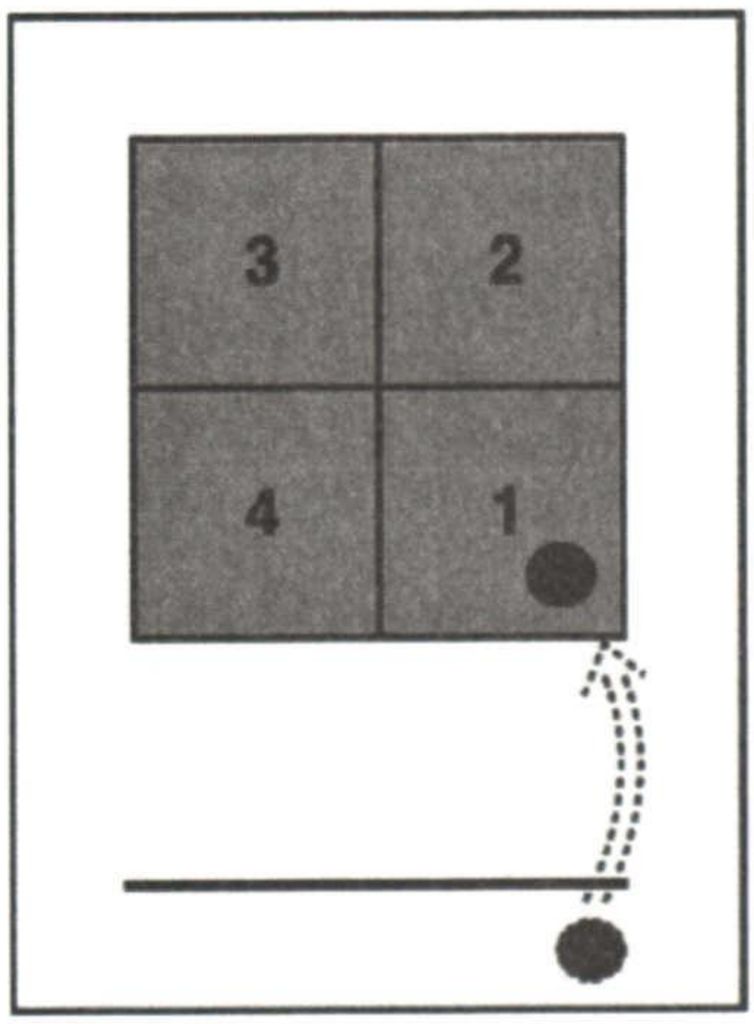
로, 4와 5를 양쪽발로 동시에 딛고, 6을 한쪽발로, 7과 8을 양쪽발로 동시에 딛고, 9를 한쪽발로 딛고 내려온다. 9의 칸이 좁아서 양쪽발이 아닌 한쪽발로 해도 되며, 여기서 금을 많이 밟아지는 경우가 많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그림 32〉 장곡리의 사방치기

(마) 정산면 학암리의 목자치기

정산면 학암리의 목자치기는 손바닥만한 목자를 사용하였다. 한쪽 발을 들고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돌아온다. 놀이 하는 사람이 목자를 제 칸에 옮겨놓지 못하거나, 정해진 칸을 넘거나, 금에 걸리면 상대편으로 기회가 넘어간다. 먼저 10번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한 번 이기게 되며, 몇 번을 이겨야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인지는 미리 정한다.



〈그림 33〉 학암리의 목자치기

보통 2명씩 편을 짜서 하였으며, 우선 같은 편의 2명이 이어서 한 다음에, 상대편으로 순서가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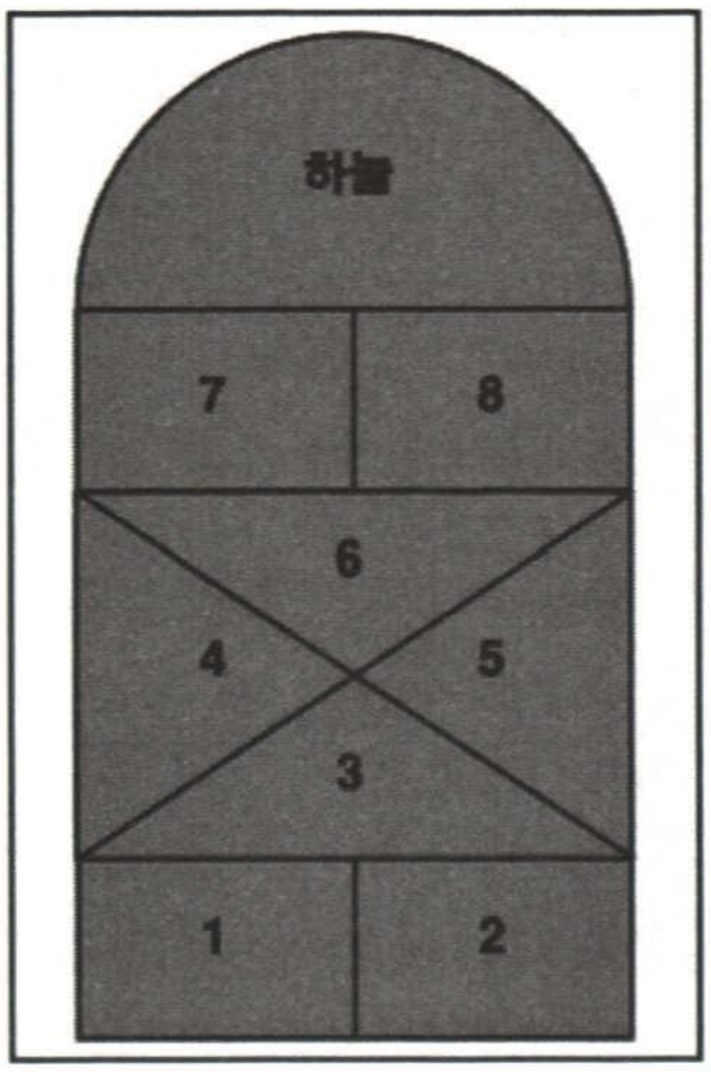
약 55년 전에 정산면 학암리에서 했던 사방치기를 발치기라고 불렀다. 이때의 방식은 1,2,3,4를 한쪽 발로만 움직이며 순서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처음에는 손으로 목자를 1에 던진다. 그 다음에는 발로 목자를 차서 2,3,4를 돌아온다. 발치기는 2명씩 편을 짜서 했다. 우선 같은 편의 2명이 이어서 한 다음에, 상대편으로 순서가 넘어왔다. 놀이 하는 사람이 목자를 제 칸에 놓지 못하거나, 정해진 칸을 넘거나, 금에 걸리면 상대편으로 기회가 넘어간다.(정산면 내직2리, 김만배, 김만배씨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

(바) 청남면 내직 2리의 발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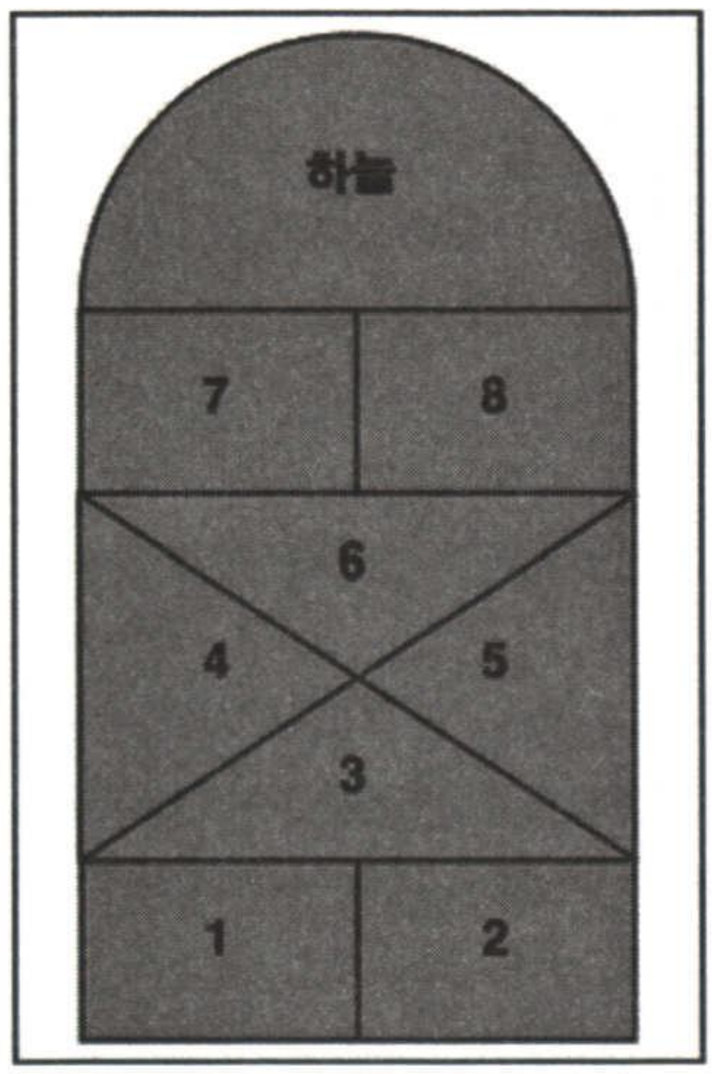
약 20년 전에 내직2리에서 행해졌던 사방치기를 발치기라고 불렀다. 발치기는 한쪽 발로만 땅을 도는 것이 아니라, 1, 2가 쓰인 땅을 왼발과 오른발을 동시에 딛게 하고, 그 다음에 3을 한쪽 발로, 4, 5가 쓰인 땅을 왼발과 오른발로, 6은 한쪽 발로, 7, 8은 왼발과 오른발에 닿게 한 후, 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8까지 다 돈후, 마지막은 뒤 돈 상태에서 하늘에 돌을 던지고, 금을 벗어나지 않고 하늘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면 이기게 된다. 목자를 집을 때는 땅을 짚지 않고, 오로지 한 손으로만 집어야 했다. 땅을 짚으면 지는 것이었다.(청남면 내직 2리, 송연자씨의 딸이 어렸을 때 하던 놀이)

(사) 정산면 서정리의 사방치기(땅따먹기)

오늘날 하는 사방치기와 판이 똑같다. 그러나 규칙에 있어서



〈그림 34〉 서정리의
사방치기(땅따먹기)



〈그림 35〉 내직2리의
사방치기

차이가 있다. 오늘날 땅 따먹기는 자신의 땅을 표시해서 상대방이 그곳에 지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비해, 이옥순씨가 할 당시에는 그런 규칙이 없었다. 한쪽 발로만 땅을 도는 것이 아니라, 1, 2가 쓰인 땅을 왼발과 오른발을 동시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 3을 한쪽 발로, 4, 5가 쓰인 땅을 왼발과 오른발로, 6은 한쪽 발로, 7, 8은 왼발과 오른발에 닿게 한 후, 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8까지 다 돈 후, 마지막은 하늘에 돌을 던지고, 금을 벗어나지 않고 하늘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면 이기게 된다. 목자를 집을 때는 땅을 짚지 않고, 오로지 한 손으로만 집어야 한다. 땅을 짚으면 지는 것이다.(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 노원자)

(아) 아가사방

이 마을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사방치기 판을 마을회관 앞에 그려놓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사방치기를 한다. 그런데 사방치기 판이 아이들이 놀기에는 너무 커서 조금 힘들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그림 36〉 아가사방

(자) 송산면 송학리의 목자치기

납작한 돌이나 사기그릇 깨진 것 따위를 '목자'라고 하였다. 곱돌을 주워서, 마당에 가로 2칸, 세로 3칸, 모두 네모 6칸을 그린다.

놀이는 편을 나눠서도 하기도 하고, 일대일로 놀기도 한다. 첫 칸에서 시작하여 목자를 발로 차서 한 칸씩 옮기면서 진행한다. 목자를 찬 다음 사람이 움직일 때는 깽깽이 발로 이동한다. 목자를 칠 때 그려진 칸 밖으로 목자가 나가거나 선에 닿으면 상대편으로 순서가 바뀐다. 남녀 모두가 함께 즐기는 놀이이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차) 남양면 온암리의 목자차기

땅에 선을 그어 판을 만든 후, 시작하는 곳에서 목자(말)를 친다. 목자를 칠 때 그려놓은 선에 닿으면 지거나, 순서가 상대편으로 넘어간다. 목자를 친 다음 이동할 때는 깨금 쳐서(깽깽이) 간다.

하얀 돌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는 놀이가 또 있는데, 이를

"고똑치기"라고 하였다.(남양면 온암리, 정일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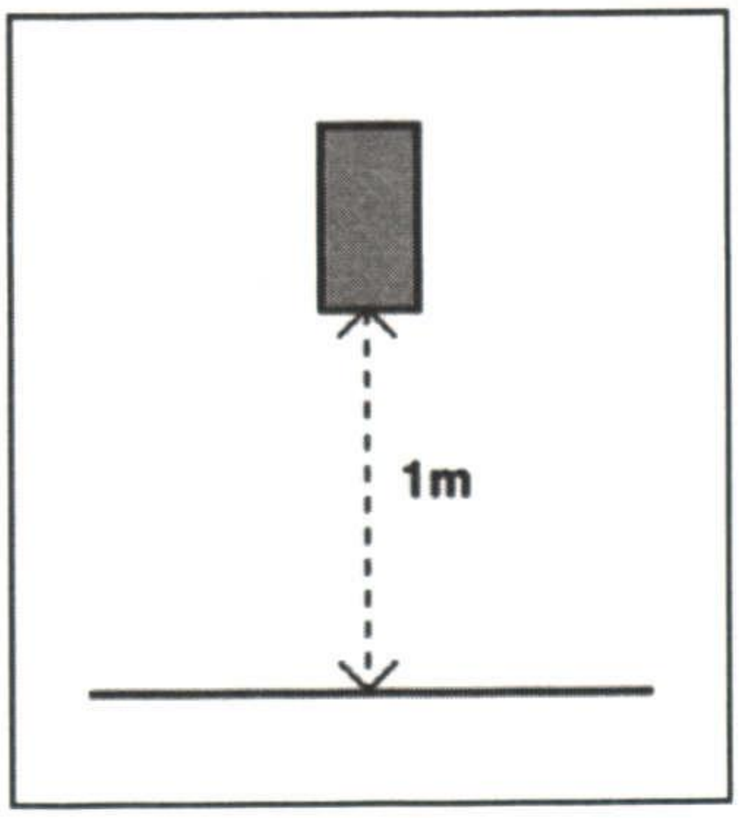
(4) 비석치기

(가) 청양읍 군량리의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놀이 하는 진영이 있으며, 각 진영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다. 첫 단계는 납작한 돌을 이마 위에 놓고 진영을 깨금발로 넘어가서 이마에 있는 돌을 원 안에 넣는 단계이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마에 얹힌 돌을 내려서 발로 쳐 내기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제보자가 자세하게 비석치기 판을 그리지는 못했다.(청양읍 군량리, 이계복, 김동구)

(나) 대치면 장곡리의 비석치기

비석치기를 할 때는 큰 돌을 이마 위에 올려놓는다. 정해진 선에서 출발하여 이마의 돌을 떨어뜨려서 땅바닥에 세운 돌을 맞추어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남자, 여자아이들이 섞어서 같이 했다. 선에서 돌까지의 거리가 1미터 정도가 된다. 목자차기는 별 다른 내기가 없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이는 대로 학교 운동장이나 마당에서 하였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그림 37〉 장곡리의 비석치기

(다) 정산면 마치리의 말맞추기

말맞추기는 납작한 돌을 발이나 무릎 사이에 끼고 가서 상대편의 말을 맞추는 놀이이다. 비석치기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이다. 이것은 여자들이 많이 놀았다. 이 놀이는 다른 지역의 비석치기와 같다.(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 김제삼, 이옥지, 최복순)

(다) 장평면 낙지리의 비석치기

일정한 간격으로 돌을 세워놓고,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로, 눈에 돌을 지고 가서 넘어뜨리는 방식이다.

이 놀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1번은 그냥 던지기, 2번째는 1회 던져서 다시 주워 뒤로 던지기, 3번째는 세워서 던지기, 4번째는 깨금 지고 가서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 5번째는 등에 지고 가서 던져서 넘어뜨리기, 6번째는 눈에 올려서 가서 떨어뜨려서 넘어뜨리는 방식 등이 있다.(장평면 낙지리, 윤갑중·심윤섭)

(라) 장평면 분향 1리의 비석치기

인원을 두 팀으로 나눈다. 각자 납작한 돌 모양으로 자신의 돌을 정한다. 출발선을 정해놓고, 그 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하나의 선을 그어놓는다. 그 선에 상대편의 돌들을 세워놓는다. 그러면 다른 편에서 자신의 돌을 들고 가서 상대편의 돌을 맞추면 된다.

돌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죽게 되는데, 같은 편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몫까지 해주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를 순서대로 수행을 하며, 먼저 끝낸 편이 이긴다.

이 규칙은 10여 가지가 넘는데, 돌을 직접 던지는 방법, 돌을 배나 어깨, 눈 등에 올려놓고 가서 떨어뜨리는 방법 등 다양하다.(장평면 분향1리, 김완수)

(마) 대치면 대치리의 밑변치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돌멩이를 하나 세워 놓고 내 돌로 던져서 넘어지면 이기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2인이 한다.(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5) 진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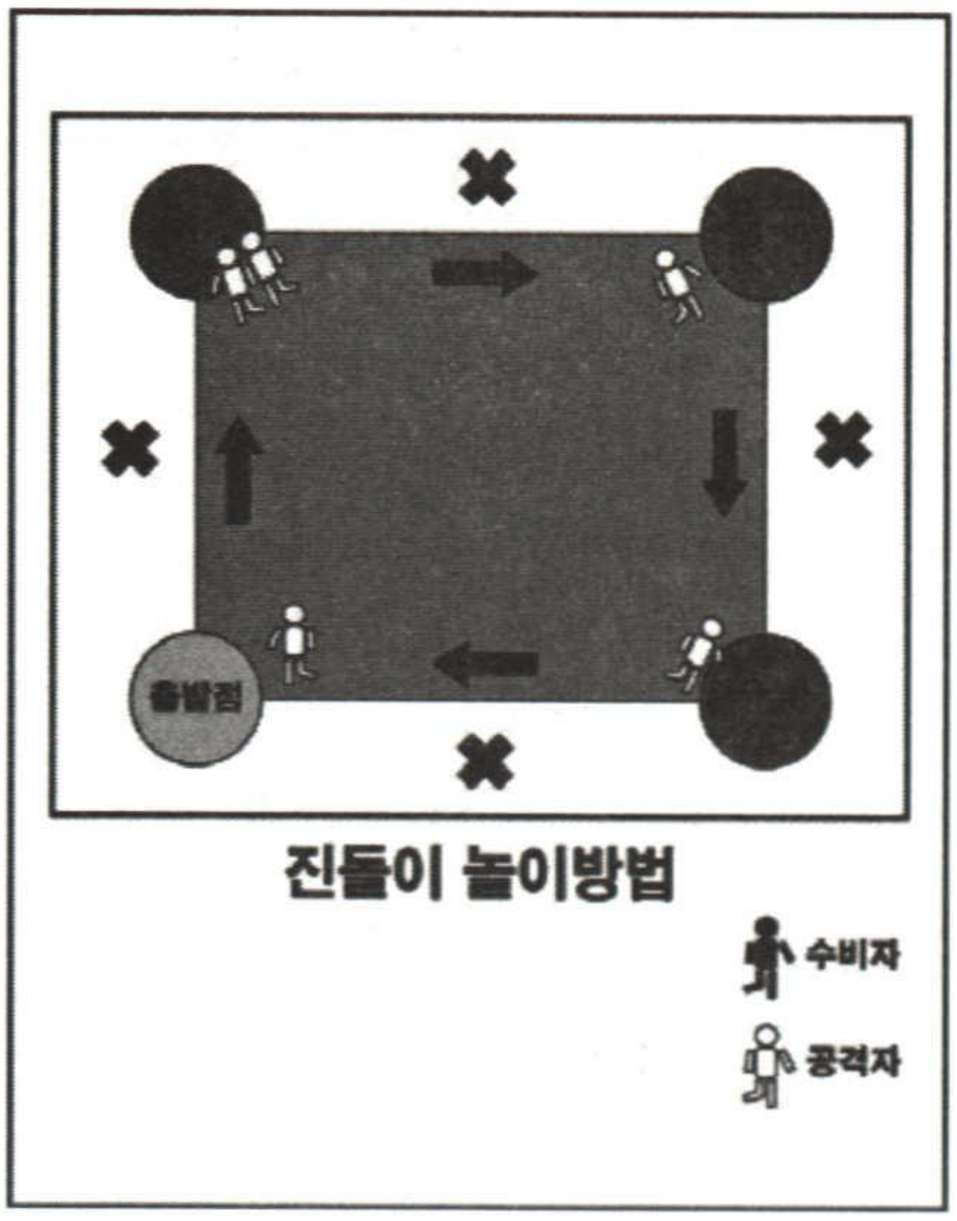
(가) 청양읍 군량리의 진도리(진뺏기)

진도리는 남녀를 두 패로 잘 섞어서 나누어, 상대편의 진을 뺏는 놀이이다. 수비와 공격이 있으며, 공격하는 자는 상대방의 진을 빼앗으려고 공격하며, 상대방 수비에 잡히면 죽게 된다.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놀이를 계속하다가, 다 죽게 되면 진을 빼앗기게 되고, 놀이에서 지게 된다.(청양읍 군량리, 이계복, 김동구)

(나) 청남면 동강리의 진돌이

진돌이는 청남국민학교(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방과 후

운동장에서 했던 편 대항 놀이이다.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인기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 진돌이를 하는 자리를 맡기 위해 아침 일찍 학교에 오기도 하였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선후배의 관계가 엄격하지 않았고, 늦은 나이에 학교 들어오는 이도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찍 와서 자리를 맡는 사람이 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진돌이는 연필이나 토막 낸 지우개 등을 내기로 걸고 놀았기 때문에 격렬했다.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놀이를 하지 못하게 말리기도 했다.



〈그림 38〉 진돌이 놀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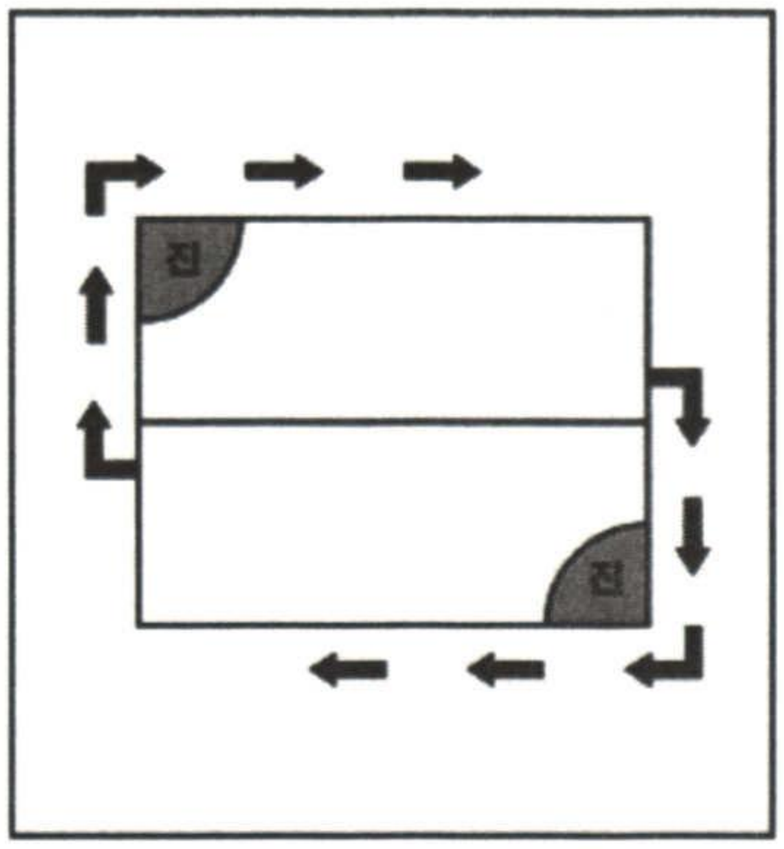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큰 사각형 모서리에 작은 원이 그려진 진영에서 놀이가 이루어지는데, 양 편은 공격하는 쪽과 수비하는 쪽으로 나뉜다. 공격은 사각형의 한 모서리에서 출발하여 사각형을 따라 한 바퀴를 돌아야 이기는데, 단 사각형 안으로만 다닐 수 있다. 출발점을 제외한 다른 모서리에 있는 원을 반드시 밟고 돌아야한다. 때문에 수비하는 편은 원 안에서 공격 쪽이 원을 밟지 못하게 막게 되고, 이곳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공격 쪽은 사각형 밖으로 나가게 되면 탈락하게 되고 수

비 쪽도 원 밖으로 나가면 탈락한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난다. 하지만 무조건 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머리도 잘 써야 놀이에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공격 편에서 한 명만 돌아와도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작전을 잘 써야 하기 때문이다. 수비 쪽과 공격 쪽의 인원은 동일하고, 수비 쪽은 지켜야 할 구역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자기편의 힘과 숫자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공격 쪽은 그에 따라 적절하게 공격에 나서야한다.

대개 학교 친구들끼리 놀았으며, 편을 가르기 위해서 비슷한 덩치끼리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래서 서로 실력이 비슷하게 놀이를 했지만, 동네 대항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실력의 차이가 있어서 잘하는 동네가 따로 있었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흥)

(다) 청남면 인양리의 다까라

다까라는 주로 해방 전에 했던 놀이로, '진뺏기놀이', '진돌이놀이'라고도 불렀다. 10명의 아이들이 모여 가위 바위 보를 해서 5대 5로 편을 나눴다.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몇몇 아이들이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 상대편의 진을 빼앗기 위해 두 발로 이동을 한



〈그림 39〉 다까라

다. 이 때 자기편의 진을 지키기 위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역 바깥의 상대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민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되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 상대에 의해 진영을 이탈하게 되면 죽고, 밖에 있던 사람이 상대의 영역으로 들어와도 죽는다. 어느 한 편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면 놀이는 끝이 난다. 다 죽지 않으면 먼저 상대의 진을 빼앗는 편이 이기게 된다.(청남면 인양리, 한익희)

(라)운곡면 신대리의 진뺏기

먼저 인원수에 맞추어 편을 가르고,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진(陣)에 손을 대고 서 있는다. 그리고 시작과 함께 자기 진을 떠나 상대편 진영에 가서, 손을 대고 만세를 부르면 이기게 된다.

진에서 늦게 나온 사람이 일찍 나온 사람을 치면 죽게 되며, 다만 일찍 나온 사람은 늦게 나온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즉 진에서 먼저 떠난 사람이 쫓기게 되며, 자기보다 진을 먼저 떠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쫓아야 한다. 또는 나보다 늦게 떠난 상대편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두 진에는 진을 지키는 아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상대편을 잡기 위해 떠나게 된다.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유리하나, 작전을 세워서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의 편놀이에서 꾀가 많은 여자아이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죽은 사람은 상대편의 진영에 가서 서

있어야 하고, 서 있을 때 되도록 손을 벌리고 길게 서서 구원을 요청한다. 이때 같은 편 사람이 죽은 한 아이의 몸에 손을 땋기만 해도 모두 풀려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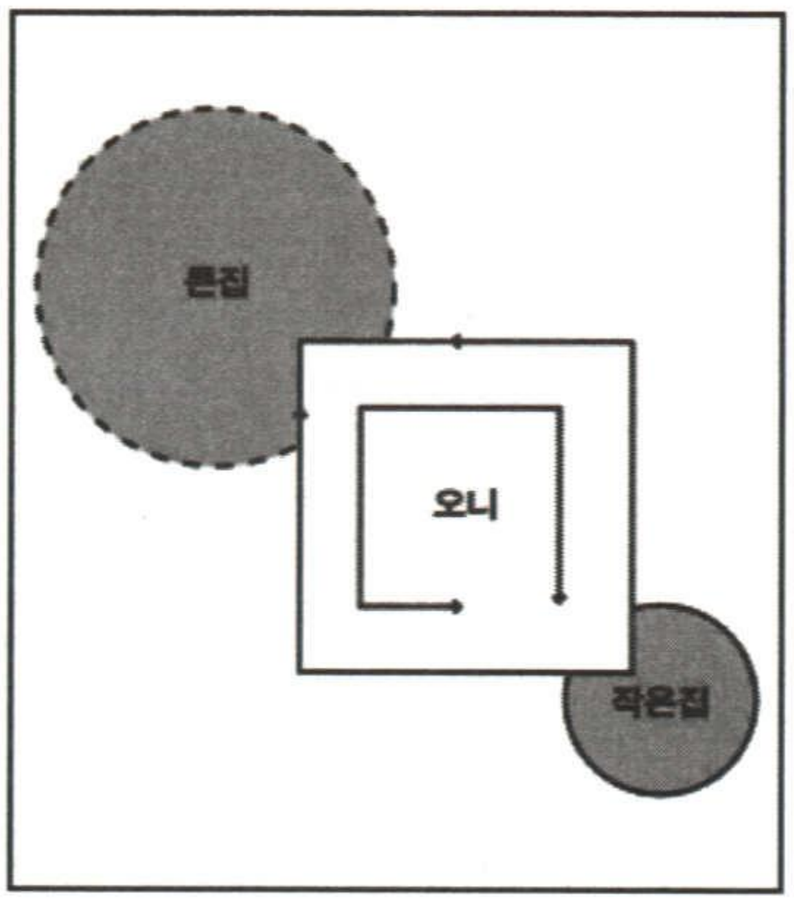
상대편이 많이 죽으면 진을 점령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가 적은 편은 진을 떠나지 않고 적을 방어만 한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지 적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적에게 치이지 않도록 진을 찍어야 이길 수 있다. 오랫동안 진을 빼앗지 못할 때에는 죽은 사람의 수를 따져서 승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추석 명절에 주로 성행하여 남녀 어린이가 함께 놀았다. 간혹 남녀로 편을 나누어 놀면, 힘으로만 노는 남자아이들보다 바람잡이를 잘 이용하여 잔꾀를 쓰는 여자들이 곧잘 이기게 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마) 정산면 송학리의 가이생

가이생은 여자끼리 10명 정도가 두 편으로 나뉘어 학교(정산국민학교)나 동네에서 많이 했던 놀이이다. 경우에 따라서 남녀가 섞여서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5대 5로 편을 나눈다. 그러면 진사람 5명이 오니(술래)가 되어 가운데에 들어가고, 이긴 사람 5명은 작은 집에 들어간다. 이긴 사람의 경우, 처음 시작은 작은 집에서 하지만 놀이가 시작되면 작은 집과 큰 집을 번갈아 이동할 수 있다.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상대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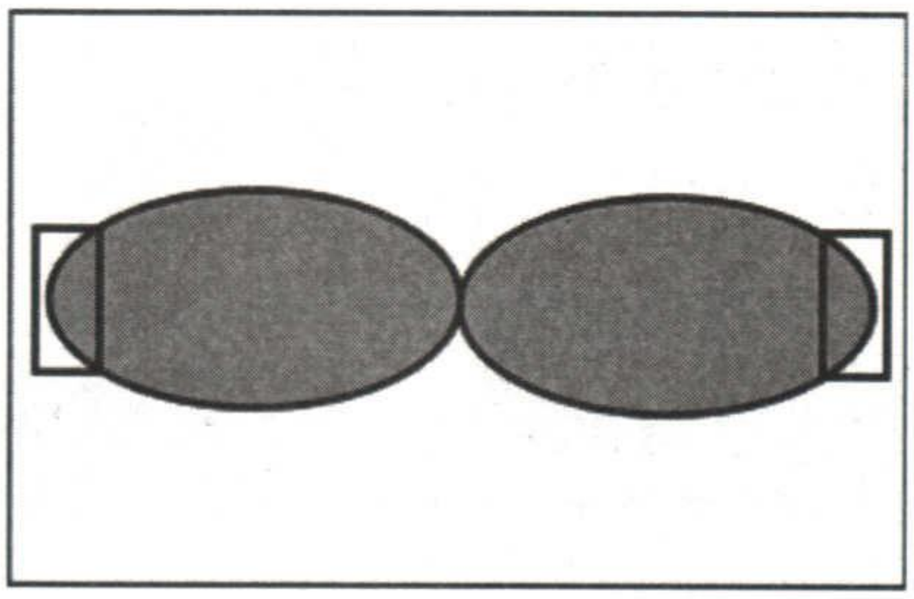


〈그림 40〉 송학리의 가이생

놀이 영역 밖으로 내보낸다. 죽게 되면 자동으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살아남은 편이 이기게 된다.

8자 가이생도 있는데, 이것은 땅바닥에 8자로 그림을 그려서 위의 방식도 비슷하게 진행한다. (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바) 운곡면 위라리의 하찌 가이셍



〈그림 41〉 위라리의 하찌 가이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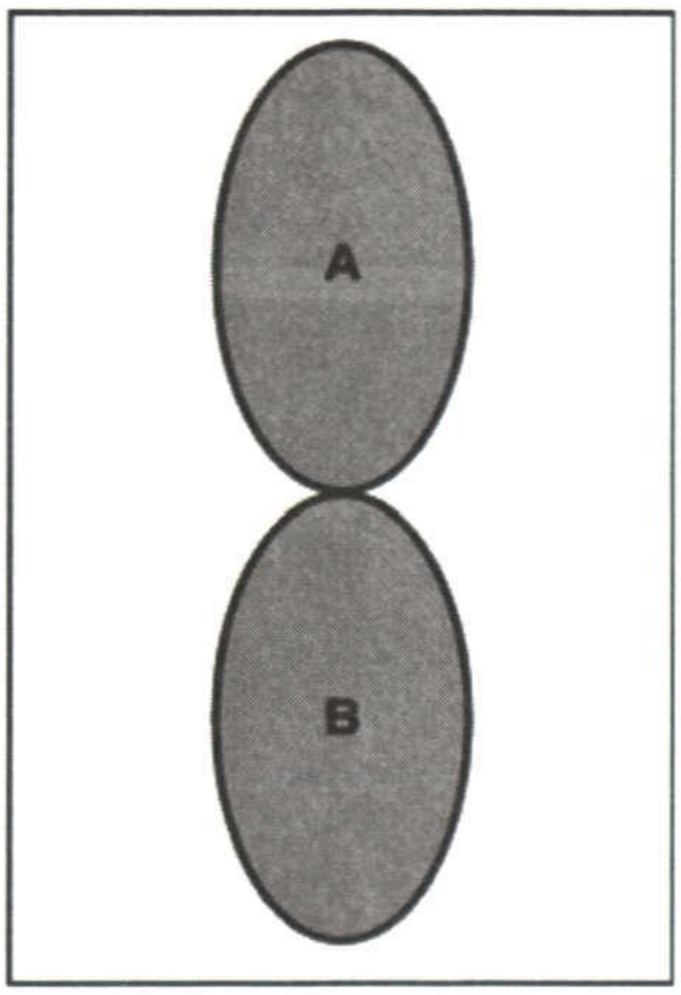
8을 일본어로 하찌라 해서 '하찌 가이셍'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주로 남자아이들이 하는 편싸움 놀이이다.

네모는 양 편의 문인데, 공격자들은 서로 상대편의 문으로 들어가야 이긴다. 점선 지역은 깨금발로 뛰면서 다녀야 한다. 덩치 큰 사람이 문지기를 하면서 각자의 문을 수비한다. 공격자가 문에 들어가면 이기게 된다. 공격자는 깨금발이고 문지기는 문을 사수하기 위해서 몸을 밀치기도 하기 때문에, 놀이가 격렬해지기도 한다. 때로는 놀이를 하다가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편 가를 때에는 힘 센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게 비율을 잘 섞어야 한다. 대개 15세까지 이 놀이를 했는데, 6·25 한국전쟁 이전에 많이 행해졌다. 전쟁 이후는 동네에서 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사) 정산면 서정리의 핫찌가이셍

가이셍과 놀이 방법은 유사하나, 놀이판의 모양이 8자 모양으로 다르다. 정산면 서정리에서는 가이셍보다 주로 핫찌가이셍을 많이 했다. 핫찌는 8이라는 뜻이다. 핫찌가이셍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하는 놀이인데, 같은 편 내에 공격수와 수비수를 나눈다. 8자 안에 있는 수비수는 8자 안으로 들어오려는 상대편을 밀어내었다. 8자 밖으로 나간 사람은 한쪽 발로만 서 있어야 했고, 8자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남아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 8자 밖에서 두발이 땅에 닿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 8자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한쪽 발로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닭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밀쳐냈다. 핫찌가이셍은 최종적으로 1명이 남은 팀이 이기는 것이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그림 42〉 서정리의 핫찌 가이셍

(6) 씨름

(가) 정산면 송학리의 씨름

추석 때 웃솔티(상송)와 아랫솔티(하송)가 동네대항 씨름대회를 열었다. 마을의 동구나무가 있는 둥글고 큰 마당에서 씨름판을 벌였다. 샅바는 없고 허리춤을 잡고 한다. 씨름내기를 하여 진 사람이 밀주를 사서 다 같이 마시고 놀았다.

씨름대회의 첫 번째는 '애기씨름'으로 시작한다. 7~8세정도의 아이들의 씨름대회로 시작하여, 나이순으로 올라가 20대 청년들의 '장정씨름'에 이르러 대회는 절정에 다다른다. 3판 2선승제로 한다. 백중 때 정산시장에서 씨름대회를 많이 열었다. 단오 때는 씨름을 하지 않았다. 청년들끼리 붙는 씨름대회를 '총각마구리'라고 하였는데, 이때에는 상품이 많이 걸린다. 각지에서 힘이 세다고 하는 장정들이 한 데에 붙어서 경합을 벌였다. 총각마구리에는 긴 장대에 고무신, 양말, 모자 등의 상품을 죽 걸어놓는다. 또한 근방 지역 총각들만의 대회를 '상땍거리'라고 하였는데 이때에는 상으로 큰 털송아지를 걸어 놓았다. 총각마구리를 하고 나서 상땍거리를 한다. 씨름대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장사가 잘되므로 상품은 정산시장 내에서 돈을 걷어서 마련한다.

씨름용어에 '아내기'는 안으로 고개를 빼고 배를 잡아 당겨서 쓰러뜨리는 기술이고, '반드름'은 손을 순간적으로 잡아채면서 상대를 옆으로 매치는 기술이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나) 정산면 천장리의 씨름

씨름은 봄부터 여름까지 주로 개울가의 모래 위에서 성인 남자들이 많이 즐긴 놀이이다. 마을 사람들끼리 많이 하였고, 타 동네 사람들과 같이 한 적은 없다. 생다리(안다리)걸기, 오금다리걸기, 바깥다리걸기 등의 기술이 있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다) 정산면 송학리의 씨름

씨름은 두 사람이 허리에 맨 샅바나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힘을 겨루는 놀이이다.

씨름은 주로 더운 여름에 한산할 때에 많이 했다. 낮에는 일을 하고 해가 진 이후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 씨름을 하였다. 씨름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참여하였으며, 아이들이 먼저 씨름을 하고 어른들이 나중에 하였다. 예전에는 한 집의 식구가 10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씨름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라) 정산면 서정리의 씨름

씨름은 두 사람이 허리에 맨 샅바나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힘을 겨루는 놀이이다. 씨름은 편을 나눠서 했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마) 청남면 동강리의 씨름

동강리에서는 봄·여름에 또래 성인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모래가 많은 강가 주변에서 씨름을 놀았다. 마을 사람들끼리 주

로 많이 하였으며, 여름에는 거의 매일 즐길 정도로 일상적 놀았던 놀이라 할 수 있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홍)

(바) 화성면 용당리의 씨름

씨름은 8월 보름에 행하여 졌다. 산에 있는 조정승 산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전부터 그곳에서 씨름을 하면 절대 다치지 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놀았으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끝까지 이겨 더 이상 물리칠 사람이 없으면 승리하게 된다.(화성면 용당리, 강연석)

(사) 장평면 미당리의 씨름

씨름은 마을에서 넓은 마당에 자리를 잡고 소를 걸고 대회를 하였다. 이기면 돈을 상품으로 주기도 했다. 소를 놓고 대결을 하는 장정들끼리의 내기 씨름을 '쇠거리'라고 한다. 세 번 이기면 절을 한번 받았다.(장평면 미당리, 서기복·김평길)

(아) 목면 본의 1리 무수동의 씨름

가을에 되면 인근 안심리에 장에서 씨름판이 벌어진다. 이 장은 철마장이고 하는데, 4·9일장이다. 근래에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 장은 없어졌다. 씨름판이 벌어지는 시기는 추수 전이다. 이것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를 걸고 대개 5일 정도 씨름을 했다. 씨름하는 방법은 한사람이 질 때까지 계속해서 상대방과 붙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적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계속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다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우승

한 사람에게 시장 번영회에서 내 놓은 소를 상금으로 준다. 씨름이 없어진 것은 한 40년쯤 되었다. 이때 여러 놀이패도 와서 놀았는데, 남사당패도 있고, 노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7) 말타기

(가) 장평면 구룡리의 말타기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뚝박기'와 같은 방식의 놀이다. 9~1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놀이에 참가했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나) 청남면 인양리의 말타기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뚝박기'와 같은 방식의 놀이이다. 말타기를 했던 시기는 해방 전후이다. 남자아이 4명이 모여 2대 2로 편을 나누어 말타기를 했다.(청남면 인양리, 한익희)

(다) 청남면 상장리의 말타기

한 명은 서고, 또 1인은 뒤에서 팔로 배나 허리를 끼어 감고 90도로 숙인다. 그러면 숙인 사람의 등 위로 상대편 두 사람이 올라탄다. 장난으로 셋이 타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이것을 '말타기 놀이하자'고 했다. 주로 동네나 학교에서 많이 한 놀이이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

순, 이봉수)

(라) 정산면 송학리의 말놀이

말놀이는 주로 형제들끼리 많이 놀았다. 2~3명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편의 한 사람이 엎드리고. 나머지 사람은 그 사람 위에 올라탄다. 3사람까지 올라타기도 한다. 말타기의 방법은 출발지점으로부터 전방 3~4m 떨어진 곳에 선을 그은 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태우고 출발지점에서 그어놓은 선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이다. 큰 아들이 1980년생인데, 이 말놀이는 1980년대까지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마) 운곡면 위라리의 말타기

이곳의 말타기는 일반적인 말타기와는 다르다. 술래는 세 명이서 하는데, 말 한 명과 기둥 두 명이 한다. 기둥은 준술래이며 말이 주술래이다. 이것은 주로 5명 정도가 노는 놀이이다. 놀이 방법은 기둥 두 명이 양쪽에 서 있고, 말 한 명이 기둥을 안고 말처럼 구부린다. 기둥 중 한명의 말은 눈 한쪽을 손으로 가려야 한다. 공격 2명은 기회를 봐서 말의 등에 올라타서 말을 쓰러뜨려야 한다. 말은 나머지 한쪽 눈으로 공격이 자신의 등에 타지 못하게 뒷발로 차야 한다. 그래서 발로 맞추면 술래가 바뀌는 놀이이다. 하지만 쓰러질 경우 다시 말을 해야 한다. 만약에 공격자 한 명이 말의 뒷발에 맞을 경우 그 맞은 사람이 말이

되며, 기존의 말은 왼쪽 기둥이 된다. 그리고 기존의 왼쪽 기둥은 오른쪽 기둥이 되며, 기존의 오른쪽 기둥은 공격이 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준술래가 기둥이며, 주술래가 말이 되는 것이다. (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바) 정산면 서정리의 말타기

말타기는 2명이 엎드리고 1명이 그 위에 올라타는 3명이 1조가 된다. 상대편을 떨어뜨리거나, 상대편의 모자를 뺏는 놀이이다. 말타기는 학교 혹은 공터에서 했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사) 장평면 미당리의 말타기

말타기는 두 편으로 나누어 노는 놀이인데, 두 명이 엎드리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올라타서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상대편과 겨룬다. 이때 상대방의 말을 넘어뜨리거나 위에 올라탄 사람을 넘어뜨리면 이긴다. 경우에 따라선 수건이나 모자를 뺏는 놀이 방식도 있었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아) 장평면 미당리의 말뚝박기

두 편으로 나뉘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팀의 한 명은 벽에 기대어 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엎드린다. 이긴 팀이 차례대로 올라타고, 맨 앞의 탄 사람과 진 팀의 벽에 기댄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팀이 엎드린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자) 정산면 대박리의 말타기

먼저 편을 갈라서 각각 대장을 선정하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편은 대장이 벽이나 나무에 기대어 서면, 한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대장의 허리를 잡은 다음 머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끼워 넣는다. 진편의 나머지 사람들은 앞사람의 사타구니 사이로 머리를 끼우고 다리를 잡으며 길게 말을 만든다. 이긴 편에서는 멀리서부터 가속도를 이용해 달려와 두 손으로 말등을 잡고 세 차례를 굴러서 깊숙이 탄다. 이 때 깊숙하게 타지 않으면 뒷사람이 탈 수 없게 되어 중간에 떨어지거나 발이 땅에 닿아 교대된다. 말이 힘이 없어 무너지면 다시 말을 만들게 하여 올라탄다. 다 탈 때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대장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편은 타게 되고 진편은 다시 말을 만들어 놀이기 계속된다.(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8) 호무랑

(가) 청양읍 군량리의 호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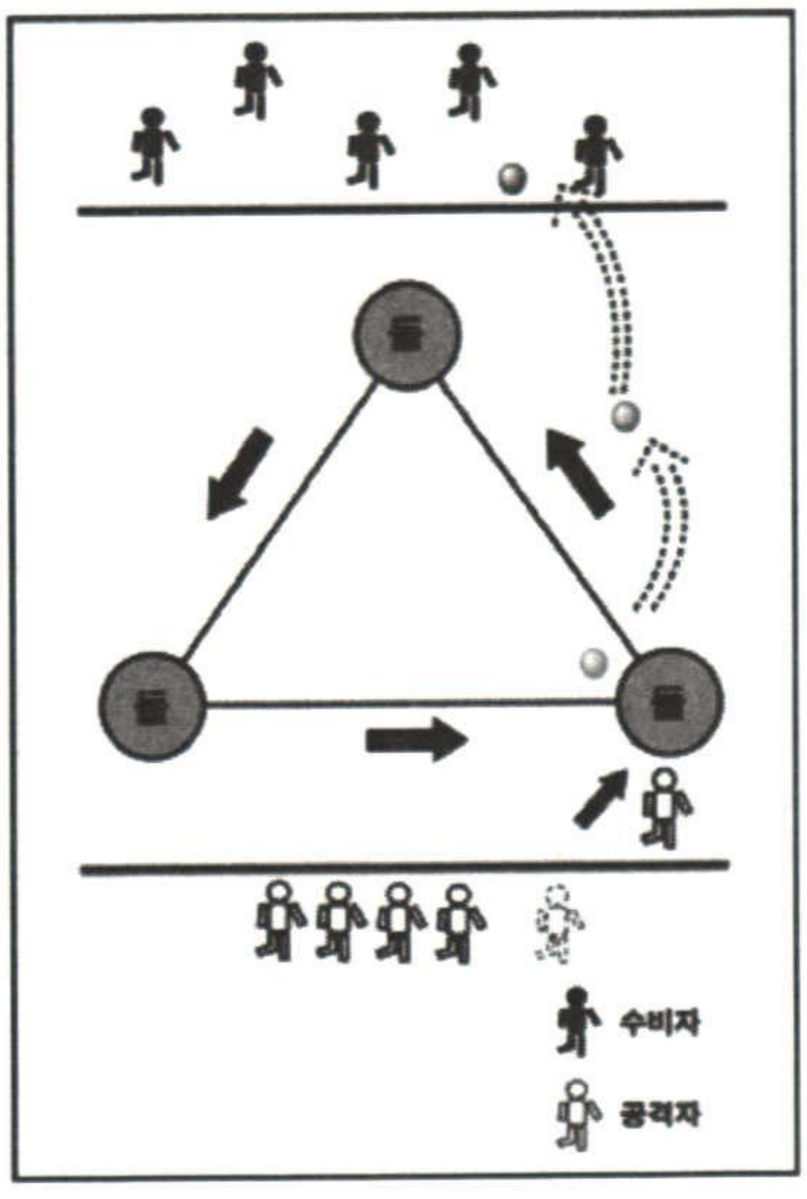
1930년대에 학교에서 하던 놀이인데, 고무공을 사서 주먹야구식의 놀이를 하는 것을 호무랑이라고 했다.(청양읍 군량리, 이계복, 김동구)

(나) 청양읍 읍내리의 호모령

호모령은 봄에 논에서 주로 하는 놀이인데, 현대의 발야구와

비슷하다. 우선 새끼를 감거나 돼지 오줌보를 이용해서 공을 만든다. 그리고 공격과 수비 편을 정해 각자의 진영을 만든다. 공격은 공을 차고, 수비는 공을 잡아서 공격하는 자를 잡는 형식의 놀이이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다) 대치면 광금리의 호물



〈그림 43〉 호물

호물은 현재의 야구와 유사한 놀이였다. 고무공을 가지고 돌이 놓여 있는 3군데를 돌아서 오는 것이었다. 두 팀으로 나눠서 공격과 수비로 나눠서 한다. 공격수 1명이 공을 위로 던진 다음에 주먹 혹은 손바닥으로 정해진 선 밖으로 멀리 친다. 만약 상대편이 그 공을 잡으면 아웃이 된다. 상대편이 공을 놓치면 돌이 있는 3군데를 그 안쪽 선을 밟지 않고 돈다. 처음 출발할 때 정해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수비수는 공격수가 다 돌기 전에 재빨리 돌이 있는 곳에 와서 바닥에 공을 내려놓거나 돌을 밟아야 한다. 대개 각각 3~4명으로 편으로 짜서 했다.(대치면 광금리, 김명환)

(라) 청남면 동강리의 야구(공놀이)

야구('공놀이'라고도 지칭)는 10대 후반부터 20대의 청년들이 겨울철 논밭에서 많이 놀았다. 바람이 찬 고무공을 이용해서 현재의 야구와 유사하게 놀았던 놀이이다. 45년 전 쯤까지 하였으며, 한 편에 4명 이상, 전체 8명 이상이 모여야 놀이를 할 수 있었다.

공격과 수비로 편이 나뉘며, 공격자는 자신이 직접 바람이 차 있는 고무공을 들고 그것을 손으로 쳐서 수비 진영으로 보낸다. 수비자가 공중에서 잡으면 죽게 되며, 죽지 않고 1루, 2루, 3루를 돌아오면 1점을 획득하게 된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편목을 이용해서 탁구채와 유사하게 방망이를 만들어서 놀았다. 방망이를 이용하여 고무공을 치면 더 잘 나갔으며, 나중에는 주먹 대신에 방망이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 방법도 공격하는 편이 직접 던져서 맞추는 방식이다. 만약 헛치는 경우에는 3번까지 기회를 줬으며, 3번에도 치지 못하면 죽게 된다. 3명이 죽으면 공격과 수비가 교대되며, 많은 점수를 획득한 편이 이기는 놀이이다. 교대 횟수는 그 때마다 정하였고, 때론 점수 내기로 놀이를 진행하기도 했다.

놀이방법이 현재의 야구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놀이를 하던 당시에는 현재의 야구를 모른 채 야구라 부르면서 했다. 고무공은 문방구에서 구입해서 사용했지만 공이 귀해서 모두가 갖고 있지는 못했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흥)

(9) 눈(雪)싸움

(가) 대치면 장곡리의 눈싸움

겨울에 아이들끼리 편을 나눠서 눈싸움을 많이 했다. 등 뒤에 눈 덩어리를 감추고 달려가서 던지기도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나) 정산면 송학리의 눈싸움

눈싸움은 겨울철에 아이들이 논밭이나 공터에서 눈을 던지며 했던 놀이이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10) 돌팔매

(가) 정산면 천장리의 돌팔매

돌팔매는 10~17세의 남자 아이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했던 놀이이다. 산에 가서 큰 나무 한 그루를 선택하고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던지기 좋은 돌을 골라 모은다. 그런 후 일정한 지점에서 돌을 던져 나무의 키를 넘기는 것으로 승부를 겨뤘다. 개인전으로도 할 수 있고, 편으로 나눠서도 놀이가 가능했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11) 닭싸움

(가) 비봉면 관산리의 닭싸움

한쪽 다리를 올리고 깨금발 뛰면서 서로 부닥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기는 놀이이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나) 정산면 송학리의 닭싸움

닭싸움은 한쪽 발로 선 상태에서 상대를 밀쳐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닭싸움은 넓은 공터에서 많이 행해지며, 아이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도 하는 놀이이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다) 정산면 서정리의 닭싸움

닭싸움은 아이뿐만 아니라, 청장년층까지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했던 놀이이다. 닭싸움은 한쪽 발로 선 상태에서 나머지 한 다리를 반대쪽 손으로 잡고 상대를 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라) 정산면 송학리의 절뚝발이 싸움

닭싸움과 같은 놀이이다. 발 하나는 올려 손으로 잡고 깽깽이 발로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올렸던 한쪽 발을 내려놓거나 넘어지면 진다.(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12) 기마전

(가) 장평면 구룡리의 기마전

학교 운동회 때 하는 기마전을 동네 아이들이 모여 따라 하곤 했다. 놀이는 4사람이 말을 만들어, 상대편의 모자를 빼앗는 '모자 빼앗기'와 상대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쓰러뜨리기'가 있었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13) 팽이치기

(가) 청남면 상장리의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겨울에만 했던 놀이이다. 팽이는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며 팽이 밑에 조그마한 못을 박아서 팽이가 회전할 수 있도록 했다. 채는 모시 길쌈을 하고 남는 꾸먹 천으로 사용했다. 보통 채는 1가닥으로 했다.

마당이나 얼음판 위에서 팽이를 돌려 누가 더 오래가는지 시합을 했다. 위에는 색연필로 여러 가지 색깔을 넣었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나) 비봉면 관산리의 팽이치기

팽이는 소나무로 만들었고, 채의 줄은 헝겊이나 헌옷으로 만들었다. 주로 한 겨울에 논 위의 얼음판에서 돌렸으며, 오래 돌

리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다) 대치면 장곡리의 팽이치기

팽이는 어른들이 소나무를 깎아 만들어줬다. 어른들이 팽이를 깎아주지 못하는 집은 팽이를 내기에 걸고 따먹어야 했다. 팽이치기는 오랫동안 팽이를 돌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 보통이다. 그리고 팽이를 위로 띄워서 상대방의 팽이를 넘어가 상대 팽이를 따 먹는 방식도 있다. 이것은 최고의 기술이며, 상대방의 팽이 위로 올라타서 두개의 팽이를 동시에 돌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접팽이)도 있었다. 접팽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팽이치기를 정말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이를 할 때 참가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팽이가 없는 아이들은 팽이를 빌려서 내기를 하는데, 이긴 사람이 팽이를 갖게 된다.

당시에 팽이의 종류가 다양했다. 얼음판 위에서 팽이치기를 할 경우, 팽이 끝이 뾰족하면 얼음판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팽이 끝에 초를 발라서 했다. 팽이는 남녀가 같이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라) 정산면 천장리의 팽이치기

썰매타기와 함께 주로 겨울철에 10세 전후의 아이들이 했던 놀이이다. 얼음 위에서 치는 경우도 있지만 땅바닥에서 치기도 하였다. 땅에서 칠 때는 부잣집 바깥마당과 같은 넓은 공터에서 주로 하였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마) 정산면 송학리의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아이들이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는 놀이이다. 팽이치기는 주로 겨울에 많이 했으며, 직접 나무를 깎아서 팽이를 만들었다. 팽이는 어른들이 만들어주거나, 직접 아이들이 깎아서 만들었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바) 정산면 서정리의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아이들이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는 놀이이다. 팽이치기는 주로 겨울에 많이 했으며, 직접 나무를 깎아서 팽이를 만들었다. 팽이는 어른들이 만들어주거나, 직접 아이들이 깎아서 만들었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사) 화성면 농암리의 팽이치기

팽이치기에는 오래 돌리기로 시합을 한다.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팽이채로 힘껏 내리쳐 오래 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과 팽이채로 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돌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있다.

또한 두 사람, 아니면 여러 사람이 편을 짜서 출발선에서 팽이를 치면서 일정한 목표 지점까지 먼저 돌아오는 편이 이기는 방식도 있다.(화성면 농암리, 송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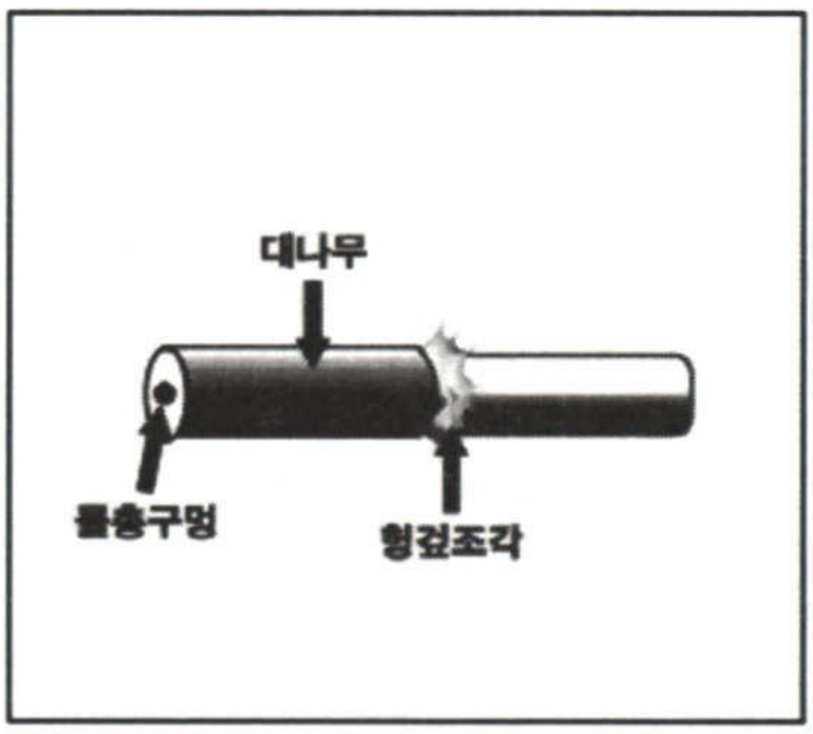
(14) 그림자밟기놀이

(가) 운곡면 위라리의 그림자밟기 놀이

상대방의 그림자를 밟으면 이기는 놀이이다. 서로 밟히지 않으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밟기 위해서 구부리고 엉기기도 한다.
(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15) 물총놀이

(가) 정산면 천장리의 물총놀이



〈그림 44〉 천장리의 물총

물총놀이를 하기 위해선 우선 물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적당한 대나무를 준비하여 한 쪽은 마디 밖으로 자르고, 다른 한 쪽은 막히도록 안쪽을 자른다. 막힌 쪽에 구멍을 뚫고, 반대편 뚫린 곳에 대나무보다 더 긴 나무를 헝겊으로 둘러싸서 딱 맞게 끼운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물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나가게 하기 위해 주사기처럼 물총을 물에 넣어 막대를 잡아 올리면 통 속에 물이 가득 빨려 들어오게 된다. 이것을 다시 밀어 넣으면 압력에 의해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나가게 된

다. 놀이 방법은 편을 나누어서 싸우기도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난삼아 쏘면서 놀기도 하였다.(그림참고)(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나) 정산면 서정리의 물총놀이

먼저 직경이 약 3cm정도에 마디가 있는 긴 대나무를 준비하여, 한 쪽은 마디 밖으로 자르고, 다른 한 쪽은 구멍이 뚫리도록 안쪽을 자른다. 마디가 막힌 부분의 중앙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고, 대나무 길이보다 더 긴 나무 끝에 헝겊으로 대나무 통에 꽉 끼이도록 칭칭 감는다. 이것이 풀어지면 공기가 새어 물이 나가지 않으므로 잘 맞추어야 한다.

통속으로 헝겊을 잡아 맨 부분을 밑에까지 밀어 넣는다. 그리고 물속에 넣어 막대를 잡아 올리면, 통 속에는 물이 가득 빨려 들어온다. 이것을 다시 밀어 넣으면 압력에 의해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힘 있게 나가게 된다.

놀이 방법으로는, 편을 나누어 물총에서 나가는 물로 싸우기도 하고, 누가 물을 멀리 보내는지를 겨루기도 한다. (정산면 서정리, 윤홍수)

(16) 자치기

(가) 장평면 구룡리의 자치기

자치기를 할 때 두 개의 막대기를 사용한다. 짧은 막대기는

'치기'라고 부르며, 긴 막대기는 '잣대'라고 부른다. 치기의 길이는 약 15cm 정도이고, 잣대의 길이는 약 60~70cm 정도이다.

자치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름 1m의 원을 그려 놓고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판다. 처음에 판 구멍 위에 치기를 걸쳐놓은 후 잣대로 치기를 쳐서 띄우는데, 이것을 멧돼지(매뜨기)라고 한다. 이것을 상대방이 직접 받으면 아웃이 된다. 받지 못하고 치기가 떨어진 곳에서 원을 향해 이것을 던진다. 원에 들어가면 서로 바꾸게 된다. 치기의 한쪽 끝이 경사지게 깎은 곳을 잣대로 쳐서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쳐서 멀리 보낸다. 치기가 떨어진 곳에서 번갈아 가며 이렇게 3번을 친다.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진 곳에서 잣대를 이용해 몇 자인가를 잰다. 자 수가 많으면 이기게 된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나) 청남면 상장리의 자치기

자치기는 긴 자 막대기와 짧은 자 막대기를 사용하는 놀이이다. 짧은 자 막대기는 길이가 한 뼘 정도이다. 짧은 자 막대기의 경우, 막대기의 양쪽 끝부분이 바닥에서 뜨도록 하기 위해 끝부분을 대각선 방향으로 2cm 정도 깎는다. 두 막대기의 두께는 손가락 두께 정도이다.

자치기 하는 방법은 처음에 금을 그어 놓고, 긴 자 막대기로 짧은 자 막대기의 양쪽 끝부분 중 한 쪽만을 쳐서 공중으로 띄운 다음 다시 쳐서 멀리 보내는 것이다. 긴 자 막대기로 짧은

자 막대기를 총 3번 칠 수 있다. 승부는 짧은 자 막대기가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간 사람이 이기게 된다. 현재 제보자가 72세인데 1960년대까지 즐겨했으며, 아들 대인 1980년대까지 놀이가 지속되었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다) 정산면 역촌리의 자치기

주로 봄에, 두 명에서 하는 놀이인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구멍을 파서 나뭇가지(메뜨기)를 걸쳐놓으면 경사 진 부분을 자로 떠서 띄운 다음 공중에서 다시 자로 친다. 이때 자로 뜨는 것을 '메뜬다'라고 부른다. 다른 방법은 메뜨기의 양쪽 끝 날을 한쪽은 위에만 대각선으로 자르고, 다른 쪽은 아래쪽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바닥에 놓아도 메뜨기가 떠 있게 되는데 한 쪽을 자로 쳐서 공중에 띄운 다음, 다시 자로 멀리 쳐서 보내는 방법이다. 이를 '두발자치기'라 한다.

놀이의 시작은 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메뜨기를 위의 방법 중, 상의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메뜨기를 친다. 상대방은 원 밖에서 그 메뜨기를 잡는 수비를 한다. 상대방이 메뜨기를 잡고 원 안으로 집어 던져 놓으면 공수가 바뀌게 된다. 때문에 공격하는 편은 메뜨기를 친 다음에 수비가 원 안에 던져 넣을 때 자로 방해를 한다. 다시 쳐 내거나 원 밖에 떨어질 경우 거기서 다시 메뜨기를 자로 친다. 그런 다음에 친 거리까지를 자로 젠다. 제기 전에 미리 몇 자가 나가는지 공격하는 사람이 가늠해서 말하게 되는데, 수비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

으면 그때 자로 젠다. 만약 말한 것보다 적게 나왔으면 취소되고, 많이 나오면 말한 자 수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공수가 빈번히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 일반적으로 100자나 200자 시합을 하게 되는데, 위의 방법으로 자를 제면 거의 하루 종일 놀이를 즐겼다.

또한 '도둑놈 자치기'라는 놀이도 있는데, 메뜨기를 받으면 막 도망가는 놀이이다. 메뜨기를 붙잡으면 죽는 놀이이다. 따라서 잡힐 것 같으면 던져 버리고, 그 던진 거리를 자로 젠다.(정산면 역촌리, 표연목, 이덕봉)

(라) 화성면 매산리의 자치기

메뜨기의 양쪽 끝 날을 잘라서, 땅에 놓인 메뜨기를 자로 쳐서 허공에 띄운 다음, 다시 쳐서 멀리 보내는 방법이다. 두 번 메뜨기 치는 것을 '두발자치기'라고 불렀다. 그리고 땅을 파놓고 메뜨기를 자로 밀어내는 것은 '메뜬다'라고 표현한다.

자치기도 나뭇조각을 갖고 하는 놀이라 잘못하면 크게 다쳐서 이마가 깨지기도 했다고 한다.(화성면 매산리, 윤경희)

(마) 청양읍 군량리의 자치기

자치기는 '메뜨기'와 '자' 두 가지를 갖고 하는 놀이인데, '메뜨기'와 '자' 둘 다 모두 나뭇가지이다. '메뜨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뭇가지로, 주로 날리는 데 사용하였고, '자'는 메뜨기를 치는 도구로 긴 나뭇가지를 말한다.

메뜨기를 자로 쳐서 멀리 날리고, 그 거리를 자로 재면서 몇 자 나왔는지 승부하거나, 혹은 100자, 200자 내기를 해서 놀이를 하면서 나온 그 동안의 자수를 합쳐서 승부를 내기도 한다.

자치기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메뜨기의 양쪽 끝을 반대 방향으로 사선으로 자른다. 예를 들어서 메뜨기의 왼쪽 끝을 아래서부터 위로 자르면, 오른쪽 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른다. 그러면 메뜨기를 바닥에 넣어도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자로 한쪽을 쳐서 허공에 띄운 다음 다시 받아 쳐서 멀리 날려 보낸다. 다른 방법은, 메뜨기를 자를 필요 없이, 땅에 구멍을 파서 메뜨기를 비스듬히 세워 놓는다. 그리고 자로 메뜨기를 퍼내는 식으로 해서 멀리 날려 보낸다. 이 때 퍼내는 것을 '메뜬다'라고 표현한다.(청양읍 군량리, 이계복, 김동구)

(바) 비봉면 갈마동의 자치기

자치기는 아이들이 긴 막대와 짧은 막대를 사용해서 하는 놀이이다. 긴 막대로 짧은 막대를 튕겨서 짧은 막대가 멀리 나간 거리로 승부를 냈다. 자치기는 겨울철에 많이 했으며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모두 같이 했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사) 대치면 장곡리의 자치기

한 뼘 크기의 막대기를 더 큰 막대기로 친다. 한 번 거리, 두 번 거리가 있는데, 한 번 거리는 한 번 쳐서 나간 거리를, 두 번 거리는 두 번 쳐서 나간 거리를 재서 멀리 나간 사람이 이기

는 것이다. 처음 자치기를 하는 아이들은 한 번 거리를 했다. 좀 잘 치는 아이들이 두 번 거리를 했다. 처음 칠 때 제대로 치지 못하면 기회가 날아가며, 지게 된다.

자치기는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마당에서 했다. 예전에는 바깥 마당이라는 동네 마당이 있었다. 지금은 보통 집에 안마당만 있지만, 예전에는 안마당과 바깥 마당이 같이 있는 친구 집이 있었다. 학교 운동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친구네 집 바깥 마당에서 주로 놀았다. 자치기는 남녀가 섞여서 했는데, 여자 아이들 중 잘 치는 사람은 남자 아이를 능가했다. 자치기는 이기는 팀, 지는 팀을 정해서 진 팀이 감자 서리, 고추 서리를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아) 정산면 송학리의 자치기

자치기는 남자아이들이 긴 막대와 짧은 막대를 사용해서 겨울철과 봄에 했던 놀이이다. 자치기에 쓰이는 막대는 밤나무와 같이 주로 단단한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다. 큰 막대는 몇 자를 재는 자막대로 사용하며, 길이는 50cm 정도이다. 작은 막대는 매떼기라고 부르며, 길이는 20cm(한뼘 정도) 정도였다.

놀이를 하하는 사람이 긴 막대로 작은 막대를 튕겨서 치는데, 상대편이 멀리 날아간 막대기를 잡으면 지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멀리 나간 거리를 재서 승부를 겨뤘다. 큰 막대로 멀리 날아간 거리를 1자, 2자 식으로 쟀다.

이 놀이는 어릴 때부터 15세 이전까지 했었으며, 이 마을에서

는 6·25 이후에 놀이를 하지 않았다. 최소 2인 이상이 하며 인원이 많으면 편을 나눠서 했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자) 정산면 서정리의 자치기

자치기는 4~8명이 편을 나누어 순서를 정한 후, 마당 한 쪽에 길이 15cm, 깊이 3cm 내외의 홈을 파고 시작한다. 작은 자를 홈에 걸쳐놓고 자막대로 떠받쳐 힘껏 앞으로 밀어낸다. 자막대의 규격은 없지만, 큰 자의 길이를 한 자로 정하기 때문에 큰 자를 자막대라 한다. 이 때 상대편이 받으면 바로 교대하게 된다. 만약 받지 못하면 작은 자를 홈에 가로 놓여 있는 자막대를 맞추거나 원 안에 들어가게 한다. 이럴 경우도 교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도 맞추지 못하거나, 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막대로 한 번에 3번씩 작은 자를 퉁겨 쳐낸다. 이때 공중에 있는 작은 자를 상대편이 받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

자를 잴 때에는 작은 자가 떨어진 지점에서 원까지를 말하며 그런 후에 몇 자(예를 들어 100자)라고 부르는데, 부른 자가 넘으면(100자 이상) 계속해서 놀이를 하지만, 되지 않을 경우(100자 미만)에 부른 사람은 죽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리 정한 자수에 먼저 이르는 편이 이기게 된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차) 청남면 동강리의 자치기

자치기는 10대 초반의 남자 아이들 2~10명이 모여서 하는 일상적인 놀이이다. 동강리에서는 작은 자를 빗 깎아서 바닥에 두

고, 큰 자로 작은 막대기를 쳐서 띄운 후 그것을 공중에서 다시 한번 쳐서 가장 멀리 보내는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놀았다. 한 명당 하는 횟수를 그 때마다 임의로 정한 후 가장 멀리 나간 것을 자신의 기록으로 결정한다. 주로 꿀밤 때리기나 손바닥 때리기 등의 내기를 걸면서 놀았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흥)

(카) 정산면 천장리의 자치기

자치기는 한 자 길이 정도 되는 큰 자와 작은 자를 이용하여 노는 놀이이다. 대각선으로 자른 작은 자를 땅에 놓고 큰 자로 쳐서 띄운다. 그리고 큰 자로 땅에 놓은 작은 자를 쳐서 올려 공중에 뜬 작은 자를 멀리 쳐낸다. 작은 자가 몇 자나 멀리 갔는지 큰 자로 거리를 재서 가장 멀리 보낸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이런 놀이 방식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다.

자치기는 10~17세 정도의 또래 아이들이 먹을 것이나 연필·장난감과 같은 물건을 걸고 편을 나누어서 시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빈 논이나 밭과 같은 넓은 공터에서 주로 하였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17) 발자치기

(가) 운곡면 위라리의 발자치기

발자치기는 학교에서 하던 놀이 중 가장 재미있었던 놀이이다. 이것은 자치기 놀이를 나무 대신, 발로 차며 노는 놀이이다.

원을 그려서 그 안에서 나뭇조각을 밖으로 차면 수비하는 아이는 그것을 잡고 나서, 다시 원 안으로 집어넣는다. 원 안에 들어오면 공·수가 바뀐다.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은 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던진 것을 다시 발로 걷어차야 한다. 그리고 그 때 걷어차서 날아간 나뭇조각을 원에서부터 자를 잰다. 주로 백자 내기를 많이 했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18) 잠수시합

(가) 대치면 장곡리의 잠수시합

주로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냇가에 물놀이를 가거나 목욕을 가서 물속에 머리를 넣고 잠수를 해 누가 오래 버티는지 시합을 했다. 이 놀이를 잠수시합이라 한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19) 고생박기

(가) 운곡면 위라리의 고생박기

고생박기는 두 명에서 하는 힘 싸움의 놀이이다. 유도랑 비슷하여 땅으로 넘어뜨리면 이기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지치면 고생 받는다'고 하여 고생박기라고 불렀다고 한다. (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나) 비봉면 관산리의 고생박기

고생박기는 유도와 비슷한 힘겨루기 놀이이다. 다치는 것을 대비해서 부드러운 두엄 위나 짚누리 위에서 했다. 특별한 방식은 없고 다만 바닥에 넘어뜨리면 이기는 놀이이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다) 정산면 덕성리의 고생박기

주로 여름철에 잔디밭이나 모래밭에서 실시하며, 남자어린이들이 즐겨한다. 규칙을 정하여 놓고 서로 상대방을 넘기거나 쓰러뜨리는 레슬링과 비슷한 힘겨루기의 놀이 형태이다.

두 명이나 여러 명이 힘자랑으로 편싸움을 하기도 한다. 유도와 레슬링, 그리고 씨름의 혼합형식으로, 서로 겨루어 상대가 "고생"이라고 항복할 때까지 겨룬다. 이때 상대를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면 실격이 된다. 겨루기가 진행되다가 "고생"을 받아낸 사람이 이기게 된다.(정산면 덕성리, 조재순)

(20) 동화놀이

(가) 운곡면 광암리의 동화놀이

집단을 삼삼오오로 나눠서 각각 꼬리를 만든다. 주로 키 큰 사람이 줄의 제일 앞에 서기 마련이다. 각각의 편들은 줄지어 다니면서 "동화야~동화야~" 노래를 부른다. 서로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기는 편으로 꼬리를 내리는 놀

이이다. 어느 편이 꼬리가 제일 긴지 제어 본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나) 정산면 송학리의 동화놀이

송학리는 동화제가 전해 오는 곳이나, 동화놀이는 동화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놀이 방법은 먼저 술래가 자신보다 작은 아이를 등 뒤에 가로로 멘다. 그런 다음, 멘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동화(매달려 있는 작은 아이를 지칭)를 사달라고 한다. 안 산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사달라는 말을 반복한다. 만약 산다고 하면 사는 사람은 "앗 뜨거워!"를 외친다. 이와 동시에 술래는 아이를 내려 놓아야한다. 놀이의 인원은 제한이 없었다. 동네에 아이들이 모이는 대로 놀았다. 약 50년 전에 동화놀이가 없어졌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21) 물치기놀이

(가) 정산면 천장리의 물치기놀이

물치기놀이는 '물수제비 뜨기'라고도 한다. 이것은 납작한 돌멩이를 물 위에 비스듬히 던져서 튕기며 노는 놀이이다. 이 때에 물 위에 가장 많이 튕겨 나가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이것은 봄·여름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보를 막는데, 그곳에서 많이 놀았다.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22) 풀베기놀이

(가) 비봉면 관산리의 풀베기

풀베기 놀이는 주로 야산에서 일정한 시간에 풀을 베는 양을 재서 겨루는 놀이이다. 들 끝에다 줄을 그고, 같은 평수에서 멀리까지 깎는 사람이 이긴다. 양으로 승부를 겨루지만, 고르게 깎아야 했다. 이 놀이는 40년 전까지 했으며, 마을단위로 풀베기 대회까지 연 적이 있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23) 발씨름

이 놀이는 주로 농촌에서 동네의 일꾼들이나 총각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새끼를 꼬거나 짚신을 삼으면서 기나긴 겨울밤을 보내려니 지루하였다. 그런 지루함을 달래려고 아무 준비물이 없이 다리의 힘자랑으로 발씨름을 통해 술내기를 하여 한바탕 웃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가) 정산면 대박리의 발씨름

놀이방법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바지를 무릎까지 올리고 다리를 내밀어 장딴지 옆을 서로 대고 반대방향으로 힘을 주어 항복을 받거나, 다리가 자기 쪽으로 쓰러지게 되면 지게 된다. 옆에서 구경꾼들이 응원이 대단하고 뼈와 뼈가 부딪힐 때의 아픔을 참느라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의 얼굴은 새빨개지고 살이 움푹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놀이를 이기려면 힘도 필요하지

만 아픔을 참는 인내심이 더 요구된다고 한다.(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24) 가마타기

(가) 비봉면 관산리의 가마타기

가마타기는 두 사람이 서로의 어깨를 잡고 가마를 만들어, 그 위에 작은 사람을 태워서 상대방과 다투는 놀이이다. 상대편의 가마와 승부를 겨뤄 상대방의 가마를 쓰러뜨리면 이기게 된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나) 정산면 서정리의 가마싸움

두 사람이 자신의 팔로 ㅁ자 모양을 만든다. 그 ㅁ사이로 한 사람이 다리 하나씩을 넣는다. 밑에 있는 두 사람이 일어서서 가마를 세운다. 상대편도 똑같이 가마를 세우며, 가마에 탄 두 사람이 서로 밀쳐낸다. 가마에 탄 사람이 떨어지는 쪽이 지는 것이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다) 정산면 대박리의 가마놀이

주로 편을 나누어 놀이를 하는데 두 사람이 마주서서 오른손으로 자기편 왼 팔목을, 왼손으로 오른 팔목을 꽉 잡아 정(井)자 모양의 네모진 가마를 만든다. 그 위에 한 사람을 태우고 두 편에서 말을 달려 목표물을 정해 돌아오게 한다. 이 같이 이어 달

리기를 되풀이하여 먼저 끝난 편이 이긴다. 말이 달릴 때 한 편에서는 "장가간다"라고 외치면, 다른 편에서는 "시집간다"라고 답하여 흥을 돋운다.(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6. 버기성 놀이

(1) 돈치기

(가) 청남면 상장리의 돈치기

돈치기는 주로 4~5명이 했다. 원을 그려놓고 정해진 거리만큼 떨어진 다음 원 안에 돈을 던진다. 그리고 상대편의 돈을 맞추는 사람이 돈을 가져간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나) 청양읍 읍내리의 돈치기

돈치기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했다. 놀이판에 끼고 싶은 아이들이 돈을 건다. 청양읍 읍내리의 돈치기는 다른 지역과 놀이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그 방법은 구멍을 파서 그 안에 모은 돈을 놓고 정해진 거리로부터 차례로 돌을 던져서, 구멍 안에 있는 동전을 튕겨 맞추면 따 먹는 것이다. 돈끼리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 먹는 것이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다) 비봉면 관산리의 돈치기

10세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로 하는 내기형의 놀이이다. 방법은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이 돈을 걸고, 구멍에서부터 정해진 거리에서 차례로 던진다. 경기의 승패는 구멍 안에 돈을 넣은 사람이 던진 돈을 따먹는 놀이이다.

돈치기는 따로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배웠다. (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라) 장평면 낙지리의 돈치기

돈치기는 구멍을 파서 동전을 던지는데, 들어가면 먹게 된다. 만약 못 들어가면 돈으로 쳐서 맞히면 갖는 놀이이다.

구멍의 크기는 동전 3~4개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다. 구멍에 던질 때에는 살짝 던져야 잘 들어간다. 거리는 2m 정도이며, 돈이 안 들어갔을 때는 납작한 돌을 들어 동전에 던져서 맞혀야 한다.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심윤섭)

(마) 정산면 송학리의 돈치기

돈치기는 주로 두 명 또는 세 명이 하였다. 출발하는 지점에 선을 긋고 동전을 각자 하나씩 일자로 놓는다. 그곳에서 멀리 있는 또 하나의 동전을 맞추게 되면 그 사람이 맞춘 동전을 갖게 된다.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

(바)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돈치기

돈치기는 땅에서 돈을 던져서 돈을 맞추는 놀이이다. 돈을 던져서 2개를 모두 맞추게 되면, 한 개는 갖고 한 개는 내놓는다. 한 개를 맞추면 그냥 갖게 된다.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명효식·명제빈)

(2) 딱지치기

종이를 반으로 접어 두 장을 겹쳐 끼워 사각형으로 만든 것을 딱지, 빳지라고 한다. 딱지를 쳐서 넘기거나 일정한 규칙을 정해 노는 놀이를 딱지치기, 빳지치기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딱지, 빳지는 그림이 그려있는 한 장의 종이를 일컫기도 하였다. 따라서 딱지치기, 빳지치기는 두 종류가 있으며, 놀이 방식 역시 두 종류가 있다. 여기서는 두 종류의 놀이를 한꺼번에 기술하기로 한다.

(가) 장평면 구룡리의 딱지치기

6·25 이후에 딱지치기를 많이 했다. 딱지는 장판을 찢어서 만든 것이 가장 좋았으며, 헌 책이나 잡기장을 뜯어서 만들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문방구에서 동물그림이 그려진 딱지를 구매할 수 있었다. 딱지치기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었다. 찔러먹기는 딱지를 쳐서 자신의 딱지가 상대편 딱지 밑으로 들어가면 상대편 딱지를 따게 된다. 넘겨먹기는 딱지를 쳐서

상대편 딱지가 뒤집히게 되면 상대편 딱지를 따게 된다. 붙여먹기는 맞닿으면 2개를 먹는 방식이다. 그리고 내보내서 먹기는 금 밖으로 상대방의 딱지를 내 보내서 따먹는 방식이다. 마지막에 떼먹기는 두 개의 붙은 것을 떨어뜨려서 먹는 방식이다. 이때에 딱지에 물을 축이면 땅바닥에 붙게 되며, 이것을 떼먹게 된다. 딱지는 대게 큰 것이 따먹기에 좋다. (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나) 정산면 역촌리의 빳지치기

정산면 역촌리에서는 빳지치기와 딱지치기가 같은 놀이라고 말한다. 빳지에는 시가꾸 빳지와 야마시 빳지 두 종류가 있는데, 접는 방식이 틀렸다. 주로 빳지는 푸대로 접었다.

시가꾸 빳지는 보통 딱지 접는 방식과 똑같이 2개의 종이를 겹쳐서 접는 방식이고, 야마시 빳지는 종이 한 개로 접다. 야마시 빳지의 묘미는, 빳지의 앞면과 뒷면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넘겨도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으면 넘긴 것을 눈치 채지 못한다. 그래서 눈을 속여서 상대방의 빳지를 먹기 위해 많이 만들었다. (정산면 역촌리, 표연목, 이덕봉)

(다) 청양읍 군량리의 빳지

1930년대 일정 시대에, 학교 앞 가게 잡화상에서 빳지를 팔았다고 한다. 빳지에는 영웅의 인물로 된 그림이나 동물 그림 등이 그려져 있었다. 제보자의 기억으로는 빳지놀이가 먼저 나오

고, 그 다음에 접어서 하는 딱지치기를 아이들이 하였다. 빳지 가격은 그 당시 10장에 일전 정도였다.

빳지를 따먹는 방법은 딱지치기와 비슷한데, 상대방의 빳지를 팔의 힘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쳐서 넘겨 먹는 방법뿐이었다.(청양읍 군량리, 이계복, 김동구)

(라) 청양읍 읍내리의 딱지치기

일반적인 딱지치기 외에도, '벽치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금을 긋고 그 뒤에서 벽까지 던져서 누가 가장 멀리 튀어나오나 내기하는 놀이이다. 멀리 나온 사람이, 적게 튀긴 사람의 딱지를 먹는 놀이이다. 제보자는 빳지치기가 딱지치기와 같은 것으로 기억했다. 단지 빳지는 딱지의 일본말이라고 한다. (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마) 운곡면 모곡리의 딱지치기

1930년대 당시 보통학교(소학교)에 딱지 장사가 있었다. 이 때 파는 딱지의 크기는 3~4cm 정도의 크기에 그림이 그러져 있었다. 딱지를 접어서 만들지 않고, 주로 사서 잘라서 놀았다. 접어서 하는 딱지는 후에 후배들이 하였다. 딱지놀이 방식은 오직 넘겨먹기만 있었다. (운곡면 모곡리, 이동재)

(바) 비봉면 관산리의 빳지치기

주로 10세의 남자아이들이 날씨가 따뜻한 봄, 가을에 마당에서 많이 놀았던 놀이이다. 딱지는 미농지(약한 돌 색깔의 옛날 종

이)로 접어서 만들거나, 새 학년이 되면 지난 학년에 썼던 공책을 사용했다. 특히 부잣집 아이들은 고서(古書)의 창호지나 화선지로 된 딱지를 만들어 자랑하기도 했다. 딱지를 따먹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넘겨먹기와 껴먹기가 있다. 넘겨먹기는 상대방의 딱지를 팔 힘을 이용해 위에서 내리쳐서 그 반동으로 넘겨서 먹는 방법이고, 껴먹기는 상대방의 딱지와 바닥 밑의 공간 사이에 자신의 딱지를 껴서 넘기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딱지가 크거나 두꺼운 것이 쉽게 이기기 때문에 얇거나 작은 딱지를 가진 아이들의 불리하다. 껴먹기는 작고 얇은 딱지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 좋은 아이들이 크고 두껍고 좋은 딱지를 먹기 위해서 간혹 이 방법을 사용했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사) 청남면 상장리의 딱지치기

상장2리에서는 딱지치기를 '딱지 따먹기'라고 불렀으며 종이가 흔치 않아서 별로 하지는 않았다. 예전에는 헌책이나 신문지가 귀했으며, 주로 시멘트 푸대(제문지)로 접어서 놀았다. 주로 50대가 많이 놀았으며, 넘겨 먹는 방식이 많았다.(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아) 정산면 송학리의 딱지치기

딱지치기는 종이로 만든 딱지를 땅바닥에 놓고 치는 놀이이다. 딱지치기의 방법으로 넘겨먹기와 찔러먹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딱지는 창호지로 만들어서 놀았다. 넘겨먹기는 상대방의

딱지를 바닥에 두고 자신의 딱지로 상대방의 딱지를 쳐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찔러먹기는 일제시대 때 많이 놀았던 방식이다. 찔러먹기용 딱지는 '송방'이라고 불리는 상점에서 팔았다. '송방'은 장난감도 팔고 과자도 파는 구멍가게 같은 곳이었다. 찔러먹기는 자신의 딱지를 쳐서 상대편 딱지 밑으로 들어가면 상대편 딱지를 따먹는 방식이다. 찔러먹기 딱지를 각대기 딱지라고도 불렀다. 이 딱지는 찔러 먹기 좋게 따로 나온다. 해방 이후에는 찔러먹기를 하지 않았다. (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자) 장평면 미당리의 딱지치기

예전에는 종이가 귀하여 딱지도 귀했다. 주로 마분지, 신문지 등으로 딱지를 접어 가지고 놀았다. 딱지치기는 2명이서 했다. 놀이 방식은 상대방의 딱지를 넘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크고 잘 만든 사람이 유리하다. (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차) 대치면 대치리의 빠지치기

빠지(딱지)를 종이로 가로, 세로 3cm 정도의 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따먹기를 하였다. 상대방의 빠지를 쳐서 넘기면 먹게 된다. 이 놀이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모두 즐겼다.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

(3) 못치기

(가) 장평면 화산리의 못치기

못치기에 사용되는 못의 길이는 4~5cm 정도이다. 내 못으로 땅에 꽂혀있는 상대방의 못을 넘어뜨리고, 내 못이 땅에 꽂혀야 이기는 놀이이다. 너무 힘껏 치다 보니 못이 튕겨 나와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못대가리를 헝겊으로 싸 위험을 방지하기도 했다. (장평면 화산리, 김기돈, 박원생, 김순환)

(나) 장평면 구룡리의 못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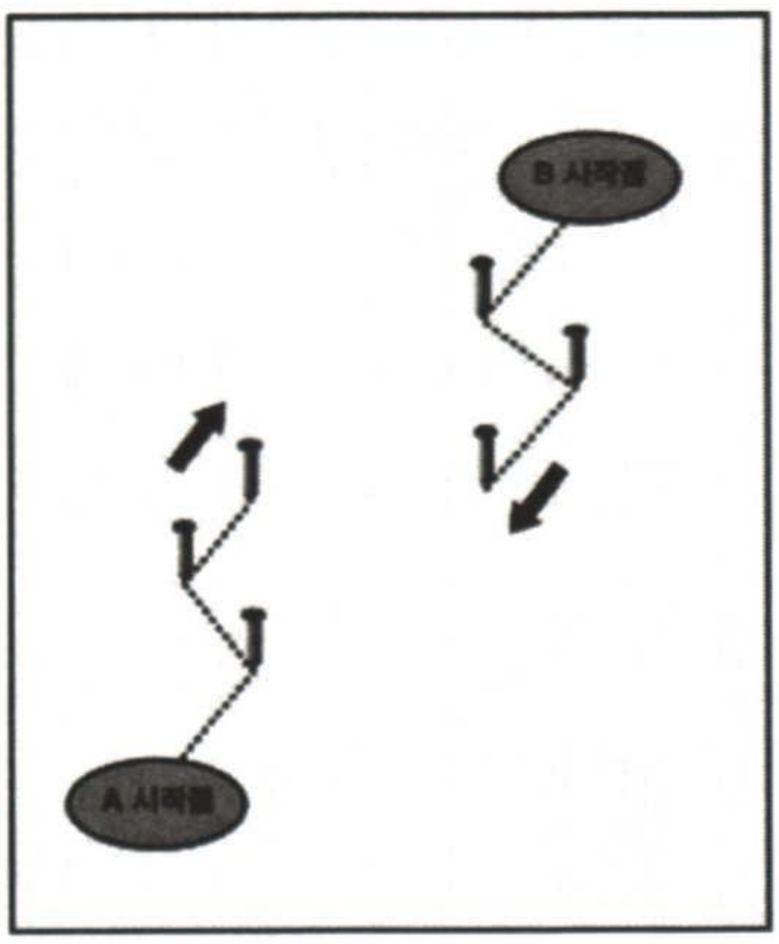
못치기는 내 못으로 땅에 꽂혀있는 상대방의 대못을 맞추어서 넘어뜨리는 놀이다. 상대방의 못을 넘어뜨리면서 내 못이 땅에 꽂혀야 이긴다. (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다) 정산면 역촌리의 못치기

막대기를 뾰족하게 깎아서 못으로 사용하거나, 철물점에서 못을 사기도 했다. 순서를 정해서 먼저 한 사람이 진흙처럼 물렁한 땅에 팔 힘을 다해서 깊숙이 박는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도 그 옆에다 못을 같은 방식으로 박는다. 못을 치면 박혀 있던 못이 튀어나가거나, 가만히 있게 된다. 튀어나가는 경우, 두 번째 박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가만히 둘 다 박혀 있는 경우, 첫 번째 박은 사람이 다시 자신의 못을 빼서 뒤이어 또 박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못을 결국에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놀

이이다. 못 크기는 다 달랐다. 서로 막대기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못을 따먹는 놀이도 했다. 이기는 전술이 따로 없고, 힘이 세고 깊게 박으면 무조건 이긴다. (정산면 역촌리, 표연목, 이덕봉)

(라) 정산면 서정리의 못치기



〈그림 45〉 서정리의 못치기

못치기는 두 명이서 한다. 이 놀이는 우선 각자 자신의 집을 만든다. 자기의 땅에서 한 뼘씩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은 중지로 할 것인지, 검지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한다. 한 뼘씩 나아간 거리를 선으로 표시한다. 상대편의 선에 닿으면 기회가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편의 선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돌면서 상대편의 집으로 나간다. 돌 때 상대방이 어렵게 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좁게 돈다. 몇 바퀴를 돌 것인지를 결정하고, 최대한 좁게 도는 것이 중요한 작전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땅에 박혀 있는 상대방의 못을 힘껏 자신의 못으로 곁 박아서(옆으로 박는다는 의미) 상대 못을 뽑게 되면 그 못을 따게 된다. 이 놀이는 '못싸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놀

이는 대못으로 해야만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건물 곳곳에 있는 대못을 수거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모으거나 딴 못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주머니가 구멍이 나서 못이 새어나간 적도 많았다. (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마) 장평면 미당리의 못치기

각자 시작점을 그린다. 못을 던져서 꽂히면 그 다음에 또 던진다. 꽂히지 않으면 상대편으로 기회가 넘어간다. 꽂힌 곳끼리 선을 그려서 표시를 한다. 표시를 한 곳이 자신의 땅이 되는데, 상대방은 그 땅을 제외한 지역으로만 던져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땅에 들어가면 지게 된다. 나중에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4) 상수리따먹기

(가) 정산면 서정리의 상수리 파먹기

상수리 파먹기는 1940년대 후반까지 유행했던 놀이로 기본적인 놀이방법은 구슬치기와 유사하다. 상수리 파먹기는 우선 흙이 많은 평평한 땅을 고른 후 땅을 판다. 그런 후 상수리를 3개, 5개, 10개씩 그 때 마다 정한 개수대로 땅에 묻고 나서 흙으로 덮는다. 준비가 끝나면 가위바위보로 선공을 정한 후 큰 상수리를 흙으로 덮은 곳을 향해 힘차게 던진다. 큰 상수리로 묻혀 있는 상수리가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따게 된다. 또 다른 방식은

흙을 걷어내어 상수리가 보이면 따게 되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정하기 나름이다. 한 번씩 교대로 던졌으며, 많이 따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6·25 전쟁 이후 총깍지(총알탄피)나 구슬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놀이는 사라지게 되었다. (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5) 고리먹기

(가) 청남면 상장리의 고리먹기

고리먹기를 하는 방법은 먼저 소나무 뿌리를 고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어 흙 속으로 밀어 넣는다. 다음으로 상대가 막대기를 흙속으로 찔러 넣어 한 번에 막대기가 고리 속으로 들어가면 이기게 된다. 놀이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나무를 해왔다. (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 길영섭, 송갑순, 진재순, 이봉수)

(나) 정산면 역촌리의 고리먹기

모래를 길게 언덕 모양으로 쌓아서, 술래가 손 안에 반지를 놓고 숨기면 이것을 찾는 놀이이다. 반지는 고리라고 했는데, 고리는 주로 풀을 반지처럼 고리를 만들었다. 이 풀은 주로 밴댕이 넝쿨을 사용했다. 술래가 이 고리를 모래 언덕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밀고 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 몰래 놓는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막대기로 한번씩 찔러서 맞추는 놀이이다.

퇴비로 쑥뿌리를 캤는데, 쑥을 캐러 갔을 때 여럿이서 합쳐

놓은 것을 따먹는 내기를 고리먹기로 했다. 고리를 맞춘 사람이 다 따먹는 것이고, 만약 아무도 고리 있는 곳을 맞추지 못하면, 술래가 따먹는다. 기회가 한 번 뿐이라서 맞추기 힘들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느 누군가가 맞추게 된다. 다들 술래 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정산면 역촌리, 표연목, 이덕봉)

(다) 정산면 송학리의 고리미끼

예전에는 모에 쓸 거름이 없어서, 모풀을 베서 땅속에 묻어 썩혀서 거름으로 썼다. 모풀을 썰고 나서 남자아이들이 쑥 뿌리로 고리를 만들어서 흙이나 모래로 쌓아두었다. 숨겨둔 고리를 막대기로 먼저 꽂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긴 사람이 베어놓은 풀을 가져갔다. 풀을 가져가는 것을 '풀따먹기'라고 한다. 고리미끼는 모풀을 베는 시기에 주로 했다. 고리미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풀을 다시 한 움큼 베고 가져와서 내기를 계속 했다. 6~7살 먹은 아이들부터 고리미끼에 참여했기 때문에 놀이에 이기면 그 양이 많았다. (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라) 정산면 천장리의 고리땡

10대의 남자 아이들이 들판의 모레가 많은 땅에서 고리땡 놀이를 했다. 소 먹일 풀을 베러 들판에 가서, 편을 나눠서 내기로 풀을 걸고 이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역에서는 '고리땡'이라고 부른다.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이 귀걸이 모양의 작은 고리를 손가락에 끼고 그것을 모레 속에 넣고 이리 저리 움직이다가 적절한 곳에 숨긴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무막대기로 고리가 숨겨져 있는 곳을 가름해서 찍는다. 나무막대기가 고리구멍 안에 찍혀야 그 편이 이기게 된다. 고리는 들판에 있는 댕댕이덩굴을 이용해서 만든다. 주로 10세에서 17세 정도의 남자 아이들이 많이 하였다.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6) 구슬치기

(가) 정산면 송학리의 구슬치기

구슬치기는 주로 '다마치기'라고 불렀다. 구슬은 문방구에서 구입했는데 그 모양과 색이 가지각색이었다. 추운 겨울에 남녀가 모여 주로 마당 안이나 대문 앞에서 놀이를 했다.

놀이는 먼저 줄을 긋고 마당에 5개의 구멍을 뚫는다. 처음에 줄에서 약 3m 정도의 거리에 구멍을 하나 뚫고, 이어 앞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 좌우에 다시 하나씩, 전면에 다시 하나의 구멍을 뚫는다. 모든 구멍의 간격은 약 3m 정도이다. 구슬을 튕기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아서 각자 마음대로 튕겼다.(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나) 비봉면 관산리의 구슬치기

구멍을 여러 개 파서 구슬을 넣으면서, 각 구멍을 한 번씩 통

과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놀이다. 먼저 통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구슬은 유리구슬과 쇠구슬을 문방구에서 구입해서 놀았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다) 대치면 장곡리의 다마치기

5살 때부터 공기놀이를 하다가 국민학교(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딱지를 접는 법을 배워서 딱지치기를 했다. 구슬치기는 돈이 1원짜리가 없어지고 10원짜리가 생기면서부터 하게 되었다. 구슬치기는 내기를 거는 숫자에 따라 먹는 것이 달라진다. 1개 내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구슬 내기를 하기도 한다. 내 구슬로 상대방의 구슬을 치는 사람이 먹게 된다. 구슬이 나오기 전에는 땅뺏기, 모래성 쌓기 등을 많이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라) 장평면 미당리의 구슬치기

구슬치기는 땅따먹기와 방법이 같다. 크게 원을 그린다. 각자 원의 한쪽 구석에 자신의 구역을 그린다. 처음에 시작할 때 5번 만에 상대편 구역에 갈 것인지, 10번 만에 상대편 구역에 갈 것인지를 정한다. 구슬을 가지고 손으로 튕겨서 상대편의 구역에 들어가면 이기는 것이다. 서로 번갈아서 구슬을 튕기는데, 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게 된다. 똑 같은 횟수로 상대방의 구역에 들어가면 비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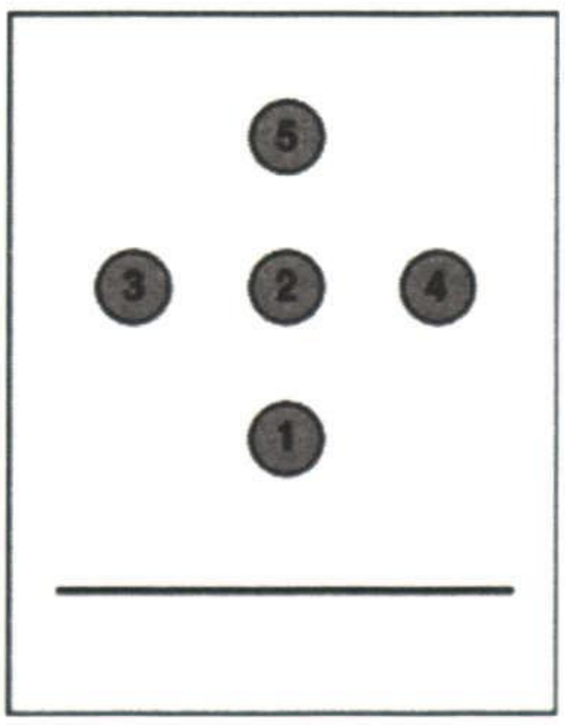
구슬치기가 땅따먹기보다 어려웠다. 땅따먹기를 하다가 구슬이 생기면서 구슬치기를 하게 되었는데, 구슬이 처음 나왔을 때

는 비싸서 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벌칙으로 이마 때리기, 팔 때리기 등을 했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마) 장평면 화산리의 다마치기

예전에 구슬을 다마라 했다. 땅에 직경 40~50cm되는 원을 그려놓고 3~4m 쯤 떨어져서 손으로 다마를 튕기거나 던져 상대의 다마를 맞히는 놀이이다. 구슬을 손으로 튕기거나 던져서 원 가까이에 있는 순서대로 놀이를 시작했다. 다마치기는 원 안에 있는 상대편 다마가 원 밖으로 나가야 먹을 수 있는 놀이다. 다마치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칠 수 있는데, 손으로 튕기거나 던지는 방법이 있다. 다마의 종류에는 쇠다마와 유리다마가 있었는데, 쇠다마는 인근에 있는 중석광산에서 많이 구할 수 있었다.
(장평면 화산리, 김기돈, 박원생, 김순환)

(바) 정산면 서정리의 다마치기



〈그림 46〉 서정리의 다마치기

유리로 만든 다마(구슬)가 나오기 전에 찰흙, 혹은 진흙을 반죽을 해서 손으로 구슬을 만들었다. 양지에 말려서 동그랗게 굳은 것으로 구슬치기를 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은 기왓장을 동그랗게 갈아서 구슬치기를 하기도 했다. 온종일 기왓장을 갈아서 구슬을 만들었다.

구슬치기는 구멍을 5개 파서 순서대로

구멍에 넣고, 먼저 돈 사람이 상대방의 구슬을 따먹는 것이다.
(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사) 정산면 서정리의 구슬치기

남자들이 주로 하는 놀이로 별다른 도구 없이 구슬만 있으면 놀 수 있는 놀이이다. 유리 공업이 발달한 해방 이후부터 실시하였을 것으로 본다.

출발선을 긋고 3m 간격에 구멍을 파놓는다. 출발선에서 각자 구멍으로 던져 순서를 정한다. 홈에 들어가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은 홈에 가까운 순으로 한다. 먼저 1순위가 구슬을 멀리 던진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그 구슬을 따먹으려 맞힌다.

맞히거나 한 뼘 안에 있는 구슬은 그냥 먹고, 한 뼘 밖에 있는 구슬은 구슬이 있는 지점에서 왼손으로 한 뼘을 재고 왼손의 새끼손가락과 구슬을 잡은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으로 걸고 구슬을 퉁겨 상대의 구슬을 맞혀 따먹는다.(정산면 서정리, 윤홍수)

(7) 총깍지놀이

(가) 청양읍 읍내리의 총깍지 놀이

6·25 한국 전쟁 이후 총깍지(탄피)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동네 산에서 주로 많이 주웠는데, M-1 소총, 기관총, 칼빈총 등의 탄피였다. 이 총깍지는 당시 아이들에게 큰 인기였으며, 이것을 따먹는 놀이가 생겼다.

총깍지 놀이는 돈치기 하는 식으로 구멍 안에 총깍지를 모아 두고 돌을 던져서 맞추는 사람이 따먹는 방식이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나) 정산면 서정리의 총깍지치기

상수리 따먹기는 땅을 파고 상수리를 3, 5, 10개(정하기 나름)를 묻고 나서 흙으로 덮는다. 돌을 쳐서 상수리가 밖으로 나오면 먹는다. 또 다른 방식으로 흙을 걷어내어 상수리가 보이면 따먹기도 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정하기 나름이다.

기본적으로 도구를 쳐서 따먹는 방식은 같다. 제보자에 따르면 시대에 따라서 놀잇감의 종류며, 놀이 방식도 바뀌었다. 일제시대에는 상수리를 가지고 따먹다가 전쟁 이후에는 탄피를 가지고 따먹었다. 그 후에 사기조각 구술, 유리구술을 거쳐 나중에 돈치기로 바뀌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상수리따먹기(일제시대) → 총깍지치기(총탄피치기, 6·25이후 생김) → 사기그릇 조각(새금바리)을 깎아서 구슬 치기 → 다마(유리 구슬)치기 → 돈치기로 바뀌었다. (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8) 갈퀴치기

(가) 비봉면 관산리의 갈퀴치기

산에 나무하러 갈 때, 나무 일이 너무 고단하면, 다 같이 모

여서 서로 나무 해 놓은 것을 따 먹는 내기를 하는 놀이가 갈퀴 치기이다. 갈퀴를 던져서 앞으로 떨어지면 얻고, 뒤로 떨어지면 잃는다. 즉, 갈퀴의 날이 하늘을 봐야 이긴다. (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나) 장평면 미당리의 갈퀴치기

산에서 나무를 한 다음에 나무 짐을 모아놓고 갈퀴를 가지고 놀았다. 갈퀴를 던져서 엎어지면 점수가 없고 젖혀지면 점수를 딴다. 점수를 많이 따서 이긴 사람이 쌓아 논 나무를 모두 가져가는 내기 성격의 놀이이다. (장평면 미당리, 서기복·김평길)

(다) 운곡면 후덕리의 갈퀴치기

갈퀴치기는 갈퀴를 가지고 노는 놀이이다. 나무를 하러 간 소년들이 주로 했는데 나무 해온 것을 모두 모아서 이긴 사람이 가져간다. 놀이 방식은 갈퀴를 던져서 갈퀴가 엎어지면 이기는 것이고 젖혀지면 지는 것이다.(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명효식·명제빈)

(9) 낫치기

(가) 비봉면 관산리의 낫치기

산에 나무하러 갈 때, 나무 일이 너무 고단하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나무 해 놓은 것을 따 먹는 내기를 한다. 낫을 던져

서 바닥에 꽂히면 이기는 것이고, 낫이 땅에 엎어지면 지는 놀이이다.

"일하기 싫은 사람, 꾀 부려가지고, 저는 넘이 해준 거 지고 올려고. 날이 어둡고, 놀다 보면 그냥 와야지. 혼나더라도. 어떻게 놀다보면 혼날까봐 조용히 지게 갖다 놓고 들어가든가. 예전에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 그냥 올 수 없어서, 날은 어둡고, 돌만 한 점 져다가 꽝 놓으니께, 자기 아버지가 돌 떨어지는 소리 듣고서, 아이고 나무 많이 해갖고 왔네. 그 이튿날 돌을 져다 놨으니 혼나고, 그 지경 하고 다닌겨."(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나) 청남면 동강리의 낫치기

낫치기는 15세~20세 정도의 남자들이 낫을 이용해 산에서 했던 놀이이다. 남자들이 15세 정도가 되면 산에 나무를 하러 많이 가게 된다. 나무를 하러 갈 때는 또래 친구들끼리 같이 가곤 했는데, 나무를 하다가 힘이 들거나 지겨울 때 자신들이 한 나무를 조금씩 걸고 낫치기 내기를 했다. 한 지점에서 일정 기준선을 넘겨서 낫을 땅에 꽂히면 이기는 놀이이다. 낫은 낮게 던져야 하며, 1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한다. 이긴 내기에 걸었던 나무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홍)

(다) 장평면 미당리의 낫치기

낫치기는 낫을 던져 땅에 꽂히는 것으로 내기를 하는 놀이이

다. 하교한 후, 친구들끼리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낫치기를 했다. 낫치기는 땅에 낫을 던져서 땅에 꽂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다. 낫이 꽂힌 거리는 재지 않고, 땅에 꽂힌 사람이면 이기는 것이다. 아무도 낫을 땅에 꽂지 못하면 다시 던졌다. 이긴 사람은 나무를 다 가져갈 수 있었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라) 운곡면 위라리의 낫치기

낫치기는 주로 풀 베러 갔을 때, 낫을 이용해 풀 한 점씩 베어주는 놀이이다. 낫을 자신의 몸 쪽으로 던져서, 낫이 땅에 꽂히면 이기고, 땅에 눕혀지면 진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마)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의 낫치기

나무를 하러 산에 모인 소년들이 낫의 날 끝을 잡고 던져서 던진 낫이 땅에 꼿꼿히 꽂히면 이기는 놀이이다. 이기게 되면 해온 나무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다.(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명해동·명효식·명제빈)

(10) 투전

(가) 청남면 청소리의 투전

투전은 노름의 성격이 강한 놀이로써 청남면에서는 난장을 중심으로 1960년대까지 성행하다가,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

투전의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투전을 하기 위해서는

투전지가 필요한대 이것은 창호지를 여러 겹 붙여서 가죽과 같이 만든 것을 사용했다. 각 장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며, 길이는 대략 13~15cm 정도이다. 각 숫자별로 4장씩 총 40장이 한 목이다.

주로 4명이 모여서 놀이를 하였는데, 각자 3장의 종이를 받아서 그 수를 더한다. 그리고 더한 수의 끝자리 수를 '끗'이라 하는데, 그 수가 높아야만 이기게 된다. 9끗이 가장 높으며 0은 가장 낫다. 9끗을 갑오라고도 부른다. 최고로 치는 것은 1자를 한 장 받고 같은 숫자를 두 장 받는 '깨비'라는 것이다.

투전은 난장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는데, 난장은 주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5일간 서는 장이 서지 않거나, 장의 부흥을 위해 5일간 장을 연 경우가 많이 놀았다. 이 때는 투전과 같은 노름을 어디서 하던 경찰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묵인을 해주었다. 때문에 난장의 여러 곳에서 투전판이 벌어졌다. 청남면 근처에서는 미당장이 가장 커서, 미당장에서 투전판이 주로 벌어졌다. (청남면 청소리, 정철규, 소사영, 윤종열)

(나) 정산면 천장리의 투전

천장리에서 투전은 머슴들이 일이 없는 농한기에 주로 성행하였다. 노름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일 년 내내 벌어들인 돈을 다 날리거나 빚을 질 정도로 폐해가 심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투전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벌이곤 했는데, 그럴 때면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행여집(상여집)에 가서 투전판을 벌이기도

하였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다) 장평면 미당리의 투전

예전에 미당장에서 투전이 많이 했다. 제보자는 어려서 하지 못했고, 어른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화투가 생기면서 투전이 많이 사라졌다. 난장이 서면 투전이 더욱 많았다. 동네 사람들 외에도 투전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당시 야바위꾼도 많이 왔었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라) 정산면 서정리의 투전

투전은 19세기 말경 일본으로부터 전래 된 화투와 함께 놀음의 도구로 병행되었는데, 일제시대 후반기에 일인이 화투를 보급시킬 목적으로 투전을 압수했다고 하고 국민들은 왜색이 짙다고 하여 화투를 기피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부터 6·25 사변까지 투전이 성행하다가 6·25 이후에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정산면 서정리, 윤흥수)

(마) 목면 화양리의 투전

이 지역에서는 놀이 방법으로 '감워지기'가 있었는데, 이 놀이는 패를 2장씩 갖고 술집에 가서 먹은 후 패를 보아 끗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돈을 내는 도박성이 매우 강한 놀이였다고 한다.

한편 모듬따기는 모든 놀이꾼이 일정액의 돈을 중앙에 묻고 시작한다. 이 돈을 '원봉'이라고 한다. 한편 모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돈을 모아서 다른 개임이 이루어지는데 돈을 그

앞에 따로 놓는다. 이를 '단살'이라고 한다. 모듬따기는 이렇게 두 가지의 돈을 놓고 시작한다.

이 지역에서는 뀌어진 3장 중 2장은 패가 같고, 1자가 끼어야 된다고 말한다.(목면 화양리, 우영제)

(11) 골패

(가) 목면 안심리의 골패

대개 두 사람이 하며, 선후를 결정하여 12쪽씩 패를 나누어 갖는다. 선이 먼저 패를 한 쪽 내려놓으면 상대는 선이 내려놓은 패의 아래쪽에 수에 맞게 내려놓는다. 이와 같이 계속하여 상대 숫자에 맞는 것을 내지 못하면 진다. 이 놀이는 학식 있는 사람이 즐겼기 때문에 '신선놀음'이라고 부른다.(목면 안심리, 김재복)

(12) 화투치기

(가) 장평면 화산리의 화투치기

화산에서는 주로 빠가사리를 한다. 다른 마을은 전부 10원~100원 짜리 고스톱 내기를 많이 하는데, 화산리는 돈내기를 하지 않고 커피 내기처럼 소박한 내기를 한다.(장평면 화산리, 김기돈, 박원생, 김순환)

(나) 정산면 서정리의 화투

일본인이 통치수단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분열시키기 위해 화투를 보급시켰다고 한다. 민화투는 약과 점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산면 서정리, 김윤종·백용태)

약의 명칭	내 용	점수
홍 단	1월의 5끗, 2월의 5끗, 3월의 5끗 3개를 모두 먹었을 때	30
청 단	6월의 5끗, 9월의 5끗, 10월의 5끗 3개를 모두 먹었을 때	30
초 단	5월의 난초 4짝을 모두 먹었을 때	40
비 약	12월의 비 4짝을 모두 먹었을 때	20
풍 약	10월의 풍 4짝을 모두 먹었을 때	20

(다) 목면 화양리의 화투(짓고땡과 돋따)

'짓고 땡'이라고도 부르며 재래의 투전놀이 방식과 유사하다. 똥(십일)과 비(십이)와, 그리고 일에서 십까지의 알맹이를 재외하고, 껍데기 20장으로 한다.

물주(오야)가 일정량의 놋돈을 놓고 사람의 수에 따라 보통 화투표 3장과 물주표 1장을 깔아 놓으면 놀이꾼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놋돈(물주가 건 돈)에 맞추어 돈을 건다. 물주는 자기 화투표와 바닥의 화투표에 4장을 더 놓아 5장을 만든다. 그러면 각자 5장을 가지고 3장을 더하여 열, 이십, 삼십을 만들어 짓고 나머지 2장으로 끗수로서 승부를 결정한다.

끗수의 서열은 높은 땅으로부터 '갑오, 여덟 끗, 일곱 끗---'의 순서로 한다. 한 끗(따라지), 무대(끗수가 없음)의 순서이다. 만약 놀이꾼이 짓지를 못하면 물주가 먹고, 놀이꾼이 땡이 나오면 물주는 건 돈의 2배를 주어야 한다. 본 지역에서는 물주가 건 돈을 놀이꾼이 전부 다 갔을 때만 땡값을 준다고 한다.

돋따는 완전한 도박게임으로 단지 끗수만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리 짓고 땡'과 같이 껍데기 20장만으로 한다. 물주가 놋돈을 놓아 바닥에 5장을 횡으로 늘어놓고 자기의 화투 표를 갖는다. 이 때 물주의 표는 3번 정도 골라서 표를 가질 수 있다. 놀이꾼은 놋돈에 맞게 돈을 건다. 물주는 우측으로부터 표를 보이지 않게 엎어서 한 장 씩 더 준다. 끗수가 좋아 놀이꾼이 "알로"하면, 물주는 다음 놀이꾼에게 표를 주고 좋지 않으면 "때려"하면 표가 보이게 뒤집어 한 장을 더 준다.

대개 다섯 끗 이상이면 때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 물주도 놀이꾼으로부터 한 장의 화투 표를 받아 놀이꾼과 같이 하여 나중에 끗수로 놀이꾼과 대결하게 된다.(목면 화양리, 우영제)

(라) 목면 화양리의 받싸리

화투놀이 중 칠갑산을 중심으로 북서부에서는 만단놀이, 남동부의 4개 면에서 만단 놀이와 유사한 놀이가 있는데 이를 '받싸리'라 한다.

놀이 방법은 만단 놀이와 유사하여 4명에게 패를 돌려 선은 치지 않고 들어간다. 내기로는 돈이 오가며 흉하게 보여 10,000

원을 내고 사 돈 대신 콩으로 주고받고 놀이를 하며 놀이가 끝나면 콩을 돈으로 계산하여 돌려받는다. 약으로 '곱거리'와 '단거리'가 있는데, 곱거리를 하면 2인으로부터 콩을 2개씩 받고 단거리를 하면 약의 점수 합이 아무리 많아도 콩 하나를 받게 된다. 약의 종류와 점수는 다음과 같다.(목면 화양리, 우영제)

약의 명칭	내 용	점 수	비 고
진사광	비광을 제외한 4개의 광을 먹었을 때.	곱거리	콩 2개를 준다.
오광	5광을 먹었을 때.	곱거리	콩 2개를 준다.
싸리	흑싸리, 홍싸리의 4짝을 먹었을 때.	곱거리	콩 2개를 준다.
4광	비광을 포함한 4광을 먹었을 때.	600	끗발점수(단거리)
한짝 따기	1을 4짝 먹었을 때	100	〃
〃	2를 4짝 먹었을 때	200	〃
〃	3을 4짝 먹었을 때	300	〃
〃	5를 4짝 먹었을 때	500	〃
〃	6을 4짝 먹었을 때	60	〃
〃	8을 4짝 먹었을 때	80	〃
〃	9를 4짝 먹었을 때	90	〃
〃	10을 4짝 먹었을 때	20	〃
〃	11을 4짝 먹었을 때	40	〃
〃	12를 4짝 먹었을 때	20	〃

(마) 목면 화양리의 뽕

뽕은 자신이 들고 있는 표의 합을 줄여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으로 '뽕'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놓은 숫자

의 끗수를 두 장 가지고 있으면, '뽕'이라 하여 가지고 있는 같은 두 장을 내놓고 추가로 1장을 더 버린다. 그래서 2장만을 가지게 된다. 뽕을 하지 않아도 표를 털 수 있는데 똑같은 숫자 3장을 들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뽕을 할 수 있어 '자연'이라 하고, 3장을 버리고 추가로 1장을 더 버려 2장을 가질 수 있다.

약의 명칭	내 용	점 수
10 부족	똑같은 숫자 4장과 똑같은 숫자 2장	-10
	6장을 합쳐서 10끗 이하일 때	합친 수만큼 마이너스
60 부족	6장을 합쳐서 60끗 이하일 때	〃
기 차	번호 순서대로 6장을 맞출 때	〃
3장과 3장	똑같은 숫자 3장씩 들어 있을 때	〃
2장이 3패	똑같은 숫자 2장씩 들어있을 때	〃

표를 2장 들고 있는 사람은 스톱을 할 수 있다. 두 장의 합이 5이어야 스톱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중 뽕을 한 사람이 있어야 스톱을 할 수 있고, 스톱을 한 사람은 끗수의 합으로 따지고, 다른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스톱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바가지를 씌운다. 씌운 사람은 0점이고, 바가지를 쓴 사람은 자기 수에 30이나 50을 더하게 된다.

또한 뽕을 한 사람이 똑같은 숫자 2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이롱'이라 외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숫자를 내놓으면 바가지를 쓴다. 바가지를 쓴 사람은 자신의 수에 30을 합산하고 바가지를 씌운 사람은 0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점수를 기록하여 점수의 합계가 제일 적은 사람이 1위가 되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꼴찌가 된다. 순위에 따라 돈을 내어 먹을 것을 사와 즐겁게 먹고 마시기도 한다. 혹은 정월대보름 날에는 순위에 따라 음식을 훔쳐 먹는 것이기도 한다. 약의 명칭과 점수는 앞의 표와 같다.(목면 화양리, 우영제)

(바) 정산면 서정리의 고스톱

이 지역의 고스톱은 다음과 같다.

① 광이나 약팔기 : 선은 무조건 치고 다음 두 삶이 칠 수 있는데 순서가 빠른 사람이 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광이나 약을 팔 수 있다.

② 흔들기 : 같은 숫자가 3장이 들어 왔을 때 치기 전에 보여주고 '흔들었다'하여 점수가 나면 돈을 2배로 먹는다.

③ 뻑 : 숫자가 같은 짝을 치고 같은 짝을 까면 '뻑'이라 하여 그 사람이 먹지 못하고 그 짝을 까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는다. 처음 돌릴 때 뻑을 하면 '첫뻑'이라 하여 일정액의 돈을 받는다.

④ 바가지 : 껍질로 점수를 나서 고스톱을 했는데 상대가 껍질을 6장 이상 따지 못했을 경우, 또는 꽝으로 점수를 났는데 상대가 광을 먹지 못했을 때 바가지를 쓰는데 이 때

는 2배의 돈을 주어야 한다.

약의 종류	내 용	점수	비 고
고도리	2자, 4자, 8자의 10끗을 3장 먹었을 때	5	
홍단	홍단 3장을 먹었을 때	3	
청단	청단 3장을 먹었을 때	3	
구사	4, 5, 7의 띠 3장을 먹었을 때	3	
3광	광 3개를 먹었을 때	3	비광이 끼면 2점
4광	광 4개를 먹었을 때	4	
5광	광 5개를 먹었을 때	15	
10피	껍질 10장을 먹었을 때	1	질 한 장 추가시 1점 더함
5열	10끗짜리 5장을 먹었을 때	1	10끗 한 장 추가시 1점 더함
5띠	5끗짜리 5장을 먹었을 때	1	5끗 한 장 추가시 1점 더함

⑤ 독박(독바가지) : 놀이를 할 때 서로 짜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람이 필히 날 수 있는 표를 냈을 때를 말하고 혼자서 다른 사람이 줄 돈까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자기가 점수가 나서 '고'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점수를 났을 때 '고독박'을 쓴다.

⑥ 고 : 일단 3점이 났는데 다른 사람이 점수를 날 수 있는 확률이 적을 때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계속 경기를 하는 것으로 한번 고를 하면 1점을 보텐 점수를 합산한다.

그리고 고를 3번 하면 '쓰리고'라 하여 딴 점수의 두 배로 돈을 받는다.

⑦ 스톱 : 자기가 점수를 낮지만 다른 사람도 점수를 날 수 있는 확률이 크므로 그만 게임을 끝내자는 말이다.

⑧ 따 : 10끗짜리 7장으로 3점을 났을 때를 말하며 2배의 돈을 받는다.

기본적인 약은 위와 같고 구 10끗짜리, 똥 10끗, 비 껍질은 '쌍피'라고 하며 껍질 두 장으로 쳐준다. 단 구 열 끗은 10끗짜리 혹은 쌍피로도 사용 할 수 있다. 약과 점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산면 서정리, 김윤종)

(사) 목면 화양리의 표때기

상대와 내기를 하지 않고 혼자 실시하는 놀이로 1년 또는 당일의 운수를 점치는 심심풀이로 한다. 주로 나이 많은 노인이나 화류계의 여인들이 주로 했다.

이 놀이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고 대체로 떨어지는 끗수의 다과로 점을 치거나 표를 해석하여 운수나 재수를 점치는데 1자부터 12자 까지 해석하는 의미와 뜻이 있다. 1자는 소식[消息], 2자는 임[愛人], 3자는 산보[散步], 4자는 근심, 유혹[誘惑], 5자는 술[酒], 6자는 기쁨[喜], 7자는 횡재[橫財], 8자는 달밤[月夜], 9자는 국수, 10자는 근심, 11자는 돈[貨幣], 12자는 눈물로 해석하나 지방에 따라 좀 다르다.(목면 화양리, 우영제)

(아) 운곡면 신대리의 갑오떼기 화투놀이

1부터 10까지 화투 표만을 가지고 세로로 5장을 놓은 다음 계속하여 오른쪽으로 늘여가면서 3정을 합하여 갑오(합이 9, 19, 29)가 되면 빼어 내어 따로 둔다. 이렇게 계속하다가 모두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3자가 남는데, 3광이면 운수가 좋고 3의 띄와 피면 좋지 않다라고 한다. 또 5장씩 나누어 '도리짓고 땡'의 형식으로 끗수를 재어 끗수의 합이 20이상이 나노면 운수가 좋다라고 한다.

이 지역의 망통떼기는 갑오떼기와 비슷하게 망통(세 장의 합이 10, 20, 30)을 맞추어 떼는데 모두 떨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10장이 남는데 남는 것이 10끗 자리이면 우수가 좋고 띠, 피면 운수가 나쁘다고 한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자) 정산면 서정리의 운수보기 화투

가로로 4줄, 세로로 4장을 엎어놓고 마지막 다섯 번째의 장을 뒤집어 놓는다. 손에 있는 표 한 장씩 뒤집으면서 숫자가 맞는 것끼리 맞추어 바닥표의 윗편에 4줄로 정리해 간다. 반복하여 다 떨어지면 위의 4줄로 정리한 것 중에서 같은 수 4장이 있으면 그것만을 골라서 그 날의 운수나 재수를 본다.(정산면 서정리, 백용태)

(차) 목면 화양리의 일년표 화투놀이

가로 11줄, 세로 44장을 정리한 후 손에 있는 표 한 장을 뒤

집어 1월부터 11월까지 위를 찾아 넣는데 위로부터 꽝(열끗), 열끗(피), 띠(피), 피의 순서에 넣는다. 이렇게 계속하다가 12(비)가 나오면 제하고 다시 손의 표를 한 장 뒤집어 계속 진행한다. 12(비)가 4장 나오면 끝나는데 먼저 떨어진 숫자의 달이 가장 좋다고 한다.

피라미드표는 화투표를 피라미드형으로 처음 줄에는 정점 1장, 두 번째 줄에는 2장, 이런 방법으로 아홉 번째 줄에는 9장을 놓는다. 정점의 1장과 마지막 9장을 뒤집어 놓고 숫자가 맞는 표끼리 떼어서 두 군데로 나누어 차례차례 쌓아간다. 그런데 짝이 맞아 떼어낸 곳은 다음 표를 뒤집을 수 있는데 아무 표도 물리지 않아야 한다. 모두 떨어지면 두 군데에 쌓아둔 표를 합쳐서 가로로 4장을 놓고 계속 밑으로 놓아 똑같은 숫자 4장이 떨어지는 표의 숫자로 운수를 점친다.

십자표는 가로 9장, 세로 7장씩 27장을 바닥에 엎어 넣는다. 바닥에 열십자(+)가 4개가 그려질 수 있도록 사이사이 표를 뒤집어 놓는다. 다른 표는 숫자만 맞으면 떼어내는 반면에 이 표는 알은 알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맞추어 떼어서 놓는다. 떼어내는 순서 중 +자중 4귀퉁이에 걸리는 표가 없이 다 떨어지면 중장의 표를 뒤집고 중앙의 표가 떨어지면 4장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여 떨어진 표는 두 군데로 쌓아 두었다가 모두 떨어지면 피라미드와 같이 운수를 점친다. (목면 화양리, 우영제)

(카) 청남면 인양리의 빠가살이

인양리에서는 노인 사이에 장기나 화투는 드물고, 겨울철에 화투를 이용해 심심하면 술내기 빠가살이를 많이 쳤다. 이것이 시작한 것은 15-20년이 되었다. 예전에 화투가 없었을 때에는 만들어 치기도 했다. 고스톱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친다.

빠가살이는 패를 7장씩 나누어서 7장으로 시작해서 1장씩을 까본다. 마음에 들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놓는다. 대개 2장이 겹치면 가져가게 된다.

빠가살이는 홍싸리와 흑싸리 8장이 들어오면 물 넘는 것이라 하여 그 판을 이긴다. 이 말은 한도인 1000점을 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각종 약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 난초약은 500점, 사꾸라 300점, 흑싸리 400점, 홍싸리 400점, 매주 약 200점, 국화 90점, 오동 40점, 풍과 비는 20점, 목단 60점, 솔 100점이다. 백단은 솔 껍데기 2개와 공산 껍데기 2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100점이 된다. (청남면 인양리, 한익희)

(13) 엿치기

(가) 장평면 구룡리의 엿치기

엿치기는 엿을 부러뜨려 속에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놀이다. 집 안에 있는 쌀을 훔치거나 성한 고무신을 찢어 엿장수에게 갖고 가서 엿과 바꾸고, 이 엿으로 엿치기를 했다. 당시에는 병이나 깡통이 거의 없던 시절이다. 잘 사는 사람은 고무신 배

급을 받았다. 운동화는 해방 이후에 학교 배급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엿과 바꾸어 먹는 것은 쌀과 고무신 밖에 없었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나) 운곡면 위라리의 엿치기

엿치기는 가래엿을 골라서 쪼갠 다음에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정월 대보름에 주로 엿장수가 많이 다녀서 그 기간에 많이 했다. 엿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지만, 적당히 먹으면 밥맛도 생기고 좋다고 해서 어른들도 엿치기를 많이 혼내지는 않았다. 엿이 다니깐 엿을 먹으면 밥맛도 더 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

(다) 운곡면 광암리의 엿치기

엿장수에게 엿을 산 다음에, 엿을 꺾어봐서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놀이가 엿치기이다. 이 놀이에서 지면 엿 값을 모두 대야 한다.(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 여규은)

(라) 대치면 장곡리의 엿치기

사춘기 때 정월 보름에 용돈 10원 정도가 생기면 엿을 사서 엿치기를 했다. 친구들끼리 한 사람당 1원씩 모아서 10원을 만들었다. 10원어치 엿을 사서 한 가락씩 나누어서 엿치기를 했다. 이것을 해서 구멍이 가장 많은 사람이 엿을 가장 많이 가져갔고, 엿에 구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엿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 그 당시에 10원이면 십자수에 쓰이는 색실을 10개 살 수 있는

돈이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마) 정산면 송학리의 엿치기

엿치기는 엿을 부러뜨려서 누가 구멍이 큰 지를 겨뤄서 이기는 사람이 엿을 다 가지는 것이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바) 정산면 서정리의 엿치기

엿치기는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엿을 부러뜨려서 누가 구멍이 더 큰가를 겨루는 놀이다. 엿치기는 구멍이 더 큰 사람이 엿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것은 장날에 장에 가서 엿을 사서 하기도 했으나, 서정1리가 예전에 군 소재지라서 장날이 아니더라도 자주 오는 엿장수들이 있었다. 그래서 엿치기를 자주 했다.(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

(사) 장평면 미당리의 엿치기

엿장수가 마을에 왔을 때, 2명이 엿치기를 해서 누가 구멍이 큰 가를 내기를 건다. 엿치기에서 이긴 사람은 엿 값을 내지 않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엿 값까지 냈다. 집에 있는 검정 고무줄을 갖고 가서 엿으로 바꾸어 먹고, 집에서 혼난 적도 있었다. 특별한 아이들은 집에서 사용하는 놋쇠 그릇을 갖고 와서 바꾸기도 했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아) 장평면 낙지리의 엿치기

엿을 둘로 자른 다음에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놀이로 진

사람이 엿값을 낸다.(장평면 낙지리, 윤갑중·심윤섭)

(14) 목침(화로)빼앗기

(가) 정산면 서정리의 목침화로 빼앗기

주로 농촌에서 일꾼들이나 동네의 떠꺼머리 총각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세끼를 꼬거나 짚신을 삼으며 기나긴 겨울밤을 보냈다. 이때 모인 사람들끼리 심심하여 팔을 이용한 힘자랑으로, 집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인 목침을 가지고 서로 빼앗는 놀이를 하였다. 이 놀이를 통하여 술내기를 하였고, 이기기 위해서 팔 힘보다는 악력이 센 사람이 유리하였다고 한다.

목침 빼앗기와 유사한 놀이로 화로 빼앗기가 있는데 목침 빼앗기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힘보다는 기술적인 요인이 더 필요했다고 한다.(정산면 서정리, 윤홍수)

(나) 남양면 대봉리의 목침화로 빼앗기

육면체로 된 목침을 가지고 내기놀이를 하는데 두 사람이 목침을 가운데에 놓고 배를 쭉 깔고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책상 위에 놓고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목침을 한 손으로 맞잡고 힘을 주어 당겨 빼앗기는 쪽이 지고 빼앗는 쪽이 이기게 된다. 화로 빼앗기는 화로에 불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여 반드시 방바닥 위에 앉아서 기술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남양 대봉리, 강희배)

(15) 성냥치기

(가) 목면 안심리의 성냥치기

이 놀이는 성냥이 귀했던 시대에 겨울철에 소년들이 실내에서 즐겨하던 놀이로 몇 개의 성냥개비로 여러 규칙을 정하여 놓고 성냥개비를 따먹는데 도박 성격이 조금 가미 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찔러 먹기는 편을 정하고 4개의 성냥개비를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에 짚고서 돌려 틀어 성냥개비로 삼각형을 만든다. 그 후 만들어진 삼각형 안에 성냥개비를 넣으면 그 넣은 개수를 다른 사람에게서 모두 받는다. 모양이 크게 만들면 많은 성냥개비를 넣어서 성냥개비를 많이 딸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순서에 따라 놀이가 진행된다.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거나 성냥개비를 넣다가 건드리면 실격이 되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된다. (목면 안심리, 김익수)

(나) 대치면 탄정리의 성냥치기

① 칠성예 : 먼저 한 사람(물주)이 일곱 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서 몇 개를 뽑아 손안에 숨기고 그 앞에 7줄의 선을 그어 놓는다. 다른 사람들은 물주가 뽑은 개수에 맞게 한 개라고 생각되면 첫 번째 줄에, 두 개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일곱 개라고 생각하면 일곱 번째 줄에 성냥개비를 건다. 맞추게 되면 맞춘 사람은 성냥개비를 놓은 숫자대로 따먹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물주에게 잃게 된다.

② 때려먹기 : 성냥개비 대여섯 개를 가지고 1)과 같은 방법으로 놓은 다음 겹쳐져 있는 성냥개비를 때려서 떨어지게 하면 모두 따먹는다.(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16) 호미놀이

(가) 청양읍 송방리의 호미걸기

놀이를 하는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다. 여러 명의 농부들이 제각각 호미를 한 개씩 팔에 걸어 힘을 과시한다. 팔에 줄줄이 호미를 걸어서, 거는 호미의 숫자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대개 술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청양읍 송방리, 이서동)

(나) 청양읍 읍내리의 호미치기

10여보 앞에 선을 그어 놓고, 선을 넘어 던지게 하여 호미가 엎어지거나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지게 되고, 호미가 꽂히면 이기게 된다. 보통 내기를 하는데, 진 사람은 이긴 사람 대신 밭고랑을 매어 주든지 일이 끝난 후 깔 한전 - 풀 한 아름 정도 - 를 베어 주든지, 막걸리를 사 주든지 한다. 그때그때에 따라 여러 가지 내기를 하였다.(청양읍 읍내리, 복기율)

(17) 국수가닥늘리기

(가) 정산면 서정리의 국수가닥늘리기

부녀자들이 옥수수나 밀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면서 국수가닥을 만든다. 누가 얇고 길게 국수가닥을 만드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고, 우승팀에게는 국수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진편에서는 각각 국수를 만들어 우승팀을 대접하고 동네사람들에게 배불리 국수를 먹일 준비를 한다.(정산면 서정리, 양매임)

7. 오락과 여가

(1) 서리

(가) 장평면 구룡리의 서리

서리는 주로 해방 후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많이 했다. 이것은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에 5~6명의 아이들이 모여 은밀하게 했다. 서리에는 주로 참외서리, 고구마서리, 콩서리, 감자서리, 닭서리, 토끼서리 등이 있다.

장평면 구룡리의 한 제보자는 감자서리를 하다가 손 검사로 인해 들켰던 경험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누구 할어버지가 손을 내밀었어. 감자 진이 잔뜩 묻었는데 말이야. 감자를 캐내서 손으로 잡으면 시커멓게 진이 묻어.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손을 내밀었단 말이여. 그랬더니 이놈 감자 캐다먹었다고. 이렇게 걸렸네. 허허허허허허허"
>
> (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나) 화성면 매산리의 서리

화성면 매산리의 한 제보자는 서리를 하며 걸리지 않기 위해 주인집 원두막 밑에 오줌통을 갖다 놓았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두막이 있는데, 그놈을 밑구녕을 흔들어. 그러다 그 원두막에 자느라고, 오줌통을 갖고 잔다고. 그러면 거기서 잘적에 혼자 자는데 가서, 흔들어. 흔들면 놀랠꺼 아녀~ 누구야? 그러고 나서 오줌통을 갔다 놓구서, 올라가는 사다리를 치워 놔요. 그럼, 나올라고 더듬을꺼 아녀, 근데, 올라댕긴 자리가 있응께. 글로 오면 떨어져유, 쳐놨응께. 오줌통 그 밑에 놓고, 쳐놨응게, 떨어지면 오줌통 밟고. 그렇게 하고선. 그 저기로 뛰어내리면 다쳐. 그런 장난했지."(화성면 매산리, 윤경희)

(다) 비봉면 신원리의 서리

서리는 주로 참외서리를 많이 하였다. 서리를 할 때는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들은 옷을 다 벗고 하였다. 밤에 흰옷이 잘 보여 들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리를 할 때에는 옷을 지키는 아이도 따로 있었다.(비봉면 신원리, 이풍호)

(라) 청양읍 읍내리의 서리

서리는 주로 여름에는 토마토, 가을에는 고구마와 콩을 많이 했다. 계절과 상관없이 닭서리도 하는데, 이것은 서리 중에 가장 재미있었다. 당시 고기 먹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닭서리를 해

서 실컷 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주로 10월 안택고사를 위해 걸립할 때의 시끄러워 틈을 타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양읍 읍내리의 서리는 주로 14~15세의 아이들이, 5~6명 정도 모여서 하는데, 개시는 10시~11시쯤에 하며, 꼭 주인집 아들을 끼게 하였다. 그 이유는 걸려도 덜 혼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집을 돌려가면서 하는데, 혹시 자기의 집만 빠지면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을 사기 때문이다. 대개 주인집 아들은 서리할 밭을 미리 알려주고, 아지트에서 대기하고 있다. 서리는 역할을 나누는데, 망보는 아이, 서리하는 아이, 그릇을 갖고 와서 아지트에서 대기하는 아이로 구분한다.

아지트는 주로 사랑방인데, 어른들은 밤에 동네 아이들이 으레 서리를 하고 사랑방에 모여서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었다.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허기를 채우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묵인해 주었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마) 비봉면 장재리의 서리

대추나무 서리를 할 때에는 바가지를 쓰고 가며, 무게 때문에 밑에까지 축 늘어진 나무를 흔든다. 그러면 '탁탁탁탁'하고 부닥치며 떨어져서 쉽게 주울 수 있었다.

열 나흗날 저녁에는 오곡밥을 훔쳐 먹었다. 아이들은 오곡밥과 그 당시 귀했던 김을 훔쳐서 한 곳에 모여서 먹었다. 또한 보름날 낮에는 아홉 집 밥을 얻어먹고, 남자는 나무를 아홉 짐을 하며, 여자는 삼을 아홉 광우리 해야 한다.

콩서리도 하는데, 서리한 콩을 '새삼 복자, 지부리 복자' 노래를 불러가며 먹었다.(비봉면 장재리 3반, 명노숙, 김종목, 윤금모, 명순화)

(바) 비봉면 관산리의 서리

콩·대추·참외·닭서리를 많이 했다. 특히 대추서리를 할 때에는 바가지를 쓰고 가며, 나뭇가지에 대추가 열리면 무게 때문에 아래로 쳐지는데, 그것을 바가지로 비비면 떨어져서 쉽게 주워 먹을 수 있었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사) 대치면 장곡리의 서리

여름에는 놀이에서 진편이 고구마, 감자, 옥수수, 참외 서리를 했다. 그래서 서리한 것을 모기를 쫓기 위해 펴 놓은 모닥불 위에서 구워 먹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가져온 냄비, 주전자, 솥을 이용해 집이 빈 친구네 집에 가서 쪄 먹었다. 이때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 섞어서 놀던 시기로 사춘기 이전이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저녁에 친구네 집이나 느티나무 밑에서 모여서 놀았다. 서리한 것을 여자아이들은 치마에 안고 오거나, 남자아이들은 바지 사이에 넣었다. 예전에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칡을 끊어서 망을 만들거나, 부럭(새끼줄로 꽈서 만든 망)을 사용했다. 그것조차 없으면 칡잎과 같이 넓은 잎을 이용해서 서리한 것을 싸서 갖고 왔다. 주로 기운이 센 남자아이들이 훔쳐오고, 여자아이들은 서리한 것들을 닦아서 쪘다.

서리할 곳은 낮에 미리 정해놓는다. 고구마서리를 할 때에는, 고구마가 잘 된 밭에 가서, 고구마 가지를 들면 고구마가 탁 터진다. 고구마 서리는 예전에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달이 밝을 날을 골라서 했다. 광솔 뿌리에 불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달이 밝을 때에 서리를 했다. (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아) 정산면 천장리의 서리

참외나 수박 등을 많이 훔쳤다. 다른 동네까지 가서 서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닭을 서리할 경우에는 밤에 남의 집에 가서 몰래 훔쳤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자) 정산면 송학리의 서리

여름에는 수박, 참외 서리를 많이 했고, 가을에는 콩 서리를 해서 구워먹었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차) 장평면 미당리의 서리

서리는 여름날 밤에 수박, 참외, 땅콩, 감자 등을 훔치는 것이다. 참외를 서리할 때는 바지 밑에 버선을 메듯이 묶어서 흘러내리지 않게 한 다음에, 참외를 바지 안에 숨겨서 도망을 갔다. 보리가 익어서 노랗게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보리를 뽑아서 쪄 먹었다.(장평면 미당리, 정만오)

(2) 고기잡이

(가) 대치면 장곡리의 물고기잡기

냇가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여 조개, 개구리, 다슬기, 물고기를 잡았다. 여름에는 가재를 잡아서 구워먹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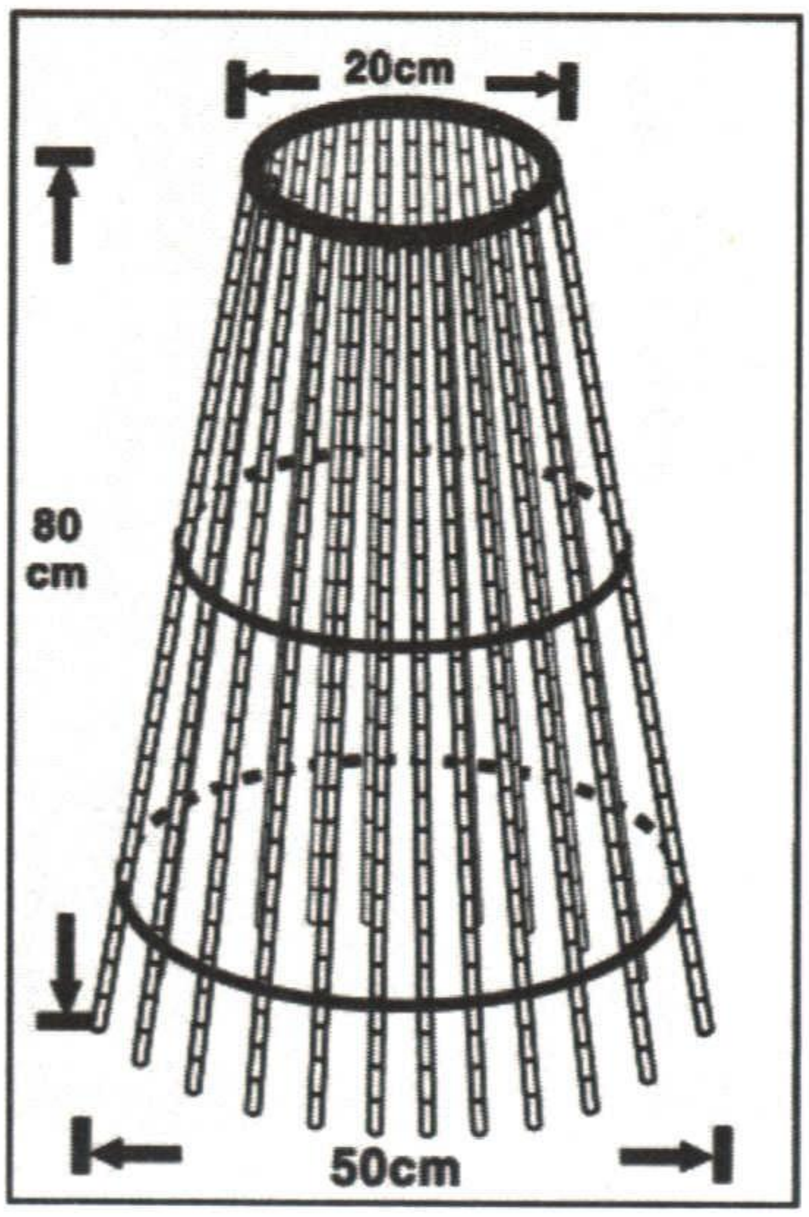
(나) 정산면 천장리의 물고기잡기

봄·여름에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보를 막았다. 보에서는 메기, 뱀장어와 같은 민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주로 밤에 삼삼오오 모여서 광솔 뿌리로 만든 횃불을 들고 가서 잡았다. 10대부터 40~50대의 남성들이 주로 하였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다) 청남면 동강리의 물고기잡기

청남면 동강리는 창강(금강)과 인접해 있어서 1970년대까지 봄부터 가을 사이에 물고기 잡이를 하며 많이 놀았다. 창강은 금강 하구둑이 생기기 전까지는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잉어, 피라미, 메기, 붕어, 숭어, 참게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혔다. 특히 참게의 경우는 음력 정월 대보름까지 새끼를 낳기 위해 바다의 밀물을 통해 이곳까지 올라왔다. 참게는 봄에는 새끼를 잡고, 가을에는 큰 것을 잡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잡는 어종이다. 큰 것을 잡을 때는 미당이나 정산장에 팔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잡은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놀았다.

물고기 잡이는 대개 10대부터 30~40대의 청장년층의 남자들



〈그림 47〉 가리

이 많이 하며 놀았다. 물고기는 대개 밤에 많이 잡았으며, 5~6명이 같이 다녔다. 물고기를 잡는 대표적인 어로도구에는 가리가 있다. 가리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어로도구인데 성인 남자의 팔 길이 정도의 원통형의 모양이다. 입구의 지름은 20cm, 바닥 쪽은 50~60cm 정도의 크기이며, 높이는 약 80cm 정도이다. 대나무의 일종인 신하대를 이용해서 틀을 만들며, 그 틀을 고정하는 것은 짚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가리는 주로 부모세대로부터 제작법을 배워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으며, 한 번 물가에 나갈 때는 가리를 2~3개씩 들고 잡았다.

또한 참게를 잡는 도구로 발치기(가칭)라는 것이 있다. 발치기는 냇가에 물 흐르는 방향으로 발을 설치하고, 그쪽으로 참게가 지나가도록 길을 만들어 둔다. 또 그 위로 움막을 치고 그 안에 호롱불을 달아둔다. 호롱불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물고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빛을 잘 관리해야만 했다. 또 그 아래에 쇠금바리를 깔아두어서 까만 참게를 쉽게 보이게끔 하였다. 또 거기서 놓치는 것을 대비하여 뒤쪽에 그물을 설치해서 참게들이 못 빠져 나가게 만들었다. 이것은 미리 냇가에 설

치해두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2~3명이 같이 가서 잡고 놀았다.(청남면 동강리, 윤장홍)

(라) 장평면 구룡리의 참게잡기

참게잡기는 가을철 놀이 중 하나이다. 벼가 익어 때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참게를 잡는다. 이 때에 냇가의 물이 내려오는 곳에 자리를 잡고 비나 서리를 피하기 위해 나무로 막을 짓는다. 그리고 밤에 물 위에 참게가 잘 보이도록 하얀 사금파리를 깐다. 발을 이용해 물 한 쪽을 막고 등잔불을 켜서 잡는데 게는 보통 손등만한 크기이다.

게는 봄이 되면 바다에서 새끼를 까기 위해 올라온다. 그러면 가을에 게를 잡는다. 많이 잡을 때에는 50마리 정도 잡았으며, 지져 먹거나 게장을 담근다. 금강 하구둑을 막아서 참게잡기 25년 전에 사라졌다. 요즘의 참게 양식은 1마리에 1~2만원 정도로 비싼 편이며, 새끼는 500원 정도에 판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마) 장평면 화산리의 참게잡기

화산리에서는 참게가 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논에서 참게를 많이 잡았다. 논을 맬 시기에, 바닷물이 많이 밀려 들어오는 만물이 되면, 직접 손으로 훔쳐서 참게를 잡았다.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훑어서 잡는다. 논에서 참게를 잡다가 뱀에게 물린 적도 있었다.(장평면 화산리, 김기돈, 박원생, 김순환)

(바) 청양읍 읍내리의 참게잡기와 고기잡이

주로 참게를 많이 잡았는데, 보통 하루 저녁에 30~40 마리 정도는 잡았다. 냇물을 막아놓고, 게가 올라올 때 손으로 잡는다.

또한, 밤에 '해고락질'을 많이 했는데, 이는 밤에 횃불을 들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말한다. 솜방망이를 만들어서 폐유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 물고기를 꼬챙이로 찔러 잡는다.(청양읍, 이택범)

(사) 대치면 장곡리의 조개잡기

쑥을 동그랗게 말아서 코, 귀에 넣으면 물이 안 들어간다. 물이 깊은 곳에 있는 칼 조개 등을 잡아서 구워 먹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아) 장곡리의 물놀이와 조개잡기

현재 진천댐 밑이 아이들이 노는 아지트였다. 얕은 냇가로, 모래가 있어서 거기서 조개을 잡고 물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어려서는 남녀가 함께 놀았다. 그래서 국민학교(초등학교) 시절에는 고학년과 저학년이 서로 섞어서 놀았다. 냇가에 가서 먼저 고학년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의 깊이를 재보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도 되는지를 알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창대(대나무 대)를 들고 가서 물이 얼만큼 차는 지를 알아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놀았다. 그리고 어른들이 어디까지만 들어가서 놀아도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는 13~

14살쯤 되면 남녀가 구분해서 놀았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자) 비봉면 관산리의 천렵

남자들은 산에 나무하러 가고, 여자들은 고사리 꺾으러 가다가 서로 몰려 앉아서 놀며 천렵을 하기도 하였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냇가에 가서 가재를 잡아서 지져먹거나 어죽을 쑤어 먹는다. 그리고 수제비와 국수를 삶아먹기도 했다.(비봉면 관산리 은골마을, 황은길)

(차) 장평면 미당리의 천렵

더운 여름날에 가까운 냇가에 가서 피라미를 잡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놀았다. 요즘엔 천렵도 없어졌다.(장평면 미당리, 서기복·김평길)

(카) 정산면 대박리의 천렵

먼저 몇몇의 장정들이 날짜를 정하고 천렵에 필요한 준비물, 즉 솥단지와 간장, 고추장 등의 양념류, 낚싯대 , 그물, 투망 등 수렵 기구를 하루 전쯤 분담하여 준비한다. 잡은 물고기를 배를 따고 깨끗이 씻어 여기에 양념을 넣어 끓여 술과 같이 먹는다. 그리고 매운탕 속에 국수를 넣어, 어죽을 끓여 먹기도 하면서 보신도 하고 더위를 식히면서 하루를 보낸다.(정산면 대박리, 정진우)

(3) 새잡기

(가) 청양읍 읍내리의 참새잡기

참새잡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참새 집을 찾아 조용히 집 속에 손을 넣어 자고 있는 참새를 잡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바작(지게 뒤에 싣는 것)을 나뭇가지로 걸쳐놓고, 이가지에 끈을 매달아 놓고 기다린다. 이 때 바작 안에는 참새가 좋아하는 쌀을 두어서, 참새를 유인한다. 그 속에 참새가 들어오면 잽싸게 끈을 잡아당겨서 참새가 안에 갇히게 한다. 이때는 방문에서 조용히 숨어서 내다보며 참새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겨울철에 광문(김장독 넣으려고)을 열어놓고, 새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빗자루로 잡는다. 또 다른 방법은 밤에 후레쉬를 가지고 대밭에 가서, 자고 있는 참새를 비추면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이 때 얼른 잡는 것도 있다.(청양읍, 이택범)

(나) 대치면 장곡리의 참새잡기

주로 참새는 가을이나 겨울에 잡았다. 잡는 방법으로는 덫을 놓아서 잡는 것과 맨손으로 잡는 것이 있다. 이렇게 잡은 참새는 친구들끼리 짚으로 불을 펴서 구워먹었다. 참새잡기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바지개 : 싸리를 이용해 소쿠리처럼 둥근 망으로 만든 것이다. 망이 크고 접혀지게 되어 있다. 방에서 지켜보다가

참새가 들어오면 새끼줄을 잡아 당겨서 잡았다.

2. 어랭이 : 싸리로 만든 것으로 새끼줄을 연결하여 매달아 놓았다. 낮에는 춥기 때문에 줄을 매달아 놓고 방에서 지켜보다가 참새가 들어오면 줄을 잡아 당겨서 잡았다.
3. 맨손 : 밤에는 지붕 추녀 밑 참새가 사는 둥지를 덮쳐서 맨손으로 잡았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다) 정산면 천장리의 참새잡기

참새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참새들이 자고 있는 밤에 참새 둥지를 노리는 방법과 또 하나는 새총으로 잡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이 3~4명씩 무리를 지어 참새둥지를 찾아다니며 직접 손으로 잡는다. 한 명은 등불을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처마 밑이나 나무 위에 있는 둥지로 한 사람을 올려서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돕는다.

또 새총을 이용한 새총놀이라는 것이 있었다. 새총은 'Y'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골라, 벌어진 끝에 고무줄을 달고 그 고무줄의 끝에 작은 돌을 놓은 다음에 탄력을 이용하여 참새를 맞혀 잡는 것이다.

때로는 새총으로 참새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총싸움을 하듯이 편을 나누어서 사람을 향해 쏘면서 놀기도 하였다. 잡은 참새는 주로 그 자리에서 구워 먹었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라) 정산면 송학리의 참새잡기

예전에 집이 초가지붕이었을 때, 또래들이 삼삼오오 모여 참새를 잡았다. 참새들은 지붕 처마 속에 집을 짓고 살았다. 많이 잡았을 때는 하루에 10마리도 잡았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잡았다. 처마의 참새집 안에 있는 참새를 주로 노린다. 참새는 인기척에 민감하며, 참새집을 잘못 건드리면 도망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참새를 잡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두 명이 참새집을 잡고 나머지 한 명이 참새집 안에 있는 참새를 손으로 쏙 꺼낸다.(정산면 송학리, 장갑주)

(마) 장평면 구룡리의 참새잡기

참새잡기는 겨울철 놀이 중 하나이다. 이것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참새가 나무 위에서 새끼를 낳을 때 나무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이들이 재빨리 횃불을 밝혀 긴 막대기로 쑤셔서 잡았다. 쑤시는 도구는 싸리를 길게 엮어 만들었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바) 화성면 화암리의 새잡기

겨울에 참새를 잡아서 구어 먹었다. 겨울에 잡는 참새가 일년 동안 많이 먹어 살이 쪄서, 맛이 좋다고 한다. 특히 납향날에 많이 잡아먹었다.(화성면 화암리, 송필현·조병철·최종기·송요선)

(4) 사냥하기

(가) 장평면 구룡리의 사냥가기

사냥은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한두 번 정도 했다.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 토끼를 잡았다. 토끼를 잡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토끼 몰이 하자~."라고 하며 무리지어 몰려다니면서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직접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삐삐선을 이용해 올가미를 만들어 잡기도 했다. 한편 토끼가 자주 다니는 곳에 칡넝쿨로 만든 덫을 놓기도 했다. 덫으로 잡는 방식은 새를 잡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장평면 구룡리, 유수, 최만수, 유종근, 김용구, 김재원, 서충석)

(나) 청양읍 읍내리의 토끼잡기

토끼잡기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했다. 올무와 덫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올무를 사용해서 토끼를 잡을 때에는, 토끼가 잘 다니는 길을 미리 알고, 그 길의 나무에 올무를 설치한다. 그러면 토끼가 다니다가 그 올무에 다리가 낀다. 토끼는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올무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산 밑에서부터 토끼몰이를 다 같이 하면서 올무로 유인해서 잡는 방식도 있다.

덫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은, 칡으로 덫을 만들어 설치하며, 토끼가 이것을 먹게 되는데, 이때 칡이 끊어지면 덫이 풀리면서 잡힌다. 자신이 놓은 덫에 토끼가 잡혔을 경우, 그 장소를 알면

누가 미리 갖고 가기 때문에, 몰래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장소에 몰래 덫을 놨다. 덫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몰래 한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다) 청양읍 읍내리의 물새 알 꺼내기

50년 전만 해도 장마철에 산에서 물새알을 꺼내서 먹었다. 당시에는 장작을 많이 써서, 산이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산에 자연적으로 고랑이 생기거나 절벽이 되었다. 그곳에 물새가 구멍을 뚫어서 알을 까놓는다. 그러면 그 알을 꺼내서 먹었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라) 청양읍 읍내리의 꿩 잡기

꿩을 잡기 위해 콩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청산가리를 넣는다. 그리고 그 위를 초로 봉해서, 꿩이 눈치 채지 못하게 위장한다. 칡을 쓸어 모아놓고, 여물 포대기 위에 콩을 같이 넣어서 놓으면, 꿩이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마) 정산면 천장리의 멧돼지사냥

멧돼지는 가끔 산에서 내려와 논밭을 뭉개버려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동물이다. 때문에 멧돼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냥을 하여 잡았다. 사냥의 방법은 보통 올무를 이용해 덫을 놓는 경우가 많으나 때에 따라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땅을 파서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었다. 개를 이용하거나 총을 사용하는

전문 사냥꾼도 있었다. 개를 끌고 다니는 사냥꾼은 창을 가지고 다니며 멧돼지를 잡기도 했다. 멧돼지사냥은 50~60년 전까지 성행하였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바) 살가지(살쾡이) 잡기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천장리는 예전부터 살가지(살쾡이)가 산에서 많이 내려왔다. 살가지들은 내려와서 집에서 키우던 닭을 물어가 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살가지 잡기를 자주 하였다.

주로 덫을 이용해 잡았다. 우선 긴 육면체의 통로 형태의 나무 상자를 만든다. 막혀 있는 한쪽으로 닭을 두고 반대편은 열어두어 살가지가 들어오게끔 한다. 가운데에는 중간 문을 만들어 놓는데, 이 문은 발판에 연결해두어 그것을 누르면 문이 닫히게 되어 있다. 살가지가 들어오면 발판을 밟아서 살가지를 가두게 한다. 살가지가 사라진 이후부터 살가지 덫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5) 십자수

(가) 대치면 장곡리의 십자수

십자수 틀은 예전에는 떡을 치는 체바퀴를 빼서 만들거나 어른들이 대나무로 +자 틀을 만들어줬다. +자로 된 틀 위에 광목천을 씌우고, 잡아 당겨서 팽팽하게 한 다음 십자수를 놓았다.

색실은 10가지 정도를 사서 썼다. 십자수는 겨울에 여자아이들이 방에 모여서 많이 하였으며, 선물을 해서 주는데 주로 도장집(도장주머니), 필통 등을 많이 만들었다. 십자수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배운다. 이렇게 배운 십자수로 본인이 직접 방석, 옷걸이 등을 시집 갈 때에 가지고 간다. 십자수는 주로 언니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데, 실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을 몰래 훔쳐서 배우기도 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6) 화류놀이

(가) 정산면 송학리의 삼월삼짇놀이

송학리에서는 음력 3월 3일이 되면 여자들이 방안이나 인근 절 주위에 모여 하루 논다. 한 사람이 '삼월삼짇날 놀자'라고 제안을 하면 모여서 논다.

주로 20여 명의 여자들이 방에 모여서 음식을 해 놓고 놀았다. 이때에 누름적이라 하여, 밀가루에 김치와 파를 넣어 누루미를 부쳐 먹는다. 아주머니들은 장구를 치면서 놀기도 한다. 장구는 아래 마을인 해남리의 아주머니가 잘 쳤다.

이 날은 또한 절에 가서 놀기도 한다. 상송에 부엉사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위가 매우 한가롭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를 떠들며 놀아도 아래동네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 또래인 70대 후반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노래가락'이나,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냐--", '창부타령'인 '얼씨구, 아

니 놀지는 못하리라---'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 날은 방에서 놀다가, 후에 마루로 나와 논다. 그리고 한적한 부엉사 절로 옮겨 다니면서 하루 종일 논다.(정산면 송학리, 표연이)

(나) 비봉면 신월리의 봄놀이

봄철에 여자들이 산으로 가서 장구치고 놀았다. 이 동네에서는 주로 뒷동산에 가서 놀았다. 풍장은 큰 일이 있을 때에 친다. 이번 봄에도 여자들이 산에 가서 놀았다.(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다) 운곡면 신대리의 꽃놀이

냇물이 풀리자마자 후풍이 불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필 즈음 모임의 대표자 몇몇 사람이 날짜와 장소를 잡아 집집마다 알린다. 모임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거나 마을 모임의 공동경비로 충당해서 지출하기도 하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준비한다.

모임에 따라 두세 명의 소리꾼을 선정하여 동행하기도 하여 놀기도 하며, 놀이 중간에 각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 놀이가 끝나면 이들은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되돌아온다.(운곡면 신대리, 김영자)

(라) 청양의 화류놀이

3월을 맞아 일기가 청명한 날을 택해서 유행과 농부와 부녀자들은 각각 모여, 들과 산으로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 놀이를 갔

는데 이를 화류놀이라고 한다. 초목은 새싹이 돋아나고, 일기는 온화하며, 화조도 기뻐서 날아다니는 봄을 즐기기 위하여 떼를 지어 교외로 나가는 것이다.

화류놀이를 갈 때는 미리 통문을 돌려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각자의 기호에 따라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긴다. 문장에 능통한 사람들은 즉흥시나 시조를 지어 읊고. 부녀자들은 안방가사를 읊으며, 농부와 아이들은 민요를 불러 흥을 낸다.

이때에 진달래꽃이 한창이므로 이것을 많이 꺾어 머리에 꽂아 멋을 부리기도 하고, 꽃방망이를 만들기도 한다. 산에서 돌아오는 나무꾼의 지게 위나 소바리 위에 진달래꽃이 꽂혀 있는 것도 이 무렵이다. 화류놀이 때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제화제화 제화하
얼씨고절씨고 좋을시고
춘삼월 화전놀이를 간다
춘향의 방문 앞
이도령 걸음으로
아그작 아그작 걸어서
거들거리고 나간다.

세모시 마당앞에
금자라 걸음으로
아그작 아그작 걸어서
거들거리고 나간다
둥그다당실 동그다당실.

에라 두덩실
연자버리고 마-거리고
거들거리고 나간다.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7) 백중놀이

(가) 목면 본의 1리 백중

백중은 머슴들이 하루 노는, 머슴의 명절이다. 따라서 백중장이 별도로 섰다. 이날 주인은 머슴에게 옷도 새로 해 주고, 돈도 주면서 하루 잘 놀다오라고 보낸다.(목면 본의 1리 무수동, 김홍식)

(나) 남양면 구룡리의 머슴날

머슴날은 주인이 머슴에게 돈을 주며, 하루 동안 놀게 해 주는 날이다. 머슴은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개고기 한 그릇을 사서 주인에게 바쳤다.(남양면 구룡리, 김동수 / 목면 안심리, 정명교)

(다) 화성면 화암리의 백중놀이

백중 때 머슴들이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노는 날이었다. 용역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는 날이었다. 따로 백중놀이는 없었다.(화성면 화암리 송필현, 조병철·최종기)

(라) 비봉면 신월리 1구의 백중

백중을 머슴날이라고 한다. 청양에 칠월 열이틀 날에 백중장이 서면, 술을 먹고 싸우는 일도 많았다.(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 외)

(마) 화성면 화암리의 머슴장

머슴장이라고도 하며 이날은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이 쉬는 날이었다.(화성면 화암리, 송요선)

(바) 청양의 백중

7월 15일은 '백중절', '백종일' 또는 '망혼일'이라고 한다. 이 날에는 망혼을 위하여 절에서 제를 올려 극락으로 인도한다. 백중절엔 밀가루에 박잎이나 깻잎을 넣어 지지고 햇감자와 밀가루로 전을 부쳐 사당에 제향한다. 7월 보름을 전후하여 마을 형편에 따라 택일한다. 이 날을 '초연' 또는 '머슴날'이라 하여 호미씻기를 한다.

이때쯤엔 힘든 농삿일도 거의 끝나 호미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이 날은 농사가 잘된 집의 머슴을 뽑아 상을 내리고 술로 노고를 위로한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사) 청양의 호미씻이

호미씻이 날을 머슴날이라 부르는데, 7월 15일을 전후해서 그 마을 형평상 적당한 날을 택하여 정한다. 각 가정에서는 제각기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 노래와 춤으로 하

루를 즐긴다.

농부들의 휴일인 만큼 농악을 치며 흥겹게 놀고 그 마을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술을 권해 위로해 주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삿갓을 씌우고 소위에 태운 후 마을을 돌아다닌다. 그 머슴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한턱낸다. 호미씻기는 농사일이 거의 끝나 호미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호미를 잘 씻어 둔다는 데서 나온 풍습이다.(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8) 서울구경놀이

(가) 대치면 탄정리의 서울구경놀이

서울구경놀이는 옛날에 농촌에 사는 어린이들은 서울에 가는 것이 꿈이었고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서울에 갔다 온 어린이가 부럽기도 하여 아버지에게 조르기도 한다. 이 놀이는 그 마음을 달래주려 순진하고 착한 어린이를 짓궂은 어른들이 장난치려고 만든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놀이의 방법은 어른은 두 손바닥을 펴서 어린이의 두 귀에 대고 위로 들어올린다. 그 후 "서울이 보이니? 안보이니?" 하고 물어본다. 위로 올라간 어린이는 서울을 보려고 두리번거린다.

"안 보이는 데요"라고 하면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아프게 하고 더 높이 들어올린다. 어린이는 귀가 아프니까 보인다고 소리친다. 이때 옆에서 보고 있던 어린이들은 정말 보이는 줄 알

고 자기도 보여 달라고 졸라댄다.(대치면 탄정리, 복진세)

(9) 호드기불기

(가) 정산면 덕성리의 호드기불기

악기가 제대로 없었던 시절에, 농촌 어린이의 악기놀이로 호드기 부는 것이 있다. 이른 봄부터 개나리, 버드나무, 미루나무가 물이 올랐을 때, 껍질이 쭉 빠지게 하여, 이것으로 호드기를 만들어서 불었다. 버드나무로 만든 호드기를 '버들피리', 보릿대를 잘라서 만든 것을 '보리피리'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호드기를 '호떼기' 라고 부른다.(정산면 덕성리, 조재순)

(나) 돌피 불기

돌피잎을 따서 입으로 부는데, 빽빽 소리를 내면서 피리 부는 흉내를 내며 논다.(화성면 장계리, 이순이)

(10) 역마싸움

(가) 청양읍 송방리의 역마싸움

지금과 같이 함을 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 친구들은 일단 신부의 집에 들어가 함을 주고 "세수하려 하니 놋대야에 물을 받아 오라"라고 한다.

놋대야에 물을 받아오면 물을 쏟아 버리고 미리 준비한 보자

기에 대야를 넣어가지고 가려 한다. 그러면 신부집에서 난감해 질 수밖에 없다. 놋대야가 무척 비싸기도 하지만 미풍으로 생각하고 신랑 친구들을 달래 보려 놋대야를 사려 한다. 신부집에서는 헐값에 사려고 하고 신랑 친구들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그런 중에 말다툼이 오가며 역마싸움이 벌어진다.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대야 값'이라 하여 신랑 친구들은 그 돈으로 주막에 가서 술을 먹으며 신부에게 빼앗긴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을 달랜다.(청양읍 송방리, 이서동)

(11) 읍내 서커스

(가) 읍내 공설운동장의 서커스

농한기에, 청양 읍내의 공설 운동장에서 서커스단이 자주 와서 서커스 공연을 했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12) 운동회

(가) 장곡리의 운동회

음력 8월 16일에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한다. 전 날(추석) 제사 지낸 과일과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나누어 먹었다. 동네마다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육상대회를 열었는데, 참가하는 선수 전원에게는 국밥을 줬다. 1등을 한 팀에게는 우승컵과 공책 5권을 줬다. 7개 마을에서 선수가 나왔다. 1등을 한 팀

이 작년에 우승을 한 학교에 가서 우승컵을 가지고 왔다. 2등을 한 팀에게는 공책 3권, 3등을 한 팀에게는 공책 1권 등을 줬다. 지금도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방식과 상품을 주는 것이 똑같다.

오재미 놀이를 했다. 오재미 놀이는 동그랗게 큰 공이 청색과 백색 두 개가 있는데,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먼저 공을 터트리는 이기는 경기였다. 오재미를 남자들은 못만들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5개씩 팥을 넣고 만들어왔다. 각자 하나씩 쥐고서 터트렸다. 이기는 팀에게 공책을 줬다.

선생님 혹은 학부모랑 바톤을 넘기는 이어달리기가 있었다.

철사로 둥글게 만든 둥굴레 바퀴가 있었는데, 막대기로 둥굴레 바퀴를 굴려서 그걸 어느 지점에 먼저 돌아서 오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있었다.

운동회 때 덧신을 광목으로 만들어서 신고 달리기를 했다. 그 당시에 실내화가 없었다.(대치면 장곡리, 이신자)

(나) 신대리의 운동회(운곡 초등학교)

운곡국민학교(초등학교) 운동회는 마을의 큰 잔치였다. 마을에 아이들이 많았고, 부모님들은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주했다고 한다. 줄다리기와 달리기는 백미로 꼽히고, 활동사진(영화)도 특별히 상영되기도 했다고 한다.(운곡면 신대2리, 최병정, 명제경, 배태순, 노영자, 윤주선)

(다) 읍내리의 운동회

가을철이 되면,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주로 청군과 홍군으로 편을 크게 둘로 정했다. 운동회 놀이는 달리기, 기마전, 밤따먹기, 굴렁쇠, 기마전, 통나무 쓰러뜨리기 등이 있었다. 밤 따먹기는, 밤을 실에 달아 놓고, 빨리 달려온 사람이 먹는 경기이고, 통나무 넘어뜨리기 경기는 큰 통나무를, 10명씩 붙잡고 다니면서, 상대편의 통나무를 땅에 엎어뜨리는 경기이다.

운동회뿐만 아니라, 마을의 잔치로 여겼던 것 중 또 하나의 대회는, 지역 학교 육상대회인데, 각 학교마다 뽑은 육상 선수들이 시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승기를 탄 동네는 큰 잔치를 벌였는데, 제보자의 기억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컸던 것으로 기억되었다.(청양읍 읍내리 이택범)

(13) 굴 속 아지트놀이

(가) 구룡리의 굴 속 아지트 놀이

남양면 구룡리에서 시집 온 이금선은 어렸을 때인 일제시대에 집에 폭격을 맞을까봐 굴을 파놓았다. 이 굴 안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았다.

대개 15~20세 정도에 이 굴 속 아지트에서 놀았는데, 화투놀이와 노래, 길쌈 등을 배웠다. 아지트에서 모여 노는 또래 친구들이 5명 정도였다. 여름에 굴 안에 들어가면 시원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이곳에서 많이 놀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뜨개질, 수놓는 일, 길쌈 하는 일로 바빠서 공기놀이, 자치기, 고무줄놀이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 노래는 '질레꽃'과 같은 가요를 주로 불렀다. 친구들이 시집 간 이후에는 집에서만 머무르며 십자수, 뜨게질, 길쌈, 베개에 수놓기, 삼베옷을 만드는 일 등을 했다.

지금은 집터가 없어져서, 굴도 사라지고, 그 곳이 밭이 되었다.(비봉면 갈마동, 이금선)

◆청양의 두레 전체 제보자 명단

1) 현지조사 제보자 명단

(1) 대치면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이신자(여, 61, 개미식당 운영, 토박이, 21살에 서울로 떠난 뒤 2000년에 돌아옴), 2007. 8. 12, 제보자의 집, 오수지·김연주 조사.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이병예(여, 82, 대치면 형산리 출신), 2007. 8. 12, 제보자의 집,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강석구(여, 76, 운곡면 신대2리 출신, 17세에 시집 옴), 2007. 8. 12, 강석구씨의 집,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유재춘(남, 54, 대치면 시전리 출신, 현재 서울 제기동 거주), 2007. 8. 12, 강석구씨의 집,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김명환(남, 65, 3대째 거주, 현 광금리 1반 반장), 2007. 8. 12, 제보자의 집,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김금순(여, 77, 대치면 농소리 출신, 16세 때 시집 옴), 2007. 8. 13, 이화리 마을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염태섭(남, 77세, 농업, 2대째 거주, 파주 염씨), 2001. 7. 27., 제보자의 집, 정형호·송지영 조사.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강재금(여, 78세, 충청도 출신, 24살 시집 와서 32살에 남편이 사망, 2남 2녀, 기독교), 2001. 7. 27., 제보자의

집, 송지영 조사.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노광호(남, 57세, 7대째 거주, 대졸, 전직 교사, 기독교, 제관과 이장 경력, 월남전 고엽제 피해, 생업으로 양잠, 동충하초 재배), 2001. 7. 27., 마을회관, 김혜연·이동아 조사.

(2) 비봉면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은골마을), 황은길(남, 66), 2007. 8. 10., 정자나무 아래,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은골마을), 곽창식(남, 71), 2007. 8. 10., 정자나무 아래,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3반(문화마을), 명노숙(여, 70), 2007. 8. 11., 마을회관 앞 정자,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3반(문화마을), 김종목(여, 74), 2007. 8. 11., 마을회관 앞 정자,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3반(문화마을), 윤금모(여, 74), 2007. 8. 11., 마을회관 앞 정자,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3반(문화마을), 명순화(여, 74), 2007. 8. 11., 마을회관 앞 정자,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이풍호(남, 84), 2007. 8. 12., 청양읍 노인회관,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비봉면 갈마동, 이금선(여, 73, 남양면 구룡리 출신, 21세 때 시집 옴), 2007. 8. 13, 제보자의 집,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비봉면 신월리 1구, 조성매(여, 69세, 주 제보자), 명성옥(여, 61세), 김천수(여, 77세), 정풍자(여, 61세), 2001. 7. 26., 마을 공터, 정형호·서종원 조사.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명제헌(남, 73세, 운곡면 위라리에서 30세때 이주), 최순길(남, 68세, 3대 거주), 2002. 7. 25., 녹평리 노인정, 정형호·류재인 조사.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이성찬(남, 80세, 14대째 거주, 마을 노인회장), 2002. 7. 25., 제보자의 집, 정형호·류재인 조사.

(3) 운곡면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2구, 강일석(여, 68), 2007. 8. 10., 약국, 심효윤 조사.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2구, 여규은(여, 71), 2007. 8. 10., 약국, 심효윤 조사.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이동재(남, 82), 2007. 8. 10., 운곡면 경로당,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운곡면 위라2리, 명연순(남, 69), 2007. 8. 11., 제보자의 집,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운곡면 신대2리, 최병정(여, 78), 2007. 8. 11., 정자나무 아래,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운곡면 신대2리, 명제경(여, 76), 2007. 8. 11., 정자나무 아래,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운곡면 신대2리, 배태순(여, 71), 2007. 8. 11., 정자나무 아래,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운곡면 신대2리, 노영자(여, 59), 2007. 8. 11., 정자나무 아래,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운곡면 신대2리, 윤주선(여, 85), 2007. 8. 11., 정자나무 아래,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이의유(여, 75세, 광천리에서 시집을 옴), 조정인(여, 80세), 2002. 7. 26., 마을 정자나무 아래, 정형호·류재인 조사.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명해동(남, 71세, 토박이), 명효식(남, 73세, 토박이), 명제빈(남, 77세, 마을 상쇠), 2002. 7. 26., 마을 정자나무 아래, 정형호·류재인 조사.

(4) 장평면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유수(남, 67), 2007. 8. 11, 마을 슈퍼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최만수(남, 71), 2007. 8. 11, 마을 슈퍼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유종근(남, 73), 2007. 8. 11, 마을 슈퍼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김용구(남, 83), 2007. 8. 11, 마을 슈퍼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김재원(남, 72), 2007. 8. 11, 마을 슈퍼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서충석(남, 76, 3대째 거주), 2007. 8. 11, 마을 슈퍼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김기돈(남, 73), 2007. 8. 11, 마을회관 안,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박원생(남, 82), 2007. 8. 11, 마을회관 안,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김순환(남, 78, 마을 노인회장), 2007. 8. 11,

마을회관 안,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정만오(남, 67, 미당리 출신), 2007. 8. 11, 미당리 마을회관 앞 정자나무,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손분열(여, 84, 부여 남면 삼룡리 출신, 20살 때 미당리로 시집 옴), 2007. 8. 11, 미당리 마을회관 앞 정자,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장평면 낙지리, 윤갑중(남, 76세, 4대째 거주), 심윤섭(남, 73세, 3대째 거주), 2001. 7. 29., 김혜연·이동아 조사.
청양군 장평면 분향1리 조민행(남, 78세, 4대째 거주), 김완수(남, 58세, 중림리에 살다가 30년전 이사), 2001. 7. 29., 김혜연·이동아 조사.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김평길(남, 73세, 5대째 거주), 서기복(남, 83세, 청남면 내직리 출생), 미당노인회관, 2002. 7. 23. 정형호·류재인 조사.
청양군 장평면 도림리, 강영순(남, 67세, 진주 강씨, 4대째 거주, 79년에 온천 발견, 89년부터 개발, 온천개발 책임자), 2002. 7. 23., 도림리 온천개발사무실, 정형호·류재인 조사.

(5) 정산면

청양군 정산면 송악리, 표연이(여, 52) 2007. 8. 9, 제보자의 집,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마치1리, 이용상(남, 76, 4대째 거주), 2007. 8. 12,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마치1리, 김제삼(남, 74, 청남면 천내리가 고향), 2007. 8. 12,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마치1리, 이옥지(여, 74, 장평면 미당1구 절골에서 시집옴), 2007. 8. 12,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마치1리, 이복형(여, 70,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에서 22살에 시집 옴), 2007. 8. 12,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마치1리, 최복순(여, 57, 청양읍 읍내리에서 25살에 시집옴), 2007. 8. 12,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표연목(남, 69), 2007. 8. 14., 이덕우·심효윤·김민우·이연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이덕봉(남, 66), 2007. 8. 14., 이덕우·심효윤·김민우·이연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장갑주(남, 72, 1936년생, 6대째 거주), 2007. 8. 9, 제보자의 집,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정산면 서정1리, 박수환(남, 70, 3대째 거주), 2007. 8. 10, 서정1리 마을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정산면 서정1리, 장수덕(남, 73, 정산면 덕성리출신, 40년 전에 서정1리로 이주, 현 노인회장), 2007. 8. 10, 서정1리 마을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정산면 서정1리, 김영환(남, 70, 1963~64년부터 서정1리 거주), 2007. 8. 10, 서정1리 마을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정산면 서정1리, 박오상(남, 54, 정산 목공소 운영), 2007. 8. 10, 정산목공소(제보자의 가게),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정산면 서정1리, 이옥순(여, 67, 정산면 송학리 출신), 2007. 8. 10, 서정1리 마을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정산면 서정1리, 노원자(여, 67, 부여출신), 2007. 8. 10, 서정1리 마을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 2007. 8. 11, 제보자의 집,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김원중(남, 69세, 농업, 3대 거주, 달궁소리 충남지역 기능보유자,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2001. 7. 29., 제보자의 집, 정형호 조사.

청양군 정산면(定山面) 용두리(龍頭里) 1구, 이신우(남, 66세, 경주 이씨, 3대째 거주), 김흥배(여, 69세, 공주시 국사봉이 고향), 2001. 7. 27., 서종원 조사.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오영삼(남, 58세, 3대째 거주), 2001. 7. 24., 이동아 조사.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이덕종(남, 73세, 농업, 송학리 상쇠, 풍장 60년 경력, 호의적), 제보자의 집, 2002. 7. 23. 정형호·류재인 조사.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吳永範(남, 69세, 농업, 4대째 거주, 송학리 동화제로 충남무형문화제 지정보유자, 호의적이고 기억력 우수), 제보자의 집, 2002. 7. 23. 정형호·류재인 조사.

(6) 청남면

청양군 청남면 상장2리, 이홍익(남, 72, 3대째 거주), 2007. 8. 10,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청남면 상장2리, 길영섭(남, 54, 6대 째 거주), 2007. 8. 10,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청남면 상장2리, 송갑순(여, 74, 아산리에서 시집옴), 2007. 8. 10,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청남면 상장2리, 진재순(여, 75, 인양리에서 시집옴), 2007. 8. 10,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청남면 상장2리, 이봉수(여, 72, 수목리에서 시집옴), 2007. 8. 10, 마을회관 앞,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한익희(남, 74) 2007. 8. 10, 정자나무 밑, 정형호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청남면 내직2리, 김만배(여, 73, 1935년생, 정산면 학암리 출신), 2007. 8. 9, 내직2리 마을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 윤장흥(남, 68, 16대째 거주, 현 마을 이장), 2007. 8. 10, 동강리 마을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 윤석훈(남, 60, 동강리 출신, 현재는 대전 거주.), 2007. 8. 10, 동강리 마을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정철규(남, 91), 2007. 8. 14, 청양군 청남면 노인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소사영(남, 74), 2007. 8. 14, 청양군 청남면 노인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윤종열(남, 78), 2007. 8. 14, 청양군 청남면 노인회관, 김승유·오수지 조사.

청양군 청남면(靑南面) 왕진리(汪津里) 1구 원왕진(元王津), 김정운(남, 67세, 농업, 2대째 거주, 경주 김씨), 2001. 7. 28., 정형호·서종원 조사.

청양군 청남면 상장 1리, 우성림(남, 58세, 3대째 거주, 새마을 지도자, 자녀 6남매), 마을 정자나무, 2001. 7. 28 , 홍정모·김선숙 조사.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남, 63세, 농업, 19대째 거주, 연양 김씨, 자녀 4남매, 16세부터 12발 상모를 돌리고, 19세부터 법고잽이 역할을 함. 벼농사 이외에 주로 수박 농사 지음. 돌모와 채를 직접 수리·제작함. 은산농악에 가서 상모를 돌리기도 함.), 2001. 7.

29., 마을회관, 정형호 조사.

청양군 청남면 천내 2리, 전철규(남, 85세, 담양 전씨, 17대째 거주, 5년간 유사, 아들이 이장), 2001. 7. 28., 김혜연, 이동아 조사.

(7) 청양읍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복임순(여, 74, 대치면에서 시집옴), 2007. 8. 13, 마을회관 안, 이덕우 · 이연주 조사.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이택범(남, 60), 2007. 8. 12., 대전 농약사, 이덕우·심효윤 조사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이계복(남, 84), 2007. 8. 13., 청양읍 마을회관, 심효윤·김민우 조사.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김동구(남, 72), 2007. 8. 13., 청양읍 마을회관, 심효윤·김민우 조사.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1구, 노병두(남, 66세, 농업, 16대째 거주, 교화 노씨), 2001. 7. 27., 제보자의 집, 정형호·송지영 조사.

(8) 화성면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윤경희(남, 79), 2007. 8. 13., 제보자의 집, 이덕우·심효윤·김민우·이연주 조사.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강연석(남, 82세, 진주 강씨, 청양읍 장성리 2구에서 10살 때 용당리로 이주), 2002. 7. 24., 용당리 노인정, 정형호·류재인 조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이순이(여, 70세, 보령군 청소면 평전리에서 시집 옴. 호의적), 2002. 7. 25., 제보자의 집, 정형호·류재인 조사.

(9) 목면

청양군 목면(木面) 본의(本義) 1리 무수동(無愁洞), 김홍식(남, 76, 안동 김씨, 공주군 의성면 어천리에서 6. 25때 이주.), 윤종오(남, 78, 칠원 윤씨, 4대째 거주), 2001. 7. 28., 마을 입구 정자나무, 정형호·서종원 조사.

청양군 목면 본의2리, 김천식(남, 61세, 10대째 거주, 동막리 이장), 2001. 7. 28., 이동아·김혜연 조사.

(10) 남양면

청양군 남양면 온양리, 정일순(여, 74세, 하동 정씨, 부여군 외산면 저동에서 출생, 16세때 온양리로 시집을 옴. 4남 1녀, 54살 때 남편 사별, 꼬댁각시 노래 가창능력 우수, 기억력 뛰어남, 매우 호의적), 2002. 7. 24., 제보자의 집, 정형호·류재인 조사.

청양군 남양면(南陽面) 매곡리(梅谷里) 1구, 최창호(남, 67, 5대째 거주, 현 이장), 2002. 7. 25., 마을 정자나무, 정형호·서종원 조사.

2) 이완주가 2000년 조사 당시의 제보자

※ 출전 : 이완주, 「청양지역 민속놀이에 대한 조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2.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복진세(남, 75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 장광현(남, 80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이서동(남, 86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청양군 목면 안심리, 김익수(남, 63세), 김재복(남, 67세), 권오현(남, 65세), 김용록(남, 45세), 정연왕(남, 65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지유순(여, 73세), 유향준(남, 69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김동만(남, 68세), 김명환(남, 65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이태근(여, 66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윤홍수(남, 69세), 백용태(남, 78세), 김윤종(남, 62세), 양매임(여, 73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강희배(남, 72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복기율(남, 80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한국세시풍속연구』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저서『양주별산대놀이』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외 다수

청양의 전통오락과 놀이문화

인 쇄 : 2007년 10월 25일
발 행 : 2007년 10월 30일
발행처 : 靑陽文化院(전화 : 041-943-4774)
발행자 : 정 재 권(전화 : 041-943-8889)
인쇄처 : 대명제책사(전화 : 02-924-5049)

※ 이 책은 군비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